



2

1981

문예출판사

조선아 너를 빛내리

해쫑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계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 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2호

(루게 400)



◆◆◆◆◆◆◆◆◆◆ 차 례 ◆◆◆◆◆◆◆◆◆◆

조선아 너를 빛내리	2
위대한 날에	7
자랑하노라 내가 지닌 오늘의 그 영광!	8
당중앙의 불빛 우러러	9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에 깃든 어버이사랑	12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당의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20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25
문예사상과 이론	25
당이 밝혀준 종자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이론은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넓은 길을 열어주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방도	31
당에 대한 생각	37
백두산	38
대양과 대륙 넘어	39
백두산기슭에서	40
어머니당이여	41
금꿀의 구름다리	42

은혜로운 사랑을 받아...	43
삼지연의 아침에	44
금강의 모습	46
녀전사의 그 기쁨	48
진주담	49
우리 문학예술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정중히 모실데 대한 당의 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	50
동지애의 노래	58
동지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노래	59
꽃으로 핀다오	61
강한 바람	62
그전엔 다 몰랐단다	70
밤길	71
그를 알기까지	78
은혜로운 나의 대학	86
사랑의 활무대를 두고	87
친근한 길안내자	89
잊을수 없는 나날	90
나의 길동무	91
전쟁시기의 추억	93
작가와 함께	94
우리 시대의 작가로 성장하기까지	95
길동무에 대한 추억	97

운전사들	99
새출발	108
용해공의 어머니 (외 1 편)	114
강편산에 달이 떴네	114
교대 후의 한때에	115
그 어떤 부름과도 바꿀수 없는... ..	116
첫걸음 첫자욱 옮기며	117
생소한곳으로	118
온 공장이 너를 안다	119
교대와 교대를 이어	120
조선아, 너의 강토는	121
대오를 따라	122
전변되는 땅에서	132
주체형의 인간의 참된 삶에 대한 진실한 형상	134
공장의 주인	140

위대한 날에

최영화

참으로 위대한 날이다
후날에도 먼먼 후날에도
사람들은 당을 말할 때
마음 뜨거이 이날을 더듬으리

흐르는 해와 달이
우리 당이 태어난 이 기쁜 날을
그토록 소중히 간수해온것도
이날을 위함이 아니었더나

나의 심장도
이 순간을 위해 뛰었노라
절개높이 간직한 피방울로
한초한초를 세여가며
얼마나 기다리던 력사의 순간인가

불덩이같이 터지는 충성의 환호가
폭풍치며 밀려간다, 주석단으로 주석단으로
위대한 태양과 함께
아, 이 시대가 맞이하는
위대한 향도성이 빛난다!
세계에
그 광휘로운 빛발을 뿌리며...

력사여 말하라
너도 이 위대한 순간을 위해
흘러오지 않았더냐, 수천년을...
두번다시 조선에 대통운이 튼
이 순간의 주석단은
백두의 령봉처럼 승엄하도다!
우주의 해돋이로 찬란하도다!

눈부시는 빛발을 안고
수령님을 우러러
당중앙을 우러러
주석단 가까운 자리에서

가슴터지게 만세를 부르는 나의 두볼로는
더운 이슬방울이 흘러내리노니
사람들이여, 탓하지 말아다오
이 기쁜 날에 눈물을 흘린다고...

진정 눈물없이 는 맞이할수 없는
력사의 이 시각
-수령님께선들 얼마나 기쁘시랴
한평생 길없는 초행길을 헤치시며
그처럼 힘들여 이룩하신 주체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는 혁명의 향도성이
당의 앞길에 찬란히 빛나고있음이!
인류의 앞길에 빛을 뿌리고있음이!

생각할수록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수령님의 기쁘신 모습을 우러르면
어찌할길 없는 환희와 함께
향도의 빛발이 넘치여
가슴속에서 터져오르는 행복, 행복!

한껏 부푸는 기쁨없이 는
정녕 생각할수 없노라
이 행복을
이는 조선만이 간직할수 있고
우리 당만이 누릴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인 조선의 행복이거니

바로 이때문에
우리 인민은 우리 대에
수령님과 당중앙을 함께 받드는 이 영광을
궁지높이 말하는것이 아니냐
한없이 겸손한 우리 인민이건만
이 하나만은, 이 하나만은
세계에 소리높이 자랑하는것이 아니냐

참으로 위대한 날이다
이날에
내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리는것
그것은 조선혁명이 동트던 그 언덕에서
조선의 별을 우러르며
말없는 가슴에
변함없는 의리로 충성을 다지던
청년전위들의 그 순결한 마음이어라!

-1980년 10월-

자랑하노라 네가 지닌 오늘의 그 영광!

정문향

하늘땅이 시작되던
그날을 이야기하는가
우뢰와 번개, 사나운 비바람
내리쪼이는 폭양과 만년 빙설이
순간에 나타나고 순간에 사라지며 갈마드는
산악우에 나는 서있다

나는 여기서 창창한 조국의 하늘을 본다
나는 여기서 끝없는 조국의 판도를 본다
유구한 수천년의 역사를 떠받들며
푸른 안개를 휘감고
설레는 천고밀림우에 높이 솟아
머리 흰 산악이여!

백두산, 백두산
너는 가장 고난에 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가장 빛나는 조국의 영광을 지녔나니
위대하여라!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이
땅우에 솟아 하늘에 닿은 성산우에
눈부신 향도의 빛발이
누리를 비치며 불타는 영광의 봉우리여!

나는 여기서 시대와 시대를 넘어
세기를 비치는
혁명의 그 빛발을 본다
나는 여기서
인간이 도달한 가장 빛나는
존엄의 그 높이를 본다

아, 백두산 백두산
너는 찬란한 해발로
천고의 빙설을 녹이며
타오르는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첫 고고성을 올리며
조선의 빛나는 미래가 태어나던곳

위대한 당의 뿌리가 내려지고
빛나는 당의 그 빛발이
온 천지를 비치며
노을처럼 불타던
역사의 고향이여

너는 그로 하여 이 나라의 유구한 역사우에
끝없는 세기의 미래를 밝혀든
가장 성스러운 영광의 산악으로 솟았고
너는 그로 하여 그 엄혹한 투쟁의
년대우에서
가장 빛나는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향도의 별을 받들어 조국의 상상봉에 솟았나니-

아, 백두산 백두산
너의 그 이름, 그 모습
그 기상을 나타내는 말은
이 세상에 천만가지 있어도
자랑하노라 오늘에 네가 지닌 그 영광
그보다 더 크고 높고 빛나는 말은 없어라
아, 백두산 위대한 당의 빛발 찬란한 산상이여!

당중앙의 불빛 우러러

전동우

1

봄.

봄이 온다.

봄이 오는 조선의 2월.

눈녹는 땅에서 새싹이 움트고 물오른 아지들에
꽃방울이 부른다.

봄은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시한번 젊어지고
다시한번 비약하는 계절.

봄은 우리의 마음속에 노래가 샘솟고 새희망이
약동하는 계절.

우리의 마음 어찌하여 이다지도 기쁨으로 설레
이고 행복으로 차넘치는가.

2월에 시작되고 4월에 꽃피는 조선의 봄,

봄이 온다.

이 나라 멀고가까운 수천 골짜기와 깊고열은
수만 계곡들에서 시내물이 흘러내린다. 시내물은
흘러 크나큰 강물이 되어 넓고넓은 바다로 흘러
간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도 시내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고흘러 오직 하나의곳으로 달리여간다.

대건설장 아슬한 첩탑우에서도, 새해농사차비
서두르는 들판에서도, 기적소리 드높은 궤도우에
서도, 지하천길 막장에서도, 분계선초소에서도
그리고 그 분계선너머 항쟁의 불길 타번지는 서
울의 거리와 파도소리 사나운 다도해기슭에서도
수천만의 마음과 마음 하나가 되어 오직 한곳으
로 달리여간다.

따사로운 해빛이 쏟아져내리는 우리 당중앙의
그 창가.

이 세상 만사람에게 제일 먼저 봄을 가져다주
는 그 창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생
각이 잇닿아지는 그 창가.

아름다운 꿈, 찬란한 희망, 숭고한 념원...

노래로 되어 불리우는 그 모든것이 싹트고 꽃
피고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그 창가.

어머니 기쁨 떠나 슬플 때 제일 먼저 찾는 그이
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정답고 가장 친근한 어머
니란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당, 우리 당중앙의 그
창가로...

일찌기 백두산 상상봉에 장군별 솟아 이 나라
방방곡곡에 빛을 뿌리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이 삼천만 겨레의 마음과 마음 속에 끝없는
흠모의 별로 아로새겨지던 그때처럼.

그 언제부터였던가, 우리 당중앙의 창가에 밤
마다 꺼지지 않는 유난히 밝은 불빛이 흐르기 시
작하여 이 나라 수천만의 가슴과 가슴속에 전설
처럼 전해지고 전해지던 이야기...

《우리 조선은 대통령이 텃수다.》

《우리 조선의 만년미래가 환히 열렸소.》

이것이 어찌 어느 먼 산간마을의 늙은 농장원
한사람만의 심정이며 어느 먼 바다가 오랜 강철
공 한사람만의 이야기였으랴!

이 소박한 말속에는 당중앙에 대한 우리 민족
의 끝없는 경모의 정과 절대적인 신뢰의 정이 담
겨져있으며 당중앙을 받들고 우리 인민의 무한한
민족적자부심, 혁명적자부심이 차넘치고있다.

그렇다. 이 아침 우리 당중앙을 우러르는 우리
의 마음과 마음속에 가득차는 하나의 생각.

그것은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에 대한 생각.

그것은 우리 당의 끝없는 영광에 대한 생각.

과연 혁명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
령으로 모시고 은혜로운 우리 당중앙을 받들어
살며 싸우는 우리들보다 더 행복한 인민들, 더 영
광찬 당원들이 이 세상에 또 있으랴!

우리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 혁명의 위대한
승리가 있고 우리 당중앙이 있어 우리 혁명의 찬
란한 영광이 있다.

우리의 오늘은 얼마나 자랑차고 우리의 래일은
얼마나 휘황한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 가장 철저히 구현하는 우리
당중앙이 있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우리 조국은 영원히 주체
의 나라로 통성변영하리라.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우리 당중앙이 높이 쌓아올린 그 모든 업
적은 력사의 하늘에 금별로 솟아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린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이는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기치이며 우리 시대의 오늘과 래일을 밝혀주는 불멸의 해불.

속도전!

이는 보수를 혁신으로, 로쇠를 젊음으로 극복하고 담보를 비약으로, 침체를 혁명으로 전환시키는 무궁무진한 창조의 무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이는 우리 당을 언제나 생기발랄한 전위대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전투적부대로 되게 하는 혁명적기풍,

주체의 문학예술! ...

이는 20 세기 문예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찬란한 기념비이며 창조의 대화랑.

불멸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이어 영광스럽고, 주체의 해불을 높이 추켜들어 백전백승하며 현명하고 탁월한 정도로 하여 가장 권위높은 우리 당중앙.

오직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령도력, 오직 수령님께서 지니신 영명한 통찰력을 그대로 지니고 혁명앞에 나서는 어렵고 새로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우리 당중앙.

오직 수령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라시는 그대로, 오직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념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그대로 우리 혁명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전당, 전민, 전군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중앙.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중앙이라는 이 친근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은 우리 당의 권위와 존엄의 상징으로, 우리 혁명의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우리 인민의 행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되었다.

2

즐거울 때, 행복이 겨울 때 언제나 먼저 눈앞에 가득 어리는것은 당중앙창가의 밝은 그 불빛.

어려울때, 힘에 겨울 때 그때에도 제일 먼저 앞에 어리는것은 당중앙창가의 밝은 그 불빛...

멀리, 가까이 그 어디에 있어도, 이른새벽 깊은 밤 눈을 떠도 감아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못잊는 마음속에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깊어가는 고마움, 깊어가는 그리움... 그 간절한 마음과 마음들 속에 언제나 가득히 넘치는 그 불빛.우리모두를 한품에 안아주는 파사로운 그 빛을 하늘밖에 간들 잊을수 있으며 눈에 흠이 덮인들 가리울수 있으랴.

아, 당중앙 창가의 불빛은

어머니 창가의 그 불빛!

어머니의 그윽한 미소런가

어머니의 다정한 눈빛이런가

그 불빛...

우리의 가슴속에 천만가지 아름다운 생각을 찾아주고 천만가지 고귀한 감정을 불러내는

그 불빛.

우러르면 우리 마음 언제나 가을하늘처럼 맑아지고 구만리 저앞이 다 내다보이는듯.

우러르면 눈앞에 안개구름 가뭇없이 가셔지고 온 세상 끝까지 환히 밝아지는듯.

이 세상의 온갖 그늘, 온갖 거짓, 온갖 침체가 그앞에선 말끔히 사라지고 하늘땅 가득히 밝음과 진실과 젊음만이 넘치게 하는 그 불빛.

무엇때문인가.

무엇때문에 그 불빛을 우러르면 언제나 가슴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고 용맹이 솟아나는것인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 당중앙을 생각하면 지구의 한끝에 가있어도 외로움을 모르게 되고 한몸이 역경속에 떨어진다 해도 마음은 주저를 모르게 되는것인가.

그것은 우리 생활의 모든것 기쁨도, 희망도, 청춘도, 행복도 모두 우리 당중앙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어있으며 우리의 오늘과 래일, 우리의 모든 운명, 죽어도 영생하는 한없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이 모두 우리 당중앙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어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중앙이 있어 우리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높이 고동치는 주체형의 순결한 피가 있고, 우리 당중앙이 있어 우리에게 로쇠를 모르는 청춘이 있고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이 있고 꺾임을 모르는 투지가 있다.

바로 우리 당중앙이 있어 우리에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존엄이 있고 궁지가 있고 자랑이 있으며 그 어떤 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이 있고 의리가 있고 절개가 있다.

그렇다. 억만 피방울에 순간마다 새힘과 뜨거움과 약동하는 맥박을 주는 유기체의 심장처럼 우리 당중앙은 우리 삶의 모든것을 주는 위대한 원천이며 우리모두 순간도 떨어져선 살수 없는 어머니-심장이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우리 당중앙을 믿고 따르며 흠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다로 흘러가는 저 강물과 같이 열렬하고 해를 따라 피는 저 꽃들과 같이 간절한것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이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철석같이 뭉쳐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인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어있습니다.》

자식들이 세상에 첫걸음을 땔적이면 돌부리에 채울세라 넘어질세라... 넘어지면 선뜻 안아일으켜주고 다시 팔을 벌려 지켜주며 조심조심 등뒤에서 따라오는 어머니...

철이 들지 못한 자식이 때로 사람들의 말밖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앞에 나서며 《제가 예미외다.》 하고 자식을 대신하여 사죄하는 어머니...

다 키워놓고도 집떠난 아들 걱정에 마음놓지 못하여 창밖에 바람소리 울려와도 잠못이루고 비방울 떨어쳐도 잠못이루는 어머니...

우리모두의 정치적생명을 한품에 안아 빛내여 주려고 심려하는 우리 당중앙의 깊은 사랑을 헤아리기엔 우리는 아직 너무도 어린 자식들이다.

어쩌면 우리 당중앙은 ऐसा로운 하루하루의 우리들의 모든 일,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그렇게도 환히 다 꿰뚫어보는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가슴속의 사연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도 다 헤아려주는것은 오직 우리 당중앙.

주체님께 바라랴던 꿈과 같은 소원도 다 헤아려 풀어준것도 오직 어머니-우리 당.

하거니 당중앙의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저 하늘에 비기고 저 해에 비기는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응당한 우리의 감정이다.

그 누가 믿기 주저할 때도 굳게 믿어주는 당중앙의 그 믿음.

그 누가 돌아보지 않을 때에도 더 뜨겁게 안아주는 당중앙의 그 사랑.

그것은 하늘땅도 한품에 안고 무한대의 우주도 한품에 당기는 크나큰 품이다.

그것은,

고난도 크나큰 힘으로 되게 하고 시련도 더없는 기쁨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믿음.

그것은,

구석진곳에서도 기적이 솟게 하고 이름없던 사람도 영웅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믿음.

그것은, 그것은

시들었던 꽃들도 다시 피게 하고

죽음도 영원한 삶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믿음이다.

이 믿음, 이 사랑을 안았기에 우리의 정치적생명은 온 세상을 준다 해도 바꿀수 없고 천백번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어줄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높고 귀중한 생명.

이 믿음을 안았기에 우리는 천길물속에도, 만리 불속에도 웃으면서 뛰어들수 있는 불사조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어디에서나 당의 친위대, 당중앙의 돌격대라는 칭호를 세상의 그 어떤 영예로운 칭호보다도 더없이 고귀한 칭호로 가슴속에 간직한 사람들이다.

친위대!

돌격대!

흔히 선발된 소수의 정수분자들에 대한 대명사이던 이 말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천도 아니고 만도 아니고 수백수천만이 지닌 칭호로 되였다.

그렇다. 우리 나라는 모두가 친위대인 나라.

우리 당은 수백만의 모두가 돌격대인 당!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들어 오직 한마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한길에 한몸을 바쳐나가는 이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영예는 없으리라.

당중앙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오직 당중앙을 믿고...

이 뜨거운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 고결한 의지로 결합된 당중앙과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은 영원한것이다.

아, 영광스러운 당중앙, 그를 받들어 조선은 영원히 영광의 나라.

위대한 당중앙, 그를 받들어 조선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

봄이 오는 계절.

온 우리가 축복하는 조선의 2월.

기쁨과 행복으로 설레이는 조선의 봄.

고마운 당중앙의 창가를 우러러 우리모두 마음속 가장 깊은곳에서 샘솟아오르는 한없이 깨끗하고 한없이 뜨거운 노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또 드린다.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에 깃든 어버이사랑

잡지 《조선문학》은 그의 전신인 《문화전선》의 창간호를 첫호로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400호를 발행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잡지 《조선문학》을 400호까지 발행하게 되는 오늘 우리 모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몸소 잡지 《문화전선》을 발행케 하시고 그 창간호를 보아주시면서 혁명적문예출판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그 영광의 나날을 가슴뜨거이 돌이켜보게 된다.

× ×

1946년, 해방된 조국강산에 첫 봄이 왔다.

봄빛은 발갈고 씨뿌리는 전야에만 깃든것이 아니라 새 민주조선의 문화의 터전에도 따듯이 비치어왔다.

일찌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의 혁명적문예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해 3월 력사에 길이 빛날 20개조정강에서 민족문화, 과학 및 예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셨으며 20개조정강을 발표하신 바로 이틀후에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첫 조직인 북조선예술총련맹을 결성해주시고 20개조정강을 문예활동분야에서 실천하기 위한 강령을 마련해주시였다.

봄은 무르익어 어느덧 신록이 활짝 피어 오르는 5월에 들어섰다.

끝없는 희망과 감격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20개조정강을 문화건설분야에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가슴을 격동시킨 그런 력사의 날이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 각도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를 소집하신것이다.

8.15해방직후 건당, 건국, 건군 사업에 것처럼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친히 여러 작가, 예술인들을 부르시여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일을 하

나하나 가르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제서 이처럼 큰 회의까지 여시고 많은 작가, 예술인들도 여기에 참가하게 하여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5월 24일 이 대회에서 하신 연설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여야 한다》에서 새 조국 건설에서 문화인들의 위치와 임무를 밝혀주시였으며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에서와 민주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날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문화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투사들입니다. 동무들에게는 동무들의 입으로, 동무들의 붓으로 조선사회를 뒤걸음질치게 하려는 반동세력을 쳐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대중을 애국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으로 교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전선의 투사! 이 얼마나 우리 문화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혁명적사명을 자각케 하는 값높은 칭호인가. 바로 여기에는 우리 문화인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인임과 기대 그리고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것이였다.

북조선 각도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그후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양양이 일어났다.

이런 양양된 분위기속에서 작가, 예술인들의 조직인 북조선예술총련맹이 선전전, 문화전을 힘있게 벌리자면 무엇보다 그의 기관지가 요구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련맹이 자기의 기관지로서 잡지 《문화전선》을 발간하도록 하여주시고 그 사업을 계속 밀고나갈수 있는 출판사까지 내오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기관지가 나오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출판물을 통해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하는 작가들에게 더없는 기쁨을 주었다.

해방전 우리 작가들은 자기의 글에 정의와 진실을 담을수가 없었고 작품을 발표할 지면도 없었던것이다.

그러하던 우리 작가들을 크나큰 한품에 안으시여 조직을 무어주시고 기관지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과 배려속에는 지난날 식민지땅국노의 설음과 울분에 가슴을 치던 이 나라의 모든 작가들에 대한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기대가 스며있었으며 해방된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참다운 인민의 문학, 혁명적문예출판물을 보여주시려는 깊은 뜻이 깃들어있었다.

문화전선사의 기자, 편집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따라 자기들의 활동을 통하여 조선사회를 뒤걸음치게 하려는 반동세력을 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대중을 애국주의와 민주주의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다.

그들은 당면하여 《문화전선》창간호를 잘 만드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작가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행된 제반민주개혁의 거대한 생활력을 잡지에 반영하기 위해 들끓는 공장과 농촌을 찾아갔다.

현실에서 받아안은 감격은 컸다. 그러나 작가들의 능력은 새 조국 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벽찬 투쟁을 원만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어리었다. 창작기량만 아니라 편집원들의 능력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편집원들가운데 출판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8.15해방전 낡은 문예잡지를 몇권 내본 사람이 몇명 있을 뿐이었다.

창작사업과 편집사업에서는 이러한 애로가 있었지만 작가들과 편집원들은 어려울 때마다 자기들을 문화전선의 투사로 높이 불러주시면서 크나큰 믿음을 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 힘을 얻고 다시 분발해나갔다.

그리하여 얼마후 드디어 문예잡지 《문화전선》의 편집을 끝낼수 있었고 책이 인쇄되어나왔다.

창간호에는 그 첫장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으며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편집되었다. 다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20개조정강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민주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소설과 시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편집되었다.

물론 그 소설과 시의 형상수준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의 기쁨과 문화전선의 투사로 된 우리 작가들과 편집원들의 감격이 깃들어 있었다.

문화전선사의 기자, 편집원들은 첫 잡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게 되었다.

몸소 작가, 예술인들의 첫 조직인 북조선예술총련맹을 무어주시고 그 기관지까지 내도록 배려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이 잡지를 올리게 되었을 때 작가, 예술인들과 편집원들의 기쁨은 컸다.

하지만 다음순간 그들에게는 잡지가 너무도 부족점이 많은것을 느끼며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 잡지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선전전, 문화전에서 응당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 자신을 가질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간호를 보시고 잡지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시기를 그들은 소망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새 조국 건설에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잡지를 보아주시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가들과 편집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잡지《문화전선》의 창간호가 나온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그를 보아주시었다.

1946년 9월 2일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문화예술사업을 맡아보는 한 일군을 친히 부르시였다.

그 일군은 세차게 들먹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섰다.

이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여러가지 책들과 서류들이 쌓아있는 책상을 앞에 하시고 무슨 책을 보고계시였다.

언제나 인자하시고 소탈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일군이 허리굽혀 인사드리자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마주 걸어나 오시여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앞상결에 놓여있는 결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황송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던 그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시다가 책상우에 놓으신 책에 눈길이 미치였다. 그 순간 그는 더더욱 가슴이 후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펴놓은채로 있는 그 책이 다름아닌 《문화전선》 창간호였기때문이였다.

그 책으로 말하면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전문으로 지도하는 그 일군자신도 아직 다 보지 못한 책이였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바쁘신가운데 시간을 내시여 먼저 보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려 자기를 부르시였다고 생각하니 그 일군의 가슴은 한없는 격동으로 설레였다.

이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기쁨어린 음성으로 그 일군에게 《문화전선》 창간호가 나온것을 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런데 그 일군은 잡지를 원고단계에서는 다 읽었지만 책이 나온 뒤에는 다 보지 못했으므로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그 만하면 내용도 꽤찮게 된것 같다고 새로 나온 잡지에 대해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기쁨어린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일군의 눈시울은 뜨거웠다.

갖 태어난 문예잡지가 그렇듯 대견하시여 한장 한장 번지시며 내용을 다 읽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에 일군은 깊이 머리숙여지는것이였다.

잡지에 실려진 작품들은 너무도 미숙하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히려 치하의 말씀부터 주시며 일군들을 고무하시는것이였다.

이어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창간호로써는 책이 좀 작은감이 있다고 하시면서 글쓰는 사람이 적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애로가 있어서인지 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책이 작은것이 좀 유감이지만 이제부터 잡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잘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거듭 고무의 말씀을 주시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에는 마디마디 작가들과 편집원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넘쳐있었다.

그이께서는 이윽고 문화전선사를 다 꾸려놓았는데가고 그 일군에게 물으시였다.

그는 대답을 인차 올리지 못하고있다가 완전히 꾸려놓지 못함을 말씀드렸다.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있어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군의 대답에서 이런 사정을 헤아리시고 문화전선사를 잘 꾸려주도록 이르시였으며 잡지의 운영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잡지는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출판해서 인민들에게 내보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내용이 풍부하게 글을 잘 쓰고 편집을 다양하게 해야 독자들의 환영을 받게 되고 또 잡지가 나오는것을 흥미를 가지고 기다리게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독자들과 약속한 출판기일을 어기지 말고 꼭 정기적으로 잡지를 낼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우리의 문예잡지가 인민의 기호와 기대에 맞도록 하시기 위해 심려하신것이다.

하나의 잡지를 두시고도 인민을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은정에 일군은 눈시울을 뜨거이 하고있는데 이윽고 그이께서는 잡지의 편집방향과 방도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문화전선》은 문예작품을 통하여 우리 당정책 책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하여야 하겠습니다. 잡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내용과 형식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 당에서 방조를 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참으로 문예작품을 통하여 우리 당 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하며 잡지의 내용과 형식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 당에서 방조를 주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는 우리의 문예출판물이 우리 당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하며 온갖 낡은 사상을 배격하고 철저히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길을 밝혀준 현명한 방침이었던것이다.

잡지를 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신것은 바로 《문화전선》창간호가 우리 당 정책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형상적으로 확증하며 당정책 관철에로 근로대중을 불러일으켜야 할 기본사명으로부터 아직 먼거리에 있는 바로 그 점이였다.

그것은 창간호가 가지고있던 본질적인 약점이었던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 의해 잡지의 부족점이 밝혀지고 급후 잡지를 개선할 근본방도가 명시된것이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과 편집원들이 밤을 거둡하는 론쟁속에서도 찾지 못하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우리 문학의 사명과 잡지의 성격 그리고 잡지의 표지장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문예잡지의 사상예술적수준은 편집원과 함께 주로는 필자인 작가들의 준비정도에 크게 달려있었으므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작가들의 교양문제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작가의 교양문제에 대해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는 그 일군은 깊은 자책에 잠겼다.

잡지를 낼데 대해서는 생각하였지만 아직 그 잡지에 글을 쓸 작가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대해 아직 깊이 생각하고있지 못했었기때문이다.

일군이 크나큰 충격속에 있는데 그이께서는 미소어린 눈길로 그를 지켜보시다가 앞으로 잡지의 부수도 늘이고 폐지수도 늘우고 책 장정을 잘해서 인민들의 관심이 높도록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자면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손으로 잡지를 내온것을 큰 성과라고 거듭 고무를 주시면서 앞으로 잡지만 내지 말고 소설, 시집 등 단행본들도 출판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 일군의 가슴은 다시금 후터워왔다. 그도 당시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소설집과 시집을 출판한다는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예잡지의 창간호가 나오는데 이어 잡지만 아니라 소설집과 시집까지 내오도록 하시니 우리 인민에게 더 많은 문예출판물을 보여주시려는 그이의 배려가 얼마나 큰가를 그는 깊이 느끼었던것이다.

사실 그때 문화전선사의 기자, 편집원들은 잡지의 창간호를 내놓은후 다음호의 편집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을뿐 출판사업의 폭을 넓혀 소설집과 시집을 낼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이는 오직 혁명적문예출판물을 새 조국 건설에서 없어서는 안될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제시하실수 있는 문제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잡지 《문화전선》을 손에 드시고 유심히 훑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잡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는 일군들의 애로를 간파하시고 처음 나온 잡지를 보니 그들에게 무슨 애로가 있는것 같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이때 스스러움을 잊고 출판사업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솔직하게 보고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군의 보고를 주의깊이 들으시고나시여 문화전선사가 갓 나온것만큼 경제적으로 곤난이 있는것만은 사실이라고 하시면서 왜 진작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사실 일군들은 새 조국 건설을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한 출판사의 적은 애로마저 보고드리기를 주저하였던것인데 오히려 그이께 더 큰 심려를 끼쳐드렸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문화전선사의 사업을 전반적 문화건설사업, 나아가서 새 조국 건설의 중요한 한 부문으로 보시고 이 출판사의 사업에서 걸리고있는 애로를 타개할 대책을 즉시에 세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문화전선사에 경제적으로 방조를 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우선 당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인민위원회 재정국에 말해서 문화전선사 토대가 잡힐 때까지 방조를 주도록 조치를 취해놓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제 발족한 문화전선사를 이렇듯 애지중지 귀중히 여기시고 당적으로 행정적으로 집중적인 방조를 주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화전선사를 추켜세우는 데서 경제적인 방조를 주도록 하시는데 그친것이 아니다. 문예출판물발행의 담당자인 편집일군들이 주어진 자각을 높여 일을 혁명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데 크나큰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문화전선사동무들이 사업에서 열정과 의욕을 높이며 곤난이 있더라도 강의한 의지로 극복해나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꼭 필요하다는데 대해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에 대해 먼저 깨우쳐주시면서 해방된지 얼마 안되고 또 일제가 다 파괴한 공장들과 황폐화된 농촌을 물려받은 조건하에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도 넉넉치 못하고 국가살림살이도 어려운것만은 사실이며 특히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조국이 량단된 조건하에서 우리의 경제발전에 큰 지장을 받고있다고 하시고 그렇기때문에 문화건설사업에서도 많은 곤난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문화건설사업에서 곤난이 있게 되는 조건을 깨우쳐주시면서 당면하게 제기되고있는 이런 모든 곤난을 투쟁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민주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위

하여 모든 정열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잠시 말씀을 끊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친철히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어디엔가 멀리 눈길을 주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깊은 감회가 어리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진행하신 혁명적문예활동과 출판활동의 귀중한 경험을 말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그전에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진행할 때에는 작가도 작곡가도 없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집체적노력으로 신문도 내고 선전문도 쓰고 각본도 쓰고 노래도 지었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종이도 없었고 등사판도, 등사잉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나무껍질 등을 래워서 등사먹 대신 쓰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출판사업을 보장하였습니다. 그것도 설한품이 불고 키넘는 눈속에서 원수와 싸우면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신문과 선전문들이 왜놈을 때려부시고 인민들을 혁명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우리의 혁명적문예술과 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작가들과 편집원들은 자기들의 문예출판물을 내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갈수 있게 된것이다.

몸소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드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도 창작하시는 한편 《3.1월간》을 비롯한 출판물발행사업을 조직지도하신 수령님.

실로 혁명적문예활동과 출판사업에 기울여오신 그이의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겉쌓인 난관을 한몸으로 헤쳐나가며 우리 혁명의 뿌리를 마련하시고 인민의 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앞에 일군은 경건히 머리숙어지는 것이였다.

우리 일군들이 해방후 출판사업에서 곤난이 있었다면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것처럼 간고

한 환경에서 진행된 출판사업에 비하면 난관으로 될 수 없는 문제였다.

일군이 깊은 자책에 잠겨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힘을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글이란 잘 쓰면 참으로 위력이 있는것이라고 하시며 그것은 대포나 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대포보다, 폭탄보다 위력한 글!

우리 일군들도 혁명적인 문필활동이 혁명사업에 힘을 주는것이라고 생각은 하였으나 이렇듯 위력한것으로는 도저히 생각 못하고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이름할수 없는 크나큰 신심을 그 일군에게 안겨주었다.

그 일군은 어버이수령님의 모든 가르치심을 한시바빠 우리 기자, 편집원들에게 전달하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전에 비하면 오늘은 글쓰는 작가들도 많고 출판할수 있는 물질적조건도 그만하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있다고 하시고 곤난이란 투쟁으로 극복하여야 하며 투쟁이 없는 곳에 승리가 저절로 오지 않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승리는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실로 1946년 9월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예술총련맹기관지 《문화전선》 창간호를 보시고 하신 교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마련된 혁명적 문학예술전통과 출판물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문예출판물의 근본사명과 성격, 그 편집 방향과 방도, 출판물에 대한 당적령도와 물질적조건의 보장문제, 문예출판물발행에 참가하는 작가들과 편집일군들이 견지해야 할 근본 립장과 자세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의 혁명적문예출판물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강령적인 교시를 전달받았을 때 문화전선사일군들은 북받치는 감격과 걱정을 누작힐수 없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며 진정 문화전선의 투사로서의 자기들의 혁

명적임무를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 굳게 마음다지었다.

참으로 혁명적문예출판물발행을 위해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는 끝이 없으시었다.

9월 2일 밤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화전선사에 대한 방조문제를 재정국에 위임하시기도 마음놓이지지 않으시여 친히 출판사 구좌에 10만원을 등기로 보내도록 지시하시었다.

10만원의 출판자금, 그것은 해방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 정말 눈물 없이는 받아안을수 없는 귀중한 밑천이었다.

거기에는 만, 억의 돈의 계산단위로로는 도저히 세일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세기를 두고 참다운 문화적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며 문명세계에서 버림받아온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더 많은 문예출판물을 보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이 깃들어있었던것이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중한 출판자금을 받아안았을 때 출판사의 모든 일군들과 작가들은 다시금 격동된 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그들모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 만세!》를 목메어 부르며 혁명적문예출판물발간사업에 몸과 마음 다바쳐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전선사일군들과 작가들이 그이께서 보내주신 출판자금을 받고 감격에 넘쳐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이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우선 단행본을 출판하는데 쓰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국가에서 좀 더 방조를 주도록 하라고 가슴뜨거운 말씀을 주시였으며 출판사일군들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바란다고 다시금 크나큰 고무의 말씀까지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해방후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예출판물발행의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우리 작가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 어떤 난관도 강의한 의지로 극복해나가면서 작품의 창작과 편집 사업에서

혁명적인 양양을 일으켜나갔다. 잡지 《문화전선》은 당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됨으로써 당정책의 선전자, 옹호자로서의 임무와 근로대중을 새 조국 건설에로 불러일으켜야 할 당의 사상적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되었다.

기자, 편집원들은 선전전, 문화전을 힘있게 전개해나갔으며 잡지 《문화전선》은 진보적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기수가 되고 나팔수가 되었다.

잡지 《문화전선》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개선하면서 제기일에 나오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소설집, 시집들도 많이 나왔다. 그것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교과서로 되었으며 온갖 반동세력을 치는 무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속에서 평화적민주건설시기에 발행된 우리의 혁명적문예출판물가운데는 서사시《백두산》을 비롯한 우수한 작품들이 적지 않았으며 출판물의 종수와 부수도 날을 따라 늘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잡지 《문화전선》을 발전적으로 그 제호를 《문학예술》로, 그후에는 《조선문학》으로 바꾸도록 해주시고 그 폐지수도 훨씬 늘구어주시었다.

언제나 혁명적인 문예출판물발행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수많은 문예작품이 창작출판되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친히 작가들에게 종군작가의 신임을 내주시였고 종군의 나날에도 전투적인 작품을 많이 써내도록 그들의 창작과 생활을 극진히 돌봐주시었다.

작가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글이란 잘 쓰면 참으로 위력하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대포나 폭탄보다 더 위력한 작품의 창작편집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시 《조선은 싸운다》와 같이 전투적이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많은 작품

들이 창작되어 잡지 《문학예술》과 전선문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단행본들에 편집되었는바 그것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를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싸우는 우리 인민의 무기로서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의 혁명적문예출판물 발행은 중단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그 종수와 부수에 있어서 평화적건설시기보다 몇배로 늘어났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적문예출판물발행사업을 위해 얼마나 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던가를 우리모두는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 어려운 조건에서도 문예출판물발행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보살펴주시었으며 천리마운동이 세차게 타오르던 그 시기에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를 발표하시어 우리의 혁명적문예출판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혁명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에서 혁명적문예출판물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문학예술창작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혁명적문예출판물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었다.

언제나 혁명적문예출판물발행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문예출판물발행사업을 부단히 개선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당에서는 발행되는 모든 작품들에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이 빛나게 구현되도록 종자로부터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줌으로써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들인 《백두

산기슭》, 《고난의 행군》, 《1932년》, 《두만강지구》를 비롯하여 장편소설들인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평양시간》, 《새봄》, 《생명수》, 《갑오농민전쟁》 등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수많은 작품이 나올수 있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우리의 주체문학건설에서는 일대 전성기가 이루어졌다.

일찌기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를 보아주시면서 온갖 육친적인 배려를 다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그 사랑으로 우리 당에서는 잡지 《조선문학》의 본래의 표지장정의 무궁화꽃문양을 목란꽃문양으로 하도록 하여주었으며 잡지에 나가는 문설을 지도해주고 3대혁명을 반영한 작품을 많이 편집하도록 이끌어준것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끊임없이 줌으로써 이 잡지는 우리 나라 혁명적문학건설에서 중추적역할을 담당하는 문학잡지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빛나게 수행하고 있다.

당에서는 출판혁명의 불길을 지펴주고 편집출판사업에서 속도전을 벌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하여줌으로써 날을 따라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더 많이 출판되도록 이끌어주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혁명적문예출판물발행의 거점인 문예출판사에서는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을 비롯한 수많은 소설책과 시집들, 국보적의의를 가진 혁명가극의 총보들과 혁명적인 노래집, 영화해설 사진책들이 출판되고있으며 잡지 《조선문학》, 《천리마》, 《조선예술》, 《영화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등이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밑에 잡지 《문화전선》이 창간되던 때로부터 우리의

혁명적문예출판물은 상승의 한길을 걸으며 멀리 달려왔다.

오늘 잡지 《조선문학》은 400호를 발행하며 올해 9월 2일이 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잡지 《문화전선》을 보아주신 때로부터 서른다섯돛이 된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우리의 잡지를 보아주시면서 혁명적문예출판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강령적인 교시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뜻을 담고 우리의 가슴을 한없는 감격으로 설레이게 한다.

해방된 조국땅에 첫 문예잡지가 나온것을 그렇듯 대견히 여기시며 우리의 손으로 잡지를 내온것은 큰 성과라고 하시며 아직은 너무도 부족점이 많은그잡지를두고기쁨을표시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이제부터 잡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잘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우리의 작가들과 편집원들을 고무해주시면서 잡지의 편집 방향과 방도를 세세히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

나라사정이 그렇듯 어려운 때에도 잡지만이 아니라 소설집과 시집을 많이 내라고 몸소 출판자금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은정.

진정 사랑과 은정에 넘친 그 력사의 날이 있어 우리의 혁명적인 문예출판물이 나아갈 앞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우리의 소설과 시작품들은 대포보다, 폭탄보다 위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혁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왔으며 오늘도 우리 당의 향도의 손길 따라 날로 찬란히 꽃피고있는것이다.

그렇다. 혁명적문예잡지 《문화전선》 창간호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은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예출판물의 력사의 더불어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당의 배려에 보답하자

충성으로

-잡지 《조선문학》 400 호 발간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당 제 6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인민들이 앞날에 대한 드높은 신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조선문학》잡지 발간 400 호를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체문학건설과 혁명적문예출판물 편집발간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과 뜨거운 배려를 아낌없이 돌려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어받은 고마운 당중앙에서는 《조선문학》잡지 발간400호에 즈음하여 또다시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었다.

백두밀림에서 조선혁명의 위대한 향도성이 솟아오른 뜻깊은 2월에 당중앙의 배려로 《조선문학》잡지 발간400호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한량없이 설레이고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잡지 《조선문학》이 400호를 내기까지의 자랑찬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우리는 지금 주체문학건설과 혁명적문예출판물 편집발간사업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되새기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출판보도사업에서 주체가 튼튼히 있으며 출판보도물의 사상리론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당사상사업의 예리한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8~109페이지)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성장 발전해온 잡지 《조선문학》도 지난기간 그 사상에 예술적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당사상사업의 예리한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잡지 《조선문학》이 걸어온 행로에는 곧 조선문학발전력사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실로 창간되어 400호에 이르는 《조선문학》잡지의 갈피갈피에는 조선문학의 혁명적발전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은정어린 배려가 얼마나 많이 깃들어있는가.

《조선문학》잡지의 전신인 《문화전선》창간호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배려를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이 그냥 뜨거워움을 금할 수 없다.

잡지 《문화전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문학예술과 출판물의 력사적뿌리에서 태어난 해방후의 첫 문예잡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문학예술을 혁명투쟁의 강유력한 무기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새형의 주체의 문학예술창조사업을 몸소 조직지도하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 사상을 내놓으시고 류레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새형의 주체의 혁명적 출판물을 수많은 발간하시여 우리 당의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직후 당보를 비롯한 새형의 주체의 출판물을 제때에 창간하시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새 조국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느라 그처럼 어렵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이던 작가, 예술인들에게 민족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과 방침을 환히 밝혀주시고 혁명적문예출판물편집발간사업도 몸소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해방직후 이처럼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속에서도 첫 문학예술잡지 《문화전선》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선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출판물의 면모를 갖추게 하여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6년 9월 2일 나라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분초를 쪼개쓰시는 가운데서도 새로 나온 이 잡지 《문화전선》을 남먼저 다 보아주시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까지 해주시였으며 우리 문학예술창작사업과 문예잡지편집방향에 대하여 귀중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정책의 해설선전자로서의 잡지 《문화전선》은 문예작품을 통하여 당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가, 예술인들의 자질을 높여주어 그들의 창조활동에서 전환을 일으키도록 할데 대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벌리신 혁명적문학예술활동과 출판활동경험에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아니라 새 조국 건설을 위하여 문전을 아껴써야 했던 그때에 거액의 자금까지 보내주시는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를 보시고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출판물의 사명과 임무로부터 문학예술과 출판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탁월한 사상이며 잡지 《조선문학》이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하게 옳은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우리 문학예술과 문예잡지가 수행하여야 할 전투적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문학예술과 문예출판물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그뿐아니라 기자들과 작가들에게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존함과 자신께서 친히 수표까지 하신 신임장을 주시여 최전선부대들에 파견하시였으며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아무런 애로도 없이 취재집필활동을 원만히 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와 같은 두터운 정치적인임과 극진한 사랑이 있었기에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고 재더미로 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잡지 《조선문학》은 한호도 중단됨이 없이 끊임없이 발간될수 있었으며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사람들을 필승의 신념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었다.

당시 잡지 《조선문학》의 갈피마다에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령도하시는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에 대한 찬가가 아로새겨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인민군대의 대중적영웅주의와 후방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하여 세계에 긍지높이 자랑하는 격조높은 글들이 많이 실려있었으며 인류의 홍익한 원수인미제의 가장 포악하고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여지없이 폭로하고 신랄하게 단죄하는 전투적인 글들이 수없이 창작편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이와 같이 잡지 《조선문학》이 미제를 심판대에 제소하는 힘있는 고소장으로, 반제반미혁명투쟁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혁명의 고수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기초축성시기를 거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며 거창한 창조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는 나날에도 조선문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많이 발표하시여 우리 문학예술과 잡지 《조선문학》이 비약적으로 전진하는 시대와 함께 더욱 장성발전할수 있는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잡지 《조선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이와 같이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자기앞에 부과된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면서 힘차게 발전하여올수 있었다.

잡지 《조선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를 받게 되면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들어서게 되였다.

당중앙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출판보도물의 사명을 새롭게 규정하여주었다.

당중앙에서는 우리 출판물들의 기본사명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있다고 밝혀주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혁명적출판물의 사명이 더욱 명백히 밝혀짐으로써 우리 출판물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해설선전하고 옹호관철하는 당의 사상적무기로서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대를 이어 끝까지 충성다할수 있게 되였다.

당중앙에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문예출판물의 임무도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그것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여주었다.

당중앙에서는 문예출판물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형상을 창조하는 것을 초미의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혁명작품을 최상의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편집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창작과 편집을 선차적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리 문예출판물은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되었다.

고마운 당의 세련된 지도도에 잡지 《조선문학》은 지난기간 우리 인민들이 언제나 따라배우며 자나깨나 그리며 항상 가까이 뵈옵고 싶어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을 적극 편집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인기있는 잡지로 되게 되었으며 로동계급의 문예출판물력사에서 처음으로 수령형상 작품을 창작편집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로 되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또한 다른 나라 진보적인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을 해설한 론설들과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한 시들을 친히 잡지 《조선문학》에 보내어 실도록 배려해줌으로써 《조선문학》잡지가 우리 인민들에게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흠모하고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 긍지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게 하여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문예출판물의 기본 임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적문예사상을 널리 해설선전하는데 있다는 것을 밝히고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적 문예사상의 보물고를 끊임없이 풍부화시키면서 그것을 해설선전하기 위한 잡지 《조선문학》의 론설편집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었다.

당중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철학에 기초하여 우리 문학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학으로 되게 할데 대한 사상, 문학예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 혁명적문예전통을 바로 찾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을 비롯한 주체적 문예사상을 원리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었다.

그뿐만아니라 당은 작품의 생명을 규정하는 사상적알맹이인 종자를 바로잡고 가꿀데 대한 리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데 대한 리론, 주인공의 성격창조와 생활묘사에 관한 리론, 구성론, 양상론, 창작적개성론, 혁명적대작에 대한 리론, 소설, 시, 아동문학의 형태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리론을 비롯하여 주체적인 창작리론과 형태론을 밝혀줌으로써 주체적문예사상을 구체적인 작품창작과 형태들에서 구현하는 방도를 명백히 가르쳐주었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지도 체계와 원칙, 령도방법을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을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하고 빛나게 완성하여주었다.

우리 당의 독창적문예사상과 리론은 지난날의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의 어느 한 측면을 보충하거나 부분적으로 발전시킨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문예학의 근본원리로부터 전면적으로 혁신한 전혀 새로운 우리 식의 문예 사상과 리론으로서 우리 시대뿐만아니라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완성된 주체적문예강령이다.

당중앙에서는 잡지 《조선문학》이 위대한 주체적 문예사상과 당의 독창적문예리론을 즐기치게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기본임무로 틀어쥐고나가게 함으로써 그것이 당문예정책의 열렬한 해설선전자로 될뿐만아니라 조선문학발전의 선도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여주었다.

당중앙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문예출판물의 기본임무는 또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예작품을 많이 편집출판하는데 있다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잡지 《조선문학》을 당정책관철에로 근로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여주었다.

당중앙에서는 온 나라에 3대혁명의 불길이 타번지고있을 때에 잡지 《조선문학》이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창조한 소설을 적극 편집할데 대한 지도를 줌으로써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3대혁명소조운동에 적극 기여할수 있게 하여주었다.

당중앙에서는 또한 잡지 《조선문학》에서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문학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적 후과를 폭로단죄하는 평론들을 적극 편집할데 대한 문제, 고전문학과 외국문학을 주체적립장에서, 계급적립장에서 보고 분석평가할수 있게 옹계 편집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하여주었다.

그리하여 잡지 《조선문학》이 당문에정책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아내는 예리한 전투적무기로, 작가들의 창작에 술적기량을 높여주고 안목을 넓혀주는 교과서로 될수 있게 하는 넓은 길을 밝혀주었다.

당중앙에서는 이와 같이 문학발전과 문예출판물의 편집 방향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었을뿐만아니라 편집출판활동의 원칙과 방도까지 밝혀주었다.

당중앙에서는 수령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구현하여 편집출판일군들이 주체의 원칙을 기본 초석으로 삼고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들이며 종자를 바로잡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출판활동에서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주었다. 당중앙에서는 또한 출판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며 출판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밝히고 세심한 지도를 주었다. 지난기간 주체의 원칙이 구현됨으로써 우리 문예출판물은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성원칙과 종자를 바로잡고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원칙이 구현됨으로써 우리 문예출판물은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무조건 신속정확히 반영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었다.

편집출판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나가는 과정에 우리 문예출판물에서는 넓은 틀과 도식이 마사지고 철학성이 있고 참신한 문학작품과 함께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다양한 기사종류들도 적극 배합하여 편집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자들의 사랑을 받는 흥미있는 대중적인 잡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은 또한 잡지 《조선문학》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류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주체문학의 자랑찬 성과를 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세심히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잡지 《조선문학》은 새형의 혁명적 문예출판물의 참다운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나가고있으며 당문에정책을 옹호관철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잡지 《조선문학》이 그의 전신인 《문화전선》으로 첫호를 세상에 내놓은 때로부터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잡지 《조선문학》이 걸어온 지난 35년간의 로정은 주체문학발전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로 아로새겨진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오늘 우리는 잡지 《조선문학》이 걸어온 보람찬 로정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문학과 문예출판물을 오늘과 같이 찬란히 개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따라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드림없이 걸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더 큰 앙양을 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

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품모와 문학수준을 높이며 그들을 투쟁과 혁신으로 고무하는 힘있는 교양수단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킴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다그쳐야 할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41 페이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문학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톤톤히 세우고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지난시기의 문학예술실천활동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독창적문예방침은 우리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적문예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문예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며 주체적문예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모든 창작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것을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감정과 비위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는 주체적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창작활동을 벌려야 한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문학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며 자본주의, 봉건주의 요소들을 단호히 반대배격해야 한다.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는것과 함께 수

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충성으로 받들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이 내놓은 모든 방침을 무조건 신속정확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문학예술창조사업이 철저히 당중앙이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진행되어나가게 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문학예술창작사업에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계선을 날카롭게 긋고 로동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문학에 자본주의와 봉건주의의 사소한 요소라도 발붙일 틈을 주지 말고 우리 혁명문학을 철저히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로 관통되게 해야 한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문학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현실체험을 더욱 실속있게 하며 자기의 창작예술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작가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창작예술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혁명적작품창작의 선결조건이며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특히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여기서 제시된 모든 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창작과정을 철저히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가들은 모두가 정열가, 독학가가 되어 누구보다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소유하며 혁명적조직생활과 창작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하며 언제나 현실속에서 배우며 창작할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작가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창작예술적 기량을 높이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혁명문학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문학예술활동을 적극 대중화하여 근로자들의 창작적열의와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야 한다.

문학예술활동을 적극 대중화하는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문학예술사업에 구현한 탁월한 공산주의적문제방침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주체의 혁명적문학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는 사업은 몇몇 전문가들의 힘만으로는 안되며 전문적인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대중적창작활동을 적극 배합하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문학창작사업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광범한 근로대중이 문학의 진정한 향유자로, 참다운 창조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혁명문학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문제정책의 해설선전자로서의 잡지 《조선문학》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문학발전에서 선도자적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는 문제나 작가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이는 문제나 문학예술을 대중화하는 문제는 모두다 잡지 《조선문학》의 교양자적역할을 한층 높일것을 요구한다.

잡지 《조선문학》은 우리 시대 주체문학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것만큼 그의 사상예술적질을 높이는것은 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필봉,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당의 가르침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글을 쓰고 편집하는것은 조선문학과 혁명적문제출판물 앞에 부과된 가장 숭고한 사명이며 바로 여기에 그 어떤 문학이나 출판물도 지닐수 없는 최대의 영광과 끝없는 긍지가 있다.

우리의 주체문학과 혁명적문제출판물은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

강능수

오늘 우리 작가들은 이 땅위에 일어난 거대한 전변과 변혁의 력사와 더불어 1970 년대를 문학 예술의 대전성기로 맞이한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게 될 1980 년대에 들어섰다.

그것이 포괄하고있는 폭과 깊이와 그 내용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적전환은 말그대로 《20 세기의 문예부흥》으로 부를수 있는 위대한 전환이다. 인류문예사에서 흔히 세기라는 길고긴 역사적흐름속에서만 헤아릴수 있던 정신문화의 발전, 그것도 20 세기의 거창한 《대문예부흥》이 이 땅위에서는 극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독창적인 문예방침 그리고 우리 당의 정력적이며 현명한 령도가 낳은 가장 고귀한 결실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당이 창시한 공산주의인간학의 빛나는 승리이기도 하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이 력사발전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시대-주체시대의 요구와 문학예술의 특성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초하여 새로운 인간학, 공산주의인간학을 창시함으로써 주체문학건설의 빛나는 앞길을 열어놓았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공산주의인간학은 인간의 운명 발전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옳바른 해답을 주며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할것을 지향하는 혁명적문예리론이다.

공산주의인간학이 창시됨으로써 사회적의식형태의 하나인 문학은 인간과 그 생활을 반영하는 예술로서의 자기의 본성에 맞게 완전히 과학적인 궤도위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진정한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참다운 교과서-인간학으로 되게 되었다.

이는 인류정신문화발전에서 새시대,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며 문학예술발전에서의 가장 경사스럽고 가장 거대한 사변이다.

공산주의인간학에 의하여 문학예술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 오랜 세월을 두고 수백수천가지로 논의되어오던 문학의 본성에 대한 온갖 형형색색의 리론들은 한갓 가설과 억측으로 빛을 잃게 되었으며 예술에 대한 기만적인 리론의 연막속에서 문학을 착취계급의 치부와

향락의 수단으로 일삼아온 부르조아반동문학은 자기의 더러운 정체를 더는 숨길수 없게 되었다.

공산주의인간학의 심오한 진리를 받아안은 로동계급의 문학은 비로소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으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참담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 *

공산주의인간학의 혁신성과 위대성은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데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학설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사람이 사회와 자연의 주인으로 되며 또한 사회와 자연을 정복하고 자기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은 바로 사람이 자주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며 여기에 바로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이 있다. 자주성이 없이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동물과 다를것이 없다.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보고 리해하는가, 이 문제는 결국에 있어서 문학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가? 즉 문학을 어떻게 리해하며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창작하는가 하는 문학의 존재가치와 관련된 근본문제와 뗄수 없는 련관을 가지고있다.

문학의 본성에 대한 문제가 세기를 두고 끊임없이 논의되어오면서도 지금까지 이렇다할 과학적인 해명을 주지 못했던것은 다른아닌 사람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근본원리로 하고있는 주체철학, 사람중심의 주체철학이전의 그 어떤 철학이나 학설도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옳바른 해명을 줄수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인간생활을 그린다라는 의미에서 문학을 인간학이라 일러왔지만 그것은 옳은 철학적기초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못했고 리론적인 체계도 없었으며 따라서 과학성이 희박한것이였다.

공산주의인간학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을 묘사대상으로 하며 또한 그러한 인간에게 복무하는 문학이다. 다시말하여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인 인간과 그의 생활을 탐구하며 인간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것을 지향하는것이 공산주의인간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문학예술은 그의 사회적본성에 맞게 사람을 가장 존엄있고 가장 힘있는 존재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공산주의인간학에 이르러 비로소 창조될수 있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을 묘사대상으로 하고있는 여기에 공산주의인간학이 종래의 모든 문학예술 및 문예리론과 구별되며 그 발전에서 거대한 혁명으로 되는 사상리론적근거가 있으며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강유력한 무기로서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한 근본담보가 있다.

공산주의인간학의 혁신성과 위대성은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문학의 본성을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있다.

지금까지 문학에 대한 론의는 대체로 문학은 인간생활을 반영하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귀결되였다. 이것은 주로 문학의 본성을 그의 묘사대상과 형상적특성, 교양적의의 등을 추리하여 얻어진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학작품창작과 리론활동에서 얻어진 추리이며 문학의 근본문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옳바르게 해명할수 없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우리 문학은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그러한 인간학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인간학의 근본요구이며 그의 질적특성을 규정하는 본질적내용이다.

자주성은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며 따라서 인간자체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징표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공산주의인간학이 인간의 근본문제를 내세우는 문학이며 인간의 참된 삶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여주는 문학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과거의 진보적문학도 일정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내세우고 옹호한것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을 위한 문학으로 인류의 문학발전과 사회발전

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과거의 진보적문학이 내세운 문제는 대체로 인간의 량심, 정의, 사랑, 의리 등과 같은 인간의 도덕적 및 윤리적 세계를 말해주는 문제들이였으며 그것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발현은 정치적자주성이며 도덕적 및 윤리적문제성도 정치적자주성에 의하여 제약되고 규제되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공산주의인간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내세우고 주체의 요구대로 풀어나가는 문학, 인간의 참된 삶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여주는 문학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공산주의인간학의 중요특징의 하나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실로 로동계급의 문예리론과 혁명문학발전에서는 광활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인간학이 문학의 존재와 더불어 항시적으로 제기되여온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란 무엇이며 그 본질과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명백한 해명을 준데 있다.

문학이 제기하는 문제는 언제나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로 제기되였으며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를 어떻게 깊이 파내는가에 따라서 문학이 제기하는 문제의 크기와 깊이가 제약되였다.

공산주의인간학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에서 나서는 근본문제가 인간의 자주성에 있으며 그것을 떠나서 그 어떤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는 과거사회에서 개인의 리상과 지향, 그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제도 사이의 모순에 의하여 빚어졌다. 이것은 과거의 진보적문학의 사상예술적가치와 철학적집중성을 담보한 중요요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 개인의 리해관계와 사회의 리익이 하나로 결합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는 전혀 다르게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공산주의인간학은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에서 나서는 근본문제가 인간의 자주성에 있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인간문제와 인간의 운명문제를 옳바르게 풀어나갈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될 때에만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근로자들의 생활과 활동의 본질을 정당하게 반영할수 있으며 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낼수 있다.

생산활동만 놓고보더라도 그것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사회활동의 기본분야이다. 그렇기때문

에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자기의 기본주제 분야를 창조적로동에 두고있으며 거기에서 표현되는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를 해명하는데 각광을 돌리고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문학에서 이처럼 중요한 창조적로동에 대한 주제도 그것을 어떤 관점과 립장에서 보는가 하는데 의하여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인간의 창조적로동을 단순히 사회의 물질적부를 생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을 생산활동이상의것으로 리해할수 없게 하며 결국에 있어서는 창조적로동의 주제작품창작에서는 그 어떤 새롭고 의의있는것도 찾을수 없는것처럼 생각하고 그로부터 외면하게 된다.

창조적로동을 자주성의 견지에서 분석평가할 때에만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사회의 물질적부를 축적하기 위한 활동으로만이 아니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근로자들 자신의 혁명화를 다그치기 위한 과정으로 리해할수 있다. 이것은 문학이 창조적로동을 반영함에 있어서 생산기술적공정들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로 하여 인간을 가리우며 인간문제대신에 따분한 생산기술적문제의 해명과정으로 작품을 메꾸는 것과 같은 폐단을 극복하게 하며 나아가서 문학으로 하여금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힘으로써 세계를 개조해나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문제를 내세우는 문학으로 되게 한다.

최근시기 인간의 창조적로동을 반영한 예술영화 《산정의 수리개들》을 비롯한 일련의 예술영화들과 소설들이 거둔 중요한 성과도 여기에 있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창조적로동의 주제작품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어떤 생산기술적문제를 놓고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과 같은 경향에서 벗어난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태도와 립장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문제로 끌어올린데 있다. 오랜 로동계급인 억만대장의 심장의 소리, 4센치의 편차가 간고압전주의 기초는 흠으로 묻어버릴수 있어도 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 당과 수령에 대한 조선로동계급의 충성심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고 하는 뜨거운 소리는 그의 신념의 웨침인 동시에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탐구되고 천명된 문제성이다.

인간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자신의 정치적생명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은 사람들이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생활을 개척하고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 가르치고있다.

자주성의 견지에서 우리 인민의 생활과 활동을 볼 때에만 또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정당하게 반영할수 있으며 거기서 나서는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옹계 풀어내갈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우리 혁명의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는 3대혁명은 과거사회가 물려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상,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며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투쟁이다. 3대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위업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문화생활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신조로 간직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꾸준히 일하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대렬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 문학은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일어나고있는 이러한 근본적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탐구하여 새롭게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형상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개척하고 그것을 높은 사상에예술적수준에서 감동적으로 그리는것은 우리 문학이 달성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이다.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고귀한 품모로 바로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되게 한 기본징표로 되기때문이며 그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의, 행복의 전부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반영함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박은 가장 고귀한 생활의 신념과 신조와 관련된 문제로 심화시켜 해명하고있다.

예술영화 《조선의 별》이 오늘 수백만 사람들을 커다란 격동과 흥분 속에 잠기게 하면서 사람들을 한없이 숭고한 사상정신적높이로 끌어올리고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다. 영화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진실하고 절절한 체험과 동지적인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만 혁명의 승리도 인민의 념원도 실현될수 있다는 숭고한 신념의 높이에 사람들을 세워준다. 《조선의 별》이 이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장중하고 숭엄하게 울려주는것도 그것이 조선혁명의 길이 처음으로 열려지던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온갖 시련을 같이 헤치며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눈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신념의 노래, 뜨거운 동지적사랑에 기초한 충성의 노래로 되어있기때문이다.

이밖에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깊이에 신념과 신조로 간직되어있고 사상정신생활에서 주도적내

용을 이루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있게 노래한 작품은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 장편소설 《축원》 등이 있다.

우리 문학이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개척한 분야는 또한 우리 인민의 삶의 의의와 행복에 관한 문제 즉 주체의 인생관에 대한 문제이다.

사람은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체의 인생관과 관련된 문제이며 동시에 인간학인 문학이 탐구하고 해명하여야 할 기본문제이다.

우리 문학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의 의의와 행복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하고 그것을 시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최상의 높이에서 해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바로 거기에 삶의 가치와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는 주체의 인생관을 특징짓는 근본핵이다.

청춘의 사랑도 보다 뚜렷한 성공과 영예의 길도 다 버리고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를 탐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깃들어있는것이며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보람과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이 제기한 문제이며 그것을 시대의 높이에서 해명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더욱 심화되고있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주체의 인생관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주었다.

장편소설 《령마루》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중요요인도 여기에 있다. 한생을 당의 품속에서 작업반장, 현장기사를 거쳐 기사장으로서 광산과 함께 살아온 주인공, 불치의 병이 도져서 권위있는 의료집단으로부터 그의 생명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까지 받은 그에게 남아있는 일이란 무엇이었던가? 장편소설 《령마루》는 이렇게 비상한 정황속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의 녀과 심장을 틀어잡은것은 그 어떤 슬픔도 공포도 아니며 오직 한가지 강내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 대한 생각과 열정뿐이라는것을 밝히었다. 다시말하여 숭고한 목적과 그에 대한 열정이 엄습해오는 죽음을 물리치고 쓰러지려는 육신을 부축하면서 평범하고도 수수한 우리 시대의 한 일군을 영웅으로 되게 하고있는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장편소설 《령마루》는 단순히 어떤 한 기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삶의 노래, 열정의 노래로 되고있는것이다.

유설경이 즐겨 찾아서 그 길을 걷고 현우림이 또한 그 길에서 체험하는 숭엄하고 고상한 정신세계는 그 이전의 그 어떤 주인공도 체험할수도 그러볼수도 없었던것이었다. 그것은 주체의 세계관이 생활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사람의 삶, 즉 인생에 대한 주체의 관점, 신념으로까지 확립된

오늘의 생활의 더없는 우월성과 공산주의인간학의 거대한 승리로써만 설명될수 있는것이다.

공산주의인간학리론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문학은 비단 현시대 인간들의 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나서는 원칙적문제, 인간문제를 새롭게 개척하고 해명하였을뿐아니라 과거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생활을 또한 그 본질에 맞게 정당하게 반영할수 있었다.

인류력사는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온갖 계급적 및 민족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의하여 력사는 전진하고 발전하여왔다. 이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력사발전의 추동력으로, 그의 본질적내용을 이루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공산주의인간학은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인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중심에 제기하는 문학이며 그것을 중요특성으로 하는 문학이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인간학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그 본질적측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는 문학이다. 이것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구현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거둔 그 최상의 사상예술적성과는 곧 원작이 체현한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가 력사물을 취급하는 영화창조에서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이루어진것이다.

력사적인물로서의 안중근의 그 유명한 의거-할빈역두에서 이등박문을 사살한 의로운 행동은 다름아닌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이다. 그러나 력사적사실로 되어있는 그러한 의로운 투쟁을 그린다는것과 작품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 다름없는 자주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는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이것은 력사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창작가의 창조성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있는것이 아니라 력사적 사실과 사건들을 어떤 관점과 립장에서 관철하고 평가하며 해당 력사적시기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전형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혁신적의의는 바로 주인공의 생애에 실지 있었던 의로운 투쟁을 취급하면서도 그자체를 보여주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정치적자주권문제, 국권회복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문제로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한데 있다.

계몽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의 총칼에 의하여 조작된 《한일합방》에 이르는, 비운에 찬 곡절많은 력사적시기를 포괄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력사적사실들에 대한 기록으로, 또는 주인공의 파란 많은 생애를 전기식으로 소개

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나라의 자주권을 위한 한 인간의 피투성이가 된 투쟁의 이야기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주의에 대한 장엄한 노래로 된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더우기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주인공자신의 피어린 싸움의 총화로서 자신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줄 탁월한 령도자, 그러한 위인, 영웅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짖는 그 절절한 절규는 국권회복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 얻어질수 있는 것이다.

문학이 인간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는것은 곧 어떠한 인간전형을 창조하는가 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서 보여주며 즉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주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문학은 새시대의 인간전형의 창조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공산주의인간학의 중요특징의 하나는 또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새시대의 인간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이라는데 있다.

공산주의인간학의 특징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인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인간들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이라는데 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을 내세우는 공산주의인간학이 창시됨으로써 문학은 비로소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을 그 본성에 맞게 완벽하게 그릴수 있는 기본원칙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을 사회의 한 성원으로로서 사회경제적제관계속에서 본것은 인간까지 포함하여 사회와 자연의 모든 현상을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 《신》의 지배와 조화에 의하여 생겨나고 변화되는것처럼 설명하던 반동적인 관념론에 대한 일대 타격이었으며 수백, 수천년동안 예측과 굴종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을 신적관념으로부터 해방 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사변이었다.

그러나 인간을 다만 사회경제적제관계에 의하여 제약된 존재로서만 고찰하게 되면 인간의 사회적성격에 대하여 설명할수는 있으나 그의 사회적본질을 밝히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인간자체를 완벽하게 천명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형상을 창조하는것을 기본요구로 제기하는 공산주의인간학에 의하여 비로소 새롭게 개척된 문제이다.

자주성을 지닌 인간형상의 창조를 기본요구로 하는 공산주의인간학이 창시됨으로써 또한 아름다운것과 고상한것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여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문학에서 아름다운것과 숭고한것은 우리의 미학적리상에 맞을뿐아니라 그 리상의 높이를 더욱 승화시켜주는것이다. 또한 아름다운것과 숭고한

것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며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것과 숭고한것의 극치는 인간에게 있으며 그의 내면세계에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인간학은 자주성을 지닌 인간, 인간의 가장 높은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그것을 빛내어나가는 인간을 그리는 문학이다. 인간의 가장 높은 존엄과 가치를 나타내는 자주성을 지키며 그것을 빛내어나가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 여기에 바로 참다운 의미에서의 아름다운것과 고상한것의 극치가 있는것이 아닌가.

북한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꽃분이의 형상에서 우리를 매혹시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은 그의 가룩한 효성도 효성이지만 겹쳐드는 모든 불행을 억척스레 헤쳐나가면서 비록 기운이 진하여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그 자주정신이다. 그렇기때문에 험악한 세상에서 효성의 꽃을 파는 꽃분이에게서 동정의 눈물을 금하지 못하던 우리들은 혁명의 꽃, 투쟁의 씨앗을 뿌리는 꽃분이에게서 인간의 자주정신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또 다시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리성과 감정이 인간의 자주정신이 내뿜는 그 숭고함과 아름다움에 황홀해지고 매혹된데서 이루어진것이다.

자주성을 지닌 인간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공산주의인간학은 이처럼 인간을 사회적본성에 맞게 완벽하게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천명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주고있다.

공산주의인간학의 이러한 요구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은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새형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게 되었다.

성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탄생한 항일혁명문학의 주인공들인 갑룡이, 꽃분이들을 비롯하여 유철이, 리상철, 박대성, 최명진, 유설경, 김철진 등 우리 문학의 수많은 주인공들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다.

이것은 우리 문학의 성과가운데서도 가장 큰 성과이며 우리 문학을 새로운 인간학,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함에 있어서 근본적혁신으로 된다.

또한 우리 문학은 자주성을 지닌 인간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구감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할수 있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의 세계관이 확고히 선 인간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의 주인공들의 충실성은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한 신념화되고 신조화된 충실성이며 또한 그들자체도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있기때문에 사회와 자연의 모든 현상

을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문학이 창조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당성, 로동계급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한 인간들이며 세상에서 가장 유식하고 문명한 인간들이며 오늘날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전형들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한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 로동계급성의 최고표현으로 되며 공산주의자의 기본징표로 되기때문이며 공산주의사회인간들이 지니게 될 능력, 다방면적발전도 과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함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기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 당이 일찌기 공산주의인간학이 내세워야 할 인간을 가리켜 공산주의사회가 인류의 가장 높은 사회적리상이라면 주체형의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리상을 체현하고있는 공산주의적인간의 본보기라고 정식화한 그런 인간들이 수많은 우리 문학에 창조되었으며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은 자기의 정신적인 아름다움과 숭고함으로 하여 사람들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

× ×

새로운 주체문학건설-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발전은 그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영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문학분야에서의 혁명이다.

공산주의인간학자체가 그것을 요구하며 또한 우리 문학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인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먼저 작가들 자신이 문학창작에 대한 온갖 낡은 관념과 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질과 그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에 남아있는 문학창작에 대한 낡은 잔재는 인간의 자주성과 관련된 문제의 제기가 없거나 심각하지 못하며 있으나마나한 문제를 가지고 다만 문학적인 이야기거리가 있다는것으로써 자신을 위안하면서 글을 쓰는 경향과 새시대의 주인공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사업에 본보기가 될수 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들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내세우지 못하고 흥미거리로 작품을 쓰는 경향 등이 곧 그것이다.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는것자체도 주관적욕망만을 가지고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작가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과 함께 튼튼한 준비가 안받침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문학이 문학창작에서 온갖 낡은것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작가들의 미학적리상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작가의 미학적리상은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한 시대정신의 구현으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위대한 현실을 열렬히 긍정하고 옹호할 때에만 진실로 미학적리상이 섰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의 미학적리상은 시대정신의 높이에 서서 그것을 자기의 사상미학적안목으로 전환시킨것이며 우리 인민의 주도적감정을 이루고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 그 신념과 의지, 념원을 자기의것으로 만든데서 생긴것이다.

시대정신의 높이에 올라선 작가만이 우리 시대인간들의 정치적생명을 지키고 빛내여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체때에 예리하게 포착하고 대담하게 제기할수 있으며 또한 우리 시대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천명할수 있다.

공산주의인간학은 내용에서뿐아니라 형식에서의 혁명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예술적형상성이 따라가지 못하면 은을 낼수 없다. 더구나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 문학인 공산주의인간학은 그에 맞게 예술적형상성을 최대한 높일것을 요구한다. 이야기줄거리로 형상을 대신하며 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석적이며 깊이있는 묘사대신 상식적인 평가와 아무런 의미부여도 없는 묘사를 주거나 시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을 떠나서 미담이나 감격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시를 꺼리낌없이 써내는것 등이 모든것은 지난시기의 낡은 문학의 잔재이며 우리의 공산주의인간학과는 인연이 없는것이다. 오직 공산주의인간학을 건설한다는 작가자신의 높은 요구와 꾸준하고 피타는 노력에 의해서만 우리 문학의 보다 높은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철학적깊이가 있고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완전히 결합된 문학,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인간학이 요구하는 문학이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공산주의인간학에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기의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문학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당이 밝혀준 종자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이론은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넓은 길을 열어주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방도

려원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지난 1970년대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22페이지)

뜻깊은 2월을 맞이하여 끝없는 감격과 다함없는 경모감에 휩싸여있는 우리 인민들은 오늘 커다란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찬란히 개화발전하여온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일찌기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문학예술이 오늘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에서처럼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고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해내어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생활창조로 힘있게 고무한적이 있었던가.

실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주체의 이 강산에 다함없는 충성의 송가로, 삶의 기쁨과 환희의 노래로 높이 울리고있는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오늘 그 발전의 대전성기를 활짝 펼치고있는것이다.

민족의 력사에서 일찌기 체험할수 없었던 오늘의 우리 문학예술의 이와 같은 눈부신 발전과 빛나는 성과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있고 우리 당의 정력적이고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에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찬란한 향도성으로 빛나는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합데 대한 혁명의 총적임무를 제시하고 그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주체적문학예술창조사업을 직접 조직령도하였으며 력사에 길이 빛날 이 행정에서 주체시대 문학예술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주체적문예리론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오늘날이 아니라 공산주의미래에까지 영원

히 주체의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사상리론적초석을 확고히 쌓아놓았다.

종자에 관한 이론은 우리 당이 내놓은 이러한 주체적문예리론가운데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이론의 하나로서 력사에 류례없는 대전성기를 펼치고있는 주체문학예술의 성과를 찬란히 빛내고있으며 그의 영원한 개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1

우리 당이 밝혀준 종자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이론은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를 발견하고 그의 본성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산 유기체에 비유할수 있는 문학예술작품의 생리구조적본질과 생리적과정의 합법칙성을 완벽하게 해명한 위대한 학설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이 훌륭하게 되자면 반드시 똑똑한 종자가 있어야 하고 그 종자로부터 이야기의 줄거리가 뻗고 형상의 꽃이 피어야 하며 그속에서 주제가 여물고 사상적내용이 심오하고 뚜렷하게 부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작품의 생리적과정이라고 밝혀주었다.

종자는 하나의 산 유기체에 비유할수 있는 문학예술작품의 생리구조의 핵이며 생리과정의 기초이다.

문학예술작품은 바로 종자를 핵으로 하여 형상의 다른 여러 요소들을 통일시켜 하나의 전일적인 화폭을 구성하고있으며 종자를 핵으로 하여 형상의 다른 여러 요소들을 키우고 자래워 하나의 산 유기체를 형성하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이라고 하는 대상의 생리적구조, 생리적과정의 본질적특성을 처음으로 밝혀낸데 종자의 발견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는것이다.

대상의 생리본성을 해부학적으로 깊이 밝히려는것은 그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연구 및 그 창조사업에서 선결문제이며 동시에 어려운 문제로 된다.

인류는 먼 옛날부터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왔으나 생명유기체와 같이 조화롭게 련관되고 통일되어있으며 강렬한 생명력과 활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독특한 작용을 하고있는 문학예술작품의 생리적비밀을 처음부터 다 알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학술이 생겨난지는 아득한 옛날이었으나 그때 벌써 인체의 생리적본성을 다 알고 의학술이 생겨난것이 아니었던것과 류사한것이다. 의학과학분야에서는 오늘도 계속 생명현상의 비밀을 찾아내고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도 작품을 하나의 산 유기체로 본다면 거기에 차넘치는 생명의 핵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작품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하여나가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력사적으로 오래동안 론의를 벌려왔으나 이에 대한 똑똑한 해명을 보지 못하였다.

지난시기 형상의 기초를 이루며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방향짓고 이끌어나가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던 이 절실한 시대적요구는 오직 우리 당에 의하여 작품에는 그의 핵으로서 종자가 있으며 바로 그 종자가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지으며 그 생명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라는것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었다.

이것으로 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종자를 핵으로 전일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작품의 생리적구조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종자를 생명의 핵으로 하여 하나의 유기체로 자라나고 태어나는 작품의 생리적과정과 그에 따르는 창작과정의 합법칙성이 완전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이것은 문예학발전의 일대 사변으로 된다.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의 발전은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기성의 이해와 인식을 뒤집어엎고 그것을 과학적토대우에서 완전히 이해할수 있게 하였으며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와 기준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문학예술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이러한 종자는 무엇보다도 작가가 생활속에서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 독창적으로 찾아낸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작가는 무엇보다먼저 생활속에서 새로운 인간 성격과 그에 체현된 인간문제를 탐구하면서 그 인간과 인간문제를 생활로써 보여줄수 있는 가치있는 생활적인 문제점을 찾아나가게 된다. 이렇

게 함으로써 작가는 자기가 작품을 통해 말하려는 인간문제를 보여줄수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 다시말하여 그것이 생활적형상을 통해 자라고 꽃피나서 자기가 말하려는 인간문제를 밝혀줄수 있는 그런 생활의 씨앗을 잡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의 씨앗은 어디까지나 예술적형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여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처음부터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그러한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되어야 한다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작가가 작품에서 그릴 형상의 기본테두리까지도 예상할수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말한다고 할수 있다. 만약 작가가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주요 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관계, 작품의 구성과 양상 같은것을 전혀 예상할수 없는 사상적알맹이를 쥐었다고 하면 그는 문학의 종자를 잡은것이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 풀어야 할 종자를 잡은것으로 된다. 그것은 사회과학과는 달리 문학예술에서는 작가의 의도와 사상적내용을 어디까지나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는것을 본성으로 하기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이 작가가 생활에서 탐구하여 작품에서 생활로써 밝히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이 기본문제를 형상으로 해결할수 있게 그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까지 주어져있는 그런 생활의 사상적알맹이, 다시말하여 작품의 사상을 전일적인 형상으로 완전하게 자래우고 꽃피울수 있는 그런 생활의 씨앗을 쥐었을 때 종자를 잡았다고 말하게 되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종자는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것이다.

이 종자는 일체의 멸망이 가까와오고있던 시기에도 민족적자주의식이 부족하고 계급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가운데 자신의 무권리와 가난을 타고난 팔자로 여기며 일체침략자들이 나쁜놈들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놈들과 엇서서는 살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어 일체에 대한 환상까지 가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조건에서 이러한 사람들도 일체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찾는 혁명의 길에 나설 때에만 생존의 권리를 찾을수 있고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해 선택된 종자이다.

그러므로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이 종자에는 처음부터 계급적자각이라고는 전혀 없고 어질고 순박하기만 한 농촌청년이 주인공으로 설정될것이 예상되었고 그가

《자위단》에 끌려가 갇은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생활과 이야기줄거리같은것이 예상되어있는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상의 분과속에서 작품의 기본문제가 제기되고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으며 놈들에게는 빌어봐도 소용없고 사정해도 소용없으며 오직 왜놈들과 싸우는 길만이 자신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사상적의도가 흘러나오게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형상의 원형이라고 말할수 있는 뚜렷한 예술적표상을 통해 암시해주는 종자는 구체적인 생활소재와 결합되면서 이야기줄거리를 자재우고 형상의 꽃을 피우며 그속에서 주제를 여물리우고 사상적내용을 심오하고 뚜렷하게 부각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그것은 비옥한 토양에 심은 한알의 씨앗으로부터 한그루의 꽃나무를 키워내는것과 같은 생명의 발육에 비유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종자는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다.

여기서 소재는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워주는 생활적바탕으로 된다. 그러므로 의의있고 참신한 생활소재를 잡아야 종자를 옹게 싹틔울수 있고 작품의 사상에술성을 보장할수 있다.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하여 말하려는 기본문제로서 종자에 의해 규정되고 제약된다. 그러므로 종자를 똑똑히 골라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작품의 사상도 종자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므로 종자를 똑똑히 쥐어야만 생활을 통하여 의의있는 사상을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다.

그밖의 모든 형상요소들도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종자의 본성 및 내용과 형식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가 이렇기때문에 창작에서는 종자를 바로잡고 잘 가꾸는것이 기본문제로 된다. 여기에 종자리론이 새롭게 밝혀주고있는 창작의 근본원리가 있다.

종자리론은 창작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종자를 옹게 골라잡아야 하며 이것이 창작의 관건적문제로서 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그리고 종자리론이 밝혀준 종자선택의 기본원칙은 작품의 높은 사상에술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하며 동시에 그것을 형상으로 구현할수 있게 잡아야 하며 그리고 언제나 새롭고 특색이 있는것으로 잡는것이다.

종자를 옹게 잡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잘 가꾸지 못하면 훌륭한 열매를 맺을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는 좋은 종자를 골라친 다음에는 거기에 모

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나가면서 예술적으로 잘 가공해내야 하는것이다.

이로부터 종자리론은 종자를 골라잡은 다음에도 그에 알맞는 형상의 기본선을 정확히 틀어잡고 인물, 사건, 일화, 갈등과 같은 모든 형상요소들을 거기에 복종시켜야 하며 지어는 대사 한마디, 장면 하나를 설정하고 처리하는데서도 종자의 요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종자의 예술적가공의 기본원칙으로 제기하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종자리론은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고 잘 가꾸는데 창작의 성과와 작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는 가장 독창적인 리론이다.

이 리론은 창작과정의 합법칙성에 대한 종래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과학적인 리해를 확립해주고 창작가들이 창작과정에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기본고리를 명철하게 밝혀주었다.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종자리론이 확립됨으로써 창작가들이 력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찾아내려고 애써왔던 창작적성과의 주되는 비결이 비로소 창작가들의 수중에 장악되게 되고 그들의 창작활동은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전환될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 당이 내놓은 종자학설의 위대성과 독창성,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의 하나가 있으며 인류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그의 커다란 업적이 있다.

2

우리 당이 밝혀준 종자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은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넓은 앞길을 활짝 열어주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는 혁명적인 창작지도리론이다.

새로운 학설의 정당성과 거대한 가치는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을 얼마나 힘있게 추동하며 그에 어떻게 지도적지침으로 작용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종자에 관한 리론은 문학예술창작과정의 합법칙성과 그의 성공의 비결을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 이끌어올리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으며 그것으로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넓은 앞길을 활짝 열어주고있다.

우리 당이 밝혀준 종자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은 무엇보다먼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

데 대한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창작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작품의 높은 사상에술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해결해주고있다.

우리 당에서는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고 가르쳤다.

종자는 원래 작가가 생활을 통하여 잡아온 사상적알맹이이므로 거기에는 처음부터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수 있는 바탕이 주어져있다. 다시말하여 작가가 종자를 잡을 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것이 아니라 생동한 생활로써 파악하기때문에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서의 종자는 작품내용의 기본으로 되는 동시에 형식의 기초로 되며 그것들을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된다.

특히 종자는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정확히 전달해주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작품의 높은 사상에술성을 담보해준다.

형상을 통하여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것은 창작의 초보적인 요구이면서도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이다. 작가가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고상한 생활적리상을 지니고있을 때 바로 그가 바라는 사상미학적의도가 형상을 통해 예술적으로 정확하게 전달되면 작품은 성공하게 되는것이다. 종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준다.

그것은 작가가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 무엇보다먼저 자기가 말하려는 사상미학적의도를 확정하고 그것을 작품을 통하여 실현할수 있는 형상의 테두리까지 예상하게 되므로 종자를 바로잡는것은 곧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는것으로 되기때문이다.

종자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품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는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해준다.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은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는 사상의 심오성으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상의 심오성과 하나로 통일될 때 참다운 예술적가치를 가지게 된다. 다시말하여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은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는데서 생기는 것이지만 생활의 본질도 그것을 추상적으로 일반화할 때에는 예술에서 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문학예술에서는 인간생활의 본질을 생동한 생활속에서 폭넓게 밝혀내고 사건의 깊은 내용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려낼 때 그리고 한 장면의 생활을 통하여 지나온 생활과 앞으로

의 생활을 다같이 깊이 생각하게 하며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할 때 형상이 철학적심오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종자는 작가가 사람들에게 생활의 본질과 그의 진리를 가르치려는 의도를 안고 생활속에서 진지한 탐구와 사색을 거쳐 얻어낸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므로 참다운 종자에는 생활의 본질이 깊이 일반화되어있으며 그것을 형상의 심오성으로 실현할수 있는 요인들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므로 종자를 바로 잡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과 그의 운명을 두고 깊이 사색하게 하고 커다란 공감을 받게 하며 그들의 혁명적세계관과 참다운 인생관형성안에 큰 작용을 할수 있는 철학적깊이가 있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종자는 또한 예술의 본성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를 평가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창작의 개성적특성을 살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생활에서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것은 참신한 형상을 창조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비반복적인 형상창조는 바로 작품의 사상예술적기초로 되는 종자를 독창적으로 골라잡는데로부터 시작되는것이다. 그것은 바로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아야 작품에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며 인상깊고 흥미있는 형상을 창조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창작에서 도식과 류사성을 없애고 나날이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새롭고 다양한 미학적요구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종자를 바로잡고 창작의 개성적특성을 적극 살려나가야 하는것이다.

이과 같이 종자는 작품의 정치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고 높여주는 중요한 담보이기때문에 창작에서는 종자를 바로 잡고 종자리론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이 밝혀준 종자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은 또한 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인 창작가들의 창조적열정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리게 함으로써 혁명적문학예술을 질적으로나 량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당에서는 종자는 작가를 창작으로 추동하는 힘이며 예술적환상과 창조적열정의 원천이라고 하였으며 좋은 종자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속도전은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될뿐아니라 작품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고 하였다.

작가가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 그것은 창작의 사상에술적기초가 마련되고 목표실현의 방도와 확신이 생겼다는것을 말하며 창조적사색이 무르익었다는것을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좋은 종자를 골라잡아야 비로소 창작적열정에 불타게 되며 예술적환상을 활짝 펼칠수 있다. 심장을 틀어잡고 끝없이 불태워주는 종자를 잡아쥐었을 때 작가는 커다란 힘과 재능을 발휘할수 있고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열정으로 밤낮을 이어가며 창작에 열중할수 있다. 그러므로 종자야말로 작가의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떠밀어주고 이끌어가는 힘으로 되며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수 있게 하는 기본전제로 된다.

속도전은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혁명적창작원칙이며 창작전투의 기본형식이다.

속도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급속히 발전해야 할 사회주의문학예술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혁명적문학작품창작의 본성을 반영하고있다.

원래 예술은 사상과 열정의 산물로서 시간을 오래 끈다고 하여 잘되는것이 아니며 창작적성과의 비결은 시간에 있는것이 아니라 창작가의 높은 사상과 열정에 있는것이다.

종자는 바로 창작가의 창조적열정을 불태워주는 원천이고 힘이기때문에 종자를 바로잡고 작품에 대한 과약이 생길 때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야 짧은 기일안에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낼수 있으며 혁명적문학예술의 전반적인 앙양을 가져올수 있다.

우리 당이 밝혀준 종자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인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가장 빛나게 실현할 방도를 마련해주고있다.

문학예술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는 행정실무적인 지도가 아니라 정책적지도이며 이것은 중요하게 창작에 대한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의 통일로 실현되게 된다.

정책적지도는 창작가들이 생활에서 정치적인 의가 있는 종자를 똑바로 잡고 그것을 당의 로선과 정책의 견지에서 옳게 풀어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지도이며 형상적지도는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예술적으로 원만하게 구현하도록 창작가들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지도이다.

문학예술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는 바로 종자를 중요한 공간으로 하여 실현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무엇보다도 창작가들이 종자를 바로잡게 하는것을 통하여 창작의 주체적방향과 사상적내용을 매시기 때 단계에서 당이 요구하고 혁명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이끌어가며 문학예술의 사상교양적기능과 역할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높여나가게 된다.

그리고 로동계급의 당은 창작가들이 종자를 바로잡고 그것을 형상으로 훌륭히 꽃피우도록 지도방조함으로써 예술창작사업에 대한 가장 실속있는 지도를 보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종자리론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 기본요소이며 모든 창작공정을 집중시키는 기본요인으로서의 종자의 본성과 위치로부터 출발하여 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수 있는 기본고리를 밝혀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이 리론에는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 작품자체에 대한 문제, 그의 창조자들의 창조적열정문제,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문제 등이 다 집중되어 있고 그 모든것을 종자라는 하나의 고리를 통해 통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비결이 밝혀져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밝혀준 종자리론을 틈틈히 틀어쥐고나갈 때 문학예술창작과 그의 전반사업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수 있는 리유가 있으며 종자리론이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넓은 앞길을 활짝 열어주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방도를 밝혀주는 위대한 창작지도리론으로 되는 기본근거가 있는것이다.

3

우리 당이 밝혀준 종자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은 문학예술창작실천을 통하여 이미 그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리고 거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불멸의 리론이다.

우리 당은 종자를 발견하고 종자리론을 창시하였을뿐아니라 창작실천에서 종자리론을 옳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켰으며 종자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하였다.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치고있는 오늘의 우리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과 빛나는 성과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

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 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오늘의 영화화면과 가극 및 연극무대 그리고 소설화폭에 그대로 옮기는 위업이 빛나게 실현된것이다.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을 대를 이어 영원히 주체의 문학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한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 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이 빛나는 위업을 받기하고 현명하게 령도하여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면서 종자문제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우리 당은 원작에 무조건 충실하는것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 예술형식에 옮기는데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이 근본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작의 종자, 다시말하여 원종자에 철저히 기초하고 그것을 똑바로 쥐고나갈데 대한 근본방도를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면서 일부 사람들이 이 명작의 종자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이 명작에 고유한 형상적특성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명작의 종자와 그로부터 출발하는 명작의 사상에술적특성에 대한 고전적분석을 주었다. 이것으로써 작품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있는 파악에 기초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가운데서도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 명작을 짧은 기일안에 원작 그대로 훌륭히 옮길수 있게 하였으며 주체적문학예술창작의 원칙으로서의 속도전의 시원을 열게 하였다.

실로 우리 문학예술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 과정은 당의 지도밑에 원종자를 똑똑히 쥐고나가면서 그것을 옮기는 문학예술형태의 특성에 맞게 구현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우리 당이 내놓은 종자리론의 정당성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당의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지도,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종자에 대한 지도였다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의의있고 가치있고 특색있는 종자를 바로 골라잡도록 작가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고 그 종자를 형상으로 잘 가꾸도록 작가들에게 지혜를 주고 재능을 꽃피워주는 지도였다.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의 창조 과정에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처음 창작가들이 종자를 바로 잡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이 영화의 이야기줄거리설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있을 때 당에서는 죽을 때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에 바치고 죽은 주인공 간호원의 당과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에서 종자를 바로 잡고 작품을 훌륭하게 완성할수 있도록 하였다.

당에서는 또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지도하면서 창작가들이 무엇보다도 종자를 바로 잡도록 해주고 그것을 형상으로 활짝 꽃피울수 있게 해주었다.

당에서는 작품을 지도하면서 장군님에 대한 흠모선을 넣어야 한다고 하면서 군인들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최고사령부와 장군님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지생활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종자이며 이 종자를 살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이 종자의 해명을 직접 담당하고있는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한 고전적가사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직접 마련 해주었다.

그리하여 가극의 태백산병동장면에서 이미 떠나간 부대를 그리며 안타까움에 못이겨 흘리던 주인공의 슬픔의 눈물은 기쁨 때나 어려울 때나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며 살며 싸워가는 혁명전사의 숭고한 감정에서 뜨겁게 샘솟는 흠모의 눈물로 승화되게 되었으며 가극의 내용전반을 부상병들을 후송하는 단순한 군사적임무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지닌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참다운 인간에 대한 드높은 레찬의 노래로 완성되게 할수 있었다.

인민상계관작품들인 예술영화 **《로동가정》**과 **《꽃피는 마을》**도 창작과정에 바로 당에 의하여 종자를 바로 잡게 됨으로써 커다란 예술적감화력을 가지고 오늘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대작으로 될수 있었다.

실로 오늘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의 대화원은 빛나고 아름답게 그리고 특색있게 장식하고있는 기념비적대작들을 비롯한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성과작들은 그대로 우리 당이 내놓은 독창적인 종자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낳은 자랑스런 결실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독창적인 종자리론은 오늘 정신문화창조활동에 적용되는 그의 보편적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뿐 아니라 출판보도활동의 원칙으로 되고있으며 과학연구사업의 방법론으로, 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연구와 그 집행에서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이 내놓은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리론의 심오한 본질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해야 할것이다.

당에 대한 생각

박세옥

언제나 우리 느끼고있어도
그 무어라 말할수 없는것
당이더라

알려고 해도
그 숭엄함을 헤아릴수 없는것
그 또한 당이더라

들에 피는 꽃들이
태양의 그 은혜로움을 다는 모르듯
탐스러운 이삭들이
뿌리를 내려준
대지의 그 수고를 다는 말할수 없듯

그와 다름없더라 당이여
우리를 안아주고 키워준 그 품
그 은혜로움을
그 고마움을

깊은 밤
이른새벽
어디서나 그대 하는 말
그 모든 말
우리를 두고 하는 말

다름없더라
어린 나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좋은 앞날을 속삭여주던
그 살들하고 친근하던 목소리와

당이여
그대를 그 무슨 말로 노래하라
그대 주는것 우리 받을수 있으나

그것을 다 말할수는 없구나

그대의 크나큰 기복의 한끝인듯
붉은넥타이를 가슴에 드리우던 그날엔
생각했더라
그대는 우리 머리에 휘날리는
기발이라고

준엄한 시련의 그날엔
뜨거운 땅우에 총을 쥐고 었드려
생각했더라
그대는 우리를 부르는
나팔소리라고

조국의 하늘에 날으는
천리마의 날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더라
조국을 하나로 숨쉬게 한
그대는 불붙는 심장이라고

그 기발
그 나팔소리
그 불붙는 심장
그 무엇으로써도 그 무엇으로써도
그대를 다 말할수 있었더냐

당이여
사람들은 말하더라
그대를 불러 젖줄기라고
그대를 불러 어머니라고
그대를 불러 태양이라고

그대는 한이 없는것

저 무궁한 우주도 비길수 없는것
한번 그대 품에 안기면
떨어질수 없는
어머니 품보다 더한것

당이어 그때문에
식지 않은 로속으로 뛰어들며
언제나 그 가슴에 간직했던 말
그 말을 남기지 않았던가
나를 당에 받아달라고

그때문에 당이어
천우들의 가슴에 안겨
마지막 숨을 지우는 그 순간에도
그대를 우리르며
마지막 당비를 맡기고 가지 않았던가

그대 품에 안겨
한생을 살며

그대의 은혜로움
그대의 따사로움
그대의 고마움을
다 알고간이 이 세상에 있었던가

당이어
아아, 당이어
가장 성스럽고 위대하고
존엄높은 그대를 불러
다른 말로 더는 말할수 없어

우리 말하고싶고
우리 바치고싶은
그 마음
그 모두를 담아
우리는 부르노라
다만 하나의 말로
당이라고 어머니당이라고-

백 두 산

최승철

구름바다위에 하얗게 솟아
영원을 바라보는 백두산이여
그 옛날 그대 채주의 손 휘두르니
그림같은 이 강토 금수강산 빚어졌네
그대 눈을 들어 호탕히 웃으니
구만리 푸른 하늘 펼쳐져 나뭇젖네

수난의 모진 세월 매운바람 헤치며
밝은 세상 그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반만년 기나긴 밤 지새우느라
머리가 희어진 조종의 산이여

노래하노라, 그대의 메부리우에
주체의 태양 솟아 새시대를 펼치시니
략탈자들은 부서져 세월의 락엽에 묻히고
인민의 조국은 온갖 재부 구슬처럼 두르고
자주와 번영을 소리높이 노래하네

아, 그렇구나 백두산이 구름위에 솟았음은
조선에 태어나신 인민의 태양을
한껏 높이 받들어 자랑하려고!
그래서 머리에 거울조차 이였구나
주체의 위업 누리에 비치려고!

대양과 대륙 넘어

-한 외국인이 부른 노래-

백 하

긴긴 해들을 두고
대양을 넘어 대륙을 넘어
따뜻이 비쳐오는 해발이 있었네

숨막히는 어둠속에 길을 잃고
지친 심장을 불안고 해매일 때
이 가슴 살뜰히 어루만져주며
밝은 앞길을 환히 열어주는
은혜로운 해발이 있었네

무서운 경제파동의 미친 광풍에
온몸의 피마저 말라들 때
속도전의 거세인 숨결로
이 가슴에 싱그러운 새 힘을 부어준
찬연한 해발이 있었네

아득히 머나먼 조선에서
끝없이 비쳐오는 해발
《꽃파는 처녀》의 뜨거운 눈물로
명들은 가슴의 상처를 씻어주며
즐거운 생의 기쁨을 안겨준
한없이 따사로운 해발!

하나 내 알수 없었노라
그 어느 위대한 품에서
그리도 찬란한 해발이 비쳐오는지
그 어느 자애로운 품에서
그리도 따사로운 해발이 비쳐오는지

끝없는 감사와 그리움에 넘쳐
내 찾고찾았노라
십여년 긴긴 해돋이를 두고...
허나 종시 찾을길 없었나니
너무도 겸허하여라, 은혜로운 그 품이여
너무도 거룩하여라, 따사로운 그 품이여

그 빛발 긴긴 해들을 두고
흰물결 설레이는 대서양 기슭에도

빠나나 무르익는 가없는 초원에도
새로운 전설이 꽃피어났어라

알길없이, 소문없이
그 모습 나타냄도 없이
꺼져가는 심장에 생명을 주고
시달린 대지에 봄꽃을 피워주는
은혜로운 품에 대한 새 전설이

아, 이제는 단 한번만이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자애로운 그 해발가까이 우리르고싶던
세계의 열망 누를길 없어
간절한 소망을 안고 왔나니

바라고바라던 념원은
장엄하게 열린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
송엄한 주석단우에 이루어졌나니
환히 웃으시며 나오시는
인류의 태양 **김일성** 동지
장내에 휘황히 비발치는
향도의 해발이여!

자애로운 그 빛발
그립고그립던 해발이여
순간, 감격의 폭풍은 터지고
젖은 눈 습벅이고 또 습벅이며
내 흐르는 눈물 멈출길 없노라

한없이 영명한 빛발로
시대의 풍랑을 잠재우고
인류의 미래를 밝게도 비쳐주는
우리의 등대, 향도의 해발이여

아, 한없이 영명하고
따사로운 해발은
온 세계가 높이 받들어올린
찬란한 향도의 해발이여라

백두산기슭에서

홍준성

내 어깨 바위 되어
받들고싶구나
내 몸 물안개 되어
안기고싶구나

만병초 송이송이
내 마음 물들여 피우고싶고
흘러내린 조약돌 다시 씻어
네 기슭에 얹어주고싶고...

백두산 조종의 산아
어이하여 네 기슭에 서면
이리도 흙 한줌 뜨거웁고
이리도 풀 한포기 쓰다듬고싶으나

하늘땅에 피가 지던 그 세월
백두산에 장수별 솟았다!
민족의 가슴 환희로 터질 때
산천초목도 허리 펴고 바라보던 산

백만대적 무찌른 장군님 기상이
봉이마다 어리어 번쩍이누나
태양을 우러러 숭구치던 눈물이
천지에 피여 설레누나

멸적의 디딤돌 되어
조국진군길 받들었던 바위들은
이끼에 물렸어도 빛나는듯
장군님 선참으로 뵈옵고싶어
상상봉 치달아오르다가
그만에야 목매여 주저앉았더나
누운 향나무는 그날의 기쁨에 춤추는듯-

눈보라길 헤쳐오실 땐
걸음걸음 만병초 피워드렸고
봄향기 안고 오실 땐
아름아름 진달래 드린 이 기슭

자욱마다 새겨진 백두의 전설
하늘의 달도 별도
우주의 한끝까지 전하고싶어
다투어 내리는 이 기슭

설레는 천고밀림아
사령부 전령병들 섰던 그 자리에
나도 잠시 서보자꾸나,
죽어서도 네 기슭에 묻히리라던
투사들의 그 념원
그날에 새겨안은 그 년륜을
내 가슴에도 한돌기 새겨주렴

아, 장군님 오신 그 험한 길에
돌 하나 옮겨놓지 못하고
이슬 한방울 털어드리지 못한 나여서
그래서 더욱 송구해지는 마음
그래서 더더욱 가슴뜨거운 이 기슭이거니

내 몸 바위 되어 받들고싶구나
내 마음 꽃이 되어 피고싶구나,
전사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고
전사의 삶이 어디서 총화돼야 하는가를
우리모두에게 가르쳐주는
오 백두산, 백두산기슭이여!

어머니당이여

윤명숙

파편과 재가루가
작은 발목을 묻던 그 시절에도
들가에서 해종일
나는 민들레꽃잎우에 앉는
나비들을 쫓아다녔다

그 시절엔 다 알수 없었다
나에게 첫 비단옷을 입혀주고
나를 요람에 채워준것은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었던만

모든것이 불타고 파괴되었어도
우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엔 금이 가지
않았거니
불구름속에서도 지켜주고 키워준 그 손길
아 그것은 당의 손길이였다

폭탄의 섬광이 비껴드는 피창가
원아들의 침대머리를 지켜
온밤 창밖의 별을 세여주던
나이 지긋한 원장선생의 그 눈빛에
들꽃은 포연에 그슬려도
우리가 입은 꽃무늬옷에
뜨겁게 넘친것은 당의 은혜였다

멀리 전선길을 가시다가도
아버지원수님께서
그 어느 학원을 찾아주신 이야기를
밤깊도록 들으며 잠이 들던 유년시절

꿈결에도
아버지원수님의 영상을 그리며
기쁨에 넘쳐 달려가 뵙고싶었던 그 품
공책에 처음 익힌
수령님 존함을 불러보며

내 자랐거니
잊을수 없으라
수령님을 따라
내 삶을 바쳐온 나날에
끝없는 은혜만을 안겨준 그 품,

해빛 눈부신 저 하늘가
내 일떠세운 은빛지붕들에
무리지어 날아도는 새들의 우깃음에도
활짝 열린 우리 집 창가
떨기떨기 피어난 꽃송이에도
뜨겁게 뜨겁게 어리여오는
자애로운 당의 사랑이여

내 이제는 아이어머니가 되었어도
걸음걸음 당을 받들어가는 이 마음속에
나의 영원한 어머니인 당이여
나의 숨결
영생하는 삶의 품인
어머니당이여

오늘도 나를 받들어주며
래일도 나를 이끌어줄 당이여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나
내 행복의 끝은 어디나

아 꿈결에도 잊을길 없고
내 떨어져선 단 하루도 살수 없기에
자장가소리에 잠이 들던 아이적 그때처럼
내 처음 말을 배우던 그때처럼
최후의 순간에도 그 품에 안겨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내 마지막 심장의 말도 터칠수 있는
당이여 어머니당이여

금골의 구름다리

허관일

산상에서 산상으로 가는 구름우의 다리
마을에서 갭구로 가는 구름우의 다리
청신한 가을날
창공에 실는 수리의 나래도 발밑에 있어라
령 넘어오는 삭도의 점들도 밑으로 내려라

산발을 오르던 그 길의 절반도 아니되는 길
하늘로 곧추 막장으로 가는 길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오래도록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는
금골의 구름다리

굽어보면 아찔한 저 땅밑
우리 언제 저 길을 걸었던가
마을은 산비탈-내릴 때엔 비물에
막장은 건넌산-오를 때엔 버럭에
이웃이라는 산골길은 잠간 이삼십리
멀어서
힘해서
광부의 아침길은 힘에 겨웁더니

수령님 심려하시는 그 마음 안고
비오는 산정에 자욱을 새기며
고마운 당의 구상으로 놓여진 구름다리
하늘 없는 막장이니 하늘을 안고 가라고
가는 길마저 구름우에 펼쳐준 이 길...

하늘 날아 산상을 이은 행복의 다리
건르면 솟는 새힘
건르면 씻는 피곤, 절로 나는 기쁨
세상 좋은것이라면 먼저 광부들에게
안겨주는 어머니당의 고마움이어!

구름다리 여기 생겨
저 멀리 산천의 모습에 끌려선가
당의 품이 따사로와
눈굽이 젖어드는 행복감

비내리던 그날, 감격의 그날처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우리러
고마움에 들먹이는 이 가슴들

산상에서 산상으로 오는 구름우의 다리
갭구에서 마을로 오는 구름우의 다리
이 세상 다리중에 가장 높이 뻗어
해발도 가까운곳
그우에 떠받들려 휴양길을 걷는듯...

아, 고마운 당이어!
광부들에게 이 길을 열어준
그 뜨거운 감사의 정에 목매여
영광스러운 우리의 당중앙을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높이 받든 마음
수도의 하늘가 저 멀리로 달리여라

은혜로운 사랑을 받아...

리금녀

높던 파도소리
창가에 잔잔하고
은하수 수평선에 기운지
이슬한 밤

귀밀이 희숙한
등대장의 안해
다림발 다 선 옷을
다리고 또 다린다

평양 가면
만경봉 소나무를 그리겠다면
셋째
창광거리 새집 뜰에 편다고
조개껍질 모으던 막내
어느새 다 잠들었건만

천만가지 사연을
가슴에 덧쌓으며
일손 멈춘 너인
그린듯 앓았는데
등대섬의 너인

밤바다를 배경으로
그림같은 방안
둘러보면
벽 가득히 윤기도는 옷장에도
고마운 당중앙의 사랑
뜨거이 어려있고

굽어보면
아래옷목
포근히 편 꽃이불에도
잊지 못할 그 사랑

다리는 옷도
아이들 베개머리 교복도
손에 닿는것 보는것
그 모두가 그 사랑속에 마련되었나니
아, 집이 그대로
등대섬이 그대로
자애로운 당중앙의 품인가!

사방 보이는건
바다, 바다
사철 들리는건
파도, 파도소리여도

스스로 말아나선
영예로운 초소기에
삼십여년...
배길을 밝히는 남편과 더불어
등대섬사람의 도리를 한것뿐인데

등대는 조국의 불빛이라고
등대원들은 그 불빛 지키는
숨은 애국자들이라고
과분한 치하를 준
당중앙의 한없는 믿음이어

그 믿음 그 사랑
손풍금을 보내여
섬에 노래를 주고
텔레비존을 보내여
세상구경 다 시키고도
오늘은 등대섬 온 식구를
평양에 다녀가라고 불러주었으니

감격으로 저물고
기쁨으로 밝던 섬에
날이 새면 또다시
명절차림 섬사람을 싣고
발동선은 물을 향하려니

앉아서는 정녕 새길수 없는
걱정에 싸여
등대장의 안해
문을 밀고 나서니

아, 기다린듯 안기는
등대불빛이어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을 받아
온밤 배길을 밝히는 등대
사랑의 불빛이어

삼지연의 아침에

리건구

밀림도 고요하고 호수도 잔잔하다.

삼지연의 가을날 아침은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그 기슭에 선뜻 발을 옮겨놓기에는 송구한 마음이다.

멀리 백두산에는 노을이 붉는데 흰안개는 밀림을 벗어나 초록빛 물결우로 천천히 흘러든다. 물위에 피어나는 실안개는 조용히 숨쉬는 호수를 깨울세라 조심하는듯 소리도 없이 피여오른다. 실안개는 피어나서 없어지는듯하더니 저기 호수의 한끝으로 구름처럼 물리여 푸른 하늘로 날아오른다.

안개가 걷힌 넓은 호수엔 백두산의 노을이 비껴여 붉은 물결이 출렁이고 푸르게 물드는 하늘엔 눈부신 해살이 퍼지는 삼지연의 아침.

어데선가 맑고맑은 노래소리가 울려온다. 안개에 실려오는듯 넓은 호수에 퍼져가고 밀림에 흘러간다. 그 소리는 비록 크지 않아도 삼지연이 너무도 조용해 멀리까지 들려온다.

나는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노래소리를 찾아 거닐고있었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한걸음 두걸음.

점점 가까워지는 그 노래소리.

저 멀리 백두산에 노을이 피여
삼지연 맑은 물에 붉게 어렸네
.....

불멸의 력사우에 꽃들은 피여
혁명의 한길을 이어가시네
.....

아 삼지연 새벽길
대를 이어 빛나라 조선의 길이여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저기 나무뒤에 낫익은 처녀의 뒤모습이 보인다. 삼지연기슭의 부석이 깔린 하얀 길을 쓰는 처녀, 바로 저 처녀가 노래의 주인인것이다.

그리고보니 내가 걷는 이 길에 가랑잎 하나 없이 깨끗이 쓸려있는것이 아닌가. 저 처녀가 날마다 여기 이 삼지연의 새벽길을 쓸며 저 노래를 부르는것이 아닌가.

노래소리만 듣고도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 처녀인가.

나는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노래소리가 그칠것만 같아서 여기 나무뒤에 서서 그 노래를 들었다. 노래의 주인,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보고싶었으나 나는 가슴에 안겨오는

감동을 깨뜨릴세라 천천히 길을 걸으며 생각깊은 마음속으로 노래를 따라불렀다.

그날도 오늘처럼 삼지연의 새벽은 티없이 맑고 깨끗하였으리라. 저 멀리 백두산에 노을이 피어나고 삼지연 물결우에 젖빛안개 피어나는데 진달래 붉게 핀 호수가를 거니시는 두분의 영상이 우렁이 안겨온다. 환하신 미소를 만면에 담으신 어버이수령님.

저 멀리 백두산의 모습을 비껴담은 고요한 삼지연의 새벽, 어버이수령님을 정중히 모시고 함께 이 못가를 거니는 그 영상...

하늘은 푸르게 열려 한없이 맑고 물결도 인민의 기쁨을 담은듯 기슭에서 출렁이는데 언제부터 걸으시는지, 또 얼마나 걸으시려는지...우리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두고,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두고, 그 어느 전사의 신상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듯, 두분의 거룩하신 영상에는 자애와 사랑이 넘쳐난다.

얼마나 위대한 화폭인가.

우리 인민의 한없이 뜨겁고 간절한 념원을 안으시고 거니시는 새벽길.

바로 삼지연 호수가의 이 길이였다.

바로 이 길을 걸으시였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새삼스러이 주위를 둘러본다. 이슬어린 전나무가지도 그날을 말하는듯 나를 바라보고 저앞에 큰뜻을 담고 서있는 붓나무 두그루도 이 아침 해빛을 받아 더욱 다정히 빛나는것 같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그 력사의 새벽 삼지연기슭의 숭엄한 그날을 되살려주는듯 나를 바라보며 속삭여준다.

나는 그자리에 앉아 깨끗이 씻겨진 호수가의 흰 모래를 손으로 쓸어본다.

바로 이 길, 이 흰모래우에 불멸의 자욱을 찍으시며 걸으시였으리라. 나는 두손으로 흰모래를 그러모아 쥐여본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의 영광으로 하여,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이 행복으로 하여, 온 누리의 부러움을 한몸에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이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튼튼히 이어갈 찬란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보는 영광으로 하여 또다시 세계의 경탄과 선망의 대상으로 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인민도 많지만 우리보다 더 행복한 인민은 없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한다. 그러나 실로 세계 그 어느 나라 어느 인민이 오늘의 이런 영광, 이런 행복을 지닌적이 있었던가!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혁명의 앞날을 확고히 담보할 미래의 태양을 우러르며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인민을 세상 그 어디에서 찾을수 있으랴.

일찌기 1920년대에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작사작곡하여 부른 궁지높은 우리 인민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세기를 주름잡아 주체의 위업을 받들어왔거니, 오늘은 이 《삼지연의 새벽길》의 숭엄한 그날을 안고 미래의 태양을 높이 칭송하여 행복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살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과령도는 당중앙위원회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하여 구현되며 혁명과 건설도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서만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고 끝까지 완성될수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안고 살 때 그는 행복한것이다. 자기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을 때 그에게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억세게 헤쳐갈 힘이 생기는 법이다.

희망, 그것은 래일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 인민은 이 삼지연의 새벽길을 걸으시는 그 위대한 영상을 우러르며 단순한 래일의 희망이나 인생의 미래가 아니라 공산주의미래에 대한 확신, 인류리상의 최고봉인 주체위업의 전국적승리의 미래를 내다보는것이니 이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화전에서 높이 올린 주체의 빛발을 온 세상에 찬란히 비쳐가며 그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거창한 위업을 선포한 우리 당중앙.

하기에 우리 인민은 당중앙을 따라가는 길에 행복이 있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드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신념을 지니게 된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이 삼지연기슭에 펼쳐진 위대한 그날의 화폭을 집집마다 정중히 모시고 그 영상에서 조국의 래일과 혁명의 장래를 보며 충성의 신념을 다지고있는것이다.

대를 이어 변함없이 받드는 충성, 세월의 눈비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굽힐줄 모르며 언제 어디서나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충성으로 받들어가거니 우리는 수령을 모실줄 알며 혁명의 대를 어떻게 이어야 하는가를 붉은 심장으로 체득한 인민이다.

하기에 우리는 이 《삼지연의 새벽길》을 그처럼 사랑하며 영광과 승리의 대회, 우리 당 6차대회 주석단을 우러러 환희와 격동으로 만세를 부르고 행복의 뜨거움으로 가슴을 적시지 않았단가.

1945년 10월 14일 모란봉기슭에서 력사적순간을 체험한 우리 인민은 1980년 10월에 또다시 그 위대한 순간을 체험하였거니 이런 인민은 세상에 없으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길에서 한생을 살아온 형제당의 지도자들도 이처럼 행복한 우리 당원들과 우리 인민의 경사앞에 인간으로서, 공산주의자로서 처음으로 안아보는 감격을 누릴길 없어 우리의 당중앙을 우러러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있는것이다

이 감격, 이 행복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이것을 나타낼 말은 아직 인류가 모른다. 하기에 우리는 오직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어린이처럼 발을 구르는것으로 우리 가슴에 넘치는 격정을 표현할수밖에 없었다.

아, 삼지연.

아름다운 삼지연은 이러한 조선의 행복과 궁지를 깊은 호심에 고이 간직하고있기에 우리 시대의 천하절경으로 더욱 아름다운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인민의 감정을 노래로 담고있기에 삼지연은 력사의 호수로, 전설의 호수로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그 맑고 깨끗한 아침, 삼지연 호수가에 울리던 그 처녀의 노래소리는 지금도 내 가슴에 울려오는듯.

백두산의 붉은 노을이 비낀 삼지연의 아름다운 물결은 지금도 나의 가슴에 출렁이고있다.

그때는 9월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눈내리는 2월

삼지연의 그 길우에도, 멀리 보이던 백두산에도 눈이 내리리라.

눈내리는 백두산 그 어데쯤이나.

력사의 땅, 백두의 밀영은 그 어데쯤이나! 성에 불린 군복자락엔 초연냄새 풍기는데 어머님은 눈내리는 밀영의 창가에 앉으시여 자장가를 부르셨으리 ...

저 멀리 어데선가 울려오는 총소리와 밀림의 바람소리를 어머님의 자장가소리로 들으며 백두산에서의 위대한 탄생!

우리 인민을 안아키우시고 이런 나라를 가꾸시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중앙.

우리는 백두산을 우러를 때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심장속에 그리며 당중앙을 따르는 이 길이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길이라는 하나의 뜻을 안고 살아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 이는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로 모신 영원한 어버이이며 우리의 영광,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하고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금강의 모습

김 성 환

천하절승 금강산!

우리 인민이 것처럼 사랑하고 것처럼 사랑하는 금강산이 단순히 자연의 조화로 이루어진 명산이라면 사람들의 가슴속에 그다지도 아름답고 황홀하게 자리잡고 있을수 없으리라.

봉이마다 엮어진 하많은 전설들과 골안마다 깃든 수많은 노래들이 금강의 유구한 모습과 더불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이채롭게 자리잡고있거니 그 많은 전설과 노래중에도 들을수록 숭엄함과 뜨거운 감동으로 눈곱 적시게 하는, 먼 미래에까지 마음의 거울로 빛날 전설아닌 전설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지난 9월 중순, 나는 금강산을 탐승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기차로 한밤, 원산에서 다시 배스를 타고가는 긴 려행길 피곤도 어지간히 겹치였으나 나는 금강산으로 들어서는 첫 어귀에서부터 바라보이는 산수의 아름다움과 들려주는 전설들의 신비로움에 취해 휴식과 생각은 가뭇있고말았다.

말그대로 절경이었다. 기암괴석들이 천태만상을 이룬 만물상이며 하얀 바위우로 흐르는 맑은 물이 은실에 꿰인 천만구슬같은 진주담이며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오른 산봉우리들과 령들로 연연히 이어진 일만이천봉우리...

단풍이 불불는 련봉들과 수려한 계곡들을 쳐다보기도 하고 내려다보기도 하면서 때로는 향방없는 사람처럼 한동안 망연히 서있기도 하고 때로는 청맑은 산새들의 우짖음을 쫓아 천진한 어린애들처럼 발걸음을 다우치기도 하는데 저만치 앞서 걸던 안내원처녀가 다가와서 여기서부터 구룡연으로 오르는 길이라고 하면서 돌층계 깔린 한줄기길을 가리키는것이였다.

구룡연으로 오르는 길!

첩첩한 산봉우리들에는 한낮에도 새벽안개같은 하얀 띠구름이 감돌아흐르는데 굽이마다 단풍이 불타고 골안마다 물소리 소연한 여기에 새겨진 불멸의 사연이 가슴을 친다.

깊어지는 생각속에 가슴뜨겁게 안겨오는 1947년9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오르시던 이길이다.

하늘에 건듯 들린 구름다리우에 치솟아 청초한 나무숲에 싸인 지양대도 그날의 어머님을 그리는 듯 아슬한 절벽가엔 초롱꽃이 한껏 망울을 터치고 천만구슬을 굴리며 쏟아져내리는 비봉포도 그날의 어머님을 노래하는듯 골안에 칠색물보라를 아름답게 일군다.

울겨드는 걸음마다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감기는 돌층계를 밟으며 나는 옥류동아래 식사터라고 쓴 아담한 사적비앞에 다가섰다.

안내원처녀가 조용조용 해설하였다.

《여기가 바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충성심이 그대로 어려있는 식사터입니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금강산에 오르신 어머님께서는 여기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아버지수령님의 식사시간이 잠시라도 늦어질세라 손수 점심식사를 지으시였습니다.》

마디마디 격정에 넘치는 이야기였다.

그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수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구룡연으로 오르시다가 옥류동샘터에서 발걸음을 멈추시였다.

이제 한굽이만 돌아서시면 금강산에서도 제일 이름높은 구룡폭포가 일만골을 흔들며 쏟아져내리는 장관을 구경하실수 있을것이였다. 칠색무지개의 한끝을 하늘중천에 두고 다른 한끝은 물안개 날리는 골안에 두고 장쾌하게 울리는

구룡연의 폭포소리가 귀전에 들리는듯싶은곳이였다.

함께 온 수원들은 어머님께 빨리 구룡연으로 오르시자고 재촉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우등불 타오르는 백두밀영의 그 밤 사령관동지께서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금강산이야기로 날 밝는 줄 모르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해방년에 금강산구경을 꼭 하자고 다짐하며 조국해방을 위한 눈보라만리길을 헤쳐오지 않았던가.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수원들의 권고를 들으시고 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의 손목을 잡아주시면서 어서 먼저 올라들 가라고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함께 오르자고 거듭 재촉하는 수원들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 오 후에 또다시 현지도도를 떠나셔야 하는데 식사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고 하시면서 후날에 다시 금강산에 와서 그때에 오늘 뉘까지 다 구경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

나의 가슴에는 몽클하고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식사터의 맑은 샘물을 들여다보는 나의 눈 앞에는 백두밀영의 그날 참나무를 캐시여 김치를 담그시던 작식대원의 그 모습으로, 소매를 접어 올리시고 쌀을 일으키는 김정숙어머님의 숭엄한 영상이 선히 떠올랐다.

어머님의 그 웃음어리신 모습이 어려있는 옥류동의 샘물, 어머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샘물은 이 다지도 맑은것인가.

그렇다. 그 모습, 그 마음이시였다.

먼먼 지하공작의 길, 일체의 총검과 감옥이 무시로 뒤따르는 낯설은 적후로 떠나시는 그 시각에조차 장군님 걸으시는 길에 이슬을 먼저 터시며 드리운 나무아지를 들어주신 어머님.

대륙풍에 천고의 밀림이 태질하는 고난의 행군 길에서도 사령관동지의 젖은 행전을 품으로 말리워드리신 어머님.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사령부의 천막가에, 도천마을의 그네터에, 대사하의 츠렁바위에, 청봉밀영의 엄혹한 눈보라우에 해빛처럼 눈부시고 별빛처럼 찬란한 충성을 피여오신 어머님의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러르는 나의 가슴은 세찬 감동에 젖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아,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무궁한 세월에 길이 모셔갈 우리의 어머님!

맑은 물이 끝없이 샘솟는 정갈한 식사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데 옥류동 저 한끝에서 처녀들의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금강의 가을빛처럼 울긋불긋 치마저고리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금강산처녀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이곳 사람들이 지어부르는 심장의 노래였다.

.....

김정숙어머님의 그 영상 안고

구슬구슬 아롱이는 금로수라도

비쳐보면 마음도 맑아지는듯

오늘은 온 나라가 가슴 적신다오

.....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모신 어머님의 그 마음이 금처럼 변함없고 이슬처럼 맑다고 옥류동샘물을 금로수라 이름지어 부르는 저 노래.

정녕 그 노래는 김정숙어머님께서 한평생 가슴 깊이 간직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에 대한 끝없는 찬양과 흠모의 정의 분출이다.

나는 뜨거운 격정을 안고 어머님의 고매한 뜻이 비껴있는, 이제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젖어있는 구룡연으로 올랐다.

레사롭게 뚛고오르는 길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모신 어머님의 그 모습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으로 더더욱 빛나고 어머님의 뜨거운 마음이 금강전설의 새 페이지를 아로새긴 그 충성을 우러르며 오르는 길이였다.

나에게는 김정숙어머님의 그 밝으신 영상이 일만이천봉우에 솟아 금강의 모습을 그처럼 아름답게 하고 금강산을 그처럼 황홀하게 느끼게 하는 것만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는 충성의 한길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시여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고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어머님의 빛나는 모습은 우리의 심장속에 금강의 봉우리처럼 높이, 금강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새겨져 영원하리라.

녀전사의 그 기쁨

방금속

이깎나무 수림속에
새여드는 달빛
풀잎에 구르는 밤이슬...

깃을 찾는
밤새의 울음소리에도
숲향기에도
가슴 울렁이시며
어머님은 밀림속을 걷고계시네

풀단을 이던 머리우에
항일모를 쓰시고
삭은 몽당치마
군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친위전사로
장군님 부름 받으신
김정숙어머님

바라고 바라시던
혁명전사의 더없는 영광
한가슴에 다 담지 못하시여
만강의 수림너머 아득히
그 기쁨 띄워보내시면

돌돌-
어디선가 숲속에서
개울물소리도 노래를 불러주고

작식대 귀틀집너머
수림사이론
어머님을 기다려
별빛처럼 반겨웃는
사령부의 불빛이 비쳐오는듯

가난과 굴욕에 서럽던 날에
어머님 마음 밝게 비쳐주던
백두의 하늘
장군별빛이
사령부 창문의 불빛으로 밝아
가까이 불러주니

한달음으로 달려가시여
사령부 창가에 경건히 서실 때
아, 작전도를 마주하신 장군님
꿈결에도 그리웁던 그이의 모습

해빛으로 비쳐주는 밝은 불빛

겨레의 녀원안은 그 불빛
장군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한목숨 다해 보위하는
영원한 친위병으로
한생을 티없이 바치실 어머님의 마음

불타시는 그 마음
어버이장군님의 명령안고
사령부 지붕우에
달빛이 좋아
수림우에
실실히 내리는 달빛이 고와
군복을 누벼가시면

그 달빛 오리오리 천필로 짜고짜서
총탄도 꺾지 못하게 쏘지 못하게
장군님 군복 지어드리고싶고
아, 군모는
해빛을 엮어 지어올리고싶고...

검은머리 베어서
군화를 삼으시고
천리길 만리길
조국으로 가시는 길
찬이슬 밝으실세라
장군님 발밑에
별을 따다 깔아드리 싶은
녀전사의 마음은

첨첨 준령
강물이 막아서면
몸이 스스로 다리가 되시고
폭풍이 다닥치면
가슴이 그대로 요새되시여
장군님을 옹위하며
조국으로 조국으로 걸으셨으니

아! 밀림우의 달과도
별과도 개울물과도
끝없이 속삭이고싶으시던
장군님 보위하는
녀전사의 그 기쁨
어머님은
조국땅에
영원한 미소로 남기셨네

진주담

박창화

옥류동에 가을이 오고
단풍이 붉게 타니
못잇을 그날의 어머니님 영상
진주담 물우에 어려오네

해방연의 기쁨 안고
금강에 오신 김정숙어머님
맑은 물 두손에 떠드시고
가을하늘처럼 밝게 웃으실 때

바람은 단풍을 실어
주단을 펴고
만이천봉우리들
다투어 인사드리고...

아 아름다운 금강에
어머님을 오래오래 모시고싶은
인민의 간절한 념원
진주담 가득히 넘치는데

아버이장군님의 점심시간을 넘려하시여
구룡연으로 가시던 길 멈추신 어머니님
에서 발걸음 돌리시며 후날에 오시겠다고
조용히 지으신 미소 물우에 어렸으니-

찬바람 눈비속 간고한 나날에도
언제한번 어기신적 없으신 그 시간
아름다운 금강의 길에 오르시면서도
사령부 작식대원 그날에 계시는 마음

한생을 그렇게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오신 어머니님
하늘땅 어델 가도 변함없는
그 마음 여기에 두고 가셨네

수려한 명승을 앞에 두시고
금강의 기슭을 내리셨어도
어머님께서 지니신 충성의 높이는
만이천봉을 덧쌓아도 미치지 못하리니

아쉬워
아쉬워
온 금강이 진주담 물결을 타고
따라만 내리던 그날

그날에 남기신 어머니님 높이신 뜻
오늘도 진주담 푸른물에 피어있네
끝없이 찾아오는 경건한 마음들을
언제나 맑고 깨끗이 비쳐주네

우리 문학예술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정중히 모시데 대한 당의 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

방연승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1970년대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새생활 창조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1970년대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였습니다.》

우리 문학예술이 자기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문학예술혁명을 철저히 수행한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사회주의문학예술로 높이 이끌어준것이다.

당은 우리 문학예술작품에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정중히 모시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공산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이 공산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사람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데 힘있게 복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당을 창건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는 수령을 따라배우도록 수령형상작품을 빛나게 창조하는것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로 된다.

오직 하나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다하는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공

산주의혁명가로 준비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공산주의혁명위업에 복무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이 공산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과 그의 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움직일수 없는 본질적성격을 담보하는 근본요구로 된다. 이 근본요구를 실현하자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당을 창건하고 그 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수령을 직접 따라배우게 하는 작품을 창작하는것을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이처럼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사명과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지만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전까지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미해결문제로 남아있었다.

물론 선행한 력사를 보면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을 형상한 개별적인 창작실천이 산발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할 당의 일관한 전략적임무의 높이에서 볼때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중추를 형성할만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미미한것에 불과하였다.

당을 창건한 수령을 형상한 작품을 창작하는것을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견지에서 일관한 초미의 전략적과업으로 제기하고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중추가 확고히 서게 하자면 수령의 위업을 수행해나가는 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한다.

수령형상문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의 대를 잇는 문제와 직접 련결된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만큼 오직 수령의 위업을 충실하게 수행해나가는 당, 후계자에 의해서만 전면적인 해결을 볼수 있는 성질의것이다.

이 과업은 오직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전한 해결을 볼수 있는것이였다.

주체의 공산주의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바쳐 헌신하는 우리 당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 우리 시대, 주체시대 인민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하는것을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이 영예롭고도 무거운 책임적인 과업을 빛나게 해결하도록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그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를 전면적으로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자기의 사명과 본성에 맞게 중심이 서고 자기의 품격을 전면적으로 갖춘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로 높이 솟아올라 자기의 위력을 대외에 널리 과시하게 되었다.

력사적으로 미해결문제로 남아있던 수령형상문제가 이처럼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며 합법칙적인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먼저 우리 당이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성의 기치밑에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공산주의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며 신념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적조류이다.

자주성의 기치밑에 혁명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조류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총적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우리 시대 혁명의 절실한 요구에 비추어 수령형상작품을 세상에 내놓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 인민의 절실한 요구를 풀어야 할 높은 사명을 지니였을뿐아니라 그것을 빛나게 해결할 탁월한 령도력과 충실성을 지닌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우리 당이 수령형상문제를 시대와 혁명, 인민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것은 바로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야 할 자기의 사명에 끝없이 충실할뿐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는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고있기때문이다.

수령형상문제가 아무리 절실한 초미의 문제라고 하여도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려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탁월한 실제적인 지도력이 없다면 시대와 혁명, 인민의 요구를 옳게 풀수 없다.

우리 당의 탁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문학에서는 이처럼 절실하고도 어려운 문제인 수령형상문제가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 당에 의하여 수령형상문제가 리론실천적으로 어떻게 빛나게 해결되었는가.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총적임무로 제기하였을뿐아니라 그 과업에 맞게 문학예술을 철저히 주체사상화하며 수령형상문제를 전면적으로 빛나게 해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에 옮길데 대한 력사적 위업을 제기하고 그것을 빛나게 해결하였다.

그러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문학예술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킬수 있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의 진수를 실천적모범으로 따라배울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은 이처럼 우리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활동력사를 전면적으로 빛나게 형상할수 있는 구체적준비를 탄탄히 갖추게 하는 한편 수령형상창조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그 구현을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창조에서 견지하여야 할 제반원칙을 낱알이 독창적으로 밝혀주었다.

수령형상창조리론은 수령의 위업을 계승한 후계자만이 내놓을수 있는 어렵고 무거운 과업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의하여 수령형상창조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지도리론이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질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고있는 우리 당만이 할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영예로운 과업으로서 그것은 우리 문학예술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기여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우리 당이 수령형상문제를 당의 시종일관한 문예방침으로 제기하고 수령형상리론을 하나의 완성된 리론으로 내놓음으로 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전면적으로 형상하는 전인미답의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확신성있게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은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수령형상리론을 창시하였을뿐아니라 그 빛나는 구현을 위한 사업을 직접 하나하나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현명한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활동력사와 혁명적가정을 빛나게 형상한 문학작품들과 영화, 미술, 연극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을수 있게 되었다.

혁명소설과 혁명영화만 보아도 그 성과를 뚜렷이 알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들인 《백두산기슭》, 《1932년》, 《혁명의 려명》,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를 비롯하여 장편소설들인 《만경대》, 《배움의 천리길》, 《동트는 압록강》, 그리고 장편소설들인 《력사의 새벽길》(상), 《누리에 불는 불》, 《충성의 한길에서》(1부, 2부), 혁명영화 《백두산》, 《조선의 별》, 《첫 무장대오에서 읽은 이야기》, 《누리에 불는 불》 등 이 모든 창작적성공들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독창적인 수령형상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위대한 생활력이 빛나게 과시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최대의 정중성과 충성심을 다하여 가장 빛나게 형상할데 대하여 가르치였다.

철학적심오성과 예술적완벽성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가 가지는 백과전서적인 풍부성과 끝없는 심오성, 그 불멸의 의의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인 요구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시대와 인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여야 할 수령형상작품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성적요구이다.

최대의 정중성과 충성심을 다할데 대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라배우려는 시대와 인민, 우리 작가자신의 뉘그러치는 힘의 마음을 구현하여 수령형상작품의 높은 인식교양적사명을 달성하게 하는 원칙으로서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창작가의 끝없는 충성심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빛나게 그려낼수 있게 하는 가장 믿음직한 주체적요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묘사대상에 대하여 얼마만큼 감동되는가 하는것은 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관건적인 고리로 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끝없이 감동되어 폭넓고 깊이 파고들 때 작가, 예술인들의 형상력이 나래를 돋치지 않을수 없다.

아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혁명가적풍모,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 그이께서 우리 인민과 인류 앞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의 풍부성과 심오성은 사람들의 온 심장과 온 넋을 완전히 사로잡고 뜨겁게 불태우는 끝없이 비상한 견인력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신것으로 하여 주체의 조국에 태어나 당의 품속에서 창조활동을 마음껏 벌리고있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충성으로 보답하는데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높이 모신 주옥같은 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으며 후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력사상 전무후무한 비상한 견인력을 가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폭넓고 깊이 파고들어 끝없이 감동될 때 비록 창작가는 직접 체험하지 못해도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력사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수령형상작품의 사상에 예술적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기본고리를 밝혀준 첫째가는 원칙이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충성심을 다할데 대한 원칙이 가지는 거대한 생활력은 장편소설 《1932년》, 《백두산기슭》, 혁명영화 《백두산》, 《조선의 별》 등 작품들의 성과가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이 작품들이 불멸의 혁명력사를 것처럼 진실하게 감동적으로 그려낸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된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지도밑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수령형상창조에서 최대의 충성심을 다할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풍모에 끝없이 감동되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수령형상론이 밝힌 원칙은 다음으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당은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그리는데서 원칙은 인민들속에 계시는 수령님을 형상하는것이라고 가르치였다.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의 위업이란 바로 다름아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예측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공산주의위업이기때문이다.

철저한 계급성과 인민성이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의 기본품성이지만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는 이 원칙이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이 원칙은 인간중심의 철학,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근로인민을 온갖 착취와 예측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며 언제나 근로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품모를 실생활 그대로 진실하게 그려내게 하는 가장 정당한 원칙이다.

작품의 전체 읽음새에서 전사들과 인민들과의 인간관계가 기본으로 되여야 할것은 물론 중요한 정황들이 모두가 인민과 전사들의 운명을 위하여 심려하시고 로고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품모가 심원하게 그려지도록 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끝없는 헌신성을 옹계 그려낼수 있다.

바로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혁명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읽은 이야기》의 성과가 이 원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령하 30~40도를 오르내리는 무서운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시며 이중삼중으로 포위망을 늘이고 계속 꼬리를 물고 달려드는 적들의 총검의 숲을 헤치시며 조국인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00여일에 걸치는 유명한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끄신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대원들과 인민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성을 것처럼 감명깊게 그려낼수 있는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의 성과는 바로 이 원칙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힌 수령형상론의 중요한 원칙의 다른 하나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인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힘있게 발휘데 대한 요구이다.

이 원칙은 조선혁명발전의 추동력을 깊이 밝혀내게 하는 과학적인 지도적지침이며 조선공산주

의운동발전의 본질을 모든 방면에 걸쳐 깊이 밝혀내는 혁명적대작의 본질적요구를 구현하는 창작원칙이며 수령형상작품의 인식-교양적기능을 강화하게 하는 혁명적인 창작원칙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수령형상작품은 그 사명으로 부터 출발하여 력사문헌적인 의의를 가진다. 수령형상작품이 력사문헌적인 의의를 가지게 하자면 무엇보다먼저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이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조선혁명의 발전과정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과정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혁명발전의 본질을 깊이 밝혀내자면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이 형상적으로 깊이 그려져야 한다.

이 요구가 실현되려면 해당하는 시기가 제기하는 요구를 주동적으로 통찰하시고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며 그 관철에로 사람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혁명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이 형상적으로 뚜렷이 그려져야 한다.

해당한 시기의 혁명의 요구를 뚜렷이 하면서 그것을 푸는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명백히 그리는 문제와 그 시기 독창적으로 해결된 업적이 무엇이며 그것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문제는 유기적으로 련관된 문제로서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을 밝혀내는 중요한 본질적요구로 된다.

해당한 시기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인민의 요구를 주도적으로 통찰하시고 그를 구현하시기 위하여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의 내용과 정당성, 독창성, 그 생활력과 의의가 형상적으로 뚜렷이 그려져야만 해당하는 시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똑똑히 밝혀지게 된다.

그것은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방침들과 그 방침관철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 정당성, 독창성과 생활력을 떠나서 그 시기가 혁명력사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똑똑히 밝혀낼수 없기때문이다.

그리고 해당한 시기의 위치가 똑똑히 설정되어야 그 시기 정책적인 문제를 일관성있게 특징적으로 그릴수 있을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량자는 이렇게 련관되면서도 로선과 방침을 뚜렷이 밝히는것이 기본문제로 나서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그것은 로선과 방침이 명백히 그려져야

그 시기 위치문제도 해결되고 중국적으로는 령도의 현명성을 그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작품에서 로선과 방침문제를 명백히 그리며 그 시기 혁명활동이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그리는 문제는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을 밝혀낼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이 문제가 옳게 해결되어야 작품이 해당한 시기를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으며 력사문헌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며 혁명적대작으로서의 자기의 사상예술적풍격을 갖추게 된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밝히는것이 비단 작품의 력사문헌적인 의의를 담보할뿐아니라 조선혁명발전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을 확고히 담보하며 그와 같은 철학적심오성을 떠나서 작품의 예술적높이를 보장할수 없기때문이다.

예술영화 《조선의 별》,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일관성있게 뚜렷이 그려낼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 그 관철을 위한 현명한 령도가 뚜렷이 밝혀지고 해당한 시기에 독창적으로 밝혀진 업적이 정책적으로 깊이 그려짐으로써 전반적인 혁명력사에서 그 시기가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가 형상적으로 똑똑히 주어졌기때문이다.

중요한 력사적사실을 놓치지 말며 력사적사실에 충실할데 대한 원칙은 우리 당이 밝혀준 수령형상창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자체가 가지고있는 백과전서적인 풍부성과 철학적심오성, 불멸의 의의와 비상한 감화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질적요구로서 작품의 진실성과 철학적성, 감동성을 담보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된 주체위업수행의 백과전서이기때문에 중요한 력사적사실을 놓치게 되면 혁명앞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사적은 인류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공산주의인간애를 개척하신 가장 위대한 혁명가, 가장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헌신성으로 빛나는 불멸의 력사이기때문에 거기에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세계의 극치가 수놓아져있으며 따라서 력사적사실에 토틈히 의거하여 깊이 파면 팔수록 작품의 진폭과 깊이와 감동은 그만큼 더 커지는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력사적사적들을 놓치지 말고 력사적사실에 충실할데 대한 원칙은 어버이 수령

님의 혁명활동력사를 폭넓고 깊이 그리는 혁명적대작의 인식교양적의의로부터 합법칙적으로 나서는 요구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나서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장편소설 《만경대》의 창작에 대한 당의 지도에 의하여 이 원칙적요구가 관철됨으로써 수령님께서 봉화리에 계시 때 군중앞에서 연설하신 력사적사적이 생활적으로 빛나게 반영되어 작품의 인식교양적의의가 커지고 사상적깊이와 예술적감동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이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인 카툰회의 방침을 밝히시고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실현을 위하여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을 뚜렷이 반영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력사문헌적인 예술작품으로 빛나게 완성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의 어머니이신 강반석어머니님과 불굴의 공산주의자이신 김형권동지의 투쟁사적과 업적을 그대로 작품의 줄거리로 반영하고 사건전개도 실재한 력사적사실의 의의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뚜렷이 하였으며 인물관계도 력사적사실과 같게 하였기때문이다. 이 빛나는 실천적인 성과가 확증하는바와 같이 해당한 시기의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들, 중요 로정, 사적들을 작품의 엮음새들에 포괄하며 그대로 충실하게 그리는것은 합법칙적이다.

우리 당의 수령형상론이 밝혀준 중요한 원칙의 다른 하나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핵을 똑똑히 쥐고 실생활로 꽃피울데 대한 요구이다.

이 원칙은 중요한 력사적사실을 놓치지 말며 력사적사실에 충실할데 대한 원칙과 뗄수 없이 련결되어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합법칙적인 요구이다.

중요한 력사적사실을 놓치지 말고 력사적사실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당시기의 사적을 평균적으로 끌고루 라렬하거나 절첩하며 복사하거나 떠옮기는 식으로 나간다면 사실전달의 기록주의를 범할수밖에 없다.

수령형상작품은 그 사명과 혁명적작용력으로부터 출발하여 력사문헌적이면서도 어디까지나 예술작품으로 완성되어야 하는것이다. 철학적인 심오성과 예술적감화력을 출시하고 력사문헌적인 의의만 추구한다면 력사와 다를것이 없으며 구태여 수령 형상작품을 창작하는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되지 않을것이다.

력사문헌적인 의의와 사상예술적의의를 통일적으로 결합하여 실현하는데 바로 수령형상작품

의 비할바 없는 존재가치가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이것을 깊이 통찰하고 그 본질적으로 통일적으로 실현하는 원칙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놓치지 말며 역사적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작품의 핵을 뚜렷이 설정하고 실생활로 꽃피울데 대한 요구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었다.

이 원칙은 작품에 반영하는 해당 시기의 여러 역사적사실들을 관통하는 규정성 즉 알맹이를 잡아쥐으로써 그 시기의 기본의의를 옳게 밝히며 예술작품의 형상적감화력을 담보하는 창작원칙이다.

역사적사실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사적들을 평균적으로 라컬하면 기록주의에 떨어질뿐 아니라 그 시기의 혁명활동의 의의를 옳게 밝혀낼수 없다는데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며 또 그렇게 되면 작품의 철학성과 예술성도 담보할수 없다.

해당한 시기의 역사적사실들을 관통하는 알맹이 즉 여러 사변들을 관통하는 규정적의의를 밝히는 종자를 잡아쥐고 그것을 부각해내는 이 원칙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할뿐아니라 형상화의 필수적요구인 집중과 분석, 개괄과 전개, 함축과 비약을 보장하는 창작원칙이다. 해당한 시기의 규정적인 의의를 인간학적으로 깊이 밝혀낼수 있는 심원한 종자를 잡아쥐고 일관성있게 꽃피우면 해당시기의 역사적사적들과 로정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작품의 사상주제적요구에 의하여 보다 전면에 내놓고 전개할것은 전개하게 되며 개괄하고 넘어갈것은 개괄하게 되며 여러 사적들이 점철되거나 라컬되지 않고 하나로 굳게 연결되게 되며 생활적으로 꽃피어나게 된다.

바로 예술영화 《조선의 별》,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1932년》, 《충성의 한길에서》 (1, 2부)의 성과가 그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인류혁명사에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무장투쟁으로 민족해방을 달성하는 새길을 열어놓은 새시원의 해로 높이 솟아오른 1932년-항일무장투쟁의 첫해의 년륜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숭고한 헌신성,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강반석녀사의 고귀한 희생성에 의하여 수놓아지게 되었다는 핵을 잡아쥐고 위대한 수령님의 남북수천리에 걸친 것처럼 간고하고 시련에 찬 원정로정을 그리였기때문에 두번에 걸친 소사하집 장면을 축으로 하여 남만원정과 북만원정을 예술적으로 관통시킬수 있었던것이다. 작품은 그것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첫해원정을 다 포괄하면서도 기록주의에 흐르지 않고 집중적으로 분석전개할데는 분석전개하고 개괄하고 함축하

며 비약할데는 하면서 그 원정로정을 예술적으로 심원하고 감동깊게 재현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1부와 2부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숭고한 덕성을 밝히며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길을 열어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충성의 행동원리가 어떻게 형성발전공고화되는가를 밝히는데 핵을 두고 혁명활동로정을 생활적으로 반영하였기때문에 어머니의 혁명활동사적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면서도 년대기적인 기록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사상에예술적으로 아주 감동깊은 대작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이 창작적성구들이 과시하는바와 같이 우리 당이 창시한 종자론의 요구를 수령형상작품창작에 빛나게 구현하는 원칙이 밝혀짐으로써 역사문헌적인 의의를 가지는 수령형상작품의 높은 사상에 예술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지도적지침이 완벽하게 주어지게 되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수령형상론이 밝혀준 중요한 원칙의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를 격식화하지 말고 수령을 위대한 인간으로 그릴데 대한 요구이다.

이 원칙적요구는 수령형상창작에서 수령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풍부하게 깊이 그림으로써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풍모를 부각하여내는 인간학적특성을 살리는 창작원칙이다.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을 그린다고 하여 인간관계를 정치적령도의 측면에서만 격식화한다면, 인간성을 그리지 않고 정치성 일면만 그린다면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의 진면모와 풍만하고도 높은 인간세계를 그려낼수 없으며 작품의 사상에예술적감화력을 보장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당이 창시한 공산주의인간학리론이 요구하는대로 수령을 위대한 인간으로 인간세계를 풍부히 그릴데 대한 인간학적원칙은 수령형상작품에 풍부한 인간미와 생활미가 충만되게 하며 수령의 숭고한 내면세계의 풍부성과 심도성을 펼쳐보이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서 확고히 견제해야 할 창작원칙이다.

특히 공산주의적 의리와 덕성의 최고의 귀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정중히 모시는데 있어서 이 원칙은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낡은 반세기에 걸쳐 혁명전사들과 인민에게 끝없이 다해오신 숭고한 사랑의 력사에는 인류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수령, 위대

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만이 쌓아올릴 수 있는 다
시 없는 극치의 인간세계가 수놓아져 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수령과 전사의 관계, 수령
과 인민과의 관계를 인간의 사랑관계에서 가장
높은 혁명적동지애의 관계로 보시고 숭고하고 헌
신적인 공산주의의리를 다해오시였으며 전사들
과 인민들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그이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의 친혈육으
로 엮힌 아버지로 우러러 받들어왔다. 우리 전사
들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오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만이 지닐 수 있
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헌신적인 공산주의인간애의
빛나는 귀감이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들과 전사들의
관계를 정치적관계일면으로 격식화하는 것은 어
버이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위대한
인간세계의 극치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
밖에 가져오지 않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
리 인민과 전사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에 대한 가
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감정의 극치를 생활적으
로 진실하게 그려낼 수 없게 하는 결과밖에 가져
오지 않는다.

바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과 예술영화
《조선의 별》이 위대한 수령님의 우리 혁명전사
들과 인민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그 극치의 인
간세계를 그처럼 감동깊이 노래한 불멸의 기념비
적송가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선열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그처럼 철학적으로 깊이
수놓은 불멸의 혁명적대작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
은 이 인간학적원칙을 빛나게 구현하였기 때문이
다. 《백두산기슭》이 마안산아이들과 수많은
《민생단》 혐의자들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
님의 숭고한 덕성을 그처럼 감명깊게 그려낸 불멸
의 화폭으로 된 것은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전사들
에 대한 사랑과 의리를 역사적사실 그대로 진실
하게 인간학적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님의 혁명활동력사를 만대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작
품으로 형상해낸 《조선의 별》이 위대한 수령
님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그처럼 감동적으로 노래한 불멸
의 화폭으로 된 것은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얻
기 위하여 그처럼 뜨거운 심혈과 정성을 다 기울
이신 그이의 위대한 인간적인 품도를 격식화하지
않고 역사적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인간학적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작품이 또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끝없는 충성
심과 혁명적동지애를 그처럼 감동적으로 노래한
심원한 화폭으로 된 것은 오직 수천년력사에서 처
음으로 맞이한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어모시는 한길에서만
참다운 동지적단합을 이룩할 수 있었고 진정한 인
간적인 의리를 꽃피울 수 있었던 청년공산주의자
들의 높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인간적인 성실
성을 현대화하지 않고 역사적사실 그대로 진실하
게 인간학적으로 그리었기 때문이다.

이 특출한 성과가 확증하는바와 같이 수령형상
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를 격식화하거나 현대화
하지 말고 위대한 인간세계를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원칙적요구는 수령형상창조에서 력사주의
적요구와 인간학적요구를 통일적으로 실현하는
독창적인 창작원칙으로서 작품의 사상예술적성
과를 튼튼히 담보하는 관건적고리를 밝혀준 과학
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이밖에도 수령형상을 시기적으로 통
일시킬데 대한 원칙을 비롯하여 수령형상작품창
작에서 해결하여야 할 체제와 형식문제를 푸는데
서도 독창적인 발견을 이룩하여 그 실현으로 우
리 작가들을 이끌어주었다.

《불멸의 력사》라는 총제목과 가지고 장편소
설들의 큰 묶음으로 이루어진 문학총서형식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반영할데 대한 우리
당의 가르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고매한 주
체의 공산주의인간애의 빛나는 승리로 일관된 백
과전서적인 내용을 가진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력
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깊이 담을 수 있는
형식을 밝혀준 독창적인 발견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류문예사상 위대한 수령
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장편소설들의 묶음으로
반영한 혁명문학총서가 처음으로 태어나게 되었
다.

우리 당은 영화형상창조에서 시적인 설화를 도
입할데 대한 독창적인 발견을 이룩함으로써 수령
형상영화창작에서 새로운 형식을 개척하는 불멸
의 업적을 쌓아올리었다.

영화적형상창조에서의 시적설화의 도입은 마
치도 우리 당이 《피바다》식혁명가극의 형상창
조에서 거대한 역할을 하는 조선고유의 방창을
도입함으로써 가극형상창조에서 무한한 묘사적
가능성을 열어놓은것처럼 영화형상창조에서 묘
사적가능성을 무한히 확대하는 완전히 독창적인
것이다.

그것은 혁명영화 《백두산》의 특출한 성과가
그 거대한 생활력을 확증하고있다. 이 실천적인

성과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시적인 영화형상수법은 특히 수령형상창조에서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적인 형상수법이 화면과 화면, 장면과 장면의 연결로 영화적흐름을 조성하며 등장인물호상간의 감정을 조직하는것을 비롯하여 진행되는 사건과 등장인물에 대한 관중들의 교감세계까지 형상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그것은 특히 대사와 내면독백이외에는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오직 객관적인 행동세계를 통해서만 그리는 영화에서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시적인 설화를 통하여 직접 함축성있게 개방하여줄수 있는 형상적가능성을 주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과 그이의 위대한 내면적풍모와 인간세계를 시적으로 그려내는데서 적중한 묘사적가능성을 준다는데 있다.

이 모든것에서 뚜렷이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 당이 밝힌 수령형상론은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리론이다.

우리 당은 수령형상론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었을뿐아니라 그 구현을 위한 작가들의 창작사업을 비범한 예지와 육친적인 사랑으로 하나하나 따듯하고 세심하게 이끌어주었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그 바쁜가운데서도 불분불휴의 정력적인 로고를 다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령도와 사랑을 떠나서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하나하나의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불멸의 업적을 영화화면에 모시고 담아 우리러 따라배우고싶어하는 시대와 인민의 절절한 소망을 빛나게 실현한 혁명영화들과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과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대기념비적인 미술작품들의 하나하나의 빛나는 결실을 생각할수 없다.

우리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 형상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로서 자기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한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지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의하여 우리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를 전면

적으로 빛나게 형상한 단계에로 발전한것은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리러 끝없이 흠모하며 따라배우려는 우리 시대 인민의 절절한 열망에 대답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시대의 요구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으며 수령님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할수 있게 되었다는데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우리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공산주의 인간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자기 문학예술의 보물고에서 중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중추적인 대를 확고히 세우게 되었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위력을 무한히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는데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높이 우리러 따라배우도록 하는 혁명문학예술이며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키워내는 혁명적문학예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그려내는 수령형상작품은 그 질에 있어서 최상의 높이에 올라설것을 요구하며 그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끝없는 충성심과 책임감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날에 그러한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 독창적인 수령형상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와 한없는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탐구에 탐구를 거듭함으로써 수령형상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갈것이며 언제나 그 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함으로써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끝없는 충성을 다하는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삶의 확고한 신조이며 다함없는 창조적열정의 식을줄 모르는 불도가니이다.

동지애의 노래

혁명영화 《조선의》 별중에서

빠르지 않고 승엄하게, 랑만을 가지고 절절하게

리종순 작사, 성동춘 작곡

1. 가는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2.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동지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노래

안호근

어디서나 아름다운 노래가 울리는 이 강산에
또다시 새로운 노래가 흐른다.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동지애의 노래》가 울린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천금 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1) 물결치는 크나큰 사랑의 바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서 나오는 《동지애의 노래》 가사를 훑어보는 나의 가슴은 왜 이리
도 설레는것인가.

이 노래를 처음으로 듣는 순간 나는 하나의 노래를 들었다기보다 동지애에 대한 깊은 세계를 깨우치는 장중한 중소리를 듣는듯하였고 한편의 가사를 보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헤쳐온 혁명의 길을 보는듯한 감정을 억제할수 없다.

무엇때문인가.

생명있는 가사! 크나큰 사랑의 바다가 물결치는 명가사를 받아안았기때문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가사를 잘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를 내용있게 잘 써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구현하여 당에서는 명가사 창작원칙을 밝혀주면서 가사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고 가르치였다. 바로 《동지애의 노래》가사는 단 몇줄의 짧은 시행에 몇백페이지의 두툼한 책으로도 다 담을수 없는 주체형

의 참다운 혁명가들의 삶, 혁명적동지애에 대한 크나큰 사상의 바다를 펼쳐보인 명가사이다.

천금 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가사는 동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변심없는 충성의 맹세가 뜨겁게 흐르고있다.

가사를 읽느라면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 반만년 조국의 력사에 주체의 새 시원이 열리던 혁명의 려명기, 민족의 구성이시며 단결의 유일중심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생사를 같이할 굳은 맹세를 안고 혁명의 첫걸음을 떼던 열혈청년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이 선히 안겨온다.

가사는 동지가 되자고 약속도 안하며 동지애를 꽃피우자고 호소도 안한다. 동지애란 어떤것이며 동지관계가 어데서 어떻게 맺어졌는가를 구태여 설명하지 않는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앞길을 변심없이 걸어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생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노래의 구절구절은 우리들에게 혁명하는 사람은 부모와 떨어져서는 살수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 품을 떠나, 혁명동지들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느끼게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을 굳게 함으로써만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보존하며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한생을 바쳐갈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

가사에서는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를 강조함으로써 《한별》을 형상의 초점에 두고 혁명적동지애에 대한 철학적깊이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향도 성미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뜻을 가진 동지로 맺어주고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을 꽃피워준 혁명의 수령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최상의 높이에서 형상하였다.

바로 어버이수령님께 모든것을 맡기고 한마음 우러르는 심장과 심장에서 맺어진 동지애! 수령님 뜻으로 숨쉬고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혁명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꽃피어나는 동지애.

그렇다 사람들사이의 참다운 동지적관계와 혁명적의리는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혁명의 장래와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할수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품에서만 영원히 피어나는것이다.

혁명동지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전사들의 불같은 충성은 주체의 한 혈통에 뿌리내린것으로 하여 벗과 친구, 형제들사이의 친분관계를 뛰어넘어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을 초월하여 인간이 지닐수 있는 가장 공고한紐대로 맺어진 가장 귀중한 사랑인것이다.

2) 마를줄 모르는 정서의 샘

당에서는 가사는 훌륭한 시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가사에 시가 있다는것은 정서가 있다는것, 형상의 깊이가 있다는것을 말한다.

시의 형상의 힘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다.

바로 가사 《동지애의 노래》가 명가사로 된것은 정서적공감력에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가사가 일편단심 수령님을 따르는 혁명투사들의 고상한 사상감정, 충성으로 불타는 그들의 가슴에 고이고 고인 정서의 샘으로 흘러넘치기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은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가슴에 지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감정, 혁명투쟁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로 하여 《동지애의 노래》라는 제목을 달고 이처럼 깊은 정서가 흘러넘치는 가사를 낳게 하였다.

만약 이 가사에 것처럼 찾아헤매던 은혜로운 빛발, 재생의 광명을 비쳐주신 위대한 수령님 품에 안긴 그들의 뜨거운 감정을 정서적으로 펼치지 않고, 동지애에 대한 객관적설명을 일삼았다면 이처럼 깊이있고 공감되고 정서적인 가사로 되었겠는가.

가사는 첫구절부터 투사들의 가슴에 넘치는 정서를 샘물처럼 분출시키는것이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위대한 수령님 품에 안기여 한마음 따라가는 투사들의 가슴에 간직한 풍부한 감정, 팽배한 정열은 바로 이렇게 가사를 시작하지 않을수 없게 한것이다.

끓어넘치는 열정과 함께 가사에는 또한 심오한 철학적사색이 담겨져있다.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라는 구절은 얼마나 깊은 철학적사색이 담겨져있는 것인가.

둘! 이는 일제침략의 칼부림에 찢기고 멎든 강토, 그 어떤 삶의 작은 싹도 뿌리내릴수 없고 살 곳 없는 1920년대 조선이 아니겠는가.

피어나는 꽃! 이는 험난한 세월의 풍상에 부대끼며 더는 살아갈 생각도 살아갈 희망도 없던, 죽은 몸이나 다름없던 목숨들이 《한별》이 비쳐주는 빛을 안고 소생한 조선의 첫 공산주의혁명투사들 한명한명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흔히 들어오던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전혀 새로운 뜻으로 느끼게 되는 이 가사의 정서는 바로 이처럼 《한별》이 비쳐주는 은혜의 빛과 그 빛을 안고 피어나는 꽃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시사해주는 깊은 뜻에서 오는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이 가사는 노래부르는 자신도 그 돌우에 피어나는 한송이 꽃처럼 느껴지게 되며 은혜로운 태양의 고마움과 그 빛의 영원성에 대하여 깊은 정서를 가지고 감격에 목메이게 된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마를줄 모르는 정서의 샘으로 시의 종자를 싹틔우고 꽃피울 때만이 명가사를 쓸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우쳐준다.

3) 독특한 시어, 색깔있는 운률

가사 《동지애의 노래》는 시어를 어떻게 형상적으로 구사해야 하는가의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자기식의 새로운 언어를 찾는다고 하여 듣지 않던 말로 쫓아박은듯한감도 없다.

이 가사의 시어들은 회화어에 가까우면서도 감칠맛이 있고 일부 시들에서 흔히 보던 구절마저도 독특한 시어로 느껴지게 된다.

무엇때문인가.

우리 가사들에서 맹세다진다는 구절과 그 맹세를 번치 않겠다는 구절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라는 표현도 자주 써왔다.

그러나 이 가사에서 우리가 이미 듣고보던 시어 자체도 새로운 뜻으로 안겨온다.

《다진 맹세 변치 말자》도 바로 《한별》을 우리러보는 심장의 목소리로 되었기때문에 것처럼 값있는 시어로 되었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도 바로 《가야 할》이라는, 죽어도 가야 할 혁명의 머나먼 앞길을 전제로 하는 자리에 들어앉았기때문에 다른 가사들에서 느끼듯 자연의 눈과 비로 느껴지는것이 아니라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어로 될수 있었다고 본다.

이 가사의 시어는 《동지애의 노래》라는 제목에 맞게 생사를 같이 하는 친근한 사람들의 속삭임으로 가식이 없다.

특수한 사람만이 혁명가가 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운명은 자기 손으로 개척할수 있다는 주체의 진리를 깨달은 혁명투사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한 이 가사는 인민이 흔히 쓰는 말속에서 주제에 맞는 생활적인 시어를 골라쓰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 가사는 또한 생명의 은인인 《한별》의 빛을 따라 혁명의 초행길을 걸어가는 서정적주인공들의 심정을 진실하게 표현하였다. 혁명에 대한 확고한 승리를 바라보는 억척같은 신념의 세계에 맞게 아름다우면서도 가볍지 않은 어휘, 숭고하

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어휘들을 음악적인 운물로 형상하였기때문에 시어의 마디마디가 감칠맛이 있고 씹을맛이 있게 된것이다.

《험난하다 해도》와 《시련의 고비》 《불바람》과 《생사》, 《돌》과 《꽃》 《죽어도》와 《샘》 같은 시어들은 서로 색채적인 대조를 이루면서도 정서적인 통일속에서 특색있는 시어로 될수 있었다.

숨가쁘게 빠르게나 맥빠지게 늘어지는것을 좋아 하지 않는 우리 인민들의 고유한 민족적감정을 놓치지 않고 혁명하는 시대에 맞게 장중하면서도 희망에 넘치게 뜨거운 동지의 사랑이 맥맥히 흐르도록 운물을 조성함으로써 이 가사는 명곡을 낳게 하였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이 이처럼 고상한 인민의 정서를 낳았고 찬란한 향도의 해빛이 무르익혀준 명가사 《동지애의 노래》에 대한 느낌이 크다.

체험과 느낌을 생명처럼 여기는 시인의 한사람으로서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면서 느낌이 큰 것만큼 《동지애의 노래》와 같은 명가사를 더 많이 창작할 결심을 새로이 하게 된다.

꽃으로 핀다오

최진용

여름도 한창
창밖엔 나무잎이 설레이고
바람은 꽃향기 실어오는데
기계소리 정다운 일터엔
눈이 내린듯

기대를 에워싸며
줄줄이 늘어선 실고치통마다
감기고 쌓인 실타래는
하도 하도 희어
눈이 내려쌓인듯

바람결에 날리는 실안개인양
희고 부드러운 숨실이
돌기돌기 실통마다 쌓일 때면
조방공들 가슴에 꽃이 핀다오

꽃이 핀다오 꽃이 핀다오
사시절 인민들을 아름답게 입히시려는
수령님 그 사랑 오리오리 새기며
정성답아 뿜는 실에 감기는 마음

꽃수건 날리며
눈같이 흰 실통사이로
사뿐사뿐 옮기는 가벼운 걸음
방실 웃는 얼굴에도
피어나는 웃음꽃

그 마음 그 웃음 티없이 맑으니
흐르며 감기는 숨실이 왜 아니 희리오
다루는 그 손길 그 정성 알뜰하니
감기며 쌓이는 실이 왜 아니 고무리오

눈이 오면 눈오는 그 계절에
산천이 푸르러지면 푸른 계절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아름다워지는
그 차림, 그 모습들과 함께 있기에
눈같이 흰실을 뽑고 감으며
마음도 얼굴도 꽃으로 피오

나날이 늘어나는 인민의 살림
수령님 그 사랑을 꽃피워가는
조방공의 기쁨이 실구름에 스미여
아름답게 피나오, 꽃으로 피오

강한 바람

김삼복

산촌의 저녁은 빨리도 다가왔다.

깊은 골짜기에 끼여있는 마을의 상공에는 푸르스름한 저녁연기가 떠돌고 생나무 타는 냄새 구수하게 풍긴다.

하루일을 끝낸 트랙터들이 앞벌에서 마을로 들어오고있다.

어머니들이 장난에 취한 아이들을 어둡기전에 불러들이는 소리와 계곡을 흘러내리는 세찬 물소리가 산촌의 정서를 한껏 돋구었다.

파수분조장을 하는 제대군관 홍성우네 집은 오늘저녁 명절날처럼 흥성거렸다. 그의 처는 부엌에서 무엇인가 기름에 볶아내느라고 분주하였고 여느때보다 일찌기 들어온 홍성우자신은 면도를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까지 발랐다. 그의 딸들도 때맞춤하여 모여들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막내딸 복영이와 청년담배분조에서 일하는 둘째딸 선영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멀리 서해안지대의 농촌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되어 사업하다가 휴가로 집에 와있는 맏딸 유영이가 밖에서 들어왔다.

오늘저녁의 주인공은 바로 맏딸 유영이었다. 휴가온 첫날부터 동무들이 찾아오고 유영이 자신이 그들을 찾아다니느라고, 더구나 요새 아버지가 파수원일이 좀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한 관계로 하여 온 가족이 유영이와 한자리에 오붓하게 앉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저녁의 가족모임을 아버지가 일부러 마련했던것이다.

날이 어슬어슬하여 유영이가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넌, 어딜 그렇게 종일 나다니니? 난 아직 네 얼굴을 똑똑히 보지도 못했다.》 하며 모두 기다리니 어서 방에 들어가라고 하였다.

방안에서는 아버지가 두 동생과 같이 다이야몬드를 두고있었다. 아버지는 유영이를 보자 《유영이 왔니? 지금 막 끝나간다.》 하고 놀음을 서둘러 끝내었다.

《이젠 다 모였구나. 여보, 들여보내오.》 아버지가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큰 둥글상이 놓이고 어머니가 성의껏 준비한 음식들을 날라들이었다. 시창기를 느낀 아버지와 딸들이 모두 상에 빙 둘러앉으며 어머니더러 빨리 올라오라고 독촉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술병을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의 눈빛은 기쁨에 번쩍이었다.

유영이가 술 한잔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권했다. 아버지는 술잔을 들고 세 딸을 죽- 돌아보았다.

세송이 꽃같다. 맏딸은 몸매가 날씬하게 균형이 잡히고 눈매가 서글서글하며 둘째딸은 역세여보이고 셋째딸은 복실복실하게 생겼다.

《자, 오늘저녁은 우리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기로 하자. 우리 집 맏이인 〈유영동무〉가 3대혁명소조원으로 사업하다가 첫 휴가를 왔는데 내가 좀 바쁘다나니 대접을 소홀히 했던말이다. 우리 집식구가 한자리에 오붓이 모여앉아 유영이의 이야기도 듣고 즐거운 저녁을 보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제 그 기회가 왔으니 우리 유쾌하게 즐기자. 복영아, 전축을 돌려라!》 아버지가 우정 맏딸인 유영이에게 경어를 쓰며 하는 말에 유영이 자신은 얼굴을 붉히었고 다른 딸들은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셋째딸은 재빨리 전축을 돌렸다. 부드러운 경음악이 흘러나왔다.

세딸이 차례로 부어주는 술을 마신 아버지는 벌써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난 기쁘구나, 다 자란 너희들을 보니 기쁘다. 특히 유영이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고보니 기쁘기 그지없다. 복영이는 이제 한해후면 졸업한다. 난 복영이를 축산기사로 키우겠다. 선영이가 하나 상급학교에 안가고 청년분조에서 일하는데 이긴 본인의 의사에 따른것이다. 한 학급이 몽땅 농촌에 진출했거든. 선영이는 앞으로 작업반장, 관리위원장이 될게다!》

《아이, 아버지두!》

《허허허... 자, 이젠 너희들이 말을 해라. 오늘 저녁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유영아, 네가 좀 얘기를 해라.》

유영이는 저오기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와 동생들을 돌아보았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생각이 나이지요?》 하고 유영이 미소를 머금었다.

《언니가 3대혁명의 전위로 비바람 사나운 들에서 보낸 그 하루하루가 다 감동적인 이야기일텐데!... 그렇지요, 아버지?》

복영이가 랑만에 넘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구말구!》

아버지가 긍정해주었다.

《그래두 막상 말을 하자면 잘 떠오르지 않을수 있어. 실머리를 찾아줘야 하거든.》

둘째 선영이가 좀 안다는 투로 말했다.

《그렇긴 해… 참, 언니!》 복영이가 눈을 깜빡거리고있다가 생각난듯 말했다.

《요전에 언니가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있지 않아요? 그 편지를 우린 〈독보〉 했어요. 그런데 거기 써여진… 누구더라… 그 분조장 있잖아요?》

《리덕삼이…》 하고 선영이가 튕겨주었다.

《응, 그 리덕삼분조장 얘기를 읽으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복영이는 까르르 웃었다.

유영이도 따라 웃었다.

유영이가 룡호리에서 대상한 수십명 분조장들 중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사람이 3반의 4분조장 리덕삼이었다. 그래서 편지에다가 그의 이야기를 몇자 적었던 것이다.

《그 분조장얘기를 듣자요. 아버지, 어때요, 그 얘기를 듣는게?》

복영이가 졸랐다.

《좋지.》

홍성우는 딸들이 하자는대로 그저 따라 하려는 립장이었다.

《편지에다가 썼는데 뭘 또 예기하겠니?》

유영이가 사양했다,

《언니는 그저 20년간 분조장을 한 〈능구렁이 덕삼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언니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등을 구부정하고 서서 수그린 이마를 썩썩 긁으며 입속으로 중얼중얼할뿐 좀처럼 속심을 말하지 않는다고 썼어요. 그런데 왜 웃었는가 하면 말이 없구 늘 똑해있는 여기 2분조장 태욱아저씨 비슷해서 모두 웃었어요.》

복영이가 이렇게 말하자 방안에 웃음이 터졌다.

《야, 말도 말아, 태욱아저씨는 덕삼분조장에 대면 수다스러운 축이야.》

유영이는 자기도모르게 이야기에 말려들어갔다. 덕삼분조장때문에 애먹던 일이 여러번이어서 그것이 가슴속에 맺혀있었던 것이다. 리덕삼은 좀처럼 그 진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었다. 얼핏 보아서는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알수 없었다. 가령 강냉이영양단지모판둘레를 잘 감싸주지 않는 것이 눈에 띄어 지적해주었을 때 리덕삼이는 우물거리며 똑해서 대답이 없었는데 다음날 가보니 제대로 다해놓았다. 그런가 하면 논쟁상모판에 씨뿌릴 때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지 않는다고 엄하게 지적해주면 리덕삼은 이마를 긁으며 시정하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다른 분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여전히 제 배짱대로 일하고있었다. 자기처럼 해야 발아가 잘된다는 것이었다. 유영은 한랭전선의 영향이 미치는 조건에서 그것이 나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는데 대하여 오래도록 해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문에 리덕삼이는 되게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리덕삼이는 별로 당황

해하거나 뜨끔해하는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자기 손금은 몰라도 분조 논발의 때 포전의 특성은 다 알고있다는 사람이다. 그러니 남의 말을 호락호락 듣겠는가.

《그런데 이 완고한 분조장이 이번에는 벼랭상모판에 바람막이바자를 잘 치지 못해서 나한테도 걸려들었어.》 하고 유영이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내가 말장을 흔들어보이며 이렇게 해가지구는 강한 바람에 이기지 못하니까 다시 하든가 벌줄을 안팎으로 매야 하겠다고 예기했어. 그랬더니 한참동안 우물거리다가 한다는 말이 〈이만하면 바람에 견딥니다. 작년에도 일없었는데요.〉 이러지 않겠니? 그래 내가 또 해설사업을 했지. 지금은 경험만 가지고 우길수 없다. 이상기 후현상이라는것을 항상 녀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다 할수 있는가고 계속 들이댔지. 그런데 이마를 썩썩 긁기만 할뿐 끝내 대답을 안하더구나! 로력타산, 시간타산을 하는게 틀림없는데 말을 하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원칙적인 요구에서 양보할수 있니? 그건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나는 그럼, 내가 도와드릴테니 같이 하자고 했어. 그랬더니 그때에야 몹시 딱해하면서 다 해놓을테니까 나더러 그만두라고 하더라.》

《흠!》 역시 분조장인 아버지는 이렇게 묘한 소리를 내며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같이 해주긴 뭘해줘요. 혁명소조원이 그렇게 밀린 일이나 말아해주는 사람인가. 왜 좀 혼내주지 못했어요?》

복영이가 얼굴이 빨개지며 분해하였다.

《생활이란 그렇게 단순한게 아니야.》

선영이가 어른리를 내며 혼시조로 동생을 책망했다.

《진리는 언제나 명백해요. 생활도 그렇지요! 저기 뭐 복잡할게 있어?》

복영이가 반박했다.

《그럼 난 생활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주 명백하지. 생활-그것은 곧 행복이야! 어기엔 아무런 복잡한것도 없어.》

《넌 아직 철부지야.》

《그럼 자기는? 이제 겨우 일년동안 사회생활을 한것 가지구 어른리를 내면서!…》

《뭐라구?》

《그만되라! 론쟁하는건 좋은 일이지만 인격은 존중해야 한다. 싸우면 안돼!》 하고 아버지가 두 딸을 나무람했다.

《우리, 언니의 이야기를 마저 듣자. 그래서, 어떻게 했니?》

유영은 생각에 잠겨 서늘한 빛이 도는 눈으로 어딘가 먼곳을, 리덕삼이 살고있는 그 룡호리를 그려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분조장이 만류했지만 난 정말 거기서 같이 일하려고 했어요. 분조장의 대답이 미타했거든요. 진속을 알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리 3대혁명소조에서 부르는바람에 같이 일하지 못하고 말로만 다시 강조하고 올라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후 다른 일이 바빠서 4분조모판에 더 가보지 못하고 있다가 휴가를 오게 된거예요. 그런데 어쩐지 지금도 거기가 미타한게 가슴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아요.》

《해냈겠지! 그리구 강한 바람이 안불수도 있는 것이구!...》

아버지가 유영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다.

유영은 놀라운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해요? 리덕삼분조장이 바로 그렇게 생각해요. 강한 바람이 안불수도 있다고말이에요!》

《허허허... 나도 어느새 락후해지고있는것 같다.》

홍성우는 얼굴이 빨개졌다.

《언니, 아버지는 언니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영이가 아버지를 변명해나섰다.

복영이가 무엇이라고 불부은 소리를 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영이가 손을 내들며 《가만!》 하고 날카롭게 웨치더니 뛰어일어나 전축을 켰다.

마을북판에 높이 걸린 고성기에서 일기예보를 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유영이는 열린 전축에 달린 라디오에 스위치를 넣었다.

《...전반적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의 서해안지대에서는 초속 20~30미터의 강한 바람이 예견되는것만 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강한 바람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 바랍니다...》

방송원은 격조높이 말했다.

유영은 그 자리에 굳어진듯 꼼짝 안하고 서있었다.

《너 왜 그러니?》 어머니가 놀래여 물었다.

유영은 라디오스위치를 끝뿐 여전히 생각에 잠겨 대답이 없었다.

《래일 강한 바람이 예견된대요. 서해안지대에...》 하고 선영이가 나직하게 말했다.

강한 바람이다! 이 순간 유영의 생각은 룡호리의 무연한 들과 언덕으로 줄달음쳤다. 무엇보다도 3반 4분조장 리덕삼의 얼굴이 번개치듯 스치었다.

유영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금 해하며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아버지, 정거장까지 빨리 걸으면 두시간은 걸리겠지요? 그러니 기차시간전에 가닿을수 있어요. 아버지, 전 떠나야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상머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니가 더욱 놀라며 일어나 유영이에게로 다가왔다.

《애, 유영아,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밤중에 갑자기 떠나다니, 응?》

《어머니, 난 떠나야 해요. 시간이 급해요.》

《무슨 영문인지 말이나 좀 하려무나.》

《엄마!》 유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내가 가있는 룡호리는 서해안지대예요. 거기서 50리 나가면 바다예요. 강한 바람에 모판들이 위험해요. 얼마나 애써 씨뿌리고 길러온 모들인 줄 알아요?》

《내가 그걸 모르겠니? 그렇지만 네가 하나 없다가 일이 나겠니? 거기두 당조직이 있구 관리위원회가 있구 농장원들이 있지 않니? 네가 없으면 그래 안되니? 이 밤중에 30리길을 떠나다니... 휴가를 마저 쉬구 가거라.》

어머니 말이 옳았다. 물론 유영이 없어도 거기서 다 할것이다. 거기두 당조직이 있고 당원들이 있고 농장원들이 있다. 그들은 이 강한 바람을 이겨낼것이다. 그러나 리덕삼분조의 모판이 눈에 일른거리는데 어떻게 유영이가 편안하게 잠잘수 있겠는가.

어머니의 말에 이어 복영이가 불부은 소리를 했다.

《언니는 너무해! 혼자서 혁명을 다 하는것처럼! ...》

이 말은 유영의 가슴을 몹시 아프게 했다. 유영은 눈길을 떨어뜨리고 깊은 숨을 쉬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복영아, 나를 리해해다구... 내가 3대혁명소조원으로서 일을 원만하게 못하다보니 량심에 걸리는것이 있어서 편안히 앉아있지 못하겠구나... 너는 생활이 곧 행복이라구 했다. 하긴 그 말이 옳다. 우리 생활자체가, 우리 생활의 매 순간이 곧 행복이니까. 그렇지만 복영아, 사람들이 만일 그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데만 그친다면... 우리가 누리고있는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이 행복하게 자라며 배울 때 그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했고 투쟁하였다... 복영아! 너는 이것을 생각해야 해!》

복영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유영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를 보내주지요?》

《애두, 정말...》

어머니는 머리를 외로 돌렸다.

이때까지 말없이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있던 아버지가 돌아서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영아, 옮겨 결심했다! 여보, 빨리 떠날 준비를 해주오.》

아버지는 마치도 옛 군대시절이 되돌아온듯 전투상황이 나타나난 때처럼 예리하고도 짙막하게 구령을 치듯했다.

《선영이, 복영이도 준비해라. 언니를 정거장까지 배워주고 오너라.》

《네!》

두 동생이 동시에 대답했다.

전투명령을 받은듯 온 집안식구가 재빨리 움직였다.

잠시후 두 자매는 어두운 밤길을 걸었다.

×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한 중간역에 내렸을 때는 벌써 해가 떠오른 아침이었는데 강한 바람의 징조가 벌써 여기 산간역에까지 미쳐와 승강대에서 내리는 유영이의 머리카락이 어깨우에서 바람에 날리었다.

이 중간역에서 룡호리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까지 거의 네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바람은 점점 더 세졌다. 고성기에서는 보도뒤에 알리는 일기예보에서 강한 바람의 위험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고있었다.

유영은 몹시 조급해났다. 룡호리에 벌써 강한 바람이 들이닥친것만 같았고 강한 바람에 놀란 리덕삼이 입을 벌리고 헤덤비고있는것만 같았다

서해안이 가까운 그 지방은 해마다 봄철이면 바람이 몹시 불었다. 그래서 금년봄에도 모판에 말장을 든든히 박고 바람막이바자를 잘 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리 3대혁명소조에서는 리당위원회와 같이 작업반들에 나가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농산 2반으로부터 6반까지 담당한 유영은 먼저 5반 2분조에 나가서 자신이 술선 앞장서서 시범적으로 말장을 든든히 박고 바람막이바자를 빈틈없이 친 다음에 안팎으로 벌줄까지 해서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게 해놓았다. 관리위원회에서는 농장의 전체 분조장들이 여기 와서 견학을 하고 이대로 바람막이바자를 잘 칠데 대하여 지시했다.

며칠후 유영은 3반 4분조 모판에 나가보았다. 그래서 리덕삼이가 관리위원회 지시대로 하지 않은것을 알게 되었던것이다...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꼭 나가봤어야 했어!...)

하고 유영은 중간역의 대합실 긴결상에 앉아서 그때 일을 두고 거듭 후회하는것이였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유영은 더 앉아있지 못하고 대합실안을 돌아다녔다.

여기서 유영은 여러명의 소조원들을 보았다. 특히 우산리의 몸매 작은 옥선이를 만난것이 더 없이 기뻐다.

《너두 떠났구나?》 하고 옥선이가 유영이를 만나자 손을 마주 잡으며 반가와했다.

《응! 너두 그래서? ...》

유영이 물었다.

《잠잘수가 없었어!》

옥선이의 대답이였다.

두 처녀는 물음칸에 가서 기차가 연착되지나 않는가고 물어보기도 하고 역장실에 가서 화물차편으로 갈수 없는가고 떼질을 하기도 했다.

《소조원동무들, 나는 규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하고 늙은 역장은 대답했다.

...옥선이가 먼저 내리고 유영이가 룡호리가까운 정거장에서 기차를 내렸을 때는 이날 해가 기울어질무렵이였다.

강한 바람은 이미 대지를 휩쓸고있었다.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여 나가넘어진것이 여러그루 되였다. 전선대들이 흔들리고 전기줄과 전화선들이 잉잉 울었다. 빼스시간이 맞지 않기때문에 유영은 건기로 결심하고 들길에 나섰다.

바람은 기승을 부렸다. 하늘은 흐려있었는데 그것은 구름때문이 아니였다. 노을이 물든듯 불그레한 빛을 띤 하늘은 강한 바람이 말아올린 먼지때문에 그렇게 보였다. 먼지의 구름이였다. 그래서 눈을 잘 뜰수가 없고 입안으로 귀안으로 목덜미로 신바닥으로 먼지와 함께 모래알이 날아들었고 바람은 걸음걸음을 방해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무엇이 얼굴과 가슴과 팔다리를 뒤로 애써 밀어냈다. 우에 입은 코트자락은 다리에 감겨들기도 하고 날개처럼 뒤로 날리기도 했으며 머리수건은 금시 날아가버릴듯이 필력이였다.

길가에 서있는 가로수들이 몸부림치고 새파랗게 돌아난 일사귀들이 서로 부딪치며 필력거렸다. 바람은 하늘 높은곳에서 웅-웅- 하고 굽주린 승냥이처럼 울어대기도 하고 땅바닥에 태질하며 모래알을 유영의 얼굴과 다리에 쥐여뿌리기도 하였다. 그러는새 날이 어둑어둑해지더니 어느덧 캄캄해왔다.

한손에 려행용가방을 든 유영은 머리를 숙이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바람을 맞받아 어둑속을 돌진하였다.

이미 룡호리땅에 들어섰을 때 유영은 곧바로 3작업반에 들러보기로 작정하였다. 3작업반은 큰길에서 가까이에 있는 작업반이기도 했던것이다. 그래서 파수원이 있는 언덕길을 넘어가는데 파일나무들이 바람에 우는 소리가 시커먼 파수원쪽에

서 무섭게 들려왔다. 유영은 더럭 무섭증이 나서 그쪽을 흘끔흘끔 살피며 걸음을 다우쳤다.

한동안 가던 유영은 자기가 길을 헛갈렸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분명 낮익은 길이 아니었다. 그레 잠시 서서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되던가, 혹시 3반 마을의 뒤등성이에 이르지 않던가 생각던 끝에 그냥 가기로 마음먹었다. 길은 등성을 내리고 있었는데 프락포르나 달구지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협소한 길로 변해버렸다. 파수원은 여기까지 잇닿아있었다. 거기서는 사나운 짐승이 우는것 같이 무섭게 우-우-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돌부리에 걸쳐여 몇번이나 넘어질듯하면서 언덕길을 가까스로 내려오니 흰히 트인 공지인데 거기서 바람에 불췌가 날리는 기름불뭉치들이 움직이고있는것이 보였다.

모판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사람을 만나게 된 유영이는 기쁜나머지 환성을 울리고싶었다. 파수원등성이를 넘어올 때 무서움으로 하여 땀으로 온몸이 축축하게 젖었던것이다. 유영은 덤벼치다가 나무뿌리에 걸쳐여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그 불뭉치를 향해 달음쳐갔다.

어둠속이라 어느 작업반 모판인지 알수 없었으나 농장원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비닐박막우에 뜸이며 가마니들을 덮기도 하고 새끼줄로 바람막이 바자를 든든하게 비끄러매기도 하면서 분주히 돌아왔다.

《여기가 어디예요?》

유영이가 어둠속에 대고 물었다.

《예, 여기는 두 쌍둥이가 사는 동네요.》

《하하하...》

누군가 대답하자 사람들이 웃었다.

(아니 그럼 여기가 2반이란말인가? 이제 대답한 사람은 1반조 동선동무잖애.) 유영은 이렇게 생각했다.

2작업반 마을에는 두 쌍둥이가 사는데 한 쌍둥이는 남자형제로서 지금 유치원생이고 다른 쌍둥이는 오누이쌍둥이로서 오빠는 프락포르운전수이고 누이는 2작업반 반장이였다. 스물네살난 처녀인데 여간 당돌하지 않았다.

《최동선동무 아니예요?》 하고 유영이 다시 소리쳤다.

그 사나이가 이쪽으로 돌아서서 몇걸음 오더니 반가와 소리친다.

《유영소조원동지 아니요?》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니 눈물이 나올것 같았다.

《네, 그래요! 반장동무나 분조장동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쟁쟁 울리는 대답소리와 함께 불뭉치를 든 처녀반장이 다가왔다. 머리수건과 솜옷자락이 바람에 펄떡이고 획-획- 소리내며 바람에 날리는 불뭉치를 든 처녀반장의 모습은 실로 숨뻤했다.

《아니! 지금 막 오시는길이군요!》

처녀반장은 바람에 날리는 코트며 러행용가방을 놀라운 눈으로 살펴보았다.

《모판은 어때요?》

《모판은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안침한 지대인데다가 소조원동지가 요구성을 높여서 바람막이바자를 잘 친 덕에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다. 소조원동지, 너무 걱정 마세요. 소조원동지가 그만큼 안타깝게 호소하고 뛰여다니고 했는데 우리가 량심이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처녀는 농장원들에게 소리쳤다.

《동무들 유영소조원동지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 소리에 여기저기서 농장원들이 모여들었다.

《휴가를 갔다더니 벌써 왔나.》

《강한 바람이 부니까 근심이 돼서 왔구만.》

《지금 막 오는길이군.》

《모판부터 찾아왔어!》

그들은 이렇게 웅성거리며 저마다 유영이와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들 수고합니다! 정말 수고해요! 은희동무, 아이가 앓는다더니 일없어요? 다 나왔어요! ... 정호아바이도 나왔군요! 정말... 수고들을 해요!》

서로서로 내미는 껏껏한 손들을 잡아주며 웃음짓는 유영의 두눈에 고인 맑은 이슬이 불빛에 반짝였다.

《소조원동지, 작업반에 들어가자요!》

처녀반장이 가방을 빼앗아들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다 합니다.》

동선이가 말했다.

《2반은 마음놓으라구!》 정호아바이의 굵직한 목소리였다.

유영은 3작업반 생각이 문득 났다. 그의 목적지는 거기였다. 2반은 마음놓을수 있었다.

《그럼 여러분, 전 2반은 마음을 놓겠어요.》 하고 유영은 농장원들에게 말했다,

《어서 들어가시래두!》

《먼길을 오느라구 얼마나 고달프겠소.》

농장원들이 이렇게 말했다.

유영은 처녀반장을 뒤따라 걸었다. 가면서 처녀반장은 강한 바람과의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관리위원회적인 지휘체계가 서고 리당과 관리위원회 성원들 그리고 3대혁명소조원들이 모두 작업반을 담당해서 나가있다고 말했다. 2반에는 리당지도원이 나와있었다. 유영은 소조책임자동무가 왔는가고 물었다. 처녀반장은 소조책임자와

기사장이 《갱생-다》형 차를 타고 작업반들을 순회한다고 하였다.

마을에 들어서자 처녀반장은 작업반식당으로 가자고 했다. 유영은 작업반 사무실에 먼저 들려 책임자동무에게 전화를 해야 했기때문에 그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다.

뜨뜻한 사무실방안에서는 소먹이는 아바이가 전화통열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인사뒤 끝에 유영이가 여기서 뭘하느냐고 물었다.

《전화통을 지키고있습다. 관리위원회에서 전화통열에 사람을 비우지 말라고 했답네다. 짧은 사람들은 다 모판에 나가고 늙은 측에서는 그래도 내가 전화심부름케나 함측해서 우리 반장이 보초를 세웠답네다. 허허허...》 그는 처녀반장을 돌아보면서 웃었다.

수화기를 들고 교환수를 찾았다.

《네.》 교환수가 대답했다.

《누구나? 금숙이나?》

《아이 소조원언니! 언제 오셨어요?》

유영이의 목소리를 기억하고있는 교환수가 반기었다.

《지금 오는길이야. 2반에서 전화해. 우리 3대 혁명소조실에 누가 있어?》

《책임자동지 계셨어요.》

《그럼 어서 대줘!》

《네.》 한동안 지나서 금숙이가 다시 말했다.

《나오지 않아요.》

《책임자동무 언제 왔어?》

《아침차로 왔어요.》

(책임자동무도 같은 심정이였구나... 평양에서는 기차가 곧바로 오는것이 있으니까 아침에 도착했겠구나. 그러자니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떠났겠어!)

가슴이 뜨거워오는 유영의 생각이였다.

《여보세요, 금숙이! 혹시 책임자동무가 교환을 찾게 되면 내가 3반에 가있다고 얘기해줘, 응?》

《네... 그런데 거기가 2반인데 3반에 가있다는 건? ...》

《난 이제 곧 3반으로 가니까!》

《알겠어요.》

통화를 듣고있던 처녀반장은 유영이가 전화를 끝내고 수화기를 놓자 놀래여 묻는다.

《3반으로 가다니요?》

《3반에 가야 해요.》 하며 유영은 처녀를 안심시키려는듯 미소를 머금었다.

《날이 어둡고 바람이 사나운데 여기 계세요.》

유영이 대답하지 않고 먼저 문을 열고 나갔다. 그 순간 바람이 확 밀려들어 문이 팽하고 닫졌다. 처녀반장이 뒤따라 나오며 그럼 저녁식사나 하고 떠나라고 부락했다.

《아니, 빨리 가야 해요!》

유영은 머리수건을 수습하며 대답했다.

X

2작업반에서 3작업반으로 가는 길은 논벌을 지나가는 순탄한 큰길이었다. 이 길로 가면 3반 마을을 뒤로부터 들어갈수 있었다. 사방은 무연한 들이다. 길이 좋고 짐승 우는것 같은 소리를 내던 무시무시한 과수원도 없었으나 그대신 벌판을 곧추 달려오는 바람이 유영이를 날려보낼듯이 세차게 불어쳤고 그리고 그 바람에는 차디찬 비방울까지 섞여있었다. 하늘은 캄캄하게 흐려있고 길바닥조차 보이지 않았다. 찬 비방울은 바람과 함께 얼굴을 때렸고 목덜미에 스며들었다.

유영은 3반 4분조 모판에 대한 불안한 생각으로 하여 조금해지면서 걸음을 다그치는데 웬일인지 무릎이 아파났다. 아마도 2반에서 불몽치를 보고 기쁜 나머지 덤벼치며 달려가다가 넘어졌을 때 상한것 같았다. 하지만 무릎이 좀 상한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만약에 3반의 모판들만 무사하다면 유영으로서는 더 바랄것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유영이는 얼어드는 얼굴을 수그리고 걸음을 다그쳤다. 마침내 3반마을이 있는 둥그스름한 구릉이 앞에 나타났다. 유영은 곧바로 4분조 모판부터 찾아갔다. 멀리에서부터 본조원들이 덤벼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것이 느껴졌다.

웅-웅- 아우성치는 비바람속에서 누군가 소리치고있었다.

《유영소조원이 여기 안왔소?》 하는 로동지도원(그가 3반에 나와있는 모양이다.)의 탁한 목소리를 유영이는 가려들을수 있었다,

(무엇때문에 나를 찾을까?)

《오지 않았소-》

누군가의 대답소리.

유영은 모판으로 조금히 다가갔다. 유영은 그 자리에 굳어졌다. 유영이가 것처럼 마음조이며 불안해하던 그것이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바람에 새끼줄을 끊어버린 바람막이 바자가 너풀너풀 춤을 추기도 하고 말장과 함께 넘어지기도 했으며 흰비닐박막이 새끼줄을 끊고 통채로 들리어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기도 하는 모판의 정경을 보게 된 유영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아아 그때 내가 왜 좀더 요구성을 높이지 못했던가. 그때 내가 왜 다시 나와보지 못했던가. 그랬더라면 내 혼자서라도 바람막이바자를 다시 치고 벌줄을 땀을것이고 이런 후파가 빚어지지 않았을터인데! ...)

가슴을 찢는듯한 후회가 온몸을 휩쌌다.

(원칙에서 존보호도 물려서지 말라고, 그것이 진정한 방조라고 책임자동무가 한두번만 말했던가.)

거의 리성을 잃은 유영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차림새를 생각할 짬도 없이 들고있던 가방을 내던지고 광란하는 바람과 싸우고있는 농장원들 속에 휩쓸려들어갔다.

바람을 막기 위해서 쳐놓은 바람막이바자가 넘어지고보니 들판을 거쳐 불어오는 바람은 거침없이 곧바로 모판에 달려들어 어디건 모판을 덮은 비닐박막안으로 뚫고 들어갈 짬을 찾아내려고 애쓰며 휘-휘- 소리를 내었다. 마침내 짬을 찾아내자 그리로 찬바람이 쏟아져들어가고 그러자 비닐박막은 팽팽하게 부풀어올랐다. 유영은 사방을 휘돌러보아야 무엇 하나 눈에 띄이지 않아 그대로 비닐박막을 몸으로 덮으려는듯 두팔을 벌리고 허리를 굽혔다. 그 순간에 귀청을 때리는 팡! 소리와 함께 부풀어올랐던 비닐박막이 새끼줄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터져나갔다. 그러자 찢어진 비닐박막이 펄럭거리며 유영이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고 새파랗게 드러난 애 어린 벼모들을 두들겨대기 시작했다.

《아- 이걸 어쩌나! 누가 없어요- 뜬을 가져와요-》

유영은 펄떡거리는 비닐박막을 붙잡으려고 헛되이 애쓰면서 두팔을 허우적이며 금시 울음이라도 터져나올듯하는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다.

《거 누구요?》

리덕삼분조장이 저쪽에서 웨쳐대며 모판사이길로 저벅저벅 걸어왔다.

《벼모가 죽어요-》

유영은 이렇게 다시 소리쳤다. 그러자 찬바람과 함께 벌써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비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어가 목소리를 억눌렀다.

프락토르가 련결차에 뜰리며 말장들을 싣고 달려왔다. 프락토르의 전조등불빛이 바람에 물리는 비줄기와 펄떡거리는 비닐박막들과 미끄러운 모판사이길을 넘어질듯 허우적거리며 달려오는 리덕삼이, 모판에 엎드리다싶이하고 소리치고있는 유영이를 번쩍번쩍 조명하며 스쳐지나갔다.

《이게 누구요?!》

가까이 다가온 리덕삼이는 프락토르의 전조등불빛에 환하게 드러난 유영소조원을 알아보고 깜짝 놀래었다. 대학생복차림 그대로 펄떡거리는 비닐박막을 두손으로 막으며 허리를 굽히고있는 처녀의 얼굴로 비물이 줄줄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 얼굴을 차마 볼수가 없어 리덕삼이는 고개를 꼭 떨구고 돌아섰다. 비바람이 등을 저으기 구부린 그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분조장동무, 뜬을 가져오세요! 벼모들이 상합니다!》

마치도 흐느끼는듯한 목소리! ... 그것은 추위와 비바람때문에 그렇게 들리었다. 리덕삼은 그 목소리를 들었다기보다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다. 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이마에 흐트러져내려와 바람에 날리는 처녀소조원의 그 얼굴에서 바로 그것을 느꼈던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뜻으로 리덕삼의 귀에 울려오는것이였다. 당신태문에 벼모들이 죽어요, 당신태문에 휴가도중에 뛰여오게 되였어요! ... 하는 뜻으로.

리덕삼은 발이 미끄러워 넘어질듯 비틀거리며 프락토르가 뜬을 부리우는곳으로 정신없이 걸어갔다.

유영이는 비바람속에서 멀어져가는 리덕삼을 보면서 어쩌서 저렇게 더디게 움직일까, 빨리 뜬이 있어야 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을뿐이였다. 분조원들이 뜬을 날라왔다. 로동지도원도 같이 왔는데 그는 유영이에게 소조책임자가 아까부터 전화로 찾는데 빨리 작업반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유영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피해입고있는 벼모를 살려내는 일밖의것은 지금 유영이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했다. 유영은 분조원들과 같이 뜬을 덮어나갔고 넘어진 바람막이바자를 일으켜세웠고 말뚝을 박고 별줄을 매나갔다... 유영은 누가 그에게 솜옷을 입혀주고 비옷을 씌워주고 그리고 비닐장화를 가져다주었는지 알지 못했다.

...바람도 좀 자고 비발도 가늘어지고 모판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을무렵에야 유영은 진흙이가득 달라붙어 천근만근으로 무거운 장화를 끌고 절룩거리며 작업반사무실로 향했다.

비옷을 벗어 걸고 앉은뱅이책상에 마주앉아 수화기를 들자 교환수 금속이가 유영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소조책임자동지가 아까부터 찾았다고 하며 오늘 강한 바람과의 투쟁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하고있는 지령실에 대주었다.

《유영동무요?》 소조책임자 최관우의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들으며 유영은 피곤한듯 두눈을 감았다. 무슨 일이든 그에게 의탁하고싶도록 믿음이 가는 최관우였고 그래서 그앞에서만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지 않는 유영이였다. 그런데 어쩌서 그의 목소리는 성난것처럼 들리는것일까?

《동무, 어디 가있었소? 왜 련락이 없었소? 당장 들어오오! 들었소?》

《책임자동무…》
《두달 말고 들어오오. 기다리겠소.》
《책임자동무, 전 들어갈수 없습니다.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유영은 애원하듯이 말했다.
《그건 왜 그렇소?》
최관우는 여전히 성난 목소리였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한 분조모판이 끝내 말썽입니다.》
최관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보나마나 온몸이 푹 젖었을테지… 거기에 로동지도원이 나가있으니 동무는 들어오오.》
그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아이참, 제 성미를 잘 알면서! …》
유영이 고집을 부렸다.
저쪽에서는 잠시 조용하더니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그럼 있소.》
《책임자동무, 고마와요.》
유영은 가냘픈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유영동무, 비바람에 뒤이어 랭해가 올수 있는데 그것과 싸우기 위한 사업을 벌려야 하겠소. 관리위원회적으로 대책이 있소.》 하고 최관우는 발령상모판에 덮을수 있는 모든것을 총동원하고 모닥불을 피우며 논모판에 물을 대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그리고 계속했다. 《분조장이상 초급일꾼들을 전부 모이도록 하고 조직 정치사업을 진행해야 하겠소.》
《예, 알았습니다.》
《정말 일없소? 숨웃이랑 입었소?》
유영은 자기가 입고있는 숨뎃저고리를 새삼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때에야 유영은 그 숨웃이 리덕삼의 늘 입고다니던 색날은 보위색 숨뎃저고리임을 알아보았다.
(언제 그가 나에게 입혀주었는가… 그리고 비웃과 장화도…)
문이 열리더니 바로 리덕삼이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유영이가 감감 생각을 잊고있던 러행용가방이 들려있었다.
그는 그것을 방 한쪽에 놓고 등을 저으기 구부정하고 서서 어물거렸다.
《왜 대답이 없소?》
최관우가 전화에서 물었다.
《숨웃이랑 비웃이랑 다 입었습니다. 비닐장화도…》
《그럼 수고하겠소. 나도 이제 거기 나가보겠소.》
하고 최관우는 전화를 끊었다.

유영은 앉은뱅이책상앞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오른쪽 무릎이 시큰하여 그는 넘어질듯이 비틀하였다. 리덕삼이 급히 부족했다.
《괜찮아요.》
유영은 리덕삼의 별로 푹해보이는 거무스름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와요!》 하며 유영은 그가 가방을 들고온 데 대하여 인사하였다.
리덕삼이 수그린 이마를 썩썩 긁으며 두툼한 입술을 우물거리면서 무엇이라고 웅얼거렸다.
《뭐라고 말했어요?》
유영이가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
리덕삼이는 유영을 흘끔 쳐다보더니 손으로 얼굴에 흘려내리는 비물을 훔치고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 분조장을 20년간 하다나니 별별 사람들을 다 보아왔다. 농사가 잘되면 〈여보게 분조장, 거 그때 내가 하란대로 여사여사하게 했더니 어떤가. 잘되지 않았어!〉 하고 말하고 농사가 잘 안되면 〈여보게 분조장, 거 그때 내가 여사여사하게 하라고 했는데 고집부리며 말을 안듣더니, 보란말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까짓거 종두룩 말하라고 했지요. 말루야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분조 농사야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다 하구 내버려뒀습네다… 내 이제 뭘 숨기겠소? 유영소조원도 손님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요.》
리덕삼이는 완고하게 응결되어있던 자기 속심을 처음으로 처녀에게 내놓았다! 그와 사업을 시작하여 실로 두달만이다… 인간이 자기의 진정을 이야기할 때처럼 고결해보이고 사랑스러워보이는 때가 또 있을까?
유영은 머리로부터 턱으로 흘러내리는 비물을 훔치고있는 이 순박한 농민을 바라보며 3대혁명소조원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업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교시의 구절구절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분조장동무, 어려운 투쟁은 앞에 있습니다. 오늘밤을 모판에서 같이 새차요!》
격동에 넘친 유영은 오랜 농민생활에서 나무등결같이 껏해진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리덕삼은 그를 외면한채 속으로 웅얼거릴뿐 더 말이 없었다.
《분조장동무, 부탁을 함시다. 분조장이상 다 모이도록 해주세요. 로동지도원동무도 오도록…》
하고 유영이 그에게 말했다.
《예.》

유영의 부탁을 들어줄 일이 생긴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기뻐요! 리덕삼이는 비바람이 뿌려치는 캄캄한 밖으로 부리나케 뛰쳐나갔다.

유영은 온몸에 차넘치는 열정과 신심과 힘을 느꼈다. 어찌하여 이리도 가슴 울렁이고 강렬한 맥박이 고동치는것일까? 어찌하여 강한 바람이 광란하고있는데도 유영의 얼굴엔 기쁨에 넘친 미

소가 어리는것일까? 이것이 투쟁하는 보람, 삶의 행복이 아니란말인가!

유영은 문득 복영이가 하던 말을 상기했다.
《생활-그것은 곧 행복이다.》

(복영아, 네 말이 옳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좀 보태고싶구나, 평온한 생활이 아니라 격류하는 생활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유영은 이렇게 혼자 속으로 말했다.

그전엔 다 몰랐단다

김석주

그저 귀엽기만 해요

파릇파릇 온실에 싹트는것이

사랑스럽기만 해요

애일이 돋는것이...

이른봄 발머리에서 만난 그 처녀

그전엔 다 몰랐단다

담배가 그렇게 정인줄

그렇게 귀중한것인줄

생각하면 꿈만 같단다

담배잎을 그렇듯 소중히 만지시며

8월의 발머리에 서계시던

어버이수령님 모습,

그날부터 늘 가슴엔

담배숲이 안겨있었단다

어찌다 잎 하나 상하면

눈물날만큼 가슴도 아팠단다

그전엔 왜 다 못보았을가

포기밑에 숨은 능쟁이며 닭개비

술방울만큼한 조약돌들을...

담배하고도 속삭이고

순간을 몰라보게 자라는

그것이 볼수록 자랑겨워

담배도 밭에서 살고

처녀도 밭에서 살았단다

자리에 누워도 일어나도

수령님 서계시던 발머리,

눈덮인 포전을 바라보아도

담배숲만 눈에 선하다는 그

저기 부식퇴비 안고 달리는 그 마음은-

겨울은 왜 있을까요

어버이수령님 서계시던 밭에

언제나 담배숲이 싱싱했으면!

지금도 푸르고

봄에도 여름처럼 푸르렀으면 좋겠어요

가을에도 푸르고

겨울에도 푸르렀으면 좋겠어요.

밤 길

박사영

고요히 눈내리는 밤이었다.

덕달리 당비서 원영준은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신작로에는 프락프르바퀴자리 하나 나있지 않았다. 그는 숫눈길을 걷는것이 더 즐거웠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빠드득빠드득 눈 밟히는 소리가 고즈넉이 가라앉은 정적을 흔들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진다.

원영준은 지금 한달강습을 받고 돌아오는길이다. 그는 목직한 러행용가방을 옮겨쥐며 짧은이들처럼 씨영씨영 덕달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가방안에는 감나무집로인네 셋째며느리에 줄 인형이 두개 들어있었다. 리병원의사가 하는 말이 꼭 쌍둥이를 볼것이라고 했던것이다. 아마 지금쯤은 몸을 풀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방에는 그밖에도 농장에서 제일 년로한 최로인에게 가져다 줄 돈보기안경이 있었고 기계화반 수리공인 《작곡가선생》이 부탁하던 《기타교착본》도 있었다...

이윽고 고개마루에 올라섰다.

(허, 배찬결, 단숨에 오르자니...)

원영준은 가쁜숨을 몰아쉬며 모자채양을 약간 밀어올리고 손등으로 땀발이 내뻗 이마를 주근주근 눌렀다. 하긴 나이가 나이다보니 그럴만도 했다. 흰여섯이 어디 적은가.

하지만 그는 막혔던 숨이 후-나갔다, 고개마루가 돼서 그런지 선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저 멀리-뽕안 눈발들이 희끗거리는 밤하늘아래서 수없이 깜박거리는 불빛들이 어서 오라 손저어부르는듯 다정하게 안겨왔던것이다. 리소재지마을이다.

원영준은 기운차게 걸음을 옮겨놓았다. 조금한마음은 그의 발길을 언덕아래로 잡아끄는듯했다. 집이 있는곳, 정다운 사람들이 있는곳, 다정한 모든것이 있는곳을 향하여...

갑자기 한쪽 발이 미끄러지더니 그는 그만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견잡을새없이 몸은

아래로 아래로 미끄러져내리기 시작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미끄럼대를 타기라도 한듯.

맘이 흔들흔들해져서 눈우에 막 덩굴고라도싶어진 원영준은 미끄러져내리는대로 몸을 내맡기고 너털웃음을 치기 시작했다.

《허허허...잘은 내려간다. 잘은 내려가!》

그는 갑자기 천진한 어린애로 되어버린듯했다. 눈발이 환환 달아오른 귀뿌리를 때린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녹아내려 축축히 불편을 적신다.

(허허허, 이런 멋으로 애너석들이 미끄럼대를 타는게로군! ...)

무엇인가 탁 걸려 그의 몸은 멎었다. 발끝이 얼얼했다. 그는 절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허허 참, 재미난곳에 범 나온다더니...)

그는 허구프게 웃으며 바지가랭이와 엉덩이에 묻은 눈을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마음만은 여전히 즐거웠다. 고개밑으로 내려오자 마을에서 반짝거리던 불빛은 어데론가 숨어버렸다. 흰눈을 뒤집어쓴 나무숲이 앞을 가리워버린것이다.

불현듯 원영준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미끄럼대! ... 그런데 우리 농장 미끄럼대는 좀 작지...)

그는 자기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유치원 앞마당을 지나다니면서도 미끄럼대의 크기며 애들의 놀이터에 대해서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일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일단 생각에 잠겨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의 결함들만 무수히 끄집어내가지고서는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것이였다. 그러고보면 어느것 하나 눈에 거슬리지 않는것이란 없었다. 모든것이 다 불만스러웠다.

(이제 관리위원장을 만나 새롭게 모든것을 검토하고 새롭게 모든것을 시작하자.)

그러자 그는 새삼스럽게 관리위원장 석창갑이 그리워졌다. 눈도 코도 몸집도 큼직큼직하게 생

긴 그는 마음역시 큼직큼직했으며 일손 또한 커서 군적으로 소문난 일꾼이었다.

어데서인가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느낌처럼 마음속을 흔들더니 차츰차츰 이쪽으로 가까와왔다.

원영준은 걸음을 멈추고 발동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가만, 23혼가? 35호갈기두 하고…)

가락맞게 울리는것 같기도 하고 어찌면 기운이 진한것 같기도 한 그 발동소리… 그것은 성미가 온화한 자기네 농장 두 트랙또르운전수의 얼굴을 동시에 떠오르게 했다.

(23호로군! …)

드디어 원영준은 확정하고말았다. 둘다리도 두드려보고서야 건는다는 23호책임운전수가 아니고서는 저런식으로 몰수가 없는것이다.

이윽고 어둑속에서 병긋하고 전조등불빛이 나타났다. 그 불빛은 마치 흐느적이는 물속에서 햇빛이 굴절되듯이 눈내리는 어둠을 이리저리 가르며 흔들거렸다.

원영준은 길섶으로 비켜섰다. 트랙또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내달리려 했겠는지 조금 지나쳐서 세차게 코를 박고 멈춰섰다.

운전칸문이 펄쩍 열렸다.

(아니?! …)

원영준은 놀랐다. 운전칸에서 뜻밖에도 보통기에 가슴이 다듬이돌처럼 단단해보이는 11호책임운전수 조용판이가 내려섰던것이다. 그는 이렇게 《오진》을 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조용판이라면 웅당 발동소리도 요란하게 울리며 성칼스럽게 달려왔어야 했을것이다. 언제나 푸짐종고 쾌활하기로 알려진 조용판이다. 아무리 무거운 생각에 잠기었다가도 싱글벙글하는 그를 대하게 되면 절로 즐거워지는것이다.

원영준은 부지중 빙그레 웃으며 운전칸뒤에서 비치는 후등의 흐릿한 불빛에 판자노리가 유포하게 두드러져보이는 조용판이의 검스레한 얼굴을 정겹게 쳐다보았다. 조용판은 토끼털모자를 벗어 들며 《안녕하십니까.》하고 머리를 꾸뻑했다.

《허-잘 있었소?》

원영준은 약간 당황하여 허파빈 소리로 어망중 인사를 받았다. 그의 인사는 너무나 뜻밖이었던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모자를 벗어 들고 깎듯하게 인사를 해본적이 없었다. 어디서나 만

나면 그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해보이거나 《비서동지!…》하고 환하게 웃는것이였다. 그러나 거기엔 친근하고도 무뎡한,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을 대할 때의 응석비슷한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인사는…

원영준은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짐을 느꼈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렇게 밤늦게 어딜가나?》

《싸리재골로 활창대 실러 갑니다.》

《싸리재골?! …》

《…………》

《혼자 떠났나?》

《예.》

침묵이 흘렀다. 두사람은 한동한 운전칸문앞에 마주 서있었다. 조용판은 벗어친 털모자를 쓸 생각도 않고 두손으로 주무럭거리며 어색하게 서있고 권영준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고 서있었다.

《용관동무, 무슨 일이 있었소?》

《…………》

조용판은 눈길 피하며 슬며시 고개를 돌리었다.

《기분 상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권영준은 놀랐다.

《대치차 이발을 부러뜨려서 오후에 실기로 되였던 활창대운반이 그만…》

《그래서 부기사장동무한테 말을 들은 모양이구만.》

《아닙니다. 관리위원장동지가…》

《관리위원장이?!》

(음, 어쩐지… 글썄…) 원영준은 입속으로도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는 생각에 잠겨 트랙또르옆으로 다가가 앞바퀴를 두드려보기도 하고 뒤바퀴쪽으로 돌아가며 사슬을 더듬어보기도 했다. 쇠사슬은 제대로 씌여져있었다. 그는 한결 마음이 놓여 가벼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구 해서 죽지부러진 새처럼 휘주근해 있을게야 있나. 잘못이야- 고치면 되지.》

《고치겠습니다.》

조용판은 숙였던 고개를 끝머 어줍게 웃었다.

그 목소리에도 어느정도 활기가 되살아났다.

원영준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눈송이들이 더욱 물방으로 쏟아져내리는것 같다.

《눈이 많이 내리누만.》

《일없습니다. 오늘중으로 활창대를 실어와야 매일 읍에 종자 실려 갈수 있답니다. 사실 전 아까 관리위원장동지의 말을 들을 때는 속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꼭 고치겠습니다.》

《그럼 조심하라구 .》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조용관은 털모자를 머리우에 집어쓰고 운전칸으로 올랐다. 잠시후 트락토르는 툽툽거리는 동음소리를 한번 크게 내치르고나서 흠칠 자국을 떼었다.

원영준은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전조등 불빛이 눈내리는 어둠속을 헤가르며 멀어져가는양을 바라보고있었다. 찌리재골은 이십리길이 잘된다. 이윽고 그쪽에서는 끊어졌다이어졌다 하는 발동소리만이 아스라하게 들려왔다.

원영준은 뭔가 더 따뜻한 말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 보낼길 하는 생각이 못내 가슴에 걸려 그 자리를 인차 뜨게 되지 않았다.

사실 비판받은 사람의 마음은 괴롭기 마련이다. 결쾌있고 일욕심은 있지만 그 대신 조용관은 차를 알뜰히 관리하지 못하고 혹사하는것으로 하여 가끔 말밥에 오르군했다.

그렇던 그가 오늘밤은 비판을 접수하고 스스로 활창대 실려 떠나고있다.

기쁜일이였다. 그가 이렇게 결심할 때까지는 남모르는 속심의 고충이 있었을것이다.

원영준은 관리위원장이 제때에 비판을 주었다고 생각되였다.

관리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할것이였다.

원영준은 걸음을 옮겨놓았다. 발밑에서 눈땀히는 소리가 단조롭게 빠드득빠드득 동안뜨게 울렸다...

마음이 가까와오자 그의 몸과 마음은 아늑한 품속에 잠겨드는듯했다.

모든것이 낮익고 정다웠다.

동구길에 들어서자 어데선가 달려나온 복슬개 한마리가 반갑다는듯 쿵쿵거리며 발치에 감겨돌아갔다.

원영준은 곧장 관리위원회로 향했다. 그는 어데 갔다오면 석창갑을 만나고서야 자기 사무실로 가군했다. 년령상으로는 자기보다 10년이나 아

래이지만 관리위원장을 진심으로 존대해주고 내세워줄 때 농장살림이 잘돼간다는것을 오랜 당사업을 통해 체득한 그는 이제는 그렇게 하는것이 하나의 굳어진 관습처럼 되어버렸다.

목이 길숨하고 키가 쫘창한 회계원이 수직실에 혼자 앉아서 무슨 장부책을 뒤지고있다가 원영준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원영준은 러행용가방을 수직실 한켠구석에 놓고 복도로 나왔다. 관리위원장은 복도끝에 마주 보이는 방이였다, 그는 환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생산부 창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와 — 하고 떠드는 사람들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던것이다, 아마 텔레비존앞에서 흥미있는 영화라도 보는 모양이다. 빙긋이 웃으며 방안을 들여다보며 서있던 원영준의 낮빛은 저도모르게 굳어졌다. 뺨곡이 들어앉아 열을 올리고있는 사람들속에서 관리위원장의 둥글넓적한 얼굴을 발견했던것이다.

석창갑은 자못 긴장하여 엉덩이를 들었다났다 하며 안절부절을 못한다.

《슛! 슛! 꼴잉! 에이 참 ...》

그는 꼴문대를 스치고나간 뿔이 아쉬워서 견딜수 없다는듯 자기의 무릎을 철썩철썩 때리기도 한다.

《음.》 순간 원영준의 입에서는 이상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왜그런지 온몸에 맥이 탁 풀리는것이였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고맙게 여겼던 관리위원장에 대한 믿음이 줄지에 무너져내리는것을 느꼈다. 그러자 뿔이 죽어 운전대를 잡고 이리흔들 저리흔들 하며 찌리재골로 들어가고있을 조용관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눈앞에 밝혀왔다.

문을 열고 누군가 나오는바람에 그는 무거운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 사람은 축산지도원이였다.

《아니, 리당비서동지가 아십니까? 지금 오시는 길입니까?》

《잘 있었소?》

원영준은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아흔들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동남아시아를 원정하고 돌아온 우리 나라 종합팀의 원정경기를 록화실황으로 보여주는데 모두들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겼소?》

《2대 0입니다.》

원영준은 방안으로 들어갔다.

《언제 오셨습니까?》

석창갑이 반짝하는 빛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안은 잠시 부산스러워졌다.

원영준은 어서 구경들을 하라고 하며 어떤 사람하고는 악수를 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그저 고개를 끄덕여보이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등을 눌러 앉히기도 했다.

사람들은 다시금 긴장하여 텔레비존화면으로 눈길을 가져갔다.

석창갑은 텔레비존을 보면서 말했다.

《3반에 나갔다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새해농사차비가 다른 반보다 좀 뒤떨어졌길래 반장동무를 단단히 달구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식사는 했습니까?》

《쉬-》 권영준은 고개로 텔레비존을 가리키며 웃었다.

《했소. 저녁두 안먹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경기는 점점 치열해진다.

석창갑은 이내 경기에 열중해버렸다.

원영준은 빙긋이 미소를 짓고 앉아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리가 불편하기라도 한듯 자주 몸을 움직거렸다. 무엇인가 슬그머니 기여들어 머리속에 딱 들어불기라도 한듯 그 어떤 정신적압박감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던것이다. 그 괴로움은 축구경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의 흥분이 높아질수록 더해지는듯했다...

경기가 끝나자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나란히 서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서로들 출장길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을을 돌아보기를 즐긴다.

눈은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두사람의 머리와 어깨에는 어느덧 하얗게 눈이 내려앉았다.

석창갑은 아직도 경기에서 받은 흥분이 사라지지 않는듯 중얼거렸다.

《거참, 11미터 벌칙만 내지 않았어도 3대 0으로 끝나는것인데...》

《정말 아쉽게 됐소.》

그들은 걸어갔다. 한집 건너 두집 건너... 가두 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노래소리, 고요히 내리는 눈발사이로 밝은 불빛이 정답게 흘러나오는 창문들-

석창갑은 가슴이 부풀어오르는듯 숨을 길게 들이쉬더니 입을 열었다.

《비서동무, 참 좋은 밤입니다. ... 눈은 내리고 마을은 고요히 잠들고... 모두들 행복한 잠자리에 드는 이런 때가... 허허...》

그는 멋있는 말마디가 거침없이 흘러나온것이 저로서도 이상했던지 먼구스레 웃었다.

《관리위원장동문 꼭 시인갈소.》

원영준이도 웃으며 응대했다.

석창갑은 잠시 생각을 고루듯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만나면 의례히 있게 마련인 사업상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구 참, 어제 군에서 농사차비 중간총화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농장이 첫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모판자리준비와 나래엮기, 자급비료생산 등 그간에 진행한 일에 대해 두루 알려주던 그는 비로소 생각난듯이 중간총화결과를 쓸적 내비치는것이였다. 원영준은 빙그레 웃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나야 무슨 수고를 했겠습니까. 농장원들이 수고를 했지요. 그리고...》

석창갑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상싶다. 하염없이 내리며 속삭이는 눈처럼...

어느덧 큰 길가에까지 나온 두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나란히 서서 고요히 깊어가는 마을을 지켜보고있었다.

원영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는듯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눈길은 한곳에 가서 못박혔다. 그들이 서있는 바로 앞집에서만은 여전히 창문에 불빛이 어렸던것이다. 이윽도록 그 집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던 그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싶더니 석창갑을 바라보며 말했다.

《용관동무네 집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구만...》

석창갑이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신혼생활이 아십니까. 게다가 그 동문 한다하는 공격수이니까 지금쯤은 텔레비를 보고와서 제색시한테 축구강의를 한바탕 늘어놓고있을겁니다.》

《그래요?! ...》

원영준은 갑자기 말을 중동무이했다. 바로 그때 부엌문에 얇은 나이론머리수건을 쓴 녀인의

그림자가 언뜻 어리더니 문이 열렸던것이다. 환한 불빛이 마당으로 쏟아져나왔다. 몸매가 호릿한 여인이 삼태기를 들고 마당가녁으로 나오더니 탄채를 쏟아버리고 허리를 편다. 그리고는 잠시 서서 멀리 찌리재골이 있는쪽을 이윽도록 바라보는것이였다.

원영준은 가늘게 긴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관리위원장을 돌아보았다. 석창갑은 그저 멍글거리며 걷기만 했다.

《아이… 안녕하세요!》

용관의 안해는 뜻밖에 나타난 리당비서와 관리위원장을 알아보자 당황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수집계 인사를 했다.

석창갑은 방안을 기웃이 살펴보고나서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허허, 난 또 용관동무가 들어왔다구…》

《…………》

용관의 안해는 수집계 웃으며 대답이 없었다.

《한참 깨가 쏟아질 땐데… 아니 이 사람이 축구경기를 봤으면 집에 와서 색시하고도 이야기를 나눠야지 뭘 하구있나, 허허허.》

《아이참, 관리위원장동지두… 활창대를 실러간 사람이 구경은 무슨…》

용관의 안해는 문득 말끝을 삼키며 부끄러움이 어린 미소를 지었다.

《활창대라니?! …》

석창갑이 되물었다.

《아까 활창대를 실러 간다면서 집에 들렸답니다.》

《그래?! …》

석창갑의 목소리에는 의혹과 놀라움이 섞여있었다. 그의 얼굴에 떠있던 웃음이 한순간에 스러졌다.

원영준이 웃으면서 한마디 곁들었다.

《인차 돌아올겁니다. 마음놓고 들어가보십시오.》

용관의 안해는 얼굴이 발가우리해져서 서있었다…

두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허, 그녀석이 참… 이 밤중에…》

석창갑은 약간 심각해진 목소리로 낮에 용관을 비판한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다.

《…좀 호되게 비판을 해줬습니다. 그 동무두 이젠 총각시절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원영준은 한동안 묵묵히 걸음만 옮기다가 나직이 대꾸했다.

《잘했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제때에 비판을 했기에 그 동문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 밤길에 나설 용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땐 나두 좀 흥분했었습니다. 오늘중으로 활창대운반을 끝내야 래일 읍으로 종자를 실러가겠는데 그 계획이 뒤게 되었다는 생각때문에 참을수가 없었지요.》

《제 흠집을 찾기두 힘들지만 결함을 끄집어 비판하기두 사실은 험한 일이 아니지요. 그 동무가 혼자서 트랙트르를 몰고갔을 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원영준은 이렇게 말하며 다시 되돌아보았다. 조용관네 집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꺼지지 않고 빨갭게 비쳐나오고있었다. 남편을 기다려 이 밤을 지새우려는거나 아닌지… 눈이 내려서 그런지 원영준에게는 그 불빛이 흐릿해보였다.

두사람은 한동안 침묵속에 걸었다.

문득 원영준이 찌리재골쪽을 바라보며 혼자소리로 근심스럽게 중얼거렸다.

《눈이 점점 더 쏟아지는군.》

석창갑은 근심에 잠긴듯한 리당비서의 말을 들으며 모든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실 조용관이 이 밤중으로 활창대를 실러 갔을줄은 미처 몰랐다. 낮에 비판을 받으면서 불이 잔뜩 부어있던 모습을 봐서는 지금쯤 비판받은 생각을 삭이지 못하고있을줄 알았는데 그가 이 밤에 찌리재골로 떠나갔다니 충격이 컸었다.

《비서동문 들어가보십시오. 먼 출장길에 피로하겠는데 …》

《아니, 어디 가겠소?》

《제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거 있소. 이런 밤길이야 혼자서보다 둘이 걷는게 더 좋지. 그럼 산보삼아 함께 갔다옵시다.》

원영준은 정말 즐거운 산책이라도 떠나듯이 우선우선해져서 말했다. …

마을은 어느덧 그들의 뒤로 멀리 숨어버렸다.

부드럽고도 산뜻한 눈송이들이 불을 스치고 목깃으로 기여들어 살그머니 녹아버린다. 몸은 후끈후끈해오고 입에서는 더운 김이 내불린다.

석창갑은 문득 이상하게 주위가 허전한감이 들어 걸음을 멈추었다. 원영준이가 보이지 않았다. 뒤돌아보았다. 방금 지나온 길우에서 당비서가 없드리고 무엇인가 하고있었다.

(?!... 무얼 떨구었나? ...)

슬금슬금 그쪽으로 다가가던 석창갑은 당비서가 길바닥에 얼어붙은 자그마한 돌을 그려안고 안간힘을 쓰고있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축구볼보다도 작게 생긴 동실한 돌이었다. 아마 산우에서 굴러내려 얼어붙은 모양이었다.

돌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자 이번에는 허리를 펴고 신뒤축으로 힘껏 걷어차 굴굴린 다음 그놈을 넉쩍 들어 길아래로 던져버리었다. 마침 다가온 석창갑에게 원영준은 변명이라도 하듯 《아무래도 이놈이》 하고 웃는것이였다.

두사람은 또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몇걸음 걸어가던 원영준은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장난꾸러기아이들처럼 공연히 길바닥을 미끌미끌해보더니 《관리위원장동무, 어기가 좀 미타한데... 프락프르가 오다가 미끄러지지나 않을가?》 하고 근심스레 중얼거리는것이였다.

《.....》

석창갑은 얼른 대답을 못했다. 리당비서가 근심하는것이란 바닥이 약간 낮아 얼음버께가 생긴것이다. 더구나 그렇게 발끝으로 미끌미끌해서 미끄러지지 않을 길이란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리당비서의 원심이 이해되는듯싶기도 하고 또 어쩌면 지나친 로파심같기도 했다. 늙어지면 잔근심이 많아진다니...

석창갑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고는 《글쎄요. 뭐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런 평지에서야 일있습니까. 내리받이라면 몰라두...》 하고 심드렁히 대꾸했다.

《그럼... 봐줍시다. 허허허...》

원영준은 소리내여 웃었다.

몇걸음 걸어가던 석창갑은 갑자기 한쪽발이 미끄러지는바람에 저도모르게 펄쩍 주저앉아버리었다.

원영준은 그의 손을 잡아당겨주며 유쾌하듯 껄껄 웃었다.

《하하... 이런데선 장담할게 못된다니까...》

《원 비서동무두, 남의 <불행>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다니요.》

석창갑이도 까닭없이 즐거워짐을 느끼며 룡담을 했다.

《즐겁지 않소. 아이들때 꼭 미끄럼대를 타듯이...》

《하긴 이렇게 눈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보니 어릴 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관리위원장동무, 우리 농장 유치원놀이터 미끄럼대가 아무래도 좀 작다고 생각되지 않소?》

《미끄럼대요?!》

석창갑은 영문을 몰라 반문했다.

《글쎄 아까말이요. 나두 이제처럼 덕달고개를 넘어오다가...》

원영준은 자기가 《미끄럼대》를 타고 내려오던 이야기를 하고는 다시금 소리내여 웃었다. 석창갑이도 따라웃었다.

이윽고 원영준은 웃음을 거두고 저으기 갈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관리위원장동무, 난 밤길이라는데 참 좋다고 생각하오. 호젓이 밤길을 걸을 때면 무슨 셈이라도 솟아나듯이 많은게 생각되니말이요. 지금까지 내 생활에서는 그 <미끄럼대>처럼 지나쳐버린것들은 얼마나 많을가 하는 생각두 들구... 사업에서까지 그러면 큰 실수가 아니겠소. 관리위원장동무나 나나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하오. 우리의 실수는 농장원의 실수와는 다르다구 생각하오. 한번 실수하면 온 농장이 손해를 볼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기쁨과 용기를 줄대신 어두운 그늘을 던져줄수도 있는게 아니겠소. 그러고보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소. 그런데 우리는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비해볼 때 너무나 부족한것이 많거던. 이번 강습에서도 또 배운 것이지만...》

한동안 주위에는 원영준의 나직한 목소리와 발 밑에서 솟는 다져가는 소리만이 울리었다.

석창갑은 왜 그런지 마음이 불안해짐을 느끼며 자기도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고있었다. 원영준은 이런 식으로 아무리 공식적이고 딱딱한 이야기도 자연스레 넘길줄 아는것이다.

통통통...

문득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어쩐지 지치고 피로한듯싶었다. 이리흔들 저리흔들하는 전조등불빛이 뿌연게 골안에서 비쳐나왔다.

《용관이 차로 구만요.》

생각이 잠겨 걸던 석창갑이 원영준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저 묵묵히 서서 다가오는 프락또르만 바라보고 있었다.

적재함을 덜컥거리며 무겁게 달려내려오던 프락또르는 그들의 옆에 와서 급정거를 했다.

석창갑은 길게 한번 숨을 들이긋고는 천천히 고개를 쳐들었다.

창문으로 조용관의 머리가 불쑥 나왔다. 순간 그는 옆에 서있는 리당비서와 관리위원장을 비로소 알아본듯 흠칫하고 굳어지더니 문을 열고 눈 덮인 길 위에 내려섰다. 길주위를 훤히 밝히는 전조등불빛 옆에서 석창갑과 조용관의 눈길이 부딪혔다.

석창갑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하누만.》

《…………》

《몹시 미끄러웠지?》

《아니 뭐 …》

《저녁이나 먹구 떠났잖나?》

《관리위원장동지! … 괜히 저때문에 이렇게 눈 오는 밤에 …》

용관은 말끝을 흐렸다. 눈곱엔 그렇하니 물기가 어리는 듯했다.

《일부러 걷는 밤길은 아니지.》

용관은 석창갑이 하는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정쩡히 서 있을 뿐이었다.

《아니 왜 관리위원장동무가 걸자구 해서 나선 밤길인데… 오늘밤은 날씨가 푸근해서 좋구만. 자, 어서 오르라구. 새색시가 눈이 까매서 기다리겠는데…》

원영준이 빙그레 웃으며 룡담조로 하는 말이었다.

용관은 언뜻 고개를 쳐들었으나 아무말도 못하고 입술만 실룩거리었다.

순간 석창갑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운전칸으로 올라가 앉은 조용관은 운전대를 지그시 틀어잡고 앞을 바라보았다.

프락또르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석창갑은 후더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훑날리는 눈발속으로 멀어지고있는 프락또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기가 오늘 조용관에게 준 비판은 물론 옳았고 정당했다. 하지만 비판받은 사람이 이 밤길을 떠날 때 비판한 나는 과연 어디에 남아있었던가. 내가 오늘 이 밤길을 걸지 못했던들 조용관의 그 감격스런 모습을 볼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 관리위원장동무. 우리도 이제 갑시다. 그러다간 날이 새겠소.》

원영준이 돌아보며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몸매가 가는 편인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가볍게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석창갑은 걸음이 무거웠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밤길을 걸었다. 그러나 언제 한번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주는 밤길을 걸은 적이 있었던가? 십리도 못되는 이 길이 그에게 인생을 두고도 다 걸지 못할 아득한 길처럼 생각되었다. 순결한 눈우에 찍으며 걸어온 자국자국처럼, 고요히 내리는 눈발처럼 사색을 심어주고 생각을 불러오게 하는 밤길이었다.

석창갑은 불현듯 그 어떤 승엄한 생각에 젖어들며 고개를 들어 멀리 앞을 바라보았다.

프락또르는 경쾌한 발동소리를 울리며 환한 전조등불빛으로 눈내리는 어둠속을 헤가르면서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전조등빛에 반사되어 뽕얇게 훑날리는 눈송이들은 꽃보라인양 서로 어우러지고 입맞추며 춤추듯 내린다.

저기-

고요히 잠든 마을 한집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환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로 저 불빛처럼 밝아진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이 밤길이 아니었다라면 어두운 그들이 비졌을지도 모를 정다운 얼굴들이…

프락또르가 점점 기세를 돋구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자 석창갑은 전신에 흘러드는 새로운 힘을 느끼며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짚었다.

그를 알기까지

김봉철

1

책상우에 놓여있던 병력서를 들고보던 탐사대 진료소 내과의사 혜심은 못볼것이나 본것처럼 이내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도도룩하고 담지게 생긴 고운 그의 입술엔 알릴듯말듯한 뻔뻔한 미소가 어렸다.

그는 금시 목에 걸었던 청진기를 벗어 책상우에 놓고는 잠시 뒤뜰로 향한 창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침이슬로 한껏 깨끗해진 숲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아침, 첫 환자의 병력서가 걸바른 그의 마음을 흐리게 했던것이다, 그의 내심에 불쾌한 파문을 일으켜준 이런 충격은 다음 환자들의 치료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될수록 빨리 좋은 기분으로 바꾸어야 했다.

《가만 …이것 봐요. 아까 도에서 내려왔다는 작곡가선생이 오셨던것 같던데…》

혜심은 문가의 책상앞에 앉아있는 어린 간호원 처녀에게 유난히 맑으면서도 어딘가 깔끔해보이는 눈길을 보내며 태연히 말했다.

《네, 복도에서 기다리고계세요. 뭐 병을 보러 온것 같진 않던데요… 아이참, 얼마나 재미있는 본인지 모르겠어요… 예술가들은 다 그런가요?》

《글쎄 옥희가 모르는걸 낸들 어떻게 알겠니. 그 선생부터 들어오시라구 해요.》

《저… 그럼 은석기사동진… 맨먼저 와서 기다리는데요 …》

금방 혜심이가 옆으로 밀어놓은 병력서의 환자였던것이다.

《일없어요. 어차피 오늘은 위투시나 위액검열을 해줄수 없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도슬러먹고 이렇게 말하는 혜심은 역시 그 병력서가 고리가 달린 추처럼 자기 가슴속에 다리워 떨어지지 않고있음을 느끼었다.

잠시 망설이듯하던 간호원 옥희가 복도로 나가자 곧 나이 오십이 가까와보이는 키가 흰칠하께 크고 두툼한 넥타이매듭우에 울대뼈가 볼썽 나온 낮은 사람이 인상 좋게 빙긋이 웃으며 방에 들어섰다. 그의 뒤엔 혜심이도 잘 아는 탐사마을의 한

할머니가 주눅이 든 어쭙은 걸음으로 따라들어섰다

작곡가는 청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의사선생, 미안합니다. 제가 치료받으러 온건 아닙니다. 이 할머니의 기관지에 꼬르찌존 물약 흡입을 좀 해주시오…》

《예?》

혜심은 의아한 눈을 조용히 치뜨며 작곡가와 그의 뒤에 서있는 할머니를 번갈아보았다.

《아이구 글쎄 선생, 이 어른이 날보구 자꾸 노랗하랴구 야단이 아니유. 이걸 어쭙우, 별일 다 있다니까. 목에 무슨 물약을 넣으면 확성기처럼 내 목소리가 좋아진단나요…》

할머니가 한발 나서며 푸념을 하듯 말하고는 사뭇 기가 막히다는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벽가 안쪽에 다금다금 겹쳐쌓은 조그마한 악장들을 근심스러운 눈길로 둘러보는것이였다.

간호원 옥희가 캐득하고 뒤편에서 입을 싸쥐고 웃다가 혜심이의 침착한 눈길과 마주치자 찔끔하여 목을 움츠리고 돌아앉았다.

《그렇습니다. 의사선생, 리해해주시오. 이 할머니가 얼마나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있는지 아십니까. 옛날 제주도 해녀였던 이 할머니에겐 우리가 모르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채보하려고 합니다. 글쎄 이 할머니 대단한것을 감추고있었지요. 그걸 찾았던말입니다.》

혜심은 그제서야 무슨 영문인지 알았다. 거의 환희에 들뜬듯한 작곡가는 마치 지질기사가 굉장한 쇠돌줄기를 땅속에서 찾아낸듯이 흥분하고있었다.

혜심은 자기의 마음이 대뜸 즐거워짐을 느꼈다. 왜선지 어린 동요시절 그 어느 화창한 봄날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겨우내 고삭아버린 목은 풀그루밀에서 봄벌을 빨아들인 풀들이 노르끄레한 새싹을 방긋이 내밀던 봄언덕길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판에 올라갔었다. 거기엔 신비할만치 아름답고 청아한 새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갓가지 새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꽃송이와 나무 잎사귀들에서 울려나오는가싶었다.

그때 혜심은 새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가고 지긋게 아버지에게 물었다. 분명 그 새들의 울음소리를 자기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뜻을 죄다 알고있으리라고 믿어졌던것이다.

아버지는 무척 좋았다. 딸이 어떤것을 물어도 언제나 재미나게 대답해줄줄 아는 아버지였다.

《허… 그래? 그걸 모른단말이나. 저런? 우리 혜심이가 새들의 노래소리를 못알아듣다니, 허허… 자 그럼 우리 새들의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자. 저것 보렴. 피콜새랑 방울새랑 뭐라구 부르니… 뽕종 쪼르르 내가 사는 동산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금자리지요… 이러지 않니.》

아버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어린 딸을 뉘름 안아주었다.

《정말?》

혜심은 솔깃해서 귀를 기울였다.

그 다음부터 그는 그것을 믿었고 동무들에게도 새들의 노래를 배워주었다.

그것은 퍼그나 오래전 일이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뛰놀수 있었던 소녀시절의 즐겁던 추억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산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무척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지 산을 귀중히 여기는 탐사대원들을 존경했다. 혜심은 얼굴이 온통 잔주름으로 뒤덮인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는 한번도 저 할머니가 그런 신기한 노래를 가지고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혜심은 즐거웠다. 그는 할머니를 치료하는데는 전혀 필요없는 청진기를 목에 걸며 재빠른 글씨로 처방을 썼다. 이윽고 처방전을 다 쓴 혜심은 간호원 옥희에게 할머니의 목에 꼬르찌존물약 흡입을 해드리라고 일켰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덥지 않은 걸음으로 간호원의 뒤를 따라 방에서 나갔다.

그제서야 작곡가는 저오기 만족한듯 두손을 마주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사선생, 고맙습니다. 채보가 끝나면 노래를 들려드리지요. 들어보시면 알겁니다. 우리 땅엔 철의 재부가 숨겨있고 우리 인민의 가슴속엔 민요의 재부가 간직되어있지요… 참 가사를 들어보시렵니까? …》

작곡가는 안주머니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내 성급히 몇장을 펼치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불쌍한 우리 엄마 무슨 꿈 꾸어
잔물속에 알몸 되라 날 낳았던가
날 하나 이 세상에 아니 낳던들

수중고혼 이 신세 면했으련만

열두간 부자집에 귀동팔들은
무슨 팔자 타고나서 저리 좋은가
차라리 물고기로 태어났던들
이내몸도 다 같은 사람이련만》

혜심은 가슴이 찢릿해짐을 느꼈다. 그 할머니에게 그런 노래, 그런 어제날이 있었다는것이 너무도 뜻밖이었다. 매개 인간은 참으로 그로서의 자기 세계가 있으며 자기 추억의 주인공으로서 사연많은 이야기를 가지고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혜심의 눈엔 다시 리은석이라는 병력서의 이름이 동공을 찌를듯 아프게 안겨들었다.

작곡가가 방에서 나가자 혜심은 금시 밝아졌던 마음에 그들이 지는것을 은연중에 느끼며 무거운 손길로 그 병력서를 자기앞에 당겼다.

《리은석》, 그는 환자의 이름을 입속으로 다시 외워보았다.

그 병력서 매 속종이마다에 위장이 그려져있었다. 거기에 투시결과와 위액검열수치들이 잔글씨로 씌여져있었다. 여러 차례의 투시와 검열이 모두 같은 진단으로 되어있는 병력서였다.

하지만 매번 그 결과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쓴 혜심의 글씨는 달랐다. 처음 세번째까지는 매우 진지한 글씨였고 또 비교적 길게 학구적으로 씌여있었다. 다음은 점점 필체가 탄력이 없었고 의혹에 차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와서는 단 한줄로서 란필로 씌여져있었다.

혜심은 이 병력서를 놓고 의사란 직무가 결코 수월치 않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렌트겐빔은 때로 사람의 내장뿐아니라 그의 정신의 밑바닥까지도 비쳐주는것이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동지들의 좋은 측면을 감소시켜주는 그 어떤 다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기때문이다.

2

혜심의 이런 심증을 알바없는 탐사대마을은 이 은석이란 사나이를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다.

사람들은 은석이가 지질기사로 된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언제나 떼여놓지 못하는 반짝거리는 큼직한 혁띠고리엔 닳이 그 무슨 의문표 비슷하게 새겨져있다. 그는 한때 동해의 전투잠수함의 해병이었던것이다. 바다에서 산으로, 이 피이한 운명의 장난을 패활

하고 드센 그 사나이가 훌훌히 접수한것이 리해되지 않았다.

그의 헉띠고리에 새겨진 꾸부정한 닳뿌리처럼 그 인간전체가 오늘에 와서 혜심에게는 커다란, 살아움직이는 의문표처럼 생각되었다.

물론 처음은 혜심이 역시 그 닳으로 하여 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졌던것이다. 닳은 믿음의 표시다. 그래서 바다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징표로 모표나 단추 혹은 저고리소매에 그런 표식을 하였을것이다. 은석이는 지질조사중대 중대장이었다. 그의 중대 청년들은 어느새 자기 중대장의 해병식생활에 익숙해져서 휴식일엔 어디서 구해입었는지 줄무늬 해병사쓰들을 입고 이웃 천막에 눌러 갔으며 저녁의 그네들의 천막에서는 해병의 노래를 손뽕금에 맞추어 부르는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것이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흰 천막을 《돛배》라고 즐겨 불렀다. 어제날의 잠수함의 끝끝한 해병이었던 은석은 이 보잘것없는 《돛배》의 선장격으로 되였다. 그렇지만 그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 말하기를 비록 자기네 《돛배》는 잠수함은 아니지만 지하의 동결된 보물밭을 헤치며 나가는 굉장한 《쇄빙선》이라고 말한적이 있었다. 이 말도 역시 그 중대 청년들이 자기 중대장을 내세우면서 온 탐사대에 퍼뜨린 말이였다.

또 한가지 은석의 생활에서 사람들의 의혹을 일으키는것은 당년 서른두살인 그가 아직도 탐사대 합숙의 취사원어머니들의 시중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이다. 그는 총각이였다. 탐사마을의 몇몇 다사스러운 아주머니들이 그에게 좋은 혼처를 몇번 들이대보았으나 어떻게 된 노릇인지 다 성사시키지 못했다. 아주머니들은 허를 끝끝 차며 허우대가 그렇게 사내대장부답게 생기고 근직하면서도 착실한 사람이 체구실을 못한다고 못내 아쉬워했다.

아직 은석은 처녀를 사랑한적이 없었고 더구나 자신의 심중을 어느 한 녀자에게도 고백해본적이 없었다. 그는 가끔 실험실이나 제도실 처녀들과 직무상 조용히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도 그 기회를 달리 리용한적이 없었다. 그는 그런 때조차 지질구조와 암석들의 형태에 대하여, 광석에 대하여만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의 그의 심장은 몹시도 뛰고 뜨거워지곤했다.

누가 또 퍼뜨린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은석은 사랑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랑이란 지질학과는 다르구만. 건 굉장히 복잡한 과학이야. 지질학이란 진실과 인내성과 사색, 이 세가지만 가지면 해결되는데 사랑엔… 그보다 더 많은것이 필요한것 같애…》

이 말을 들은 분석실과 제도실 처녀들은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 그리고는 은석이란 지질기사를 더욱 존경하였다. 말하자면 사랑을 것처럼 존중히 대하는 사람은 진실한 대상이란것이였다.

그러나 오직 한사람, 탐사대진료소 내과의사인 혜심이만은 지질기사 은석에 대해서 놀랍게도 단마디로 이렇게 찍어 평가해버리고말았다.

《내용이 없는 겹쟁이, 시시한 사람이야.》

하긴 의사란 직업은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알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은석은 한달에 한번씩 정한 날자에 진료소에 찾아와서는 위투시와 위액검열, 그밖에 소화기계통의 종합적인 진찰을 받곤했다. 처음 혜심은 은석을 동정했다. 내내 산발을 타고다니는 사람이 위가 나빠서 고생한다면 그것이상 불행이 없을것이였다. 그리하여 혜심은 은석이에 대해서만도 매번 세심하게 진찰하였으며 그의 호소를 귀담아듣곤 했다. 그러나 혜심은 한달 두달… 그를 치료해주면서 또 투시결과와 위액검사표를 연구하면서 그에 대한 실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에겐 병이 없었으며 그의 호소는 엄살에 불과했다. 혜심이가 합숙어머니들로부터 들은바에 의하면 은석은 아직 자기앞에 차레진 밥과 국과 찬들을 단 한번도 남겨본적이 없었다는것이였다. 식욕이 남달리 왕성한 청년이란것이였다. 혜심은 처음엔 자기의 의심에 놀랐으며 다음엔 실망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자 은석에 대한 환멸을 견잡을수 없었고 그에게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까지 되었다.

《…속물! …》

이것은 오직 혜심이만이 아는 은석의 약점이였다. 의사로서 혜심의 경험은 지나치게 자기 몸의 매개 장기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기침만 한번 해도 겹이 나서 병원으로 달려오는 사람치고 고상한 인격을 지닌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 탐사마을이 아무리 그를 두고 해병출신이니 탐사대의 기둥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도 혜심이는 말없이 입가에 쓴 미소를 떠올뿐이였다. 더우기 혜심을 불쾌하게 한것은 며칠전 일이였다. 탐사대 실험실 실장 윤숙희가 혜심에게 놀라운 귀뜸을 했던것이다.

《애 헤심아, 거 은석기사가 있잖니? 미남자중 대장말이야, 너한테 반한것 같더라. 다른 너잔 다 싫다고 하는 사람이 글썽 내가 일전에 네 이름을 비쳤더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우리같은 돌쟁이를 그 주사침같은 깔끔한 처녀의사가 좋다고 하겠소...> 이러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만일 좋다고 한다면 어찌겠는가고 물었더니 <하긴 석영이란 돌은 모가 예리하고 지질마치로 때려도 튀어나는 돌인데 그속엔 고운 금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질가들은 돌중에서도 석영을 사랑한답니다. 다루기는 좀 힘이 들어도...> 하지 않겠니. 호호... 어쩔니, 너두 이젠 스물일곱인데 그냥 늙은 어머니 속만 바글바글 태울수야 없지 않니.》

윤숙희는 헤심이와는 어릴적부터 동무였다. 숙희 아버지도 헤심이 아버지도 탐사대원이었다. 그들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전부터 그들의 집은 언제나 한이웃이었다. 이사를 가도 함께 가고 새집을 꾸려도 함께 꾸려왔던것이다. 숙희 아버지는 지금도 이 탐사대기사장으로 일하고있었다. 헤심이 아버지는 전쟁시기에 다친 상처가 다시 후환을 일으켜 도병원에서 오래동안 신고를 하던끝에 헤심이가 아직 대학에 가기전에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그때부터 이들의 사이는 더욱 각근해졌다. 윤숙희 아버지는 자기의 친팔보다 헤심이를 더 잘 보살펴주고 귀히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히 자매처럼 되고말았다.

헤심은 어이가 없는듯 윤숙희를 뻔히 쳐다보았다.

《...너두 참 사람 하난 잘 봤구나. 그래 그 사람이 어디가 좋아서 나한테 소개하는거냐.》

《아니 그 사람이 어쩌서 그러니, 온 탐사대가 그 사람 싫다고는 하지 않더구나. 게다가 1년전엔 무슨 큰 광산까지 하나 찾아놓구두 다른 사람 같으면 떠들썩거리겠는데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놓을수 없다구 하면서 아직 틀구앉아있다더라. 속이 이만저만 깊은 동무가 아니야.》

윤숙희는 저으기 놀라는 표정으로 눈을 둥그렇게 뜨며 헤심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헤심이는 더 말하지 않았다. 윤숙희 역시 헤심이가 알고있는것을 말해준다면 실망할것이었다.

우유부단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고 속이 깊은 우점으로 보일수 있다는것이 헤심이에게는 지어 서글프기까지 하였다. 왜냐 하면 허위에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자주 그것에 속는다는것이 분했던것이다. 무식을 감추기 위해 때로

침묵으로 사색하는 표정을 지을수도 있으며 일을 빨리 결속하지 못하는것을 이처럼 근직하고 속이 깊은 사람으로 자기를 내세울수도 있는것이였다.

3

지금 진료소복도엔 역시 은석이가 어김없이 월말 지정된 날에 와앉아있었다.

헤심은 책상우에 그대로 놓여있는 병력서를 한동안 뭉뚱 눈으로 들여다보고있었다.

《들어오라고 할가요?》

간호원은 헤심의 심정을 눈치챘는지 머뭇머뭇하며 물었다.

《아니... 좀 있다가.》

헤심은 병력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말했다. 이제는 그의 호소를 듣는것이 진저리날 정도로 싫었다.

(이번만은 따끔히 말해줘야겠어. 자신을 두고 부끄러워할줄도 모르는 인간이라구.)

헤심은 지친듯 병력서를 손끝으로 끄당기며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라구 하세요.》

간호원이 나가자 잠시후 은석이가 꺼리낌없이 방에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번 그들의 인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같은 말이였어도 헤심의 목소리엔 랭랭한 서리가 끼여있었다.

《앉으세요.》

은석은 처녀의 내리칸 눈에서 자기의 시선을 떼지 않은채 헤심의 맞은편 동그란 회전의자에 앉았다. 약간만 몸을 움직여도 안정할수 없게 삐걱거리는 의자처럼 이 순간 은석의 마음도 이상스럽게 흔들렸다.

(흠... 성났는걸... 실험실장이 뭐라구 한 모양이지. 참 처녀들이란... 싫으면 그만인데 뭘 이렇게까지 독을 쓸거야 있담.)

은석은 쌀쌀해진 헤심을 두고 제나름으로 생각했다. 공연히 성나서 새침해진 헤심이가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상냥한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뻔뻔하기도 한것 같은 이 침착하고 조용한 처녀에 대해서 언제부터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열한달전에 난생처음으로 소독약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원으로 찾아왔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처녀의 부드러운 눈길에 몹시도 따스했다는것을

느낀 때부터인지, 아니면 자기를 적어도 공업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지질기사가 아니라 마치 유치원생처럼 여기며 무슨 가루약과 물약을 주면서 하루에 얼마큼씩 몇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한다고 오래도록 설명해주던 그 상냥한 목소리 때문이었던지, 혹은 두번째인가 세번째인가 위액검열을 했을 때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왜 소화가 잘 안되느냐고 몹시 걱정하여 안타깝게 자기를 지켜보던 그 젖은듯한 눈에서부터였는지 알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는 매달 이 처녀를 만날적마다 느껴지는 자기의 감정이 감촉할수 없이 서서히 뜨거워지고있다는것을 은근한 공포로 체험하고있는 것이었다.

(흠… 성났는걸…)

은석은 두터운 입술을 약간 움직이더니 긴숨을 내쉬었다.

(속히실장한테 괜히 속을 드러내놓았어, 참 맹랑하게 뻘었는데, 역시 너자란 복잡하군. 그저 난 지질학하구나 친할 남자야. 이 분안 손대기가 조심스러워…)

은석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굴리고있는사이 헤심은 병력서에서 이미 알대로 알고있는 글줄을 무의미하게 훑어보고있었다. 그의 머리속엔 사실 병력서의 글이 아니라 이 지질기사, 금시까지 방에 들어서기만 하면 따끔히 말해주리라고 버르던 은석이를 두고 자기가 그렇게 뻥정히 칼로 베듯이 말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는 자기도모르게 긴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좀 어때세요…》

《글쎄… 뭐라구 해야 할지… 누워있지는 않지요. 하지만…》

《위투시를 또 하시겠어요? …》

《해야지요.》

《무엇때문이에요.》

헤심은 병력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말뜻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저으기 부드러웠다.

은석은 헤심의 그 마지막 반문에 약간 숙일사했던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한번도 헤심으로부터 그런 물음을 받아보지 못했던것이다.

헤심이는 그제서야 병력서에서 눈을 떼고 은석이를 조용히 마주보았다.

《무엇때문에말입니까?》

헤심은 자기의 이 물음을 다시 외쳤다. 이 물음이 그 어떤 깔끔한 말보다 은석이를 가장 아프게

할수 있는 말이라는것을 그는 비로소 알았던것이다.

《난 그것을 요구합니다.》

은석은 조금도 성난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지어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가라앉아있었다.

그것이 헤심이를 더욱 불쾌하게 했다.

《의사는 환자의 무례한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답니다. 병원에 와서는 환자가 의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식으로 말하는것을 삼가하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의사가 환자에게는 그런 말을 자주 쓰지만…》

《좋습니다.》

은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렇다면 그 병력서를 나에게 주시오.》

《그건 왜요. 군병원에라도 가시겠어요.》

《그럴수도 있지요. 어쨌든 나에게 주시오.》

《반대는 없어요. 그런데 은석기사동지, 솔직히 말해서 기사동지에겐 위병이 없습니다.》

헤심은 더는 이 일을 두고 뇌심하고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말을 매우 똑똑한 발음으로 매 단어에 또박또박 그루를 박듯이 짚어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가 량심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눈길을 피할것이었다. 부끄러울테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은석의 눈엔 웃음기가 아니 웃음기보다 그 어떤 환희 비슷한 빛이 번뜩하고 빛나는것을 헤심은 본듯 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은석은 헤심의 손에서 병력서를 나꿔채듯 받아 들고 잠시 헤심이의 침착하고 조용한 눈길을 지켜보았다.

은석은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듯 머뭇거리다가 방에서 급히 나갔다.

헤심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있었다. 모욕을 당한듯하다.

(자기 량심을 저렇게 훌륭히 기만할수도 있는가. 아무리 철면피해도 눈만은 못속인다는데 저사람은… 하긴 량심에 강태가 없으면 부끄러울줄도 모르니까.)

헤심은 자기가 지령했던 마지막 돌마저 발밑에서 빠져나간듯 맥없이 자리에 앉았다.

(정말 저런 사람인가… 저 사람이 일년전에 찾았다는 그 무슨 광산후보지라는것두 거짓이 아니겠는가. 지질기사는 량심이 제일 깨끗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어 저런 사람이 지질기사가 됐을가.)

그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좇으며 그냥 한자리에 못박힌듯 앉아있었다.

혜심은 자기 아버지를 잘 알고있었다. 티없이 깨끗한 아버지였다. 어느젠가 혜심이가 인민학교 다닐 때였다. 그는 지질기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 자주 들리곤했다. 거기 가면 갖가지 돌과 그리고 갖가지 색깔로 그린 지질도들이 그의 어린 마음을 잡아끌었던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실한 산삼뿌리를 가운데 놓고 한 젊은 탐사대원을 서글픈 눈으로 지켜보고있었다. 혜심의 가슴엔 그날의 일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생생한 화폭으로 진하게 새겨졌다.

《이것 보게 영삼이, 동문 온 탐사대가 떠들썩하게 이걸 캐왔는데 어떻게 되어 이 산삼이 동무 눈에 띄었나... 전후엔 우리 탐사대원들이 통강냉이를 먹으면서도 산삼 켜다는 사람이 없었네. 동무의 눈에 삼이 보였다면 동문 놓쳐서는 안될 많은 돌을 그냥 밟고 지났을거네. 10년을 산에서 산 지질기사들이 산삼있을 모르는 사람이 많네. 그런데 동문 탐사대에 들어와서 1년도 못되는데 이런걸 먼저 찾아냈단말이야. 우리의 눈에 약초가 아니라 돌이 보여야 해. 동문 칭찬을 바라지만 이건 직무래만이야.》

처음 혜심은 그런 신기한 산삼을 캐온 청년을 나무람하는 아버지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 훨씬 후에야 그때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이었던가를 새겨보며 마음속으로 머리를 숙였던것이다.

그런데 지질기사란 사람이 꾀병을 하고 다니다니 ...

혜심은 입술을 감쳐물며 머리를 저었다. 그런 사람을 더는 생각지 말자는것이였다.

창밖의 돌서덜 험한 비탈에는 나리꽃이 불처럼 타고있었다.

4

머칠이 지났다. 혜심은 작곡가의 청을 받고 그 할머니의 《해녀의 노래》를 채보한 녹음을 들으려고 회관으로 가는길이였다.

낮게 드리운 구름때문에 황혼이 짙어가는 저녁 대기는 몹시 축축하였다. 그가 막 둔덕우에 있는 회관층계로 오르려고 하는데 《혜심선생》하는 낮은 목소리가 혜심이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급히 다우쳐오는 걸음걸이였다. 아마 구급환자가 어디에 생긴것 같았다. 혜심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긴장해짐을 느끼며 다가오는 사람을 기다렸다.

푹낮이나 있는 은석기사중대의 청년이였다.

《아이구 숨차라, 막 뛰어왔더니... 선생님, 우리 중대장동지가 좀 와달랍니다.》

《네?》

혜심은 순간 가슴이 섬쩍했다.

(혹시 자리에 누워있는게 아닌가.)

《않는가요?》 혜심은 급히 물었다.

《아니 앓기야 뭐. 우리 중대장동무가 체중 87키로로서 전국 스키선수란걸 모르십니까 ...그저 좀 지금 자료종합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선생한테 무슨 방조받을 일이 있는것 같습니다.》

혜심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쾌했다.

《미안해요. 제가 지질기사동지의 일에 무슨 방조를 드릴수 있겠어요. 은석기사동지한테 전해주세요. 환자가 생기면 전 어느때든지 갈수 있단구요...》

청년은 저으기 난처한듯 뒤통수를 어루만지며 입맛을 썹썹 다시였다.

《하 이거... 의사선생을 강제로 모셔갈수두 없구... 난 지금까지 우리 중대장 명령을 수행못한 적이 없는데...》

《호호, 걱정 마세요. 제 말을 그대로 전하면 동무를 욕하지는 않을거예요.》

혜심을 사뭇 속상해하는 청년을 겨우 돌려보내고 회관으로 들어갔다.

그는 웬일인지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녹음기앞에서 구성진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은석이가 무엇때문에 자기를 불렀는지 그 일이 못내 궁금하여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작곡가는 어찌나 흥분했던지 눈물이 글썽하여 테프를 도로 감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어제날의 우리 인간들의 노래였지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런 슬픈 노래를 모릅니다. 오늘의 기쁨과 행복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슬픈 노래를 알아야 하지요...》

혜심은 노래를 뒤편 다시 듣고는 회관에서 나왔다.

그는 자기자신이 이 세상에 그런 노래가 있었다는것을 모르고 살아온것이 놀랍기도 하고 미안스럽기도 했다. 그는 행복만을 누려왔지만 그 《행복》이란 말을 자주 쓰지 않았던것이다.

퇴근무렵이 되자 진료소는 더욱 조용해졌다. 다만 벽에 걸린 시체의 단조로운 소리가 유난히 푹푹 울릴뿐이였다.

앞뒤가 높은 산으로 마주선 골안이여서 초여름이여도 가을같은 선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컴컴한 빈방에 점도록 앉아있었다. 자기를 찾아왔던 청년의 딱해하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밟혀왔다.

그의 마음은 이 며칠간 가벼워지지 않았다. 은석기사에게 너무 매정하게 했다고 그는 후회하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병원에 찾아온 사람이 아니었던가. 또 오늘은 사람까지 띄워 자기를 찾았다.

헤심은 머리를 도리질했다. 그런 생각은 약한 인정과의 값늑은 타협이라고 그는 자신을 나무랐다.

이때 실험실장 숙희가 급히 병실로 들어섰다.

《아이참, 전화를 걸다못해 뛰어왔다 애.》

《왜? 무슨 일이 생겼니?》

《자 여러말 할새가 없어. 빨리 가자. 어서.》

숙희가 헤심의 팔을 잡아끌며 서둘러댔다.

《왜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 말을 해야 무슨 약을 가지고 가겠는지 알지.》

헤심은 덤벼치는 숙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쇠통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아이구 의사선생님은 그저 환자밖에 모르시네. 헤심이, 구급환자가 생긴게 아니야. 지금 백룡산 지질조사총화회의가 시작됐는데 글썽 비서동지가 내과의사인 헤심이를 참가시키라고 하지 않겠니.》

《나를?》

헤심은 위생복을 벗다가 깜짝 놀라 숙희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아니 내가 거길 참가해서 어찌라는거니. 의사가 거기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넌들 알게 뭐니. 가보면 알레지.》

숙희도 알수 없다는듯 고개를 저었다. 년간 지질총화보고서를 놓고 총화하는 장소에 의사를 참가시킨 레는 아직 없었다. 헤심은 의사의 본능으로 적십자표가 붙은 멜가방에 재빠르게 필요될수 있는 약을 넣었다.

《왜 그럴가...》

아무리 속대중을 해봐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헤심은 자기가 무슨 일을 버르집어놓은것 같은가슴할수 없는 불안을 느끼며 숙희와 함께 진료소를 나섰다.

그들이 탐사대청사앞에 다가왔을 때는 불이 환히 켜진 기사장실의 열린 창문으로 한방 둘러앉은 사람들의 모습이 들여다보였다.

헤심은 숙희와 함께 조용히 긴 복도를 지나 기사장실 문가에 다가섰다. 숙희가 먼저 문기척소리를 내고는 살며시 문을 열고 헤심을 방에 들여보냈다.

사람들은 무엇에 그리 열중하고있는지 헤심이 가 허리를 굽히고 맨 뒤자리에 조심히 앉는것도 결눈으로 살피는 사람이 없었다. 맨앞에 마주앉았던 당비서가 그저 헤심이쪽을 넌지시 넘겨다보며 빙긋이 눈웃음을 보냈을뿐이었다.

방앞벽엔 여러가지 색깔로 그려진 갖가지 지질도와 광맥분포도며 그리고 시료분석표들과 지질구조도들이 걸려있었다.

은석이는 그앞에서 매우 침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있었다.

《...이상과 같은 제반 확인된 자료로서 이제는 이 <교>토를 확실성있게 개발대상으로 넘길수 있습니다. ...》

헤심은 피곳 은석이쪽을 바라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은석은 그 다음 또 때 시료분석점들의 품위들을 설명하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다.

《그러나 이 화학분석은 일년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있었던것입니다. 이 자료는 또 중앙에도 보고되었고 또 <교>토를 약제원료로 쓸수 있다는 보충을 받은 자료들입니다...》

은석은 또 말을 끊었다. 한동안 방안은 조용했다. 웬일인지 은석은 말을 계속하지 않았다.

이때 당비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헤심동무, 이 병력서의 수표는 동무가 한가지요.》

헤심은 무엇때문인지 가슴을 울렁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은석이가 며칠전에 자기에게서 가지고간 그 병력서가 당비서의 손에 쥐여져있었던것이다.

《... 네 ...》

헤심은 그저 영문을 알지 못한채 자신없이 대답했다.

당비서는 알았다는듯 얼굴에 기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무들... 은석동무는 자기가 1년전에 찾은 <교>토를 오늘에야 국가에 내놓았습니다. 1년전에 우린 그것을 실제적가치가 있는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은석기사는 자신이 찾아낸것을 서둘러 세상에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교>토는 약제에 쓰는 중요한 원료의 하나이기때문에 더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연구했는가, 1년간 그것을 하루에 50그램씩 은석동무자신이 먹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말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위검열을 했습니다. 병력서엔 이상이 없습니다... 그는 열한번의 검열을 하고나서야 오늘 비로소

자기가 찾아낸것을 내놓았습니다… 헤심동무, 이 병력서엔 모든것이 정상입니다. 믿어두 됩니까?)

헤심은 순간 눈앞이 핑 돌며 비서의 얼굴도, 한 칸에 머리를 숙이고 서있는 은석이도 벽에 붙은 화려한 지질도들도 보이지 않았다.

《… 네 …》

그는 간신히 이렇게 한마디 대답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누가 맨 먼저 박수를 쳤는지 온 방안이 박수갈채로 떠나갈듯했다.

모임이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웅성거리며 나오는 사람들속에 몸을 숨기듯 헤심이자신이 언제 그들속에 묻혀 밖으로 나왔는지 알수 없었다. 그는 될수록 빨리 자기의 조용한 치료실로 가고싶었다. 부끄러웠다. 그리고 분했다.

(그 동문 나쁜 동무야. 왜 그 사실을 내게 말하지 않고 속였을가.)

그는 이 말을 수없이 속으로 외우며 진료소로 달려왔다. 고까운 생각이 그의 가슴을 옥죄듯이 아프게 했다. 그는 진찰실에 들어와서도 이윽로 한자리에 선채 굳어져있었다.

(아니야. 내가 만일 그 동무가 그것을 먹는다는걸 알았다면 결코 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거야. 의사로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거야. 그러니 속일수밖에 …)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다. 헤심은 강가에 선채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 종잡을수 없는 생각속에 헤매고있었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처마에서 떨어지는 기스락물소리가 류달리 가슴에 아프게 마쳐왔다.

불현듯 캄캄하던 방에 갑자기 환히 불이 켜졌다. 헤심은 놀라듯 고개를 돌렸다. 문가에 은석이가 스위치에서 손을 내리며 아무 일도 없었던듯 태연히 서있었다.

《합숙에 내려가던길에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은석의 손에 적십자표가 그려진 헤심의 위생가방이 들리워있었다.

헤심은 피웃 은석이쪽을 바라보았으나 이내 눈길을 돌렸다. 왜선지 갑자기 설움이 났다.

《…난 동무가 그럴줄 몰랐어요… 1년간이나 절속였지요… 아니 어찌면…》

헤심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며 돌아서고말았다.

만일 이때 작곡가가 방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순박한 은석이는 대단히 어려운 곤경을 치르었을 것이었다. 그는 어찌할바를 몰라 가방을 든채 그 자리에 장대처럼 서있기만 했던것이다.

《아… 둘이 다 여기 있는걸… 은석기사동무, 자 그 손을 좀 잡아봅시다… 얼마나 즐거운 밤인가요. 난 지금 당비서한테 가서 그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석기사를 만나자구 합숙에 갔다오는 길에 이 방에 불이 켜져있길래 의사선생이라 두 만나서 이 기쁨을 나누자구 들렸지요. 아니 그런데 의사선생, 왜 우셨습니까?》

쾌활한 작곡가는 헤심이와 은석이를 번갈아보더니 제나름으로 생각하고는 두손을 맞비비며 빙긋이 웃는다.

《좋습니다. 울수도 있지요… 헤심선생, 전 여기 와서 옛날의 가장 슬프고 처참한 인간의 노래를 채보했습니다. 전 그것을 두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사동지, 난 오늘밤 진실하고 참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노래를 들었습니다. 최고의 인격을 가진 우리 시대의 인간들, 숨은 영웅들의 노래지요. 그건 채보할수가 없는 겁니다. 작곡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내가 방해한것 같은…》

《아니 조금도 방해한건 없습니다.》

은석이가 침착하게 작곡가를 안심시켰다.

《허허… 자, 그럼 실례합니다. 전 래일 떠납니다. 안녕히들.》

헤심이와 은석은 작곡가가 내미는 손을 힘껏 잡았다.

이윽하여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정적은 잠전에 있었던 무겁고 답답하던 그 모든 감정들을 깨끗이 정화시킨 순결하고도 안정된 정적이었다.

헤심은 비로소 맑아진 눈으로 은석을 쳐다보았다.

은석의 은근한 눈이 헤심이를 지켜보고있었다. 헤심은 그 순간 은석의 그 눈이 얼마나 많은것을 이야기하고있는가를 조용한 마음속으로 읽었다.

벽시계가 밤 열한점을 치기 시작했다. 순간 두 사람은 매우 단순한 의미밖에 없는 벽시계의 종소리를 하나둘 입속으로 세며 진지하게 듣고있었다. 마치 그 종소리에서 서로의 마음속에 숨겨둔 그 어떤 암시라도 찾을수 있거나 한듯이…

은혜로운 나의 대학

전세봉

내가 해방의 감격속에서 첫 단편을 들고 문단에 들어선 때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 과정은 어버이수령님과 고마운 당중앙의 품속에서 당의 작가로, 주체시대의 작가로 자라날 수 없는 나날이었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과 고마운 당중앙의 품속에서만 나는 당의 작가, 주체시대의 참된 작가라는 영예를 안고 혁명문학을 할 수 있는 작가로 자라날 수 있었다. 때문에 한 작가로서의 나의 사상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곧 어버이수령님과 고마운 당중앙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한때 나는 창작생활에서 심중한 오유를 범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썼던 작품에서 범한 파오는 간단치 않았다.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대한 외곡, 혁명전통에 대한 외곡, 혁명가들의 형상을 그릇되게 한 것 등 지금 생각해 보면 나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오유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문학을 통하여 혁명에 이바지한다는 생각 밑에 글을 써왔고 그것이 또한 나의 문학적신념, 미학관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결국 나는 당과 혁명의 근본원칙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범문학적인 진퇴속에서 헤매이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이미 뒤흔들리기 시작한 나의 미학관을 놓고, 무디어진 나의 붓을 바라보며 깊은 자책과 고민도 해보았지만 출로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속에서 여러달을 모태기던 어느날 나는 천만뜻밖에도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당의 가르침을 받아안게 되었다. 벌써 당에서는 나의 모든 정상을 다 헤아리고 있었다. 그날 당중앙에서는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한다,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쓰면 되지 않겠는가, 힘을 잃어서는 안된다, 이젠 활개를 펴고 해보자고 거듭거듭 격려해주었다. 정말 이날은 나의 창작생활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따사로운 해빛이 온 땀속까지 흘러드는 것 같았고 장수같은 힘이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

그후에도 당에서는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이론, 종자론, 속도전론,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 창조문제 등 작품의 창작원칙과 창작사업에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될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 방침들과 원칙들을 제시해주었으며 문학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문제를 강하게 밀고나가면서 아직

세계문학사상에 없는 수령형상문제를 우리들 앞에 제시해주었다.

수령형상문제! 이것은 참으로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일대 변혁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혁명운동 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수령의 혁명활동과 혁명업적을 문학작품에 형상함으로써 문학작품의 내용자체를 혁명운동의 본질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 사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붓을 고쳐들고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후 몇해동안을 아니 지금까지도 당의 현명한 지도밑에서 문학을 처음 시작하던 그때의 자세로 하나하나 배우며 창작을 하고있다. 당에서는 우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서 배우도록 몸소 가까이 불러도 주고 독창적인 문예 사상과 이론을 터득하도록 일일이 깨우쳐주었다. 나는 드디어 한걸음한걸음 혁명문학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하여 처음으로 나 자신도 우리 혁명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작품 하나를 완성해낼 수 있었다. 물론 이 작품의 완성을 위하여 돌려주신 당의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각별한 보살핌과 지도에 대하여 말하자면 끝이 없다. 당에서는 내가 조잡하게 쓴 3천여매의 초고를 밤을 지새우며 읽고는 수정방향을 가르쳐주었고 심의본으로 출판되어 나왔을 때에는 또 한번 읽고 고귀한 의견을 주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완성본으로 찍을 때 또다시 교정지에 붉은 줄을 그어가며 가르침을 주었다. 이 작품의 갈피갈피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는 한 작품의 완성과 함께 한 작가의 혁명적미학관을 완성해준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엮여져있다.

실로 온 우주를 감득하게 하는 것 같은 당의 현명한 이끄심, 그 은혜로운 손길이 아니었다면 나는 자기 혁명화의 심각한 길을 그렇게 용감하게 걸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높은 예술성과 결합된 고상한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함에 있어서 유일하고 정당한 기준입니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의 참뜻을 당의 지도부에서 창작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던 그때에 와서야 진실로 깨닫게 되었다. 내자신이 혁명가로 되지 못한 이상에 어떻게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를 그려낼수 있었으랴.

고마운 당의 품, 그 품속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 작가로서의 나의 정신생활에서는 이토록 귀중한것이 더는 없다.

나는 드문히 어린 독자들로부터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하는 질문을 받곤한다. 배우는것이 법으로 된 나라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작가와 교육에 대하여 뭘수 없는 문제로 생각하는것은 옳당한 일이다. 배우지 않고야 어떻게 작가가 될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번 질문때문에 나는 고통스러운 추억을 더듬지 않으면 안되곤한다. 60이 훨씬넘은 오늘까지도 13살 소년기에 있었던 《월사금》과 같은 추억때문에 고통을 받은 이야기는 나의 자서전에도 한토막 적혀있다.

늘그막에 아들 하나를 보게 된 나의 아버지는 남처럼 자식을 공부시켜보려고 등이 굽도록 땀나 무를 해다 팔아서 《월사금》을 마련하곤하였으나 그 월사금으로 하여 4학년때에 퇴학당하고말았다.

그것으로 나의 학령기는 끝났다. 넓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피땀을 짜내서 익힌 한점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나의 독자들이 생각하는것처럼 배우지 않고야 어떻게 작가가 될수 있겠는가.

그렇다, 나에게도 대학이 있었다.

나의 대학! 그것은 고마운 당의 품이었다. 그 품속에서 나는 일생을 다녀도 못다 배울 혁명의 진리를 배웠다.

《혁명을 위하여 문학을 하자!》 이것이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혁명의 대학에서 배운 고귀한 진리이며 우리 시대 작가의 립장과 자세이며 새로운 문학적신념이다. 우리의 작가들이 바로 이렇

듯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작가로 자라나고있다. 당의 품속에서 우리 작가들의 창작생활은 참으로 보람차다.

고마운 당의 품은 우리 작가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뿐만아니라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뜨겁게 하여준다. 그 품속에서 무엇인들 못해내랴.

나는 우리 작가들의 행복한 창작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몇해전에 있었던 이런 일이 떠오르곤한다.

몇해전 나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어느한 외국작가와 담화를 나눈적이 있다. 우리 작가들의 생활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여물던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조선의 작가들은 제우스신의 각별한 보호를 받지 않는가? 세상엔 지금 독자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것보다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글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작가들이 많다. 당신들은 참 부러울 지경이다. 작가가 그렇게 행복하면 글이 나오는가?》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하나의 놀라움이였다. 먼나라에서 왔던 그 작가의 놀라움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의 생활은 상상할수 없는 높이에 이르고있다. 오직 창작만을 위하여 만사를 잊고도 살수 있는것이 우리들의 생활이다. 당에서는 별로 한일 없는 작가들에게 공로를 세웠다고 환갑, 진갑상을 차려주는가 하면 건강을 넘려하여 친히 귀한 약품도 골라서 보내준다. 그래서 앞모 보는 불구의 작가도 붓을 들고 다부작의 큰 작품을 써내며 생을 빛내고있다. 정말 바다같은 사랑이며 은덕이다.

정녕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우리 문단은 더욱 화려한 주체의 꽃동산으로 만발할것이다. 이 꽃동산의 한떨기 꽃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움을 노래하는것 이상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사랑의 활무대를 두고

박세영

생각만 해도 감개무량해진다.

발행 400호를 맞는 잡지 《조선문학》! 수자만으로는 헤아릴수 없는 크나큰 무게와 뜻깊은 사연이 안겨온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이 수자속에는 서른다섯째 긴긴 나날, 우리 작가들을 귀중히 아껴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랑이 담겨있는것 아닌가!

돌이켜보면 해방직후의 그 어렵던 시기에 여기서 저기 흩어져있던 작가들 한사람한사람을 찾아 하나의 조직에 묶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창작

활동을 마음껏 하게 해주시려 전문문학잡지를 발간 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크며 민주조선건설에서 동무들의 사명은 매우 무겁습니다.》

작가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이 높으신 믿음을 안고 그 당시 북조선예술총련맹에서 여러 동무들과 함께 출판사업을 맡고있던 나는 전문문학

잡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에 접하여 무한한 흥분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한것은 더구나 일제통치의 그 암담하던 세월에 한편의 시를 써놓고도 발표할 지면이 차폐되지 않아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나였기때문이다. 그러던 내가 남녘땅에서 38도선을 넘어와 오매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새조선의 떳떳한 작가로 우리들의 창작의 첫무대를 마련하는 일군으로 사업하게 되었으니 그때의 감격은 참으로 말할수없이 컸던것이다.

흥분은 앞서고 감격은 컸으나 잡지의 첫호를 어떻게 편성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선뜻 좋은 안을 내놓기 힘들어했다.

우리는 여러모로 토의를 거듭하면서 창문너머 가까이 바라보이는 당중앙청사를 우려했다.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빛발쳐 오는것이였다.

저마다 뜨거운 생각속에 하루빨리 전문문학잡지의 첫호를 내여 이 크나큰 배려에 보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차오르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은 약속이나 한듯이 하나로 합쳐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잡지의 맨 첫머리에 정중히 모시자!》 우리는 환성을 올렸다. 이것은 우리 출판일군들뿐아니라 모든 작가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기도 한것이였다. 이로 하여 잡지의 첫호 편집방향은 명백해지는데로 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는 것만으로는 무엇인가 우리의 흥분의 정이 모자라는것 같았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 옆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 만세의 글발을 얹히고 하단에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사를 받쳐주기로 하였다.

이것이 잡지 《조선문학》의 전신인 《문화전선》 첫호의 첫페이지였다. 이 창간호가 인쇄되어나왔을 때 우리는 맨먼저 이 첫페이지를 뜨거운 마음으로 펼치였다.

아,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 우리 작가들을 한품에 안아주신 어버이장군님! 우리는 솟구치는 격정을 삼키며 그 첫페이지를 오래도록 펼쳐들고있었다.

이리하여 명절날처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또다시 큰 감격에 접하였다. 잡지 《문화전선》 창간호를 보여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보다 더 기뻐하시며 막대한 자금과 용지를 보내주셨다는 그 소식!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소식에 한동안 어쩔바를 몰랐다. 해방직후의 그 어려운 날에 이처럼 작가들을 위해 크나큰 배려를 또다시 안겨주시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으랴.

우리는 그 배려로 하여 힘이 몇배 솟았고 신심이 생겼고 더 훌륭하게 잡지를 발행할 결심이 스스로 다져지는것이였다.

첫호가 세상에 나가자 전국의 작가들과 문학을 열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편지들이 올라왔다. 작가들의 경우에는 말할것 없었고 수많은 문학청년들이 창작의 큰 무대가 생긴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는것이였다.

그들은 잡지의 첫페이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이처럼 우리 나라 작가들의 보람찬 활무대를 마련해주신 그 고마움에 좋은 글을 써서 보답하겠으니 많이 실어달라고 신신당부하는것 이였다.

잡지 《조선문학》은 이렇게 자기의 첫걸음을 떼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서른다섯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첫호를 발간했던 잡지 《조선문학》은 오늘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들어 뜻깊게도 금번 2월에 발행 400호를 맞으니 그 의의도 크고 그 감격 또한 한량없다.

참으로 잡지 《조선문학》은 그날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나날에 이처럼 일제통치밑에서 살아온 작가들은 물론 해방후 새로 자라난 수많은 작가들을 주체시대의 참다운 문필가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사랑의 활무대로 펼쳐진것이다.

어제날 침략자의 칼부림속에서 억압받던 민족의 설움을 안고 가슴을 두드리며 써놓은 울분의 원고를 불에 태워버리던 그 청년, 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땅을 갈아엎던 감격을 글로 적어보낸 그 농민, 불타는 고지의 전호가에서, 야전병원의 상병침대머리에서, 폐허우에 솟아나는 용광로건설장, 하늘높이 일떠서는 오늘의 대기계공업기지... 서른다섯해전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수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고마운 당에서 마련해주신 잡지 《조선문학》의 무대를 화려하게 하며 등장한것인가!

매달 잡지를 펼쳐들 때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아래 자라나는 우리 작가대렬의 얼굴과 함께 나날이 활짝 피고있는 우리의 주체문학의 화원을 보는것으로 하여 끝없는 긍지를 느끼게 된다.

오래전 창간호의 첫머리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모시던 그날의 감격으로 잡지 《조선문학》의 매호를 펼칠 때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우러르며 나는 창작의 붓을 힘껏 잡는다.

그렇다, 나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어도 위대한 수령님 품에서 당중앙의 사랑을 받으며

나는 오늘도 《조선문학》 창간호를 만들던 그날의 젊음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마련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잡지 《조선문학》은

나의 영원한 청춘의 활무대이며 우리 나라의 주체문학이 대를 이어 만발하는 한없는 사랑의 활무대로 더 넓게 펼쳐지리라!

친근한 길안내자

권정웅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으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입니다.》

망망한 바다를 건느자면 라침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인미답의 숲속을 뚫고 상상봉에 오르자면 길안내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문학이라는 길을 걸어 그가 목적인 언덕에 오르자면 길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의 경우에 그것은 잡지 《조선문학》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내다보는 리상이라는 봉우리가 있어 그 봉우리에 오르기 위해 한생을 바친다고 한다. 나 역시 젊은 나이에 부푸는 가슴을 안고 문학을 동경하였다. 하지만 골짜기에 들어서자 촌보를 가려볼수 없게 운무가 끼여 어느 길로 가는것이 참다운 문학의 길인지 알수가 없었다. 온몸에 굽이치는 뜨거운 열정과 진할줄 모르는 정력은 넘쳐나 가슴은 구름처럼 부풀어오르고 피는 용암처럼 끓여어도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길이 없던 나였다.

그럴 때 크고 요란한 소리도 없이 소박하고 수수하게 차린 잡지 《조선문학》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이 순박한 길동무와 처음으로 만난것은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기 몇해전 어느 읍책방에서였다. 그때는 아직 나라사정이 어려웠던탓으로 종이도 그닥 희지 못했고 인쇄도 그리 잘되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표제가 눈을 끌어 나는 선자리에서 몇페이지를 내려읽었다.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론평도 있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던지 딱히 기억할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는 그때 그 어떤 환희에 잠겼던것만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비안개에 묻혀 발을 옮겨디디지 못하고있을 때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그런 길잡이를 만난듯한 심정이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흘렀다. 나는 그후 어느 한때도 이 길잡이와 헤어진적이 없다. 곧 친숙해지

고 다정해진 나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지금도 하고있다. 대체로 많은것을 묻고 요구한다. 어떤 때는 그와 론쟁도 하고 나를 노엽히는데 대해 본격을 터뜨리기도 한다. 돌연 어떤 때는 《작가, 당신의 초상은 이렇다.》 하고 나자신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면 자신의 문학초상을 보게 되어 수집음을 머금고 어린애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놀라와하기도 한다.

사람은 대체로 자기자신에 대하여 환상적이지만 실제적인 자기를 보면서는 그 환상이 줄지애 깨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59년 5월호에 소설 《감자》를 실었을 때의 심정이 아마 그러했던것 같다. 소설 《감자》 이후 《백일홍》을 비롯한 변변치 않은 나의 문학초상을 보게 되었을 때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래도 이 친근한 길동무는 한번도 실망하지 않고 게으르고 보잘것 없는 나를 문학의 한길로 꾸준히 이끌어주었다. 이 과정에 나는 문학의 한 세대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문학창작이라는 무기를 들고 혁명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이 부르는 높은 봉우리엔 끝내 오르지 못한채로 80년대에 들어서서 《조선문학》 발행 400 호라는 년륜을 보게 되니 생각이 절로 깊어진다. 《조선문학》 400호.

참으로 많은 작가들이 이 안내자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문제사상을 체득하고 주체적문제이론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주체적인 창작방법에 의하여 온갖 다양한 종류의 창작적과제를 훌륭히 수행해낼수 있는 창작적기량을 준비하였다.

하거늘 잡지 《조선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런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우리 문학건설을 위하여 참으로 자랑스런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500호, 1000호 그리고 끝없이 《조선문학》은 자기의 년륜을 새기면서 당의 향도따라 드팀없이 곧바로 전진할것이다.

잊을수 없는 나날

윤시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문화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거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진적인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대렬에 적지 않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해방직후 문학잡지가 태어난 때로부터 어느덧 그 발행 400호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문학》 발행 400호!

이 사실은 나에게 잊을수 없는 나날에 대한 가가자의 회상을 더듬게 한다.

1946년 3월 북조선예술총련맹결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올라온 나는 어느 한서관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 작가대표들을 만나게 되었다.

문학창작을 열망하는 먼 지방의 한 무명청년이었던 나에게 있어서 이미 알려진 작가들을 직접 만난다는것은 여간만 큰 기쁨이 아니었다.

이때 나를 더욱 감격하여 마지않게 한것은서관에서 만난 작가들마다 이제 첫 창간호를 발간하게 될 동맹기관지에 실릴 글을 쓰고있는 사실이었다.

책상앞에 단정히 마주앉아 상을 가다듬어가며 원고를 쓰고있는 그 작가들의 모습을 지켜보며나는 뛰노는 심장의 격동을 참을길 없었다.

글을 써야 발표할 지면이 없었던 일제강점하의 암담하던 조선의 문학계, 자기의 민족어를 버리고 강점자들의 말과 글을 써야 한다고 강요당한조선민족, 조선의 모든것이 영영 없어져가던 그 암담한 나날이 어제런듯싶은데 자기 민족 고유의 말과 글을 마음놓고 쓸수 있으며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슬기와 념원, 보람찬 새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써서 발표할수 있는 문학잡지가 발간된다니정녕 꿈만 같은 심정이었다.

그때 나는 새 민주조선의 민족문학건설에 이바지할 훌륭한 작품을 써서 동맹기관지의 한페지를 장식해야겠다는 별처럼 아름다운 꿈을 안고 평양을 떠났다.

나의 이 꿈이 절실했던것은 작가들과의 잊을수 없는 상봉에서 받은 감격에서만은 아니었다.

지난날 나는 20살전후의 젊은 시절에 습작삼아 써보군한 시와 소설원고들이 책상우에 한가득히 무저지면 발표할 길이 없는 그 원고묶음을 그려모아가지고 뒤뜨락에 나가서 불살라버리군했다.

밤을 밝혀가며 열정을 기울여 써놓았던 자기의 원고무지예 불을 달고서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는 나의 심정은 그야말로 온몸이 찢기여한점한점 타번지는듯 아프고 쓰렸다.

나는 불에 태워버린 그 원고들이 후세에 남을만한 깊은 뜻이 담긴것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원고 한장한장에는 나라없는 민족의 슬픔에 잠겨 허덕이고 모대기던 한 청년의 심혼의 고백, 암담한 현실에 대한 울분, 저주, 밝은 미래에 대한 갈망과 절절한 념원만은 진하게 깔려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첫 소설을 써가지고 《조선문학》편집부에 제출한것은 1948년 가을이었다.

그때에는 작가들이 많지 못했다.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더욱 적었다.

글을 써야 발표할 지면이 없어지면서 작가들도 없어졌던것이다.

이런 처지에서 《조선문학》은 새 민주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며 새 민족문학창조의 터전을 닦아야 하는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 새로 태어나는 젊은 작가들의 활무대로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후 3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 작가부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끊임없는 지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에 의해서 수백명의 큰 집단으로 자라나 재능과 열정을 다바쳐 주체적인 혁명문학의 아름다운 화원을 꽃피워나가고있는것이다.

영예로운 작가부대의 새 성원으로 들어선 모든 작가들이 자기의 첫 작품을 《조선문학》에 발표하는것으로서 창작활동의 첫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생각할 때 나의 감회는 더 깊어진다.

나는 매달 새로 나오는 잡지를 받아들고 책장을 번질 때마다 잊을수 없는 지난날의 쓰린 추억과 함께 첫 작품을 발표하던 때의 기쁨을 되새기며 감격과 흥분 속에서 보다 진실하고 보다 감동적인 작품을 써야겠다는 새 결의를 다지게 된다.

나의 길동무

황 건

편집부로부터 잡지 《조선문학》 발행 400호를 맞으면서 내가 어떻게 되어 작가가 되었는데에 대하여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나는 몹시 당황했다.

사실 글을 쓴다고 하여, 또 많은 글을 썼다고 하여 다 작가로 되는것은 아니다. 작가가 함은 시대와 혁명 앞에 어떤 글을 내놓았는가, 또 어떻게 복무하고있는가에 따라 작가인가, 작가가 아닌가 규정되기때문이다.

단편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권의 증편도 내놓았고 장편도 썼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작가라고 당당히 말하기를 꺼려한다.

이것은 내가 특별히 겸손해서도 아니요 남보다 자기에 대한 요구성이 높아서도 아니다.

더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준 고마운 당의 크나큰 은덕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기때문이다.

다만 내가 작가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있다면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당의 손길에 이끌려 어떻게 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를 이야기할수 있을뿐이다.

내가 문학에 뜻을 품었던 그때는 참으로 암담한 시기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온 삼천리강토를 노예의 쇠사슬로 칭칭 묶어놓고 민족의 넋을 사정없이 란도질하고있었다.

나는 조선말로 된 글을 썼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발표할길 없는 원고봉테기를 품에 안고 거리를 방황했다.

신문, 잡지들에서 조선말이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고 공식석상에서는 조선말 사용이 금지되어있었다. 조선말을 하는 아이들마저도 가혹하게 형벌을 가했다.

글 한귀 발표할 지면이 없었던 문인들은 붓대를 꺾어버리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다. 빛 한점 없는 캄캄한 세월이었다.

희망을 잃어버린 나는 고향산간에 들어박혀 허송세월을 보내고있었다. 희망이 없는 나는 한갓 자연에 불과했다.

침략의 검은 구름 뒤덮여 공기마저도 흐려있던 삼천리강토에 해방의 종소리가 울려왔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께서 일제놈들을 삼대 쓸어놓히듯 무찌르고 조국으로 개선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은 나의 가슴을 격정으로 들끓게 하였다.

나는 환희와 감격을 안고 고향에서 뛰쳐나와 평양으로 올라왔다.

해방의 환희로 들끓는 평양, 그 어디를 가도, 그 누구를 보아도 절세의 애국자이신 장군님을 우러러모시고 살게 된 한량없는 행복으로 뒤설레이고있었다.

나는 여기서 하나의 격동된 사실을 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적인 민족문화건설을 위하여 북조선예술총련맹을 무어주시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작가, 예술인들을 집결하도록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화인, 예술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지니고있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기발밑에 굳게 단결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라 없는 설움을 안고 살아오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드디어 통일적인 조직에 뭉치여 당의 기치따라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문화전선의 투사로 나설수 있게 된것이다.

북조선예술총련맹창립과 함께 1946 년 7 월에 련맹기관잡지 《문화전선》 창간호가 세상에 나왔다.

아직 표지나 장정은 물론 인쇄술도 미숙한 잡지였지만 나는 대번에 흥분하였다.

잡지 첫째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 만세의 글발이 얹혀져있었다.

뿐만아니라 하단에는 화형을 두른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새겨져있었다.

나는 잡지에 전제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 **《20 개조정강》**을 커다란 흥분속에 읽고 또 읽었다.

또한 잡지의 갈피갈피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는 새 조국의 힘찬 목소리, 소생의 기쁨과 함께 정의와 진실을 담은 우리 혁명문학의 힘찬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인들이 마음껏 글을 쓰도록 우리 문단의 첫 잡지 《문화전선》을 마련해주시였다.

내 가슴속에 여직껏 숨어있던 문학에 대한 열망이 다시 밖으로 튀어나왔다.

나는 그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글을 썼다.

나의 눈앞에는 여직껏 보아왔고 겪어온 생활이 펼쳐졌다.

나는 산간의 말뚝할 고생속에서 살아온 한 화전민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평양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를 써서 《산곡》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한편의 단편소설은 1948년 1호인 《문학예술》에 발표되었다. (《문학예술》은 《문화전선》의 후신임)

아, 그때 활자로 찍힌 첫 작품을 받아보던 기쁨이란!

... 첫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심정이라 할가.

이때부터 나의 앞에는 문학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젊음을 되찾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산속에 묻혀 한방울의 이슬처럼 사라져야 할 운명을 지녔던 나를 인간으로 소생시켜주시었으며 주체적인 혁명문학건설의 광활한 길에 내세워주시었다. 나에게서는 부러운것이 없었다.

그후 나는 《문학예술》(1949년 5호)에 단편소설 《탄막》을 발표하였다.

나는 이 단편을 쓰기 위하여 아오지탄광으로 내려갔다.

나는 들끓는 현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새 조국 건설을 위해 탄을 캐는 새로운 청년들을 발견했다.

나는 청년들의 모습을 원고지우에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새 조국의 모습은 나에게 창조적 환상과 열정을 주었다.

나는 계속하여 《문학예술》지면에 중편소설 《행복》을 비롯하여 일련의 단편들을 발표하였다.

우리 조국 남반부를 침략한 미제가 도발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났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행복을 지켜 용감하게 일어났다.

나도 종군작가로 전선으로 달려갔다. 불타는 고지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는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준엄한 시련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성장하는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또한 포연이 서린 전호가에서 잡지 《문학예술》과 전선문고를 읽고있는 병사들도 보았다. 기동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으로서의 단편소설이

전쟁승리에 어떻게 기여하고있는가를 감동적으로 체험하였다.

이 벅차고 영웅적인 현실은 나에게 커다란 창작적충격을 주었다.

나는 드디어 어제날의 평범한 노동자, 농민들이었던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성격,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충실성으로 일관된 성격적인 핵을 발견하였다.

나는 흥분을 안고 단편소설 《불타는 섬》을 창작하였다. 만약 이 단편소설이 성과가 있다면 나의 재능이 이루어놓은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나는 인민군용사들의 무비의 영웅성,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그대로 글에 옮겨놓았을뿐이다.

이처럼 나는 문학잡지와 함께 혁명문학을 하는 한 성원으로 성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은 우리 작가들을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키워주었으며 창작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문학전문잡지 《조선문학》을 마련해주었다.

잡지 《조선문학》은 생활의 선도자였으며 참다운 문학의 길동무였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한 때로부터 어언 35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어느덧 내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나이도 환갑을 훨씬 넘어서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청춘으로 살고있다.

내 나이도 그 아름다운 계절에 있으며 창작적 열정도 그 환희로운 계절속에 꽃피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이 나에게 준 청춘이며 기쁨이며 행복이다.

우리 혁명과 주체적문학예술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영광스러운 당!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있다.

정력과 의지를 안고 여러권의 장편과 중편소설을 썼으며 지금도 쓰고있다. 지금 나에게서는 부러운것이 없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당의 은덕에 대해서 그 크나큰 사랑에 대해서 온 우주에 대고 힘껏 소리쳐 자랑하고싶은 그것이다.

이것만이 나의 가슴을 늘 흔드는 절절한 소원이다.

전쟁시기의 추억

김복원

참으로 세월은 빠르기도 하다.

어느덧 우리의 기관지 《조선문학》발행 400호를 맞이하게 되고보니 한때 《조선문학》편집에 관계한 일이 있었던 나로서는 실로 감개무량하기 그지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잡지 《조선문학》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런 당중앙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독자들이 기다리는 출판물의 하나로, 당 사상교양수단의 위력한 무기로서 우리 인민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오늘 《조선문학》 400호를 맞고보니 전쟁의 어려운 시기 원썬들의 맹폭속에서도 굴함없이 정기간행물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해 애쓰던 그날이 어제런듯 감회가 새롭다.

《조선문학》발행 호수가 아직 100호이전단계에 이르고있던 그 시기 우리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었다.

날마다 계속되는 미제공중비적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폐허속에서 정기간행물인 잡지 《조선문학》을 제때에 출판하는것은 자못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당시 소개되어있던 편집부와 인쇄공장 사이에는 큰 백여리나 떨어져있어 이것이 편집사업에 적잖은 지장을 주고있었다. 편집일군들은 원고를 싸들고 백여리를 오가야 했고 교정하나를 보기 위해서도 며칠씩 묵어야 했다. 싸우는 전사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시와 소설이 실린 잡지 《조선문학》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그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쇄공장을 편집부서들이 있는 승호군 대천리로 옮겨오기로 결심하였다. 대천리는 밤나무가 우거지고 골안이 깊어 놈들의 폭격속에서도 능히 출판사업을 계속해나갈수 있는 지형상 유리한곳이었다.

당시 우리 출판사에서는 잡지 《조선문학》과 함께 《아동문학》을 발행하였고 《전선문고》

등 수많은 단행본들도 출판하고있었는데 이 방대한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인쇄공장을 여기로 이설해오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는 두페로 나누어 한쪽에선 밤나무밑에 기계를 설치할 터를 닦았고 다른 조는 인쇄공장이 있던 룡악산기슭 소룡리에 가서 기계를 해체하여 포장하는 등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정기간행물을 제때에 보장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들과 전사들을 크게 고무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충성의 일념밖에 없었다. 낮에 밤을 잇는 헌신적인 노력과 긴장한 투쟁속에서 계획된 일이 하나하나 진척되어가던 어느날 새벽이었다.

기계부속을 실은 첫 운반차가 도착하였다는 기쁜 소식에 접한 우리는 한달음에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어이하랴.

인쇄기계를 실은 차의 일부가 폭격을 받아 기계의 부속들이 적잖게 마사지고 분실된것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그길로 폭격받은 장소로 달려간 우리들은 마사지고 흩어진 기계부속들을 하나하나 주어왔고 그것을 용접하여 먼저 평판기 한대를 지붕도 없는 새 공장부지에 조립하였다.

《평판기로라로 책을 찍자!》

우리는 서로서로 이렇게 고무하며 곧 인쇄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동력이 문제였다. 머리우로는 고압선이 흐르고있었지만 변압기 한대 변변한 것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어찌는수가 없었다. 우리는 산우로 뻗어간 고압선을 쳐다보며 가슴을 태웠다. 그러나 잡지 발행기일이 급했던 우리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손털고 나앉아있을수는 없었다.

《평판기를 돌리자, 손으로 피대를 당겨서라도 잡지를 찍어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우리들은 지형을 떠서 올려놓고 평판기에 피대를 걸었다. 몇명이 함께 당기면 《절격!》하고 평판기는 돌고 신문지만한 인쇄물이 넘어간다. 우리는 교대로 이 일을 반복하였다. 이 전투는 인쇄일군들과 편집원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잡지의 본문을 찍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막상 잡지를 내자니 또 하나의 난관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표지인쇄를 무색으로 내보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것을 해결하자면 석판인쇄에 필요한 《돌》이 있어야 했는데 모든것이 폐허로 된 조건에서 어디가 구해올지 막막하였다.

런이어 해결되어야 할 표지문제가 이렇게 될줄은 우리도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는 또다시 《돌》을 구하기 위하여 산지사방으로 떠나갔다. 그리하여 나흘만에 끝내 《돌》을 구하여 원색표지를 낼수 있게 되었다.

실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만들어내어 자체로 인쇄소를 꾸려 포화속에서도 《조선문학》잡지의 정기간행을 보장하던 때를 돌이켜보니 그 발행 400호를 맞는 오늘의 감회가 더욱 새롭다.

수기

작가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온 나라가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와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에로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는 이 경사로운 2월에 자랑스럽게도 《조선문학》이 400호를 세상에 내놓는다.

《조선문학》발간 400호!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감회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끊임없는 배려와 육친적인 보살핌속에 《조선문학》은 세상에 태어난 그때로부터 서른다섯이라는 해돌이를 주체의 혁명문학발전의 길위에 아로새기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느라니 나의 감회는 잊을수 없는 해방직후어로 조용히 더듬어오른다.

일제에게 창작의 붓을 빼앗기고 문학의 뜻을 이룰수 없었던 많은 조선의 작가들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받아안았다. 작가들은 해방과 더불어 작품창작에 대한 뜨거운 정열로 불타올랐다. 이처럼 창작적의욕은 여간만 절절한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욕망과는 달리 작가들은 쉬이 붓을 들수 없었다.

어떤 자세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며 설사 쓴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소화시킬 것인가. 사방에 흩어져있는 작가들은 이런저런 생각에 골몰하면서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러나 작가들의 이런 웅졸하고 근시안적인 생각은 그 얼마뒤에 크나큰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었던것이다.

400호, 그속에는 바로 전쟁의 포화속에서 찍어낸 그 호수도 포함되어있는것이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오늘 우리의 출판물은 그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흐르는 료전기로 수십만부의 책자도 단숨에 찍어내고 각가지 색인쇄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훌륭한 설비를 충분히 갖추어놓고 당 사상사업의 일익을 담당할수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런 당중앙의 은혜로운 사랑의 결과이다.

하기에 《조선문학》발행 400호를 맞으면서 우리 작가들은 더욱 높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왕성한 창작전투를 벌려 주옥같은 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사상교양수단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잡지《조선문학》이 지닌 사명을 더욱 원만히 수행해야 할것이다.

리복명

항일의 혈전만리 강도일제를 무찌르고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 건설을 령도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선의 문학, 조선의 작가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친어버이사랑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길가의 조약돌처럼 전국 각지에 뽕뽕이 흩어져 헤매던 작가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어 《북조선예술총련맹》을 무어주시고 그 기관지로서 《문화전선》이라는 제호의 잡지까지 발간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펴쳐주신 새 조국 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 작가들은 위대하신 그이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문예정책을 관철하는 길로 힘차게 나아갔다. 여기서 《조선문학》의 전신인 《문화전선》은 작가들의 친근한 길동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가 반동세력을 분쇄하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동무들이 문화전선에서 잘 싸우는가 못싸우는가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받아안은 작가들과 편집일군들은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였다.

단편소설 《로동일가》는 내가 기관지에 발표한 첫 작품이었다. 나는 그때 당의 부름을 받들고 첫 현지파견작가로서 홍남지구 공장들에 파견되어 비료전사들속에서 이 작품을 썼다. 이해에도 많은 작가들이 현지에서 직접 생활을 체험하고 창작한 우수한 작품들을 수없이 편집부에 보내었으며 잡지 《문화전선》의 지면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문화전선의 투사라는 자각을 안은 작가들은 더 좋은 작품을 써서 근로자들을 고무하려고 피타는 노력을 경주하던 나날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참말로 생각하면 《조선문학》이 걸어온 길은 우리 조국이 겪은 경난과 함께 평탄한 것이 아니었다.

평화적건설시기를 거쳐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그러했다. 《조선문학》은 준엄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전쟁승리를 위하여, 원썩격멸에 일떠선 인민들과 인민군대에게 멸적의 기세를 돋구어주는 작품들과 침략자 미제의 가슴팍을 들이찌르는 비수같은 작품들을 많이 실었다.

미제승냥이들의 야만적폭격에 의해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조선문학》편집부는 시주변에 있는 룡악산기슭에 옮겨앉아 노상 적기를 머리에 이고 편집사업을 이어나갔다.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걷고 걸었던 수많은 밤길들, 잡지의 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비속을 뚫고 하루에 수십리길을 뛰어다니던 편집

성원들의 희생적인 투쟁모습을 잊을수 없다. 지금은 이미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다. 그들의 모습을 정겨웁게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 문득 무테안경이 유포한 한 시인의 얼굴이 우련히 떠오른다. 《백두산》, 《조선은 싸운다》... 시인 조기천이다. 《조선문학》의 집필자가운데서도 역할이 컸던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날강도들에 의해 희생되었다. 그러나 누가 그를 죽었다고 하랴. 그는 서사시 《백두산》과 더불어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끌어주신 《조선문학》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오늘 400호를 세상에 내놓는 자랑을 지닌다.

3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두고 달마다 해마다 그 발자취를 남기면서 오늘 400호 발간을 보게 된 《조선문학》.

창간호로부터 400호까지의 지면에 실린 작품들을 합치면 실로 수천편에 달할것이다. 그 모든 소설, 시, 논설, 가사, 수필들은 어느것이든 근로자들을 로력적위훈으로 부르는 정신적량식으로,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로 되었다.

또한 《조선문학》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문학의 본보기인 주체의 혁명문학에서 배우려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인민들과의련대성을 강화하는데도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문학》은 400호가 아니라 앞으로 수천호를 거듭하면서 주체의 혁명문학을 온 세상에 꽃피워나갈 우리 작가들의 길동무로, 근로자들의 벗으로 될것이다.

수기

우리 시대의 작가로 성장하기까지

최학수

우리 작가들을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 우리 당 문예전선의 초병으로 길러주고 내세워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싶은 2월의 뜻깊은 달에 잡지 《조선문학》발행 400호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은 나를 몹시 기쁘게 했다.

이 기쁜 소식을 받고보니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당중앙의 육친적보살핌속에서 자랑찬 주체시대의 작가로 자라나고 창작생활을 해오는 작가적 행복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당이 키워낸 주체형의 인테리들은 지금 40대, 50대의 씩씩한 일군들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놓고있습니다.》

참다운 의미에서 작가란 그가 지닌 신분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의 신임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좋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인정받아야 할 존재들일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자신을 랭정하게 굽어보면 나는 자기를 독자들앞에서 떳떳이 작가라고 말할만한 면목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글짓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벽촌에서 태어났던 내가 우리 시대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하는 몇편의 글을 지을줄 아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그 한가지 리유만으로도 자기 판의 글지와 행복을 찾게 되는것이다.

나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압담했던 말년기에 까막눈의 가난한 농사군의 집에서 태어났다. 도시에 접해있는 산골마을이었지만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현대문명과는 담쌓고 지내는 벽촌이었다.

게다가 그 시기는 온 민족이 멸살당하고 질식당해가던 시기였다. 조선사람이 조선말과 글도 못쓰고 성과 이름마저 바꿈으로써 조선사람이기를 영영 그만두지 않으면 안되게 된 가장 엄혹한 시기, 민족사멸의 최후 위기에 처한 시기였다.

실로 나와 나의 세대를 위하여 그 이상으로 불우한 때를 고를수 없을만치 세상이 캄캄하던 때에 태어난것이다.

그러나 나의 세대들과 함께 나는 력사의 행운아였다. 우리 세대의 밝은 앞날을 예시해준 해방의 거세찬 화불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몇달 전에 이미 보천보의 밤하늘에서 불타올랐다.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뿐아니라 반드시 살아나게 되리라는것을 온 세상에 알려준 해방의 예종은 민족의 얼을 잃고 죽어가던 우리 겨레의 심장에서 재생의 맥박이 힘차게 고동치게 하였다.

조국해방의 대경사의 날, 민족재생의 새날은 학교에 다닐만한 나이가 되었던 바로 그런 때에 오고야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전세대들보다도 더 참혹한 망국노의 처지에 빠질번하였던, 조상대대로 물려준 자기의 성도 자기의 말도 자기의 글도 모르는 영원한 노예로 되고말뻔했던 우리 세대들에게 강토와 함께 조국을 이루는 모든것을 찾아주셨고 력사상 일찌기 있어보지 못했던 새세상,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게 하는 완전히 별다른 세상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그것은 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이였다. 나라의 모든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것인 동시에 나를 위한것으로 되였기때문이다.

북반은 우리 세대에게는 모든 길이 활짝 열려져있었다. 갈래많은 어느 길을 둘러보나 창창하게 띄여져있고 또 저마끔 유혹적이어서 선택하기가 오히려 난처했다.

리상을 뚜렷하게 정할만한 나이가 채 되지 못했던 나는 한때는 수물학자나 화학자가 되여볼 생각도 했고 다른 한때는 식물학자나 원예사가 될 꿈도 꾸어보았다. 그 어느 분야에서나 빼여진

재능을 못가진 무재무능한 욕심쟁이중학생마음으로는 그 모든 길로 다 가보고싶기도 하였다.

문학에 대한 사랑과 지향은 나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움트고 자라났다.

우리의 신성한 조국땅이 전화의 불길속에 휩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마을청년들은 전선으로 떠나갔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변들과 생활은 소년이었던 나에게도 무심히 보고 흘려지날수 없게 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용감한 사람들에 대한 일기도 쓰고 후방생활을 전하는 편지도 부지런히 전선으로 보냈다.

몇해 지난 다음 드디어 나는 문학창작을 소망하게 되었다. 뜻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우리 세상에서 나의 소망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

고마운 당은 나에게 문학수업을 전문적으로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처음에는 작가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을 받게 해주었고 다음에는 작가들과의 상시적인 접촉과 문학운동의 실천적참가를 통하여 문학창작에 대하여 보다 깊이, 보다 실천적으로 그리고 더 분석적으로 배우고 연구할수 있는 사회생활의 길을 선택해주었다.

잡지 《조선문학》이 나에게 각별한 친근감을 주는것은 나의 첫 사회생활은 바로 이 잡지의 편집부에서 시작되었기때문이다. 특히 나는 《조선문학》 발행 200호의 편집에도 참가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 문학의 작은 거울일뿐아니라 조선문단의 축소된 얼굴이기도 한 《조선문학》편집과 대작편집사업을 통하여 배우면서 대담하게 창작을 시도해보도록 관심을 돌려주고 손잡아 이끌어준 우리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서 지난날 까막눈의 가난한 농사군의 자식이었던 나도 마침내는 뜻을 이루어 자랑찬 우리 시대, 세인이 경탄해마지않는 주체시대의 작가로 자라났다.

나는 당의 혜택속에 수도에 와서 문학수업을 받던 그 시기에 평양거리에서 어떻게 16분에 한 세대씩의 살림집들이 조립되어가는가를 보았으며 폐허우에서 옥류교와 옥류관, 대극장과 학생소년궁전이 기적적으로 솟아오르는것을 보았다. 만수대언덕우에 천리마동상이 세워지는것도 보았다.

나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서로 돕고 이끌어가며 새사람들로 변하는가를 보았

으며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하여 영예의 천리마회장을 수여받는 기쁨도 지너보았다. 이처럼 기적으로 가득찬 우리 시대, 위훈으로 빛나는 오늘의 내 조국 사람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그에 대하여 세상앞에 말할수 있는 작가로 되었다는것은 얼마나 크나큰 행복인가!

이런 크나큰 행복을 지니도록 해주시고도 내가 자기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있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와 고마운 당중앙에서는 내가 우리 시대의 작가된 행복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다시금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내기작가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까지 친히 좋은 작품으로 될수 있는 소재를 골라주시고 창작방향과 방도를 깨우쳐주시였으며 고마운 당중앙에서는 첫걸음마를 떼는 어린것을 보살피는 어머니처럼 나의 창작의 전과정을 일일이 돌봐주면서 가르침을 주고 일깨움을 주었다.

세상에 이루 다 말할수 없는 그러한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나는 별로 자랑할만한것이 못되는 크고작은 몇편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 시대, 나의 동시대인들에 대하여 말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과 어머니당의 자애로운 사랑과 믿음은 날을 따라 커가고 우리의 위대한

시대는 더욱더 비약적으로 전진한다. 그에 비기면 우리 시대의 작가로 자라난 내가 해놓은 일은 너무나 빈약하고 왜소하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첫부분을 쓸 때만 해도 보통문에서 뻗은 룡환선거리는 쓸쓸한 뒤골목거리였을뿐이다. 옛토성랑자리에 천리마거리가 일떠서는것을 보고 나는 룡환선거리를 초라한 뒤골목거리라고 고쳤다. 책이 나간지 몇해 안되는 오늘에 와서는 이미 지난날의 룡환선거리라는것은 자취도 없어졌다. 그 자리에 지난해에는 웅장 화려한 창광거리가 세계적인 현대거리로 일떠섰다. 책을 다시 찍어낼 기회가 있으면 나는 또다시 그 글줄을 고쳐놓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비약적으로 전진하는 시대와 기적적으로 변모되는 생활은 우리 작가들에게서 이 시대의 지향과 이 생활의 요구에 맞는 새라새로운 사상-정서생활의 길동무를 찾고있다. 거기에 응해주지 못한다면 복받은 위대한 우리 시대의 작가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무뎡무능한 식객으로 굴러떨어지고 말리라는것을 나는 자각하고있다.

뜻깊은 2월의 첫 아침에 또한 우리 작가들의 전문잡지발행 400호를 맞게 되는 기회에 나는 배은망덕하지 말고 자기 할바를 성실히 수행할줄 아는 작가로 되기를 새삼스럽게 결심하게 된다.

수기

길동무에 대한 추억

구희철

나는 지금 동해바다가의 자그마한 어촌마을에 와있다.

벌써 여기에 출장온지 며칠이 되지만 내가 꼭 만나서 취재해야 할 사람들을 내놓고는 너무도 생소한 고장이라고 말할수 있는곳이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이곳 수산사업소 당비서라든가 지배인, 이고장에서 한 50년 배를 타고 있다는 나이 지숙한 어로공아바이 그리고 20~30대의 젊은 어부라든가 이제 학교를 갓 나온 단발머리 가공반처녀라든가 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고나면 다시 혼자몸이 되는것이다.

이런 때면 그 누구든 가까이에서 이 빈 공간을 공허하게가 아니라 보람있게, 의의있게 말동무하며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기 마련이다.

언제 그 어디에서나 자기 가까이에 친근한 동무를 두고 그와 함께 지내는것은 그만큼 행복한 것이다.

나는 지금 그런 기쁨을 맛보고있다.

말없는 나의 벗, 내가 문학을 시작한 때로부터 아니 문학공부를 시작하기 펍 이전부터 나와 한 시도 떨어져본 일 없는 잡지 《조선문학》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도시생활에 익숙해진 나에게 지금 이 바다가 풍경이라든가 조화롭게 울려오는 파도소리라든가 비릿한 바다바람이라든가 무엇인가 낯설고 습관되지 않은 이 생활에 유일하게 내 가까이 친근하고 다정한 벗처럼 말없이 많은것을 일깨워주는 《조선문학》 잡지가 함께 있는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책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책도 읽지 않고 그저 밥이나 먹고 그날그날 살아간다면 사는 보람이 없습니다.》

짧게나마 걸어온 문학수업의 날들과 철의 도시의 한 문학청년으로 성장해온 그 모든 나날들에 잡지 《조선문학》은 나에게서 한시도 떨어져있을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도 내가 로동생활을 하던 김책제철소에서의 그 시절을 잊을수 없다.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조선문학》을 기다리기란 마치도 어린날에 읊으로 장보러 간 어머니를 마을어귀까지 나와서 해저물도록 기다리던 그런 마음이었다고 해야 할지...

용광로 1호, 2호를 개건확장하고 전로를 새롭게 건설하던 그 나날에도 나는 도서관에 들리어 다음다음호를 빌려서 읽곤하였다.

나와 같은 로동청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 감정이 언제나 나를 그들처럼 살며 일하려는 욕망에 불타게 했고 더 높은곳으로 부르던 힘있는 시들은 또 얼마나 나를 흥분시켰던가.

점심밥과 함께 옆에 끼고 다니며 기쁨에 얼룩지고 보풀이 일었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둘러가며 읽어 몇호였던지 알수 없던 때도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조선문학》은 언제나 내가 손을 함께 잡고다니는 벗이었다.

더구나 나의 첫 작품이 여기에 실렸을 때 당의 품속에서 작가의 첫걸음이 시작된것으로 하여 《조선문학》은 나에게 더없이 인상깊은것으로 되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시인으로 자라난 나의 생활이 그대로 담겨진 잡지인것이다.

농촌과 공장을 찾아 때로는 해비치는 하늘아래, 때로는 달밝은 저녁에, 그 어디에선들 이 잡지를 펼치지 않았던가.

내가 번지고 또 번져온 《조선문학》잡지의 그 모든 갈피들을 다시 펼쳐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당의 가르침따라 걸어온 우리 문학의 발걸음이 안겨온다. 어느 농촌집 옷방의 희미하던 불빛, 바다가의 파도소리, 어느 탄광의 발파소리와 저물어가던 가을날 단풍잎이 떨어져내리는 산간마을, 어디서나 펼쳐들 때마다 당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오는 《조선문학》인것이다.

나와 함께, 내결에, 때로는 내앞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에서 창작생활을 하고있는 나를 이끌어주기도, 떠밀어주기도, 사색에 잠기게도 하면서 어디서나 함께 있는 《조선문학》잡지이다.

이제는 마치도 소꿉시절부터 함께 걸은 친구와 같이 정다와지고 가까와진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대로 문학의 키를 한치한치 높여준 이 잡지는 이렇게 나의 길동무이자 스승으로 되고있다.

더듬어보면 매 시기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부르는곳으로 《조선문학》은 자기의 목소리를 합쳤고 인민들을 충성의 한길로 불러세우는 의의있고 교양적가치가 있는 글들을 실었던것이다.

나는 이번 출장길에도 《조선문학》을 가지고 떠났다.

나는 지금 내앞에 놓여있는 《조선문학》의 한호를 펼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모신 소설과 우리 당 제6차대회보고사상을 반영한 힘있는 정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 문학이 발전하여온 로정을 서술한 론설들과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으로 부르는 격조높은 시들을 나는 빠짐없이 읽는다, 읽으며 나자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문학을 생각한다.

참으로 잡지 《조선문학》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 나라의 주체적인 문학을 발전시키고 나와 같은 평범한 로동자, 농민을 작가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랑의 요람인것이다.

나는 이 사랑의 요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당을 우리러 끝없는 힘의 노래를 부르며 휘황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에 힘차게 발맞춰나아갈것이다.

운전사들

한웅빈

1

명근은 보통날 아침처럼 여섯시에 잠을 잤다. 그는 눈을 감은채 여섯점을 치는 벽시계 종소리를 들었다. 여섯번째 종소리는 방안에 가느다란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다.

그러자 명근의 가슴속으로는 까닭모를 즐거움이 샘물처럼 흘러들었다. 즐거움은 마치도 이제까지 침대결에서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있었던 것 같았다.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즐거울까...)

이 즐거움은 아침마다 느끼는 젊음과 건강에서 오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다. 가슴이 울렁거리는 류다른 즐거움이였다.

(어제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저녁에 경쟁총화가 있었지 ...)

경쟁총화에서 명근이 속한 운전3소대는 3등을 했다. 여섯개소대중에서 세번째를 했으니 뒤떨어진셈이었다. 개별적으로는 우수한 운전사들이 많았으나 (명근이도 보고에서는 칭찬을 받았었다.) 등수에서 소대는 꿈무늬를 차지했다. 명근은 자기 소대가 3등인것이 분했다. 소대장은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일때문에 기분이 좋을수는 없었다.

(이상한데... 그런데 무엇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오늘 무슨 일이 있던가... 아- 그렇지!)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오늘부터 그는 북방지대의 기계공장확장공사에 가는 긴급수송을 하게 된다. 왕복거리는 600키로미터, 먼 거리수송대의 운전사가 1,500리쯤은 범상한것이지만 이번달에 수송대의 중요고리로 되어있는 긴급수송이다. 긴급수송에는 명근이네 소대에서 다섯명의 운전사가 선발되었다. 명근이도 그중의 한 성원이였다.

사령은 그들에게 3일에 한탄씩 할것을 호소하였다. 명근은 2일에 한탄씩 해체끼리라고 결심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고 소대도 수송대의 맨 첫 자리에 서게 될것이다. 어제밤엔 늦도록까지 출발준비를 완전히 해놓았다. 운행중만 받아쥐면 즉시로 내달릴것이다.

그길에서는 명근이가 아직 누구와도 나누어본 적없는 기쁨이 기다리고있다. 언제나 활기에 넘

치고 흥조가 어려있는 얼굴, 그 처녀는 안개령너머에 있는 마을의 농산기수였다.

《제 이름을 전에도 들은것 같대구요? 그럴거예요. 우리 농장에만도 영순이가 넷이랍니다. 우리 관리위원장동진 눈을 감고 뛰어가도 영순이와 부딪친다고 했답니다. 우습지요?》

그의 음성과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명근은 아픔과도 같이 가슴을 쿵 찌르는 벽차고 날카로운 기쁨에 휩싸이곤한다. 그런 기쁨이 있다는것이 놀라웁다.

웃음이 많은 처녀, 그에게는 마를줄 모르는 웃음의 샘이 있는것 같았다. 그와 만나면 명근은 어느새 입이 벅글썌해서 웃고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동문 그저 늘쌍 웃어가지고있구만.》

하였을 때 영순은 진심으로 놀랍다는듯 도리어 반문했다.

《아이, 웃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명근은 안개령을 넘을 때마다 그를 만났다.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이 감정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라는 고전적인 이름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가슴속에 자리잡고 보니 그 훌륭한 이름도 부족할만큼 신비한 감정이였다.

그들은 한달에 한두번, 때로는 두달에 한번 만났다. 영순은 그와 만나면 반가와했다. 그러나 어딘가모르게 불안스러워하고 초조해하는 거동이였다. 주위를 둘러보고 차를 살피다가는 문곤했다.

《이렇게 서있어도 일없어요? 늦지 않겠어요?》

명근이가 괜찮다고 하면 그는 마음을 놓는듯했다. 그러나 10분도 못되어 다시 불안스레 길을 바라보았다.

《늦지 않겠어요?》

불안은 명근에게도 전해져 그대로 더 서있을수 없게 하였다. 왜 그럴까. 자기와 얼른 헤어지려고 그럴까. 만나는것이 싫고 따분하여서...

한달전에 만났을 때도 명근은 그와 그렇게 헤어졌다. 실망의 감정에 가슴이 아팠었다. 영순은 그를 만나기 싫어한다! 다시는 찾지 말자. 만나지도 말자! ... 그런데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 영

손은 헤어지던 그 자세대로 그 자리에 서있었다. 손으로 눈우에 차양을 하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그의 옷자락과 머리수건이 바래주는 손길처럼 바람에 날리고있었다... 명근은 가슴이 뭉클했다. 다음번 만나는 때에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으리라고 결심하였다.

그 《다음번》이 지금 닥쳐왔다. 여느때처럼 한탕이나 하는것이 아니라 한달동안 계속하는 집중수송이다. 열번, 열다섯번은 다니게 된다. 열다섯번 재탕을 끝냈을 때 고백하리라. 열다섯번만에!

그는 발을 더듬거려 실내화를 찾아신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앞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는 아연해지고말았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있는것이였다. 명근이 모르게 눈은 조용히 소담하게 내리고있었다...

2

명근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합숙을 나섰다. 눈은 벌써 가로수가지들에도 소복이 쌓였다. 잎사귀를 털어버린지 오랜 가로수들은 이제야 비로소 겨울잠에 든듯 눈을 뒤집어쓰고 꼼짝 움직이지 않는다.

길에는 출근하는 털모자, 털수건, 털외투가 밀려간다. 눈은 거리도 사람도 죄다 폭신폭신태보이게 만들어놓았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푸근한 미소가 어렸다.

그러나 명근은 눈살을 찌프리고 흰눈송이를 노려보며 걸었다.

(눈때문에 안개령이 막히겠는데... 며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운전사들에게는 눈과 비가 언제나 반갑지 않았다. 명근이도 같았다. 작년겨울에는 눈때문에 길이 막혀 안개령밑에서 이틀이나 묵었었다. 또 한번은 출발준비를 다해놓았다가 배차지령이 취소된적도 있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만해도 마음이 울적해지고 숫색시같이 조용히 내려앉는 눈의 수집음에 화가 났다.

《젠장! 긴급수송이나 끝난 다음에 올게지!》

하고 투덜대는데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명근이! 출근하는길이나?》

이웃 먼거리수송대의 덕배라는 운전사였다. 차를 길옆에 세우고 바퀴에 썩은 사슬을 손질하고 있었다.

《수고하누만요!》

명근은 그를 존경하였다. 큼직큼직하게 빗어만 놓고 채 다듬지 못한듯한 그의 얼굴까지도 부러

워했다. 덕배는 이미 신문에는 두번, 방송에는 세번이나 소개된 혁신자였다. 명근은 질투에 가까운 선망의 감정이 없이는 그를 대하기 어려웠다.

《어데루 이렇게 일찍 가요?》

덕배는 손을 털고 일어났다.

《자네들과 같은곳일세.》

《확장공사장?》

《동무네 사령을 줌전에 만났는데 다섯대나 간다며? 편대수송을 한다면서 자랑하데. 동무네 소대장이 발기하고 주장한다더군.》

어제밤 소대장이 새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니 편대수송을 생각한 모양이다. 전에도 편대수송을 하자는 토론은 있었으나 자동차들의 기술상태와 운전사들의 기술수준이 서로 같지 않아 기껏해서 두석대로 조직했을뿐이였다. 오늘도 다섯대를 두개조로 나눌수 있다.

명근은 그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오히려 더 흥겨울것이다. 중요한것은 지령에 변동이 없으며 안개령이 막힐 념려가 없다는 담보가 있었으리라는 것이였다.

《그럼 수고하랴요.》

《먼저 가네, 천천히 오게.》

하고 덕배는 차를 내물기 시작했다. 명근은 그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인차 따라가겠수다!》

덕배는 대답대신 손을 휘-저어보인다. <따라와 보게나>하는 뜻이다. 동시에 그 손짓에는 <못따라올걸> 하는 미소도 섞여있다. 하기는 이제까지 명근은 그를 따라잡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는 따라잡아야말것이다! ...

《두고보자! 내 이제...》

하고 다시한번 짓무르는데 갑자기 머리우에 눈가루가 쏟아져내렸다. 가로수의 가지에 소복이 담겼던 눈이였다. 명근은 뒤덜미에도 한웅큼이 들어가 자라처럼 목을 움츠렸다.

《엑! 차저워!》

《해 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염소뿔을 하던 애녀석이 빨간장화를 신은 발로 나무밑등을 한번 차본것이였다. 그녀석은 장한 일이라도 한듯 명근이와 여러 어른들이 소스라치는 모양을 우쭐해서 바라보며 뺨긋거린다.

《아이, 어찌나, 애가 정말! ... 미안합니다. 안됐어요.》

젊은 어머니는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른다.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명근은 어깨와 머리에 눈가루를 실은채 그냥 걸었다. 그 눈은 마치

도 겨울아침이 어린애의 손을 빌어 내려준 선물인 것 같았다.

눈우에 오이씨같이 가름한 녀자신발자리가 총총히 찍혔다. 토끼털이 폭신한 반장화를 신은 처녀가 한손에 책을, 다른 손에는 가방을 들고 포박포박 걸어가고있었다. 길을 가면서 학습하는것이리라.

명근은 며칠전 6차당대회보고학습에서 토론한 일이 생각났다. 로동계급의 혁명화에 대한 문제였다. 거침없이 원만하게 토론했는데 학습강사인 소대장은 8점밖에 주지 않았다. 자기 생활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명근은 가름한 발자국자리에 커다란 40문짜리 구두자국을 덧찍으며 따라가 책장을 슬며시 넘겨다보았다. 책장에는 눈송이들이 조그만 흰 꽃들처럼 내려앉았다. 글줄은 보이지 않았다. 처녀는 책이 아니라 아침의 거리에 미소를 보내며 걷고있었다.

눈은 계속 내린다. 눈내리는 거리는 새해축하엽서장에 그려지곤하는 설날아침풍경을 방불히련상시킨다.

처녀는 책장을 내려다보고는 나직이 웃으며 눈송이들을 입김으로 조심스레 날려보냈다. 까마만 글자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며 또렷또렷 도드라진다.

부르릉- 덜컹덜컹거리며 자동차들이 달려간다. 명근은 걸음을 다그쳤다.

(빨리 가자. 수송은 곧 생산이다. 생산은 곧 수송이고...)

3

눈은 계속 내렸다. 안개령이 막히지 않는다는 담보도 없었다. 그러나 편대는 자기 시간에 떠났고 꾸준히 달렸다. 공장확장공사가 그들을 한시도 지체할수 없게 하였다. 계획보다 엄청나게 빨라진 건설속도는 추가자재를 시급하게 요구하였다. 사령은 눈속에 굴을 뚫게 되더라도 기어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섯대가 전부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달렸다. 명근은 불안스레 생각했다. 다섯대가 함께 움직여야 하니 언제나 도착하게 될가. 한대만 고장나도 모두 서야 하고 제일 느린 차에 속도를 맞춰야 한다. 또한 영순이를 만나기도 어렵게 된다. 편대가 멈춰서지 않는한 명근이 역시 멈춰설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열다섯탕도 못하고, 영순이도 못만나고, 덕배도 따라잡지 못하고... 아침에 세웠던 계획은 편대수송으로 하여 죄다 무너져버린셈이다.

날씨까지 운행에 불리하게 눈을 계속 퍼붓는다. 안개령까지 막혔다가는 큰일이다. 눈이 더 내리기전에 한시라도 빨리 가야 했다.

유리담개는 부지런히 움직여 앞차창에 지긋게 달라붙는 눈송이를 밀어던지며 명근의 눈앞을 환히 열어준다.

앞에는 끝없이 뻗어간 눈덮인 도로. 그러나 명근은 속시원하게 차를 몰아갈수 없었다. 그의 뒤에는 늘어진 성미대로 차를 느릿느릿 모는 21호가 따르고있는것이다. 그 차를 타면 졸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없다. 그가 속도를 높이게 하려면 어떤 《채찍》이 있어야 할지 알수 없다.

세번째에 선것은 30호다. 그는 귀가 약간 어두워서 조용히 하는 말은 못듣는 때가 많았으나 차에서 울리는 여러가지 소리는 신기할만큼 잘 가려들었다. 어느사람들이 듣지 못한 소리도 그는 들었고 고장개소를 단번에 찾아내곤했다. 그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잘 듣고 불리할 때는 안듣는다》고까지 했다.

명근은 그런따위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고장난 차를 보면 팔을 걷고 대들어 함께 해주고 자기의 예비부속까지 다 털어주는 그를 명근은 좋아했다.

그뒤에는 79호. 언제나 차상태가 좋고 예비부속품도 제일 많다. 운전기술도 높았다. 그러나 그에게서 예비부속을 하나라도 얻어내는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차관리를 제일 잘하고 계획수행에서도 앞자리이지만(어떤 달에는 소대장보보다도 앞섰다.) 명근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맨뒤에서는 소대장이 편대를 총지휘하며 따르고있다. 경쟁도표의 제일 높은선에 올라앉은 훌륭한 운전사였고 머리와 언변이 좋은 학습강사였고 원칙성있고 인정있는 소대장이었다.

명근은 그에게서 단 한가지만은 흠으로 보았다. 먼거리운행을 떠나 예정보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초조해하고 화를 내며 지어는 애수에 잠기기까지 하는 점이다. 그의 집에서는 결혼한지 석달밖에 안되는 젊은 안해가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언제인가 소대장이 예견보다 하루 늦어졌을 때 수송대로 찾아왔던 근심에 싸인 녀교원을 명근은 본적이 있었다.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녀성이었다....

21 호는 명근의 꿈무늬를 느릿느릿 따라온다.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거리가 벌어지니 다시 속도를 늦추어야 했다. 이들에 한탕은 고사하고 3일에 한탕도 바쁠것이다. 21호의 앞코에 견인쇠바줄을 껴여 막 끌고 내달렸으면 시원할것 같다.

눈발이 흩날리는 길을 내다보는 명근은 안타깝기만 했다.

4

차 한대가 언덕길을 꾸물거리며 기어오르고 있었다. 뒤적재함의 차번호가 93인것 같았다. 93호면 덕배의 차였다.

명근은 서둘러 옆유리를 내리고 바라보았으나 눈발때문에 똑똑히 볼수 없었다. 차는 언덕너머로 사라졌다.

명근은 옆으로 손을 내밀어 21호에게 빨리 따라오라고 신호하고는 차의 속도를 부쩍 높였다. 언덕에 올라서니 약간 내리경사지는 길이 쭉 뻗었고 멀리에서 《덕배의 차》가 가물거리며 달려가고있었다. 도로는 《내리설것이》하기에 좋은 도로였다.

명근은 언덕을 내려서며 변속지레대를 5단에 밀어넣었다. 덕배를 따라잡자. 보란듯이 따라잡고 크게 웃어보자.

차는 바람처럼 내달렸다. 가로수에 쌓여있던 눈이 흩어져내린다. 최대한 긴장된 눈앞으로 좁아진듯한 도로가 맹렬히 줄달음쳐온다. 《덕배의 차》는 점점 가까와진다.

명근은 머리를 밖으로 내밀었다. 세찬 바람과 눈발에 숨이 탁탁 막힌다. 무슨 행사라도 치르듯이 경음기나팔을 길게 울리며 달려가던 그는 차번호를 보자 손맥이 풀렸다. 93호가 아니라 98호였다. 덕배라고 생각했던것부터가 우습다. 그는 이제 안개령에까지도 거의 갔을것이다. 편대로서는 그를 따라갈수 없다. 결코 못따라간다! ...

명근은 뒤를 돌아보았다. 편대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차를 세우고 기다릴수밖에 없었다.

도로는 조용했다. 눈발만이 날렸다. 편대는 시간이 흘렀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멀리에 공장굴뚝이 보이고 산등에서는 6차당 대회결정관찰예로 부르는 당의 구호가 눈발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인다. 그곳에서는 온갖 소음과 움직임이 약동하고있을것이다. 그러나 명근의 주위는 정적과 눈덮인 들판뿐이었다. 고독감이 서서히 그를 사로잡았다. 갑자기 추워졌다.

아스라한 기적소리가 들린다. 전기기관차가 같이 안보이게 길다란 화차행렬을 이끌고 화살같이 달려간다. 당의 구호와 공장굴뚝, 열차는 하나의 맥박으로 숨쉬는듯하고 어데론가 맹렬히 질주하여 가는것 같다.

명근이만이 그 숨결, 그 맥박에서 멀리 떨어져 우두커니 서있었다. 편대는 왜 아직 오지 않을까. 설마 그렇게 멀리 떨어졌을까. 불현듯 자기가 길을 잘못들었고 편대는 다른 길로 하여 이미 멀리 갔을듯한 불안이 조수처럼 밀려들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의아해졌다. 시침과 분침은 그사이 떴어있었던듯했다. 겨우 5분밖에 지나지 않은것이다. 초침만이 재깍거리며 분주히 돌아간다.

그때야 편대가 따라왔다, 소대장은 그의 반가움에 찬 얼굴을 사납게 흘려보았다.

《정신있소? 포장도로도 아닌 도로에서 시속 70키로메터가 뭐요? 눈까지 뽕얇게 쏟아지는 판에! 선두차라는게 ...》

《아, 지금처럼 꾸물꾸물해서야 언제 가겠습니까? 2일에 한탕은커녕 3일에 한탕도 못하겠수다.》

소대장은 그에게 얼굴을 돌렸다. 흘려보던 눈이 바로 돌아와 호기심이 깃든 눈으로 변했다.

《이들에 한탕? 해낼것 같소?》

《하면 하지요 뭐. 그까짓거.》

《좋소. 토론해보지요. 그런 창발적인 생각은 좋소. 그러나 창발성을 발휘한다고 해서 레를 들면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소.》

《.....》

소대장은 79호에게 선두차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명근은 그다음에 서라는것이다. 그뒤에 30호. 소대장은 21호를 바로 자기앞에 세웠다.

《속도가 너무 굵뜨오. 편대의 속도에 맞춰야지,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아서야 어떻게 하겠소? 또 떨어지면 쇠바줄로 꺾어서 끌고가겠소.》

모두들 껄껄 웃었다. 21호는 조금도 성내지 않고 느릿느릿 반박했다.

《교양도 안해보고 끌고가겠다고 하면 되우?》

반룡답이었으나 소대장은 정색하였다.

《교양도 여러가지요. 끌고가면서도 교양하구 밀고가면서도 하고, 언제 앉아서 하품하며 말할 사이가 있소?》

편대는 다시 떠났다. 명근은 79호와 30호사이에 끼웠다. 이제는 속도를 약간이라도 제마음대로 변동시킬수 없다. 앞에도 차, 뒤에도 차, 압착기로나잡에 끼운듯 숨이 막힌다. 때때로 만나는 단독주행차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게다가 79호가 선두차로 나선것이 명근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79호의 꿈무늬를 따라간다는

것이 실었다. 뒤에서는 21호를 독촉하는 소대장의 경적소리가 때때로 들린다.

얼마를 달렸을 때 명근은 79호가 선두차로 적당하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속도계 바늘은 50키로미터에서 고정되었다. 21호를 독촉하던 소대장의 경적소리도 사라진지 오래다.

눈우로 동서남북없이 뛰어다니던 개가 멈춰서서 편대를 멍하니 바라본다. 코잔등에는 눈이 흰 반점처럼 묻었다.

로방에서 뛰어내려 길로 달려나오던 어린애가 할머니에게 도로 붙잡혀 들어가며 발버둥친다...

5

명근의 차가 갑자기 배기관에서 재채기하는듯한 소리가 터지며 속도가 폭 떨어졌다. 기관에서는 기분나쁜 시궁시궁소리가 났다. 작업하지 않는 기통이 있는것이다.

차를 세우고 보았으나 원인을 찾을수 없었다. 배선도 제대로였고 점화전과 배전기점점도 이상이 없었다.

명근은 머리를 기관실에 들어밀 자리가 없어서 그대로 서있는 30호에게 물었다.

《기화기를 뜯어볼까요?》

《글쎄-》

30호는 자신없이 중얼대고는 79호를 밀어내고 제머리를 기관실에 들이밀었다. 손으로 기관을 짚어보며 귀를 기울이더니 말하였다.

《전기장치때문일세. 배전기를 다시 보게.》

틀림없었다. 자세히 보니 배전기뚜껑이 깨어져 실금이 건너가있었다. 거기서 류전되었던것이다. 79호가 감탄하였다.

《차소리 하나는 귀신같이 듣누만!》

21호가 느릿느릿 말하였다.

《귀와 손이 함께 들으니까.》

명근은 그 말이 옳다는것을 깨달았다. 30호는 차소리를 들을 때면 반드시 손으로 짚어보는 버릇이 있었다. 아마도 손에 느껴지는 진동이 귀를 보충해주는것 같았다. 차에 올라앉으면 온몸이 눈으로 되고 귀로 되는 사람이였다.

실금이 간 자리에 구멍을 뚫어 류전되는것을 차단시켜야 했다. 드릴이 없어서 길다란 못을 찾아냈다.

《조심조심 하게.》

《바빠하지 말구.》

주의를 주는 말들은 명근을 더 초조하게만 했다. 이틀에 한탕을 해야겠다고 큰소리치고는 도

리어 온 편대를 지체시키는판이다. 잔등으로는 땀이 흘렀다.

잘 뚫리지 않아 손에 힘을 주는 순간 똑하고 실금이 건너간 자리가 떨어져버렸다.

《아이쿠!》

명근은 아찔했다. 배전기뚜껑은 영 못쓰게 되어버렸다. 소대장은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예비가 없소?》

21호는 한숨을 쉬었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30호는 깨어진 배전기뚜껑을 시름에 싸여 들여다볼뿐이다. 79호는 못들은듯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만 피운다. 심중팔구 예비가 있을것이지만 그에게 《있는것은 곧 없는것》이다.

《별게 다 말쑥인데? 어떡한다?》

하는 21호의 말에 소대장은 툭명스레 대답했다.

《어떻게 한다는게 있소? 가야지. 생산은 곧 수송이고 수송은 곧 생산이란말이요. 우리가 한시라도 지체하면 건설이 어떻게 되겠소?》

그는 언제나 말을 시작하면 이렇게 학습강의하듯이 끝내군했다.

《명근동문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며 대책을 세우기로 하구 떠납시다.》

명근은 그 말에 찬성이였다. 명근이가 소대장이래도 이렇게 하였을것이다. 긴급수송을 지체시킬수 없다. 또 한가지, (입밖에 내어 말할수는 없었지만.) 소대장이 자기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것이 명근은 마음놓였다. 소대장은 21호에게 말했다.

《편대는 동무가 책임지고 떠나오. 난 명근동무와 함께 따라가겠소.》

《?》

명근은 소대장이 떨어질줄은 몰랐다. 그는 펄쩍 뛰었다.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십시오. 나 혼자만...》

소대장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21호가 그에게 다가섰다.

《내가 떨어집시다. 나야 원래 거부기니까 천천히 가는덴 그저그만이지요.》

소대장은 역시 들은척도 안했다. 30호가 명근을 슬며시 몇발자국 뒤로 끌고가 손에 무엇을 쥐여주며 귀속말을 했다. 배전기뚜껑이였다.

《이걸 맞추게. 그리고 떠나라구.》

귀어두운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원래 목소리가 높아 귀속말을 소대장까지 들었다. 21호와 79

호도 기웃하였다. 소대장은 배전기뚜껑을 보고 픽 웃었다.

《제 차에걸 뽐아오면 동문 배전기를 열어놓고 가겠소? 아래돌 뽐아 웃돌 고이는 식이지.》

《……》

79호가 담배꽂초를 밟아끄며 주저주저 말하였다. 시선은 사람들을 피하여 다른데서 허둥거리고 있었다.

《내가 여기 떨어지지요. 같이 수리도 하구…》

소대장은 화를 냈다.

《다 떨어지겠다면 누가 가겠소?》

79호는 한대 맞기라도 한듯 물러섰다.

석대로 줄어든 편대는 곧 떠났다. 소대장은 모닥불을 피웠다. 배전기뚜껑에 아무 수지조각이나 녹여붙여 림시방편으로 써보려는것이였다. 명근은 불을 후후 다가 눈물을 씻었다. 소대장은 히죽이 웃었다.

《편대수송이 쉽지 않지?》

《월요. 그저 좀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건 동무가 단독주행에 습관되어서 그래. 잘 어울리지 못하거던. 호흡을 맞춰야 해… 벼가울을 나가 봤지? 낫질해나가는 대렬에서 뒤떨어지면 얼마나 힘들던가. 힘이 들구, 숨이 가쁘구, 일이 지루하구, 그러나 따라가서 함께 나갈 때면 일이 얼마나 흥겨운것으로 되던가. 그건 집단로동의 룰동과 리듬이, 숨결과 맥박이 자기것으로 되였기때문이야.》

소대장은 늘썩 말을 이렇게 규정지으며 나가기를 좋아하였다.

《편대수송도 같애. 호흡이랄가, 맥박이랄가.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어야 해. 앞으로는 편대수송을 더 많이 하게 될거야. 집중수송, 편대수송의 불길을 더욱 높이라는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거던. 동무도 6차당대회보고를 학습했지?… 호흡을 맞춰야 해. 숨결을…》

《……》

명근은 차주위에 남아있는 무수한 발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섯의 발자국이건만 체바퀴 돌듯한걸보니 수십명이 차결에 왔던듯했다. 그 발자국에, 앞으로 멀어져간 차바퀴자리에 흰눈송이들이 시름없이 내린다. 자연은 마치도 명근이가 잊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옥들우에 부드럽고 흰 꽃보라를 뿌리는것 같았다. …

《아니? 저거 79호가 웬일이야?》

소대장이 앞을 보고 놀란 소리를 쳤다. 명근은 머리를 들자 맹렬히 달려오는 79호를 보았다. 그

는 소대장과 불안한 눈길을 마주쳤다. 79호는 명근의 차를 받아넘길듯이 코앞에까지 와서 뺑-세웠다.

《웬일이요? 왜 도루 왔소?》

하고 소대장이 성급히 물었으나 79호는 바라보지도 않고 명근의 차에 가서 기관실덮개를 왈각 열어제킨다. 명근은 벌떡 일어섰다.

《왜 그래요?》

79호는 대답대신 기관실덮개를 도로 왕하고 내려놓고 자기 차로로 저벅저벅 걸어간다. 발앞에서 눈가루가 날아난다.

명근은 기관실덮개를 올리자 소대장에게 놀란 얼굴을 돌렸다. 새 배전기뚜껑이 맞춰져있는것이였다. 명근은 79호를 따라 달려갔다.

《야! 저건 어디서 얻었어요?》

《얼긴?》

하고 79호는 쓰겁게 내뱉었다.

《내가 아까와서 감춰놓았던거지.》

《이거 정말 고맙수다.》

79호는 손을 책 짓고 운전칸으로 들어갔다.

《흥! 비판해도 시원치 않겠는데 고맙다구? 고맙다는 인사는 아무한테나 하는게 아니야!》

소대장은 아무것도 못보고 모르는듯 눈을 끼여 모닥불을 끄는데만 골몰해있었다. 떠오르는 연기와 김때문에 얼굴을 찡그려 웃는지 성냈는지 알수 없었다.

6

안개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퍼그나 깊었다. 눈은 황혼과 함께 멎었었다. 소대장은 려관에서 폭 자고 아침 일찍 떠나자고 했으나 모두들 령을 넘어가서 쉬자고 주장했다. 명근은 누구보다도 강력히 주장했다. 다섯명중에서 제일 령 넘기를 바라는 사람이 소대장이라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한시각이 급한 물동이였다.

명근은 령을 넘지 않고는 잠이 올것 같지 않았다. 령너머 마을에는 영순이가 있었다. 그 역시 눈덮인 령길을 보며 명근을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들은 령을 오르기전에 물과 연유를 보충하려고 려관앞에서 차를 세웠다. 려관으로 들어가는 길목과 마당에는 10대나 되게 차들이 들어찼다. 래일아침에 령을 넘기로 작정한 차들일것이다.

그들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던듯 방문이 벌컥 열렸다. 다부진 체격의 사나이가 문설주를 비좁게 채우며 내다보았다.

《어서 들어오시우! 방안이 뜨끈뜨끈합네다-!》

뜻밖에도 덕배였다.

《덕배동무!》

《오- 명근인가? 종내 따라온셈이구만.》

《어떻게 된거예요? 이젠 다 갚을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박혔네. 좌우지간 들어오게, 몸이나 녹이구 식사도 못했겠지?》

그때 부엌쪽에 붙은 작은 방에서 짜증난 녀인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좁은 방에 자꾸 들어오기만 하면 자리가 있어요? 식사도 이젠 없어요!》

명근은 아연해졌다. 소대장이나 다른 사람들도 너무 로골적인 푸대접에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차를 몰고다니면 어디서나 반갑게 맞아주는데 습관된 운전사들이었다. 79호는 그 점에 대하여 《자동차로 무엇이건 실어줄수 있기때문》이라고 했고 소대장은 《수송전선을 전당 전민이 지원해 나선 한측면》이라고 했었다.

그들은 려관에 들어갈 생각은 애당초 없었으나 21호는 눈을 깜쩍거리고 늘어지게 대답했다.

《밥이야 얼른 하면 되는거구 방이 좁은거야 뭐. 모다구가 나무에 구멍이 있어서 들어갑네까?》

방안과 마당에서 와그르르 웃음이 터졌다. 덕배가 몸을 돌리자 방안이 들여다보였다. 열명이나 되는 운전사들이 장기관주위에 모여앉아있었다. 장기가 벌써 수십판은 거듭된 모양으로 방안은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덕배의 머리우로 더운 김과 담배연기가 굴뚝처럼 쏟아져나온다.

웃음소리가 잦기도전에 녀인의 목소리가 지지 않고 울려나왔다.

《밤새껏 밥이나 하다가 말겠어요? 다른 려관에 나 가보세요.》

예리한 목소리는 30호의 귀에도 제대로 전해졌다. 그는 불끈해서 부엌문쪽으로 다가서며 소리쳤다. 원래 높은 목청이어서 삽시에 녀인의 목소리는 쑥 들어가버렸다.

《뭐요? 방안에 앉아서 내다보지도 않구. 우린 아무것도 필요없소. 령을 넘을 물을 얻으러 왔단 말이요!》

덕배는 놀란듯 령을 정말 넘으려는가고 묻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못넘어가오.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차바퀴가 굴지 못한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넘다

넘다 맥이 빠져서 도루 내려오고말았소. 래일아침에 눈치는 차가 오면 넘는수밖에 없소.》

명근은 존경해오던 덕배였으나 이때는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린 지체하면 안되는 긴급자재인데요.》

《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알아보니 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짐이야. 그런들 어찌겠나. 이렇게 못박혔으니.》

명근은 그의 말을 더 듣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획 돌아서버렸다.

소대장이 턱으로 령길쪽을 가리켰다.

《난 저 령길에서 한 처녀를 만난적이 있소. 처음은 차를 쳐다보며 웃음짓는 그에게 울퉁불퉁한 길바닥에 고인 눈감탕을 끼얹는것으로 알게 됐소. 나는 물론 돌아도 못보고 도망쳤지.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 그 처녀가 그곳의 도로수리를 하고있지 않겠소? 나에게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더라 말이요. 6차당대회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동차수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로를 잘 정비하라고 교시하시었는데 자기네는 마을옆의 도로도 보살피지 못했다고 하는것이였소.》

그 처녀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아름답게 안겨왔다. 명근은 령너머마을이라는 말에 가슴이 세차게 울렁거렸다. 마지막말은 처녀가 아니라 소대장이 그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같았으나 처녀의 행동과 말은 그들을 감동시켰다.

소대장은 할말이 더 많은듯했으나 손으로 어둡에 싸인 령길쪽을 가리키며 엄청나게 말을 비약하였다.

《넘어야지?》

명근이와 30호가 대답했다.

《넘어야지요!》

말조차도 느린 21호는 그들이 대답한 다음에야 생각에 잠겨있던 79호와 함께 웅얼댔다.

《그까짓거!》

편대는 주저없이 려관앞을 떠났다. 방안에 있던 운전사들은 모두 토방으로 나와 불안스런 자세로 서있었다.

《실컷 못박혀있게 장기군들같으니!》

하고 중얼대며 명근이 돌아보니 이제껏 닫겨있던 부엌문이 열리고 두 녀인이 서있었다....

중턱에 채 못미쳐서부터 령길은 무릎을 치는 숫눈길이었다. 차를 멈추고 눈을 치기 시작하였다.

령마루까지는 아득하였으나 명근은 일감이 조금도 아득해보이지 않았다. 다섯이면 얼마든지

넘을수 있을것 같았다. 지난해에는 눈덮인 령길을 올려다보기만 해도 얼마나 아득했던가...

《그 체네레 괜찮거던!》

하는 21호의 늘어진 갑탄, 싸우는듯한 높은 목소리로 30호가 룡담을 던진다.

《우리 명근이하구 맞세우는게 어떻소?》

《기울진 않을걸.》

하고 79호가 맞장구치자 소대장은 학습토론 결론이라도 짓듯이 엄숙하게 대답한다.

《다 계획이 있소.》

웃음소리, 씨근대는 숨소리. ... 비록 다섯명이지만 혼자일 때보다 다섯배가 아니라 오십배 백배의 힘을 내는것 같았다.

한참 눈을 치며 올라가는데 차 한대가 부리나케 령아래에서 올라왔다. 덕배였다. 그는 적재함에서 눈가래를 내리웠다.

《못박혔다더니 빠져나왔구만.》

하는 21호의 지곳은 룡담은 못들은척 묵묵히 눈치는데 끼여들었다. 명근은 아까 그의 앞을 홀떠나버린것이 미안하여 룡담으로 한마디 했다.

《태일아침에 넘겠다더니...》

덕배는 정색하여 말했다.

《이상하더란말일세. 아까는 이력저력 차가 열대나 모였는데도 령을 넘을 자신이 없었는데 자네네 편내가 썩-하고 올라가는걸보니 틀림없이 령을 넘을것 같더란말일세. 어데 앉아있을수가 있어야지.》

잠시후에 령아래에서 전조등불빛이 무리지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열대는 잘되어보였다. 덕배는 절절 웃었다.

《장기군들이 오누만!》

《장기군》들까지 올라오자 령길은 떠들썩해졌다. 일은 부쩍부쩍 자리났다. 모닥불을 피웠으나 10분도 못되면 멀어지군하여 집어던지고말았다. 소대장은 환영못받는 《화구당번》을 그만두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려관의 식모들이 올라왔다. 흰보자기를 덮은 밥함지를 이고 손에는 김이 오르는 국통을 들었다. 30호가 얼른 뛰여내려가 받아들고 올라왔다.

《아까 문도 열어보지 않을 때 같아선 평생 상종을 안하러 했더니...》

《또 끝이 없는 장기군들이 왔는가 했지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두 녀인은 그릇 주위에서 돌아쳤다.

《자- 밥들이나 자시구 또 하시라구요. 절절 굶는 고기국이예요.》

소대장은 손을 내밀며 수고한다는 인사를 했다. 녀인들은 머리를 저었다.

《이렇게 하는게 하루밤 폭 잔것보다 마음이 더 편안해요. 거게서야 바늘방석에 누운것 같아서 원.》

얼마후에는 령아래마을사람들이 눈가래를 들고 올라왔다. 리관식모들이 떠들썩하여 그들의 잠을 깨워놓은것이였다.

《자- 빨리 부쩍 다그쳐야지 령너머마을한테 진다.-!》

하는 말에 명근은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령너머마을이라면 영순이가 있는 마을이다. 그를 만나게 된다. 영순이를! ...

령너머마을에서는 반대쪽으로 령길을 쳐올라 오고있다는것이다. 이쪽의 소식을 듣고 모두 떨쳐나섰다고 한다.

차는 마침내 령마루에 올라섰다. 그와 함께 령너머에서도 올라섰다. 모두들 환성을 올렸다. 고지라도 하나 점령한듯했다.

7

눈부시게 흰 은빛의 령을 타고 눈친 도로가 검은 피처럼 구불구불 흘러내려갔다. 명근은 령너머마을 사람들속에서 영순을 찾아보았다.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일에서 빠질 영순이가 아니었다. 왜 없을까...

소대장도 자기가 아는 처녀를 찾는듯 연신 두리번거리고있다. 명근은 자기 차옆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영순이는 왜 없을까...

《명근동무...》

귀익은 나직한 부름에 명근은 획 돌아보았다. 영순이가 뒤에 서있었다. 눈동자에는 하이얀 눈에 덮인 산발이 비졌고 입가에는 반가움에 찬 미소가 가득 어렸다. 명근은 세차게 울렁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

《수고하셨어요. 기어이 넘어왔구만요.》

《...넘어왔소...》

감빛 머리수건은 한없이 폭신하고 부드럽고 따뜻해 보인다. 머리수건에서는 녹은 눈송이들이 구슬같은 조그만 물방울로 반짝거린다...

《명근동무가 왜 보이지 않소? 출발해야겠는데...》

하는 소대장의 말소리는 《췌》하는 소리에 푹 끊어졌다.

《저기 차옆에 있소.》

30호였다. 비밀처럼 하는 말인데도 명근이와 영순의 귀에까지 들렸다.

《한 처녀를 만났는데-》

귀가 어두운 대신 눈이 밝은 30호였다.

《처녀를?!》

하고 부르짖으며 소대장이 목을 쑥 뽑는다. 그는 명근이와 마주선 영순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어마나!》

영순은 기겁하여 길옆의 숲속에 숨어버렸다. 명근은 안가는척하며 그를 따라갔다.

영순은 오리나무뒤에 서있었다. 이따금 나무에서 흰눈이 머리위로 쏟아져내린다.

《우리 소대장동무를 아오?》

《예, 그때 한번 길에서...》

《그렇소?!》

《왜 그렇게 놀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영순에게서는 전번과 같은 불안스러워하고 초조해하던 거동을 찾아볼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는것도 잊은것 같았다.

《전번에는 무슨 급한 일이 있었소?》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가라고 재촉했소?》

또 나무에서 눈가루가 쏟아진다.

《모르겠어요...》

《.....》

《명근동문 왜 그렇게 바빠했어요? 불안스러워 보이구, 초조해하구...》

《내가!》

사실 그랬던것 같기도 하다. 무엇인가 그를 오래동안 지체할수 없게 하는 감정이 있었다.

《왜 그랬어요?》

《모르겠소...》

여기저기 나무들에서 흰눈이 한뭉치씩 흩어져내린다. 마치 밤새 폭 자고난 나무들이 몸을 뒤척거리보는것 같다. 소나무의 푸른 잎새들에서, 겹우산같은 층층나무의 가지에서, 붓나무의 은백색 가지에서 눈은 한덩어리씩 두덩어리씩 쏟아져내린다. 숲속에 또 한차례 눈이 내리는것 같다.

경적소리가 길게 울렸다. 명근은 시계를 보았다. 벌써 30분이 지났다. 소대장의 출발준비신호였다.

《이젠 가야겠소.》

나무우에서 눈이 쏟아져내렸다.

《이렇게 빨리요?》

경적소리가 또 울렸다. 영순은 한숨을 쉬었다.

《저 소대장동문 인정도 없는가봐요.》

《저런! 30분이나 기다려주었는데두?》

《겨우 30분...》

영순은 5분도 못되어 떠나라고 재촉하던 자기를 잊은것 같았다. 명근은 웃고말았다. 영순은 웃지 않았다. 대체로 그는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전에보다 몇배로 더 반가와하였지만. ... 영순의 가슴속에도 웃음만으로는 표현할수도 음미할수도 없는 그런 류다른 기쁨이 자리잡은가보다...

명근은 차에 올랐다. 손제동기를 풀며 숲쪽을 바라보았다. 호리호리한 붓나무밑에서 감빛머리수건이 보이고 나무우에서는 눈가루가 흩어져내린다.

《자- 한바탕 내리굴러보세 출발!》

편대는 물결처럼 령길을 굽이쳐내린다. 다섯대가 아니라 열다섯대도 넘는 편대이다. 덕배도 《장기군》들도 편대를 따라섰다.

행군하던 군인들이 전우라도 만난듯 손을 저어준다.

《수송전선이 행군하네!》

《길이 들썩들썩하누만!》

멀리에서 건설장의 탐식기중기들이 숲처럼 솟아오르고 산발은 차가 달리는대로 영광스러운 당이 제시한 구호를 대문짝같은 글자로 펼쳐놓는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자!》

명근은 단독주행을 하며 영순을 만났을 때 초조해지던것, 영순이가 불안스러워하던것 그리고 편대와 떨어졌을 때의 고독감을 회상했다. 만일 당의 숨결, 시대의 맥박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불안과 고독은 언제나 따라올것이며 그는 자신을 무력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로만 느끼게 될것이다! ...

앞에 굴러가던 차 한대가 얼른 옆으로 비켜선다. 운전사는 차를 멈추고 지나가는 명근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무척 외롭고 측은해보인다. 동정해주고싶을 지경이었다.

마주오던 차들은 벌써 스무대도 넘는 편대의 행렬을 보고 서둘러 길옆에 붙어 멈춰선다. 령결차를 달고오던 프락또르는 꿈무늬를 길에서 치우느라고 분주히 통탕거린다. 길을 흰하게 띄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도로우에 짐중수송, 편대수송의 불길을 일으키며 회오리바람처럼 달려가는 편대앞에서 길을 내주지 않을수 있단말인가...

명근은 얼마후에 뒤를 돌아보았다. 길옆에 차를 내세우고 기다리던 운전사가 편대의 뒤에 한성원처럼 따라서고있었다. ...

새출발

리 화

먼길을 걷는 사람은 목적인곳에 속히 가닿기 위하여 지름길을 택하기마련이다. 그러나 초행길을 걷느라면 길손들이 바라는것처럼 노상 곧바른 길로만 가게 되지 않는다.

한발자국이 새로운 그러한 때에도 왕창같은 길을 헤매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것이다. 그럴적에는 공연히 다리땀을 뻘 일이 얼마나 어이없고 분하던가. 하지만 문제로 될건 없다. 교훈을 찾았으니 다음부터는 지름길로 가면 될테니까.

그러나 청춘의 길은 한번 잘못 걸으면 시정할 수가 없다. 잃어진 시간을 다시 찾을길이 없는것이다. 여기에 생활의 첫발자국을 내디디는 사람들이 지기의 앞길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것이다.

무엇때문에 나는 짧은 소설의 첫머리에서 이런 긴 사실을 늘어놓고있는것이라. 체법 나도 이젠 생활이 어떻다는걸 말할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이려는건가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나는 고등기상전문학교를 함께 다닌 한 동창생이 체험한 생활의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이 이려는것이다.

나의 학우 정상결은 성격이 쾌활하고 마음이 후할뿐더러 어떤 경우에도 성을 낼줄 모르는 호남아였다. 하지만 그의 학업성적은 언제나 창피를 면할 정도의 어정쩡한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애써 공부하면 능히 좋은 성적을 쟁취할수 있겠지만 느렁느렁하면서 어느 한 과목도 과고들려하지 않았다. 동무들은 이를 안타까와하던 나머지 화를 내며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보기도 했다.

《이 썸평종은 능구렁이야, 쑥스럽지도 않아. 매번 최우등을 놓지 않는 어린 처녀들보기가 민망하지도 않은가말야.》

그러면 상결은 난처한듯 낯이 빨개지면서 반죽 좋게 대꾸하는것이였다.

《허허, 비판이 대단한걸, 채심하겠네. 분발해보겠어.》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는 한동안 공부에 열성을 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맥을 놓고만다. 하여 그는 전문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끝내 그 운명적인 보통생대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스스로 자기앞에 남다른 목표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는 나에게 언지시 자기의 속심을 비친적이 있다.

《난 그저 평범한 관측일군이 될 생각이네. 성실한 자료제공자에게도 만족스러운 생활이 있는게 아니겠나.》

그리고는 히죽이 웃는것이였다.

(하긴 그래,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 능력과 희망에 따르는 생활의 목표가 있는게 아니랴.)

우리는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그에게 더는 충고를 주기를 그만두었다.

졸업후 그는 자기가 바라던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의 기술자들이 매우 부족했던만큼 학업성적이 그의 배치에서 큰 문제로 되지 않았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적지 않은 동무들이 해양연구소나 도기상예보소 같은곳으로 배치하듯 찾아갔지만 그는 서해의 외진 섬인 박섬 해양관측소 소장으로 임명을 받은것이다.

농촌이 고향인 그는 부모의 주선으로 한마을에 살던 건강하고 맘씨 무던하고 일 잘하는 수수한 처녀와 결혼했다. 여느 관측일군들은 박섬이 물에서 오십여리나 떨어진 외딴 섬이라고 하여 가족들은 도소제지에 뒀두고 섬에 건너가 석달이나 반년씩 일하고는 교대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상결은 아예 섬에 뿌리를 내릴 심산으로 이사짐을 싸가지고 안해와 동부인해서 박섬으로 건너갔다.

박섬해양관측소의 사업이란 가슴답답하리만큼 따분하고 단조롭기 그지없는것이였다. 하루 네번 정해는 시간에 섬교송이의 관측탑에 나가 바다물의 수위와 수온, 염도 등을 측정하여 일지에 기록하고 매주 도기상예보소에 주보를 올려보내는것, 이것이 그들의 사업의 기본을 이루고있었다.

이런 규칙적인 일파를 일년열두달 단하루도 빠짐없이 그것도 한해가 아니라 수년동안, 아니 일

생동안이라도 계속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혹자들같으면 이런 박섭에 일년도 놀러있지 못하여 물으로 건너가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이다.

정상걸이라고 어찌 이런 생활이 달갑기만 하였으랴. 그러나 불필요한 욕망으로 자기를 괴롭힐 필요는 없었다. 환경에 빨리 순응하는 사람만이 합리적인 생활을 꾸밀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상걸은 말은 일을 책임적으로 주인답게 수행해나갔다. 때로 《기상수문》 잡지에서 동창들이 쓴 론문들을 볼 때면 가슴속에 꿈틀하고 솟구치는것이 있어 한동안 기술문헌 탐독에 시간을 바치기도 했다.

이마적부터 도기상예보소에서는 정상걸을 박섭해양관측소의 나무랄데없는 좋은 일군으로 여겼다. 맘씨 무던한 그의 안해 또한 관측원이 되어 남편의 사업을 성심껏 도왔다. 사람들은 그들을 《박섭의 원앙새관측원》이라고 불렀다.

상걸은 마음이 유했을뿐더러 생활을 즐길줄 아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관측을 끝낸 다음에는 물넉에 나가 조개며 소라도 주어오고 낙지도 잡아왔으며 물에서 손님들이 건너오면 새총을 돌려메고 남재기판에 나가 종도요를 두름으로 잡아가 손수 날짐승고기중의 제일미라고 하는 도요새요리를 만들어 상에 내놓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복스러운 두 아들이 태어났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배불리 먹은 애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웃고떠든다.

이런 저물녘이면 그의 집에서는 정상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자주 터져나왔다. 그것은 더는 바랄것이 없는 만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태평한 사람들에게서만 흘러나올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다.

이러는 가운데 머리를 썩이며 그 무엇을 연구해보려는 욕망같은것도 어느사이 스러져버리게 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얻어지는 이 모든 즐거움에 깊이 젖어들기때문에 그랬는지...

정상걸은 이렇게 박섭에서 십년을 일해왔다. 아마 도기상예보소에서 7 해양관측소장으로 그를 임명한다는 통지가 없었다면 그는 일생이라도 박섭에서의 해양관측사업을 즐겨 계속했을것이다.

상걸은 이 돌발적인 처사가 달포전 도기상예보소 소장이 섬에 지도사업을 나왔던 일과 관련된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했다.

대학을 나온지 몇해 안되어 새로운 예보식을 내놓아 준박사자격까지 받은 도예보소 소장은 이전 소장과는 달리 아래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맡겨진 일을 수직수직 해내는 사람보다 사소한것 일지라도 새것을 보낼줄 아는 사람들을 더 중시하는것 같았다.

그는 사업에 착수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지어 엇그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측실에 배치되어온 어린 처녀들에게도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도서를 볼수 있게 외국어를 배우라고 타일렀으며 머리를 쓰고 기술혁신안을 내놓을것을 주장했다.

그는 나이가 많은 기수들까지 들추어내어 기술발전과제를 떠맡기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거든 스스로 기수자격증을 내놓으라고 울려대는 판이었다.

이런 그가 지난 봄 불쑥 박섭에 나타났다. 도예보소 소장은 박섭을 한바퀴 돌아보고는 미간을 찌프리며 날카로운 말로 상걸을 사정없이 조여대는것이였다.

《이게 무슨 꼴이요. 동무는 창의고안을 하는것은 고사하고 수위관측계를 자동식으로 개조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구만. 이렇게 어름어름 살아가는게 부끄럽지도 않소? 지금 공장에서는 일반기능공들도 일년에 창의고안 한두건씩 하는걸 웅당한것으로 여기고있소. 그런데 동무는 어엿한 기수자격을 가지고있는 기술자가 아닌가말요. 수직수직 시키는 일이나 하면 성실하다고 평가받던 그런 때는 지나갔단말요...》

상걸은 난생처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낮이 벌개졌을뿐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공순히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대꾸했을뿐이다.

일이 될 때라 얼마 안있어 도기상예보소에 자동수위관측계가 많이 들어왔다. 하여 박섭에서도 그걸 선참으로 받아오게 되었다. 상걸은 두팔을 부르짖고 나서서 자동관측계를 섬관측소에 설치했다.

바위를 까내고 새 관측계를 설치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던가. 이것만으로도 그는 자기 사업을 개선했다고 위안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도에서는 박섬해양관측소 사업에 대하여 칭찬하는 일이 없어졌고 여기에는 그 어떤 생활의 침체가 있는듯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득 도기상예보소의 코밀에 있는 항구 관측소 소장으로 그의 조동문제가 제기된것이다. 새로 온 도예보소 소장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상결이 같은 사람은 바꾸 앉혀놓고 방조를 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정된 모양이다.

중도록 하라지, 어디 좋은 사람을 골라서 박섬 소장으로 임명해보래, 둘째며느리 맞아봐야 맘먹느니 귀한줄 알지 않나.

상결은 뒤숭숭한 마음을 건잡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그런 내막을 알리 없는 철없는 아이들은 그저 뽀뽀뽀뽀하는 자동차, 기차를 타고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좋아라 야단이다.

안해까지 맞장구를 쳤다.

《마침 잘됐어요. 우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는걸 생각해서 그러는것 같군요.》

《그런가보우.》

상결은 달리 응대할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며칠전에는 배편에 가족들과 이사짐을 실러보내고 새 관측소장이 오기를 기다리는중이었다.

마침내 고대하던 날이 왔다. 정상결은 십년전 그날 자기가 배를 타고 박섬에 처음 내렸던 병꽃나무 들판에서 교대자를 맞이했다.

초여름의 해빛 눈부신 아침녘이었다. 자그마한 발동선이 선창에 배전을 대이자 밤빛려행용 가방을 든 애리애리한 청년이 성큼 이쪽으로 건너섰다.

《정상결동지시지요?》

청년은 두눈을 유쾌하게 빛내이며 먼저 알은체를 했다.

《그렇수다. 오실래게 수고했수다.》

상결은 선배답게 틀지고도 의젓하게 응대했다.

몸매 호리호리하고 두눈이 령리한 그 청년은 자기의 이름이 최병일이라고 소개를 했다. 그리고는 사뭇 존경어린 눈매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허허, 수곤 무슨 수고겠소. 난 그저 맡겨진 임무를 힘자라는것 수행했을 따름이요.》

상결은 등실한 얼굴에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는 섬의 주인답게 (그는 아직 그렇게 생각했다.) 손님의 트렁크를 들고 앞장 서서 걸었다. 그러면서 언지시 말을 꺼냈다.

《앞으로 수고하게 됐습니다. 외진 섬이라 여기 생활이 적적한건 사실이지요.》

그는 눈길을 들어 물안개 아물거리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정녕 그 누구나 이런 외진 섬에서 십년을 하루와 같이 일할수 있는것이 아니잖는가. 하기에 그의 이 레사로운 말에서는 이제까지 하여온 사업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까지 풍기었다.

관측소까지는 술밭사이로 난 오솔길이 있었다.

그러나 정상결은 물넉으로 난 모래사장을 따라 최병일을 안내했다.

사박사박 발밑에서 속삭이듯 울리는 모래 밟히는 소리를 들으며 호젓한 바다기슭을 걷는것이 그가 새 사람에게 섬관측소에서 살아온 자기들의 생활에 대하여 심상하게 이야기할수 있는 가장 적당한곳이라고 여겨졌기때문에 그랬는지 모른다.

이때 그와 나란히 걷던 최병일이 불쑥 말을 꺼냈다.

《사실 전 오래전부터 소장동지를 만나보고싶었습니다. 정말 소장동지가 박섬에서 관측한 수온자료는 얼마나 귀중한것이였겠습니까.》

《?!》

정상결은 두눈을 슴벅이며 소년같이 순진한 최병일을 뻔히 쳐다보았다. 병일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난해 가을이었지요. 졸업론문을 쓰려고 기상수문국 해양처에 찾아갔던 저는 행복하게도 박섬해양관측소에서 보내온 10여년동안의 관측일보를 분석해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참으로 근면한 로력의 열매였습니다.》

《허허, 그거야 뭐.》

상결은 너그럽게 웃었다. 그러나 그가 별치 않게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그것이야말로 이 마당에 와서 그의 사업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것이였다. 그는 최병일의 말이 싫지 않았다.

병일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소장동지가 보내온 그 귀중한 관측자료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저녁엔 거기에서 박섬수역의 바다 물온도가 하나의 법칙성을 가지고 반복되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귀중한 단서로 되어서 해연안의 수온예보를 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을 수 있었지요.》

《그래요?》

상걸은 뜻밖의 희한한 소식에 은근히 놀라면서도 반가운듯 말했다. 최병일은 빠른 말솜씨로 계속했다.

《금년봄에는 그걸 리용하여 서해 멀치떼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미리 알려주어 물고기잡이에 일정한 기여를 할수 있었습니다. 소장동지의 그 꾸준한 로력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둘수 있었겠습니까.》

애젊은 소장은 그다음에도 정상걸이 해양처에 올려보낸 관측일보에 대하여 많은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허어 그래요!》

또다시 이렇게 웅대하는 상걸은 어느때보다도 천연스러웠다. 둥그스레하고 무던해보이는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에는 그것 참 훌륭한데요. 거기에 것처럼 중요한 나의 성과도 들어있다니 기쁩니다. 그러게 그런 새것에는 충실한 관측일군의 로력이 필요한것이겠지요. 라는 뜻이 어려있는듯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는 새 사람에게 터놓으려고 미리 준비했던 이야기의 실머리를 더는 찾을수가 없었다.

상걸은 새 소장을 산비탈의 아담한 단층집으로 안내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그동안 자기가 유지해온 박섬에서의 사업일정에 대하여 병일에게 들려주었다.

이윽고 그를 데리고 섬코숭이의 관측탑으로 내려가 인계검 제정된 관측을 하였다. 그들이 관측 소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였다.

최병일은 섬으로 가지고 온 살림살이세간의 전부인듯한 큼직한 려행용 가방을 열었다. 상걸은 병일의 어깨너머로 던지시 눈여겨보았다.

(어썩싸, 무엇이 들었길래 그리도 무거운가 했더니 온통 책들이었구만.)

그중에는 상걸이 아직 표제조차 본적이 없는 해양과학기술도서만도 이십여권이 넘을것 같다. 그런데 저 소형전자계산기는 무얼 하자는걸가.

이 청년은 여기서 제법 본격적인 과학연구사업을 할 차비가 아닌가.

그러나 려행용 가방의 맨밑에서 표지를 정성들여 한 논문이 나왔을 때 상걸은 하마트면 어디 그걸 좀 볼수 없는가고 청을 할반했다. 상걸은 전에 없던 이런 호기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불현듯 손님에게 다리침을 하라고 이르고는 밖으로 나와 토방구석에 놓아둔 조개캐는 고개를 집어들고 물넋으로 향했다. 어쩐지 조용한 곳에 혼자 있고싶어졌다.

물이 찌는 개펄로 들어서던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나의 관측자료에 그런 법칙성이 있었다구?》

그는 지금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해명해보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도리머리를 했다.

(그건 나의 성실성에 대한 응당한 표창이 아닌가. 그러니 기뻐하면 그만이지 다른 생각을 할게 있나. 그렇지 않구. 그제 나의 생활과 다른 인연이 있을수 없지)

상걸은 자기 마음속으로 새바람처럼 기여드는 이런 생각을 밀어던졌다. 이제 그런 문제를 두고 더는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듯 팔을 뻗 내저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밭밑에서는 개펄이 번들거렸다. 그의 눈매는 어느덧 이제 맛보게 될 기묘한 지게미(일명 서해 낙지라고도 함)잡이의 해감을 그린듯 즐겁게 빛났다.

자그마한 돌이 놓인곳에 물이 증병히 피었는데 그옆의 계구멍같은곳에 푸르스레한 물줄기가 알릴듯말듯 눈에 띈다. 그 언저리에 미끈한 몸자리가 난것으로 보아 지게미구멍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고 주위를 살핀다, 꽤 많은 지게미는 나드는 구멍도 교묘하게 파놓지만 언제나 은밀히 빠져나갈수 있는 뒤구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로련한 지게미잡이의 손탁에서는 어디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것이다.

(옳지, 네놈이 보이지 않는 물밑의 조잡지옆에 썰구멍을 내놓고있구나.)

그는 그 썰구멍을 발뒤축으로 꼭 눌렀다. 반대쪽 나들구멍으로 물이 샘솟듯한다. 상걸은 느슨한 미소를 짓는다.

놀란 지게미가 어디쯤 있으리란걸 눈에 보는데 짐작한 그는 고개를 번쩍 들어 감탕을 푹 찍었다. 지게미의 퇴로를 차단한 그는 물구멍으로 손을 쑥 들이민다. 갈데 있나 손에 물큰한것이 잡힌다. 그는 손등에 찍 달라붙은 지게미를 집어든다. 지게미구멍은 아흔아홉가지란 말이 있지만 그의 숨씨는 백가지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상결은 한 설참에 꿰미가 처지도록 지게미를 듬뿍이 잡아들고 허리를 폈다. 그는 물넋으로 나와 바위홈의 고인물에 발을 잠그었다. 그러나 발을 씻을념은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이때였다.

《여기서 무얼 하십니까?》

등뒤에서 울리는 소리에 머리를 뒤로 돌렸다.

바위옆에 최병일이 서있었다.

《허허 어떻게 나오셨소.》

낫색을 고치는 그의 표정은 어색했다. 그가 전에 없이 생각에 잠기게 된것이 이 청년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최병일은 바위에 뉘여놓은 지게미꿰미를 쳐들며 말했다.

《괜찮은데요.》

《그러므로, 이 재미도 쓸쓸하지요. 지난해 여름 저앞의 개펄에서...》

늘 하던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던 그는 말을 푹 끊어버렸다. 그는 그 개펄에서 투망으로 어린애만한 농어를 덮친 일이며 섬코숭이의 물살 빠른 기슭에 천연의 닭알 못지않은 민어굴이 비늘처럼 박혀있다는데 대하여 말하려 했다.

그러나 이 청년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자기 생활의 리면을 드러내는듯싶어 곧 입을 다물어버렸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최병일은 재촉하듯 물었다.

《그 개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 그저 그런 일이지요.》

상결은 시답지 않게 중얼거렸다.

두사람사이의 어성버성한 기분은 점심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가셔지지 않았다. 상을 물리고난 그들은 사무실로 나왔다. 폭양에 달아오른 한낮의 더운 공기가 숨막히게 방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들은 바다쪽으로 난 창문가에 마주앉았다. 사업인게랄것도 없지만 어쨌든 필요한 형식상의 일이 끝난 뒤라 그들은 별로 할말이 없었다.

가까운 풀숲에서 매미의 울음소리가 울려왔다. 《땀땀매-로-》 그에 화답하듯 이름모를 풀벌레 소리도 정겨웠다. 그것은 여기에서 흐르는 시내처럼 잔잔하게 흘러간 상결의 지난 생활들을 쉽없이 불러내주는듯했다. 그는 어느때까지나 이래로 앉아있고싶었다.

이때 병일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그의 곁으로 다가섰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는것 같더니 상결이앞에 다가섰다.

《이걸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고개를 든 그는 아까 눈여겨두었던 그 논문이 자기앞에 있는것을 보았다.

《고맙습니다.》

저도모르게 논문철을 집어든 상결의 가슴은 설레었다. 어느 한때 그도 섬해양관측에서 이런 새로운것을 탐구해보려고 시도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자신은 섬에 십년이나 눌러있으면서도 해내지 못한 그것을 이 청년은 어떻게 해결한것일까, 호기심이 부쩍 나기도 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논문을 펼쳤다. 책상바투 다가앉으며 머리를 숙이였다. 한장 또 한장, 주의깊은 눈매로 논문을 들여다보는 상결의 등실한 얼굴에 긴장하면서도 초조한 빛이 얼른거렸다. 자기를 지켜보는 최병일조차 잊었는지 한손으로 턱을 고이고 정신없이 논문을 읽어나갔다.

마지막 페이지를 번진 정상결의 얼굴에는 착잡한 빛이 었었다. 그는 그 어떤 실망에 잠긴듯 쓸쓸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정상결은 최병일의 논문을 읽은것을 후회했다. 차라리 이것을 보지 않고 박섭을 떠났어야 맘 편했을것이다. 영원히 이것을 모르고 여기를 떠났더라면 그래도 지난 10년을 외진 섬에서 떳떳이 살았다고 자부하며 지낼수 있을는지 모른다.

아니 내가 못본체한다고 이것이 없어질수 있을가.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덮어놓았던 논문의 어느 한 페이지를 펼쳐놓고 고개를 숙였다. 두려운 마음을 견잡지 못하며 년도별 바다물온도곡선표를 대조해보았다.

그것도 못미더워 예보결과수치와 최근의 바다 물온도의 관측자료를 비교해보기까지 했다. 얼마나 실통한가. 그것은 거의나 차이가 없는 수치다.

상결은 쓰라린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가, 만약 그가 자기의 관측자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보았다면, 아니 그런 초보적인 연구태도는 고사하고 한 해에 한번씩만이라도 년간수온표를 곡선으로 그어 대조하면서 그를 깊이 고찰해보았다면 그 역시 이 법칙성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을것이 아닌가. 한데 어찌하여 그는 이렇게도 명백한 법칙성을 보지 못했느냐말이다.

정상결은 이날 어떻게 새로 온 청년에게 박섬 관측소사업을 인계했는지 모른다.

그는 섬을 떠나기에 앞서 관측소 출입문에 한 쪽어깨를 기대인채 새 소장이 자기의 책상에 앉아 관측일지를 쓰고있는양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 청년은 그 얼마나 크나큰 포부와 양양한 미래를 안고 창조의 첫걸음을 내디디고있는가.

그는 박섬해양관측소를 하나의 과학연구실로 삼고 이 수역에서 생겨나고있는 파도현상이며 안개의 원인들을 해명할 작정이라고 했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이 앞바다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될 간석지개간이며 대륙붕개발에 필요한 해양자료를 책임지고 해결할 결심인것이다.

포부가 큰 청년이다. 그가 내디딘 착실한 첫걸음으로 미루어보건대 이 청년이 결코 자기의 결심을 빈 공담으로 되게 하지 않으리란것을 확신할수 있지 않는가. 상결은 이 청년의 첫걸음이 몹시도 부러웠다.

그 생각이 가슴깊이에 젖어들수록 쓰라린 후회의 감정을 어찌할길이 없었다. 그가 그리도 생활이 충만되었다고 생각했던 박섬관측소에 바로 이것, 자신의 운명을 당과 혁명을 위해 송두리채 바치려는 녀이 부족했던것이다.

새생활의 불타는 열정에 휩싸인 순진한 이 청년은 정상결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이러한 생각을 미처 다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젊은이의 그 예민한 감수성으로써 정상결의 눈동자에 비낀 애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짐작한듯싶다.

그는 정상결을 선창으로 배웅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박섬은 넘려 마십시오. 저도 소장동지가 여기에 기울여온 그 성실한 로력이 욕되지 않게 힘차라는것 일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열정적인 청년인가, 그는 떠나는 이 시각까지도 상결의 그 아픈 구석은 건드릴념도 하지 않고 그럴듯한 인사만을 보내는것이 아닌가.

이렇듯 고귀한 정신과 아름다운 심정을 소유한 청년앞에서 상결은 끝내 자기의 돌이킬수 없는 실책에 대하여 말할수가 없었다.

참으로 그것은 입밖에 터놓기조차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는 이제야 달포전 섬에 건너왔던 도에 보소장이 자기를 모욕한 일이 너무나도 웅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벌써 자기를 구원해주려고 가슴이 띠금띠끈한 말을 해주었건만 자기는 그것을 오히려 고깝게 여기기까지 하였다.

《뚜-》

정상결 한사람을 태운 발동선은 그래도 기슭을 떠나노라고 배고동을 울린다.

《안녕히 가십시오.》

최병일은 선창끝에서 모자를 벗어흔들며 작별인사를 보낸다.

그러나 배고물에 선 상결은 쓰라린 심정을 감당하지 못하여 뗏뗏한 작별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는 여적 자신을 성실한 일군으로 자부하며 헛된 자족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탐구와 열정이 없는 생활은 맹목적이며 무색한 생활이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의 참다운 생활은 아니다.

그때문에 그는 자기의 관측자료에 갇든 그리도 명백한 진리조차 볼수 없는 눈뜬 소경으로 살아온것이 아닌가.

상결은 오늘에야 이것을 통감하게 된것이 뼈저리도록 분하였다.

아, 이제 저 청년처럼 박섬에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할수는 없을가.

정상결은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을 견잡지 못하며 배전너머에서 소용돌이치는 파아란 물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용해공의 어머니 외 1편

계 훈

은은한 아침 고동이
길게 울려오는 창가에서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아들을 바래우는 용해공의 어머니

멀리 바라보이는 강철의 지붕 향해
시원히 뻗어나간 햇빛밝은 길
드바쁜 사람들속에 활개쳐 걷는
그 모습 미덥게 바라보는 마음

그 누가 알라
말없이 아들을 바래우며
귀밑머리 쓸어올리는
어머니의 마음...

아, 전기로의 불앞에 쓰러진 남편을 두고
목놓아 울던 그 모진 세월
이제 태어날 아들만은
이 길을 걷지 않게 하리라
몇백번 다짐하던 그 어머니였다

용해공인 그때문에
한평생 머리를 숙이고 살지 말도록
용해공인 그때문에
너인들의 속을 태우지 않도록

남편을 위하는 그 마음이야
아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야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이 나라 너인네들의 심정이다만

기쁨을 안고

보람찬 아침길에 떠나보낸다
어제날엔 눈물로 남편을 바래우던 길
오늘은 더없는 자랑으로 웃음지으며
땃땃이 걸어가는 아들을 본다

로동이란 말이 신성하고
로동자가 귀해진 이 세월
용해공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시며
아버이수령님 언제나 찾아주시는
영광의 일터로 아들을 보내는 마음이여

아, 자식을 키워온 어머니의 기쁨이
이런 날 이런 때에 있는것이였구나
수령님께서 나라의 맏아들로 불러주시는
용해공
그 어머니 된 그 행복이!

이 아침
사랑하는 아들을 로동의 첫길로 바래우며
기쁨에 눈물짓는
어머니의 그 마음
저 멀리 곱게 피여오르는
쇠물빛 노을도 축복하는듯

세상에 아들 둔 어머니 많아도
강철의 대들보로 나라를 받드는
용해공의 어머니보다 자랑높은 어머니는
없으려니
아, 첫 쇠물을 꿰일 아들의 모습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자랑 쇠물처럼 넘쳐나라

강편산에 달이 떴네

전야근 마치고 문밖에 나서니
밤사이 생겨난 강편더미우에
휘영청 둥근달이 떴네

달도 강철이 좋아
이런 때가 좋아
이 밤 여기에 앉아서 쉬나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낸 오늘에야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린 오늘에야
남다른 그 일숨씨
그 사연을 나누어보자고...

좋구나, 야적장의 밤이여
뻗건 강편에 담배 한대 붙여물고
산같은 더미더미 에돌며 거니니
밤바람은 시원히 옷자락을 흔들고

등근달 보름달도 내 마음 담아
기쁨의 밝은 빛을 뿌려주네

손에 손에 깨뜨벌 들고
동산 올라 달마중하던 그 시절
그 동심시절의 등근달이
내 일생 제일 고운줄 알았더니

아니였네
내가 뽑은 강편더미사이를 걸으며
달빛에 싸여
시뻘건 강편의 노을빛에 싸여
이렇게 등근달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내 기쁨이 강편마다 배여
그 하나하나가
달덩이같고 내 마음같아
이렇게 달도 나도 강편들도
온통 웃으며 번쩍이는구나

그랬구나 강철지구의 등근달아
이 한밤 불노을 피는 강편더미사이로
너 나와 나란히 걸으며 떠날줄 모르니
너도 년간계획을 먼저 끝낸 압연공이
제일 좋은게로구나!

교대후의 한때에

김송남

송이송이 꽃들이 천정을 덮고
문짝같은 속보들 갱벽을 두른곳
형광등 환한 갱도의 휴게실에
오늘은 이동봉사대 리발사들 찾아와
교대후의 한때가 또 웃음꽃일세

어험...어험...헛기침도 호기있게
리발대에 오르며 착암수가 하는 말
- 오늘엔 우리 소대 열배를 제겼으니
얼굴도 한 10년 젊어지도록
멋들어지게 깎아주시우!

그러자, 《만수》 한대 척 꺼내여
간데라불에 붙여무는 운광수
리발사더러 시치미 똑떼고 하는 말
- 아따, 멋이란건 피울 때가 따로 있지
아무렇게나 깎아놓수다, 소꼴베듯이...

하하하... 하하하...
발파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던

영구갱도가 흔들리는가
착암수들 운광수들 허리 쥐고 웃음이요
리발사처녀들도 가위를 든채 웃음인데-

마치 룡상에라도 올라앉은듯
리발대우에서 위엄을 돋구며
착암수 하는 말이 더욱 좋네
- 허허...모르는 소리 ...
이 갱이 어더런 갱이라구
여기선 모든것이 빛나야 해
쇠돌도!
사람도!

아무렴 이 갱이 어떤 갱인가
막장은 날마다 깊어져가도
가까이 비쳐오는 당의 해빛
천길 갱도에 따사로이 넘쳐나니
쇠돌도 그 빛을 안고 빛을 뿌리네
사람들도 그 빛을 안고 젊어져가네

그 어떤 부름과도 바꿀수 없는...

김흥권

깊은 잠결에도
의식 잃은 그런 순간에도
문득 일어나더라
당원-그 이름에

때로는 신문에서
때로는 열차칸에서
무심중 들려오는 새 소식-
그 어느 먼곳에
벽찬 일이 벌어져도
그 모든것
순간에 뜨거운 숨결에 옮겨지는
조선로동당원

그 이름 지니면
머리에 흰서리 내린 사람도
첫 당비를 바친 젊은 사람도
심장은 하나로 고동치고
땅속이면 제일 깊은 막장에
하늘이면 제일 높은 첩탈우에
웃으며 가있어라

당원-
그 이름이었다
이 땅에 기여든 미제야수들
제일 먼저 찾은
그 이름 듣기만 해도 공포에 질려
그가 살던 마을까지

무서워 불사르던

그런 이름이었다
한사람이 남아도
수천의 원쑤와 싸워 이길수 있는
하여 하나를 하나로 셀수 없는

오, 그런 이름이기에
엄혹한 시련의 날에도
영광의 날에도
조국은 그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고
큰걸음 옮기기를 바라지 않았더냐

조선로동당원
그 심장
원쑤들과 맞서
더더욱 뚜렷해질 때
혁명의 임무앞에
더욱 불탈 때
조국은 끝없이 번영하고
인민의 삶은 한껏 꽃피려니

우리는 당원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천으로도
만으로도
그 어떤 부름과도 바꿀수 없는...

첫걸음 첫자욱 옮기며

정영호

높뛰는 가슴에
소중히 당원증을 받아안고
문을 나선다
어머니 품에 첫걸음을 떼던
내 어릴적 그 마음이 되어

소리없이 내리는
흰눈 송이송이
두손 모두어 받으며
잠시 걸음을 멈춰서본다

나서 처음 집을 떠나던 날
전등불 낮추 드리워놓고
나의 배낭을 꾸려주며
조용히 짓던
어머니의 그 미소가 안겨와...

달마다 어김없이 와닿던
어머니의 그 간절한 당부가
다심한 편지의 글발마다 담겨있어
절로 눈굽 뜨거워지던
그 사랑이 안겨와...

떠나던 그날
떠나있은 나날에
그토록 당원의 영예를 지니라고
다짐을 하던 어머니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였기에
당원들이 걷는 자욱자욱
내 불타는 맹세를 새기며 따라왔거니

당이여!
그대가 아니었던가
그 뉘에게도 헤쳐보이지 못한
가슴속 말 못할 소원을
용접의 불꽃으로 새겨가며
한자한자 당규약을 외워갈 때
어머니처럼 내 일손을 함께 잡아준것은

그대가 아니었던가
하늘가의 철골이음새들에
놓쳐버린 한점의 틈새가 미쳐와
남몰래 자리 차고 달려나온 그 밤
가슴속 뿌리내리는 내 마음을 헤아려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준것은

어찌하여 머리 흰 당원들이
바람찬 하늘가 트라스우에서
내 하는 일을 제일처럼 도와주었는지
아, 당원이 된 오늘에는
미처 다 몰랐던 그 손길들이
이 가슴 뜨겁게 안겨오누나

내 자그마한 하나의 실책을 두고도
그대의 창가엔 불빛 꺼질줄 몰랐더라
나를 낳은 어머니도 깊이 잠든 그 밤
나보다 더 가슴아파하며
잠 못드는 그대의 품에 안겨
당원으로 자라난 이 저녁길이여!

가슴속 당원증을 어루만지며
걸음걸음 깊어지는 생각
내 이 땅에 태어나
허리띠를 죄어매며
폐허우에 철탑 하나 세운 일 없는
새세대
오늘보다 래일의 큰 일을 믿어
이렇듯 영광의 대오에 세워주었거니

당이여!
수천수만마디의 말을 풀라도
달리는 더 부를길이 없어
다만 내 그대를 어머니라 부르며
당원의 첫걸음을 옮긴다
송이송이 내리는 정갈한 솟눈우에
내 티없이 깨끗한 마음을 새기며-

생소한곳으로

김재원

생소한곳

처음 가는곳

산과 산이 마주선

물살빠른 강기슭으로

물동량을 만재한 화물차들이

진흙물을 튕기며 급히 달리고

산골짜 강바람이 맞받아 불어오는

발전소건설장으로

웃으며 우리 가는 거기엔

아늑한 보금자리도

가로수 반기는 끝은 길도

있지 않더라

거기엔

하루밤 쉬어야 할 지붕도

모든것 우리 손, 우리 힘으로

하늘밑에 엮어야 하나니

길이여, 초행길이여

절벽을 깎아 석축을 쌓으며

우리 개척하여 가는 길이

나는 좋더라

집이여, 푸른 천막이여

도시가 일떠설 터전우에

우리 먼저 기둥을 박고 사는 집이

나는 좋더라

물이여, 박우물이여

내 손으로 깊숙이 땅을 파고

숫아나는 맑은 샘 마시기

얼마나 좋던가

건설장, 언제건설장

세멘트혼합물에 바지가랭이 찢끗해져도

거기서 하는 일은 모두가

불, 불을 위한 내 가슴의 열

수은등 환한 땅속, 채탄기에 힘을 더해주려

먼 산마을도 텔레비죤화면으로 도시와 더 가까와

지라고

우리 때로 등불아래 설계도면 그려들고

간데라불로 캄캄한 길 헤치나니

이제 우리 걸은 이 길로

빛과 힘과 열을 안고

전류는 빛발쳐가리라

일떠서고 넓어지고 강대해지는

조국땅 그 모든 구역들로

생소한 길

처음 걷는 길

그 길에 내가 달리고

그 길에 전류가 흐르니

조국이여, 더 높은 축수의 불을 켜라

조국이여, 더 힘찬 심장의 불길 올려라

그대의 공장파 도시에

그대의 농장과 바다에

더욱더 밝아질 그대 모습

더욱더 거세찬 그대 숨결 위해

산과 산이 마주선 물살빠른 기슭

그 생소한곳으로 우리는 간다

물을 안아 불을 밝히려 우리는 간다!

온 공장이 너를 안다

강현세

구내에 심어놓은 애어린 나무같이

로동의 년륜 아직은 적어도

벌써 온 공장이 너를 다 안다

용접광 번쩍이는 너렁청한 일터

날마다 속보의 주인공들은 달라져도

네 이름만은 한번도 빠진적 없어...

기특하다 어깨를 다독이면

귀뿌리까지 빨개지는 귀여운 처녀

너의 봉긋한 가슴에 지닌것은 무엇이나

집채같은 차체에 일손을 대일 때면

온 나라 철길우의 기관차들을 세여보며

마음속으로 더 많은 기적소리 울려간다는 너

기관차로 무어지는 부속마다

알뜰한 네 마음이

언제나 거울처럼 알른거러

커다란 기관차의 차체에

간진 네 숨씨로 이어진 철판도

언제나 유리판처럼 고르로와

오랜 기능공들도 칭찬하는 말

어느새 그렇게 빨리 따라왔느냐고

너의 기대엔 눈이 달렸다고...

미더웁다, 단발머리 처녀 조립공

하루에도 수백개 부속을 조립한 기관차에

하루에도 몇날을 달음쳐온 네 마음이 스미었나니

퇴근길에 처녀들이 극장으로 이끌어도

새별눈에 말없는 웃음을 담고

도서실로 향하던 저녁길은 얼마더나

구내에 심어놓은 애어린 나무같이

지나온 삶의 날은 많지 않아도

온 공장이 사랑하는 처녀

애어린 그 나이에 기관차를 무어보낸 철길은

너의 로동의 나날을 몇갑절 더하여

너의 충성의 년륜을 조국에 새기였구나

교대와 교대를 이어

김기호

어디선가

계곡을 흐르는 개울물소리
정겹게 들려오고
흰안개 산기슭을 감도는 새벽
이름없는 산중초소에서
두 병사 보초를 교대한다
-초소는 이상없음!

그 한마디

짧은 말과 함께
얼마나 귀중한것
얼마나 크나큰것이
그들의 가슴속에 안겨지는것인가

그 한마디를 찢찢이 하기 위해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
온밤 새벌처럼 빛나라
병사의 눈동자
찬이슬 맞으면서도
병사는 한순간의 쉬엣도 몰랐나니

그대들이 지키는것

넘겨주고 넘겨받는것은
넓지 않은 위수구역만이 아니다
파도 칠썩이는 바다기슭
날새들 우짖는 깊은 골만이 아니다
그대는
아침연기 피여오르는 고향마을
밝은 불빛이 흐르는 창문들과
홍치는 들판의 이삭이삭을
크지 않은 그 구역에서 하나로 넘겨주나니

그대는 넘겨받는다

푸른 하늘을 떠이고
일어서는 은빛지붕을
해빛이 흘러드는 산원의 침대에서
첫아기를 받아안은 너인의 수집은 웃음을

넘겨주고 넘겨받는다

먼 개간지로 아들을 바래우며
동구밖에서 흔들어주는 어머니의 손길
양지바른 산기슭 아담한 유치원에서
즐겁게 울려오는 어린이들의 노래소리를

아, 교대와 교대를 이어

소문도 없이
가슴 울렁이며
뜨거운 숨결로 주고받는
이 땅의 그 모든 귀중한것이어

이름없는 한 초소

누구도 볼수 없는 그 지점에서
그대들은 온 조국땅을 바라보며
총잡고 지켜가는 나라의 안녕을
넘겨주고 넘겨받는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병사들은 이렇게
넘겨주고 넘겨받으리라
-초소는 이상없음!

조선아, 너의 강토는

동기춘

조선아, 너의 강토는
하나를 둘로 갈라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다

분열된 민족을 다시 불러
누리에 올려퍼진
뜨거운 목소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파쑈의 칼밑에서
비바람을 숨쉬는 남녘의 가슴들아
갈망의 그 민주
절규의 그 자유
이 길에 있음을 눈떠보아라

목숨이 돈잎보다 못해서
낮설은 대륙에 고아처럼 널린
비참한 《이민》들아
그대들도 5천만민족의 한사람임을
력사의 이 순간에 웨쳐보아라

유린되고 짓밟히는 그 목숨들이
어쩌면 혹시 나와
그 누구의 조카일수도
아니면 형제일지도 모르는
갈라진 비극의 서른여섯해

떠가는 구름
흐르는 물결
오가는 새들조차 부러운 마음들이
그리어 그리여
가슴이 탄 그 세월

때로는

편지만이라도 오가게 해보자고
쌀 한가마니라도 닿게 해보자고...
아, 우리의 그 마음들을 모두
통일의 길에 가로수처럼 세우면
그 푸른 길은 몇몇 3천리일것인가

이제라도 꿈같이
녹슨 림진강철교우에
첫 렬차의 바퀴소리 울린다면
남북이 터치는 기적소리에
묻어둔 눈물은 어느 가슴에 없겠는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직한 량심들은 불을 안으라
오늘의 한시각 한결음을
세기의 념원을 안고걸으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이름을
민족을 살리는 그 이름을
맑은 아침의 하늘에 기발처럼 펴려이자

해와 같이
심장과 같이
가를수 없는
하나의 강토

은혜로운 태양아래 길이 번영할
내 나라를 위하여
나서라 겨레여
몸부림치자 겨레여

조선아, 너의 강토는
하나를 둘로 갈라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다

대오를 따라

박효준

1

구질구질 내리던 늦가을비가 멎어버리자 날씨는 갑자기 차졌다. 북악산을 넘어온 찬바람이 사납게 울부짖는다. 서울중심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현저동 비탈마을의 키낮은 집들이 바람을 이기지 못해 몸부림친다. 지붕에 올려놓은 양철조박들이 앵강명강 소란스레 들척거리고 영문자나 일본글자가 어지럽게 찍힌 판자벽체도 삐걱삐걱 비명을 지른다. 코카콜라상자를 꺾서 붙인 추녀가 펄럭거리고 가빠천조박이 문설주에 잠긴채로 너풀거린다.

이 스산한 마을 중간쯤의 조그마한 함석집앞에 한 녀인이 초연히 서서 비탈길을 내려다보고있다. 쪽진 반백의 머리칼로 미루어 50이 넘어보였다. 흰칠한 키에 수수한 치마저고리가 몸에 잘 어울린다. 얼굴이 깨끗하고 몸매에서도 의젓한 인품이 느껴진다.

아들 하나를 믿고 고생스레 살아가는 림현희 어머니다. 그의 눈길이 따라가고있는 비탈길로는 한 처녀가 총총히 내려간다. 어머니는 벌써 그를 여러차례 만났었지만 아직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에게 호기심과 호감을 가지고있다. 처녀는 저앞 골목길을 에돌아 총총히 사라진다. 거센바람이 머리칼을 마구 훑날리건만 어머니는 손으로 그것을 쓸어넘길뿐 그런듯이 선채로 그쪽을 보고있다. 그의 귀에는 지금도 처녀의 목소리가 그대로 울리고있다.

《아드님이 오시거들랑 여덟시에 마포 최선생댁으로 오시라고 일러주세요.》

처녀는 상냥한 웃음을 지으면서 짙막하게 전했었다. 그 맑고 귀인성스러운 눈이며 가름한 얼굴, 작은 입가에 곱게 피어나는 미소를 대할 때마다 그에게 정이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의 욕심이 불현듯 솟구쳤다. 그는 처녀를 잡고 묻고싶은 말이 없지 않았으나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망설이곤했다.

그의 아들 상혁은 철도병원의 의사로 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척 공손하였지만 사람됨이 의젓하여 어머니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더구나 아들 상혁이와 처녀는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하고있다는것을 어머니는 짐작으로 알고있었다.

그 일은 당국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눈치채여서는 안된다는것도 어머니는 알고있었다.

《애야, 나는 한시도 마음을 못놓겠구나. 매사에 조심해라...》

불안을 느낀 어머니는 입버릇과 같이 아들을 타일렀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일을 막지는 못했고 때로는 그의 심부름까지도 했었다. 그래서 처녀를 가끔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처녀에게 남다른 정이 끌렸다.

《아니, 여직 돌아오지 않았수? 우리 애가 자꾸만 헛소리를 치며 모대겨서 왔어요.》

어머니는 생각에 잠겼는데 옷마를 봉질이 어머니가 달려오며 급한 소리를 한다. 녀인의 조글조글한 얼굴은 거의 울가망이다. 열네살나는 그의 아들 봉길은 조그만 구두공장 견습공이다.

그저께 일이었다. 봉급날이어서 공장에서 지체된 그는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향했다. 서대문로 타리에 이르렀을 때 《통금》고동이 울리었다. 전두환과쑨무리가 집권한 이후도 어느 하루 편한 날이 없는 서울거리였다. 잡힐가봐 겁이 난 봉길은 골목길로 접어들어 걸음을 재촉했다. 한데 뒤쪽에서 갑자기 서라는 웨침소리가 났다. 봉길은 경찰놈들에게 붙들려 취조당할 일이 시끄러워 재빨리 앞으로 내뒹였다. 그렇게 하여 몇번 무사한 적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경찰놈들이 골목골목 박혀있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봉길은 마침내 경찰서에 잡혀가서 술한 때까지 맞았다. 그는 어제 아침에야 놓여나오기는 했지만 어혈이 저 누워있었다. 그래서 상혁이가 그를 돌보아주고있었던것이다. 녀인의 심정이 리해된 어머니는 미안쩍은 생각으로 그를 물끄러미 마주보기만 했다.

《우리 애를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요?...》

《잊다니 원, 이제 곧 돌아오겠지요...》

《그럼 오거들랑 곧 좀... 애가 몹시 가빠한다구, 이렇게 늘 신세만 지고...》

녀인은 몹시 미안쩍어하며 돌아서려고 한다. 어머니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구급약을 내다주었다. 분주히 돌아가는 녀인을 안된 마음으로 지켜보던 어머니도 문가로 발길을 돌렸다. 아들이 돌아올 때도 되었으니 어서 저녁차비를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기다리던 아들은 밥가마에서 더운 김을 내뿜으며 가마뚜껑이 덜컹덜컹 춤추다가 한풀 잦을무렵에야 나타났다. 아들의 희멀쭉한 얼굴을 보자 어머니의 고달픈 얼굴에는 느슨한 미소가 떠올랐다.

《늦었구나! 시장하지?》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을 받아주며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건강한 체구에 흰 살색, 눈꼬리가 좀 치선것은 아버지를 그대로 내뻐었다. 남의 말을 잘 듣다가도 가끔가다 고집을 부리는것은 덩실한 코마루탓인지... 귀바퀴가 큰것은 신통히도와가견을 닮았다.

《저녁은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방금 찾혀왔다.》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어머니가 문득 생각난듯 이렇게 말했다.

《참, 그 처녀가 왔다갔다. 여덟시까지 마포 최선생댁으로 오라더구나.》

《그래요?》

《그리고 옷마을 봉질이 어머니가 몇번씩 왔더랬다. 거기부터 가봐야 하지 않겠니?》

《좀 차도가 없대요?》

《낮에 가보니 애가 잠들어있더니만 제 어머니가 온걸 보니 심상치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약은 좀 주었다만...》

《알겠어요. 내 곧 다녀와요.》

상혁은 급히 가방을 꺼내들고 나선다. 어머니는 집모퉁이까지 따라나가 그를 바랬다. 상혁은 분주히 비탈길을 뚫아오른다. 수긋한 자세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에서도 어머니는 일찍 저세상에 가버린 남편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아들도 남편을 닮았기에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몸고달픔을 모르는듯싶었다. 아들 상혁은 이웃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약품들을 집에 마련해놓았었고 마을에 병자가 생기기만 하면 밤중에도 마다않고 가서 보아주었다. 마을사람들이 그들 모자를 살뜰히 대해주는것도 결국은 아들의 소행에서라는 생각을 할 때 어머니는 그 아들이 여간만 미덥고 마음 든든하지 않았다. 이제는 좋은 며느리만 얻어온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아가의 그 처녀가 다시금 생각되었다. 상혁은 퍼그나 오래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쉬 일어날것 같더냐? 저의 어머니는 뒤탈이 있을가봐 걱정하던데.》

《일없을겁니다. 대책을 세웠으니.》

《그러면야 오죽 좋겠니? 어서 들어가거라. 내 곧 상을 들여보내마.》

《그만두세요. 저녁은 잤다와서 먹을가봐요.》

들가방을 방안에 들여놓고난 아들이 대야에 떠놓은 물에 손을 대충 씻고는 어디론가 떠날 차비를 서두른다.

《무슨 소리냐? 저녁이 다 됐는데.》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상혁은 이러면서 분주히 비탈길로 나선다. 어머니는 할수없이 토방앞에 나서서 그의 뒤모양을 지켜본다. 반달음을 치다싶이 비탈길을 내려간 상혁은 아까 그 처녀가 가던 골목으로 총총히 돌아간다. 아들은 이제 가면 그 처녀와 만나게 될것이다. 무슨 일이 생긴것일까? 어머니의 망막에는 가뜰하게 여겨지는 처녀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처녀를 알게 된것은 지난해 정초부터였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밥을 먹고난 아들이 옷방에 올라가 자그마한 꾸레미를 들고와 어머니곁에 앉으며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 ...》 아들은 빙그레 웃고있었으나 자기를 지켜보는 눈에는 어딘가모르게 긴장의 빛이 어려어있었다. 무슨 긴요한 일이기에 아들이 여느때없이 이러는가싶어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말하렴.》

《회현동에 좀 다녀와주세요.》

《거긴 왜? ...》

《.....》

아들은 선뜻 말을 하기가 주저되는듯 잠시 망설이더니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놈들이 금하는 물건입니다.》

《아니, 그럼?! ...》

어머니는 대번에 낫빛이 꺼렇게 질리어 가슴이 활랑거렸다. 압제자들의 만행과 죄행을 두고 치를 떨며 정의감을 부르짖던 아들은 늘 북조선에 대한 꿈같은 이야기를 조용조용 들려주곤하더니 아마도 그와 관련된 일인듯싶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이 발각되는 경우 어떤 결말이 빚어지리란것을 모르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것이 두려웠다.

《애야, 난 네가 그 일만은 그만두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를 죽인 원쑤놈들을 어머니는 벌써 잊으셨나요?》

《그걸 어떻게 잊겠니? 물론 네 말이 옳은줄은 안다. 하지만 난 무섭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물기가 팽 어렸다. 아들은 차마 못볼것이나 본듯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수 없군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있으면 조국은 영원히 돌로 갈라지고말거예요. 어머니도 그것을 바라지는 않겠지요?》

《민족의 반역자가 아닌 이상 그걸 바랄 사람이 어디 있겠니?》

《저는 그길우에 한몸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녀오겠어요.》

아들은 섭섭한 낯빛을 감추지 못한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야야...》

어머니는 황급히 일어서며 아들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가야 합니다. 어머니, 시간이 지체되면 안되는 거예요.》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결연한 눈빛, 거센 숨결은 어머니의 마음으로서도 결코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태를 끊은 그날부터 이날이때까지 애지중지 길러 남들이 부러워하도록 끼끗하게 키워놓은 아들이였건만 그 아들의 가슴에 자라는 마음을 다는 몰랐다. 자기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아들은 같것이다. 어머니는 그걸 용허할수 없었다.

《넌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가겠다.》

《무서울텐데요...》

《무섭다. 그러나 꼭 가야 할 일이라면야... 오냐, 내가 가마.》

어머니는 솔직한 사람이였다. 자식앞에서 여직 한번도 거짓말을 해본적이 없는 어머니는 두렵고 무서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숨기고싶지 않았다. 그만큼 아들이 꼭 가야 할 일이라면 그 위험한곳에 아들을 내놓고 가슴을 죄이느니 차라리 제몸을 바치고싶은 모성애의 열광적인 사랑이 그의 마음을 굳게 하여주었다. 아들은 생각깊은 눈길로 이윽도록 어머니를 지켜보더니 무엇인가 결심을 내린듯 그 작은 꾸레미를 보자기에 써서 어머니의 저자구럭속에 넣어주었다.

《조심하세요.》 떠나올 때 아들은 찾아갈 집과 만날 사람과 전할 말을 일일이 가르쳐주고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신변을 념려했다. 그날 찾아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처녀였다. 진한 록색 범단저고리에 남색치마를 입은 처녀를 어머니는 첫눈에 좋게 보았다. 얼굴생김이 귀인성스럽고 말본새며 행동거지가 상냥했었다. 한데 몇달뒤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어머니는 다시 또 처녀를 보았다.

청량리장마당주변에 큰 화재가 있을 때였다. 마침 그앞을 지나던 어머니는 길이 트이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불길의 여간만 거세지 않았다. 판자로만 둘러막은 가게방들이 추녀를 맞대고 빼곡하니 들어찬데다 바싹 마른 봄철이여서 불길은 삼시간에 그 일대를 휩쓸어버렸다. 불기둥이 무섭게 솟구치면서 불뭉치를 하늘높이 말아올렸고 독한 연기가 겹겹으로 서리어 눈을 뜰수 없게 하였다. 열풍이 확확 풍겨 사람이 부절을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불을 끌 엄두도 못내고 아우성치며 정신없이 돌아치고있었다. 기겁스럽게 울어대는 아이들, 욕지거리, 호통질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녀인들의 울음으로 현장은 수라장이였다.

이때 돌연 저만큼의 추녀밑에서 한 처녀애가 자지러지게 울며 달려나왔다. 그의 등에선 불길이 펄펄 이는데 사방 불길속에 갇혀 출로가 막힌 소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애라게 구원을 호소했다.

《에그, 저 애를 어쩌나? ...》

《저런 기차기두.》

《여보쇼들 누가 없수?》

녀인들이 발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절한 눈빛으로 동정을 보낼망정 불길속을 뛰어들 용단을 내리는이는 없었다. 불길은 시시각각으로 소녀쪽을 향해 육박해갔다. 순간 누군가 불길속을 헤치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다.

《저런!》

《아이구 처녀로구만!》

사람들속에선 대번에 탄성이 튀어나왔다. 가슴을 옥죄이며 땀을 쥔 사람들의 기대와 성원과 놀람의 눈길을 받으며 처녀는 불길속에서 소녀애를 안고 되돌아섰다. 이쪽에서는 불길이 그를 삼켜 버릴듯이 허바닥을 널름거렸다. 찰나 처녀는 잠시 주저하는듯 흠칫 서더니 자기 머리에 썼던 수건을 풀어 소녀의 얼굴을 감싸주고는 불길을 맞아 몸을 던졌다.

(아! ...) 어머니는 저도몰래 낮게 비명을 지르며 눈을 딱 감았다. 그것은 순간적인 일이었다. 처녀가 불길속을 헤쳐나오자 사람들이 와 모여들어 그의 몸에서 불을 꺼주었다. 하얗던 얼굴이 까맣게 그슬리고 눈썹이 노랗게 탔다.

《세상에 이런 기특할데라고야 사내들이란게 부끄럽지도 않아. 천하에 쓸개빠진것들같으니라고 ...》

한 로파가 처녀를 어루만지며 의분에 차서 모여선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기웃대는 점잖게 차려입은 양복쟁이들을 흘려보며 나무라자 그들은 얼

굴이 지지벌개서 비실비실 달아나는 것이었다. 어린것은 사치를 맥없이 드리운채 의식을 잃고있었다.

처녀가 그의 부모를 찾았으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잠깐동안 생각에 잠겼던 처녀가 병원을 물어보더니 어린것을 업고 결연히 일어섰다. 순간 어머니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너무도 낮은 모습이었다. 어디서 봤던가? 그 기억은 그가 전차정류소에 이르렀을 때야 편뜻 떠올랐다. 몇달 전 아들의 부탁을 받고 찾아갔을 때 만났던 처녀가 바로 그 녀자였다는 생각에 그는 얼마나 소스라쳐 놀랐던가.

《분명해! 그 처녀가 분명해! 참 기특한 처녀지.》

몇번이고 이렇게 감탄을 금치 못해하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길로 아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들은 《그래요?》 하고 그저 웃을뿐이었다.

그런 뒤에도 어머니는 처녀를 몇번 더 만나긴 했으나 긴 이야기는 해볼 기회가 없었다.

(오늘은 그 애한테라도 좀 물어봐야지.)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2

《어머니 계십니까?》

《?...》

《주무세요? 어머니...》

《거 누구요?》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물으면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머리칼을 쓸어넘기면서 귀를 기울이였다.

《저야요. 어머니 잠깐만 좀...》

분명 어제 왔던 처녀의 목소리다. 반가움과 불안감이 동시에 온몸을 사로잡았다. 어제밤 늦도록 아들을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더니 이 첫 새벽에 처녀가 대신 왔다. 어머니는 급히 부엌으로 나가 문을 절반쯤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찬바람이 확 쓸어들면서 눈곱이 시큰한데 처녀가 다가온다. 하늘색 코트에 다크알색 목도리를 머리에 감고있다.

《급히 좀 여쭙 말이 있어 왔어요.》

처녀는 말하면서 목도리를 벗는다. 어머니는 얼른 그의 팔을 잡아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았다. 방으로 들어간 어머니는 널린 담요를 밀어놓으면서 처녀와 마주 앉았다. 단정히 꿰어앉은 처녀는 입김으로 손을 잠깐 녹인다. 어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아드님이 갑자기 출장나갔습니다. 떠나면서 부탁하는것이 있기에...》

《출장이요?! ...》

뜻밖의 소리여서 어머니는 낮게 다우치였다.

《시골에 좀 일이 생겨서... 그런데 집에 둔 물건들을 치워달라 하기에...》

처녀는 그의 눈을 피하듯이 하며 저편 구석쪽 천반으로 눈길을 준다. 어머니는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였다. 병원에 입직한 뒤로 그런 일은 단 한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출장이라니? 아들은 당국의 눈에 띄면 안되는 위험한 일을 해왔었다. 그 애가 혹시? 어머니는 불안한 시선으로 처녀를 멍히 바라볼뿐 아무 말도 못했다.

잠깐동안 방안을 돌아보던 처녀는 상큼 일어서더니 이불을 개여엿은 구석쪽으로 가 천반지를 손끝으로 꼭꼭 누른다. 그 한쪽에 알릴가 말가한 금이 생겼다. 금자리를 손톱으로 긁어제끼자 책크기나 될만큼 삼면을 칼로 도린 구멍이 나졌다. 처녀는 그안에 손을 넣어 더듬더니만 얇다란 소책자며 등사한 문건들을 꺼낸다. 어머니는 한집에 살면서도 전혀 몰랐었는데 처녀는 자기보다 더 잘 알았다. 처녀는 그것을 펼쳐 대강 훑어보더니 들가방에서 흰 옷가지를 꺼내여 썼다. 조그만 녀마보자기가 되었다. 처녀는 그것을 밀어놓고 다시 책꽂이를 뒤진다. 손이 여간만 재빠르지 않다. 처녀는 보자기를 들고 무엇인가 잠깐 생각더니 말했다.

《어머니, 오늘중으로 집을 옮기셔야겠어요. 저녁때 읍수그레한 짐수레군이 자기네 이사집을 싣고 오겠으니 그 수레에 짐을 바꿔 싣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뒤처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자기 신상에 어찌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아들 상혁이가 어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것도 불안하였고 지금 문건을 가져가는것도 이상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집까지 옮기다니? 처녀는 마치 그가 자기 말에 순종할것을 믿고있기라도 한 모양 잠깐동안 그를 마주보더니만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용히 속삭인다.

《밖을 좀 살펴주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깥으로 나갔다. 날이 흰히 밝아오고있었다. 엿저녁 그렇게도 기승스레 불던 바람은 잦았으나 대기는 싸늘했다. 집집에서 문여닫는 소리가 나고 굴뚝에서 흰연기가 오르기 시작한다. 아직 나다니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게 다행이었다.

《괜찮네, 어서...》

어머니는 부엌문을 열고 길을 내주었다. 처녀는 급히 토방에 나서더니 버릇처럼 주위를 살피고야 비탈길로 나선다.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는 몹시 마음이 뒤숭숭했다.

(혹시 그 애의 신상에 무슨 불행이 닥친게나 아닌가?)

어머니의 뇌리에는 여러가지 불길한 생각이 꼬리를 맞물고 떠올랐다. 만일 그 애가 체포되더라도 했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머니는 그만해야 앞이 캄캄해졌다. 현기증이 나면서 눈앞이 캄캄해진 그는 맥없이 벽을 기대고앉아 눈을 딱 감았다. 전신에 식은땀이 축 내배는것 같았다. 잠시 그러고있노라니 홀연 자기가 왜 그렇게 사태를 나쁘게만 지레짐작하는가싶은 생각이 들었다. 공연히 방정맞은 생각을 해서 아들의 신상에 죄될 일을 저지르는것 같아 어머니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들의 일은 처녀가 알고있겠으니 그의 말을 우선 믿고보야 했다. 해질무렵이 되자 과연 늙수그레한 남정이 짐수레를 끌고 와서 그를 찾았다.

《왜 아직 짐을 싸지 않았수?》

방안을 들여다본 짐수레군은 책망조로 나무라더니 데리고 온 자기네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네 집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도 마지못해 그들의 손을 거들어서 손수레에 짐을 싣고 떠났다. 수레군은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때에야 한강이 발밑에 출렁이는 역시 비탈마을의 한 대문앞에 수레를 세웠다.

기다리고있었던 모양 그 처녀가 반기면서 나왔다. 어느때와는 전혀 다르게 허드레옷차림을 하고있었다. 그러고보니 나이가 한두살은 더한듯했다. 집은 꽤 크고 화려하기도 한데 처녀는 그를 대문옆의 조그마한 방으로 안내하더니 수레군과 함께 짐도 들여놓았다.

《방이 곧 더워울거예요. 어머니 좀 쉬세요. 저녁은 제가 짓겠어요. ...》

처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부엌에선 딸각딸각하고 그릇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미안쩍은 생각이 들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갈피를 잡을수 없어 처녀가 시키는대로 할수 밖에 없었다. 일이 대체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아들 상혁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만 했다. 벽을 기대고 일없이 앉았노라니 방이 차츰 더워지면서 온몸이 노근해왔다. 어제밤부터 온 하루동안 마음고생을 해오던 그는 어느새 어슬어슬 잠이 들었다.

《어머니, 일어나서 저녁을 좀 뜨세요.》

처녀가 깨워서야 눈을 떠보니 전등불이 환한 방안에 저녁상이 차려놓여있었다. 어머니는 밥생각이 없었으나 처녀의 인정을 생각하고 몇순갈 뜨는체했다. 처녀는 상을 들고 나가더니 설겅이를 하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안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여 그를 살뜰한 눈으로 여겨보았다.

처녀는 그를 만날 때마다 늘 상냥한 웃음을 띠우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오늘 겪어보니 매사에 일처리도 어엿하게 해내고 음식솜씨 또한 여간 능하지 않다. 어머니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처녀는 아들 상혁이와 의로운 일을 위해 맺혀있는 사이리라 어머니는 그저 그렇게만 여겨왔었다. 그러던게 오늘은 갑자기 한집안식구처럼 자기를 보살펴준다. 이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머니는 그에 대해 물어보고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성급하게 굴것은 없다싶어 참았다.

《어머니, 저는 그만 돌아가야겠습니다. 적적하더라도 아무 걱정 말고계세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앉아있던 처녀는 자세를 바로하며 말한다. 어머니는 잠자코 그를 마주 보기만 했다.

《주인집도 사람들이 좋습니다. 아들이 저희네 동무야요.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만 모시고있습니다. 댄이야기는 마십시오만 이 집 어머니도 저희를 리해합니다.》

《.....》

《저쪽집에 그냥 있으면 혹시 놈들이 시끄럽게 굴수도 있겠기에 옮겨왔어요. 이 댁 아들은 회사에 다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시다. 불편한게 있거들랑 이 집 아들한테 일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겠습니다...》

처녀는 어머니가 채심해야 할 말들을 일러주었다. 하고보면 처녀는 이 집 딸은 아니나 그들과 펍 가깝게 지내는 눈치다. 처녀는 살머시 일어선다.

《내가 지내 궁금해 그러는데 우리 애는 언제쯤 돌아올지 모릅니까?》

어머니는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처녀는 대답 대신 상냥스레 웃으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쥐어준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차차 알려드려요...》

처녀는 돌아갔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갑자기 절해고도에 남은듯싶은 고독감이 휩쓸었다. 갖이사를 와 적적함이 더한지도 몰랐다. 그는 다시금 자기네 모자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했다. 아들은 지금 어디 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경찰서의 고문대에 누워있는게나 아닌가? 그 하나를 믿고 고생스레 살아온 어머니는 기가 막혔다. 왜 그 일에서 발을 빼라고 타이르지 못했던가 하고 뉘우쳐지기도 했다. 얼마동안 기맥없이 앉았던 그는 소스라쳐 자기를 다잡았다. 사람이란 어려울때 그 값을 나타내며 그런 때일수록 마음의 탕개를 풀지 말아야 한다는 자의식이 머리를 쳐들었다. 더구나 자기는 판무식자도 아닌 지성인이며

적지 않은 풍파도 이겨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바깥으로 나왔다.

사방 추녀들에 가리어 좁다랗게 쳐다보이는 아슬한 하늘에는 보석같은 별들이 생기있게 반짝인다.

주인들이 거처하는 안채의 큰방과 건넌방은 불만 환할뿐 인적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어머니는 조용히 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섰다. 발아래로 게딱지같은 지붕들이 층층이 박혔는데 그앞에 한강이 희끄무레하게 바라보였다. 물판에서 불빛이 흔들거리는것은 이쪽기슭이 반사되어 그런것이리라싶었다. 어둠이 내려덮인 강가에선 술렁술렁 물소리만 들려오고있었다.

사시장철 변함없이 바다에로 흐르는 유유한 강물, 그 강물은 춘하추동 계절에 따라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며 혹은 줄기도 붓기도 하겠지만 바다에로, 바다에로 흘러가는, 또 흐르려는 그 의지에는 추호의 주저도 동요도 없는듯했다. 그런데 사람인 자기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변화도 웅심깊게 삭여내지 못하고 마음을 죄이는것이였다. 그는 다시금 처녀를 상기하고 아들을 생각했다. 아들 상혁은 그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의 양육을 받아 어른으로 자라났다. 그러나 상혁이야 언제 한번 낯빛을 흐리고 기가 꺾인적이 있었던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언제 봐야 아들은 의젓하고 대범하였다. 처녀도 그랬다. 처녀의 얼굴에선 상냥한 웃음이 가실줄 몰랐고 고요한 눈빛은 신념과 열정에 불타고있었다. 이 늙은것이 무어기에 첫새벽에 달려와 위험을 가져주고 이사까지 시켜 따뜻한 밥을 먹여주며 그렇듯 살뜰하게 대해준단말인가. 그는 처녀의 소행이 고맙고 돈우뵈울수록 어쩐지 제자식만을 생각하며 일신의 불안(아직은 알수도 없는것을)을 안고 모대기는것이 리기적이고 떳떳치 못한 일같아 량심에 가책이 되였다.

어느덧 그의 눈앞엔 처녀의 아련한 모습과 함께 아들의 의젓한 모습이 나란히 떠오르는것이였다.

(얘들아, 이 밤이 어서 지냈으면 좋겠구나!)

밤하늘엔 무수하게 널린 별들만이 끝없이 깜빡이며 어머니를 굽어보고있었다.

3

며칠이 지났다. 아들에 대한 생각은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불안케 하였다. 들려오는 소문은 어수선했다. 그동안에 주인집과 사귀게 된 어머니는 그들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철도부문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전 룡산역에서 미국제군수물자를 부리우다가 상자가 폭발하여 몇사람은 즉석에서 죽고 술한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어 철도병원에 입원했다는것은 아들에게서도 들었었는데 운송부에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비와 위자료 그리고 부상자들의 치료비를 요구하여 들고일어났었다. 그런데 치료비 대신 경찰들이 물려와 많은 사람들을 마구 붙잡아갔다는것이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것도 그 일과 관련이 있는것만 같아 어머니는 가슴이 떨렸다. 그러나 공연히 사태를 나쁘게만 생각할것은 없다싶어 그는 자기를 다잡았다. 대신 처녀가 어서 나타나기를 바랐다. 그가 곁에 있으면 마음에 안정이 오고 시름이 덜어지기때문이었다.

그런 어느날 저녁 기다리던 처녀가 다시 나타났다. 수수한 조선치마저고리에 꽤 묵직해보이는 저자구력을 손에 들었다.

《어머니, 적적하셨지요? 그동안은 일이 바빠 못왔어요.》

언제나와 같은 귀인성스러운 그 웃는 얼굴을 보자 어머니는 친자식을 만난듯 반가왔다.

《날씨도 찬데 어서 이리 내려오라구.》

어머니는 아래목을 권하면서 곧 저녁을 지을테니 기다리라 하였다. 그러나 처녀는 뒤따라 부엌으로 나갔다. 결국 두사람은 같이 저녁을 지어 상을 마주 하고 앉았다.

《어머니 저... 오늘밤은 여기서 자고 갈까 그래요.》

《그러라구. 나야 혼자서 적적한데 그러면야 어북 좋으리...》

처녀의 말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듯 대답하였다. 처녀는 무뎡 기뻐하면서 상을 치우고 들어오더니만 다시 말한다.

《어머니, 일이 바빠 그러는데 여기서 무얼 좀해도 괜찮겠지요?》

《나야 아무려면 뭐라나 어서 그러라구.》

처녀는 책상앞에 앉더니 원판과 원지며 철팔을 꺼내어 일하기 시작한다. 한강가의 외진곳이 되어 주위는 조용하다. 깔깔한 원판우로 철팔 달려가는 소리만이 성급하게 사락사락하고 돌린다. 어머니는 파스한 아래목에 앉은채로 처녀의 뒤모습에 눈을 주고있었다. 단정히 무릎을 꿇고앉아 상반신을 수긋한 처녀는 고개를 외로 약간 가웃이 하고 일에 정성을 쏟아붓고있다. 지난봄 불길속에 뛰어들던 그런 오돌참을 느끼게 한다. 어머니는 호기심과 함께 의혹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전에는 가끔 만나기만 하였고 요즈음도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곤했었는데 그는

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어떻게 살아가고있는지?

《무얼 그리 열심히 쓰나?》

어머니는 슬며시 처녀의 뒤로 가 어깨너머로 책상을 넘겨다봤다. 눈이 어두워 내용은 알수 없으나 조그만 소책자를 옆에 놓고 옮겨쓰는 하얀 글씨가 납작납작한게 참하다.

《무얼 좀 밀어서 동무들께 나눠주자 그래요. 어머니도 그전에는 원지를 굵어보셨겠지요?》

처녀는 고개를 쳐들고 돌아앉으면서 응한다.

《그전에야 나도 더러 굵어봤었지.》

어머니는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도 젊은 시절에 교편생활을 할 때는 학생들의 시험문제를 이처럼 원지에 굵어서 밀어주었었다. 처녀는 살며시 일어나 바깥으로 나간다. 어머니는 빼람에서 안경을 꺼내 끼고 소책자를 들여다봤다.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의 로작이었다.

(역시 그렇겠구나.)

어머니는 놀랍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녀는 다시 들어와 책상앞에 앉았으나 잠간 손을 쉬울양이다. 어머니는 이때라 생각하고 물었다.

《애기한테 술한 신세를 지면서도 나는 아직 이름도 모르는구만...》

《저말이야요? 성은 한가고 이름은 채련이야요.》

《한채련?》

《네, 부르기가 까다롭지요?》

《지내 혼하지 않고 오히려 좋지... 고향은 시골인가?》

《아니야요. 저희집은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답니다. 지금도 포암동에 있어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도 계신가?》

《네.》

《?! ...》

어머니는 좀 이상하게 여겨졌으나 남의 가정일을 너무 캐는것만 같아 그만두었다. 맑고 밝던 채련의 얼굴에 그늘이 진다. 그는 잠간 동안을 두더니만 이야기했다. 그가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게 된것은 대학에 들어가서였었다. 그도 물론 그런 사상이 남조선에서는 위험하다는걸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책 한권을 읽는것도 극도로 조심했다. 그는 비단 경찰놈들뿐아니라 부모들의 눈까지도 피해야 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면서 그의 부모들은 마침내 그 눈치를 알아차리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한편 그를 대문밖에도 못나가게 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집안에 갇히운 채련은 조롱안의 새보다 더 답답하였다. 그는 부모들을 타일러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싸움까지 해보았으나

그렇수록 아버지는 더욱 완강해졌다. 울고불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모대기던 채련은 마침내 집에서 뛰쳐나오고야말았다. 그는 조롱에서 놓여난 새와 같이 자유로왔다. 하지만 그러고보니 입에 풀칠을 하는것이 급했다. 그래서 그는 어느 피복 공장에 사무원으로 들어가 일하노라고 한다.

채련은 말을 맺으면서 살며시 한숨을 쉰다. 어머니는 아들딸을 많이 가진 그의 부모들의 심정에도 리해가 가고 성스러운 자기 리념에 충실하기 위해 결연히 집을 뛰쳐나온 그의 소행에도 공감이었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부모들과 동생들을 옆에 두고 그 집앞에 발길조차 못하는 그의 정상만은 가궁하게 여겨졌다.

《이제 시일이 지나가면 아버지 어머니도 리해를 하시겠지...》

어머니는 이런 말로 그를 위로하였다.

《저도 그런 날을 믿고있어요.》

채련은 이러면서 어머니를 말끄러미 쳐다보더니만 다시 말한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신념으로 살아요. 우리가 만일 하루 세끼 밥이나 먹고 본능적인 욕망이나 채우는데 급급한다면 그거야 밥벌레나 짐승과 다를바가 없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 지성인들에게는 정신적지주라 할가 그 어떤 고상하고 영원한것을 지향해서 살아보려는 욕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지향 없이는 하루도 살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는데 어머니도 저를 리해하시겠지요?》

채련은 흥분해서 자기 뜻이 리해되는가 가늠하기라도 하듯 어머니를 말끄러미 쳐다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어머니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채련이는 결코 그 어떤 일시적흥분에 들떠있는것이 아니었다. 그의 뜻을 그렇게 단정해버리기에는 그의 행동이 너무나 진지하고 알찼다.

《어머니, 저는 저의 앞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으리라느걸 알고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조국의 분단, 민족이 량단되어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우리의 젊은 가슴들을 못견디게 하는데야...》

채련은 잠시 말을 끊고 어머니를 지켜보더니 다시금 입을 열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더러 고생을 사서 한다고 나무라기도 해요. 리해가 부족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국통일이라는 웅장한 대건축물에 한장의 기와장이 되고 한대의 산자대가 되고싶은것을 어떡합니까?》

말은 비록 웃으면서 하고있으나 그의 가슴속에는 반석같은 신념이 자리잡고있다는것을 어머니는 몸으로 느꼈다. 지금까지 가혹하게만 여겨지던 수수께끼같은 처녀 채련은 이제 와 어머니의 눈앞에 거인의 모습으로 우뚝이 안겨왔다. 어머니는 이 놀라운 사실앞에서 무어라고 자기 말을 비칠수가 없었다. 그가 만일 입으로만 그런 말을 한다면 어머니는 그것을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길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채련은 행동으로 그 말을 실증하고있었다.

채련은 그런듯이 앓은채로 이윽도록 말이 없었다.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의 중심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여기 한강기슭은 본시 외진곳이 되어 조용하였다.

가끔가다 밤바람이 달랑달랑 대문고리를 흔들며 지나간다. 그런데 어디선가 《붕-》 하고 고동소리가 난다.

채련은 마치 그 소리에 정신이 들기나 한듯 다시 또 간절한 눈매로 어머니를 마주보며 말한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하고싶던 말을 했습니 다만 이제는 어머니가 대답을 해주세요. 어머니도 이제는 우리 일을 도와주세요, 어머니, 그렇게 해주시지요? 네? 어머니, 이것은 저의 간절한 소망이야요.》

어머니는 갑자기 승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금까지도 그는 아들과 채련의 사이를 오가면서 심부름을 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을 위험한 처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자신이 그 일을 맡아했을뿐이다. 한데 채련은 이제 늙은 몸인 자기를 저희들과 한대렬에 부르는게 아닌가. 어머니는 어안이 병병하여 대답을 못하고 그의 눈을 피해버렸다.

《지내 갑작스러우면 그 대답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만은 꼭 대답을 해주세요. 어머니, 아드님이나 저는 가시덤불길을 각오했노라고 하잖았어요? 우리앞에는 가슴아픈 불행이 닥쳐올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지요?》

채련은 마치 응석이나 부리듯 간청을 한다. 어머니는 어쩐지 가슴이 철렁했다. 채련은 결국 그 말을 하기 위해 긴 전제를 깬것 같은 감이 들었다. 그는 아들의 신상을 두고 얼마나 걱정하였으며 아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 한데 것처럼 피하려고 하던 그 일이 마침내 그에게 닥쳐오고만것이었다. 어머니는 정신이 아득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채련이도 침통한 얼굴로 변하더니 그의 팔을 끌어다 가슴에 부여안고 애원에 가까운 어조로 말한다.

《어머니, 마음을 다잡으세요. 아드님은 그날밤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우리는 그때 운송부뒤방에서 회의를 하했는데 갑자기 경찰놈들이 들이닥치지 않겠어요.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아드님은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해 단신으로 놈들을 맞받아 나가 싸웠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보다 채련이가 먼저 목이 메어버린다. 두 사람은 얼마동안 승엄한 감정에 잠겨있었다. 그것은 실로 통분한 일이었다. 군수물자를 들여오다가 상자가 폭발하여 희생자가 났다면 응당 그 장례비와 위자료는 치르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한다고 사람들을 잡아가다니 ...

어머니도 치가 떨렸다. 그러면서 지금은 놈들의 고문대에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채련이도 몹시 분한듯 얼마간은 침묵을 지키더니 말한다.

《아드님은 지금 고문대에서도 잘 싸우고있다는걸 우린 알아요. 왜냐 하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요...》

채련은 그러고도 몇가지 이야기를 더했다. 상혁이의 림름한 모습에 고무된 운송부사람들은 며칠동안 앉아버티기를 하여 마침내 장례비와 위자료를 받아내었으며 자기네를 위해 싸우다가 체포된 상혁이의 석방을 요구하여 또다시 싸움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있다는것이였다.

밤이 아주 깊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자고 하였으나 채련은 밤을 꼬박 밝히면서 등사원지를 사각사각 굶었다.

4

채련은 분주히 일하던걸 쉼없이 나갔다. 그에게서 강한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그것은 힘겨운 일이었다.

력대위정자들이 다 그러했지만 군사파쑈분자들이 집권한 이래 살벌한 분위기는 더욱 험해져 요즘은 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중형의 대상으로 되기가 예상사인데 경찰의 면전에서 싸우던 아들이고보면 결코 무사하길 바랄수가 없다. 애오라지 아들 하나를 믿고 한생을 고생스레 살아온 그다. 그 아들이 이제는 영영 자기결을 떠나버리거나 다름없이 되었으니 누구를 믿고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채련이가 하던 말처럼 정신적지주, 마음의 지주를 잃고보니 어머니는 자기를 지탱할 기력마저 없었다. 그는 맥없이 쓰러진채 자기 한생을 서글픈 심정으로 돌이켜보았다.

그가 상혁의 아버지인 권태동과 결혼한것은 스물두살때였다. 그는 고향마을 국민학교 교원이었

고 권태동은 여기 서울 어느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 서울에 와 신혼생활을 시작한지 1년만에 아들을 낳고 상혁이가 다섯살때 딸애를 또 낳았다. 그들의 생활은 그런대로 단란하고 재미있었다.

그러던중 4.19봉기가 일어났다. 남편도 그 때 오에 휩쓸리었다. 어머니는 안해로서 불안도 느꼈으나 온 세상이 들고일어나선 판이고 또한 의로운 일이기에 만류하지 않았다.

한데 어느날 그는 남편이 증상을 입고 어느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기별을 받았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렸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두었었다. 그는 남편의 가슴팍을 쥐어뜯으면서 울었다. 그는 앞이 캄캄했었다. 우선 먹고살 일이 난감하였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시삼촌이 내려오라고 했다. 먹건 굶건 같이 살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내려가지 않았다. 그뒤로 오늘까지 세상 고생을 다하면서 끝내 딸애는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를 겨우 공부시켜 어엿한 의사로 키워놓았는데 불시에 이 모양이 되고말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장이란말이지?…)

지지리 타는듯만싶던 그의 가슴속에는 갑자기 불같은 증오심이 치밀었다.

(우리 애가 무엇을 잘못했단말인가?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의 권리를 주장한것이 놈들의 비위에 거슬렸단말인가?)

어머니는 몸을 벌떡 일으키었다. 자기도 그놈들과 싸우고만싶었다. 그래서 놈들이 망하는걸 보고싶었다. 큰일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놈들이 하는 일에 방해를 놓고 그래서 놈들이 망하는걸 보고싶었다. 채련이가 기다려졌다. 그에게서 일을 맡아하고싶었다. 그러자면 지금처럼 비탄에 잠겨있을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다기차게 싸워야만 한다싶었다.

어머니는 이발을 사려물고 생활을 꾸려가기 시작하였다. 주인집 아들이 전하는데 의하면 운송부에서는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 다시 또 대중적인 투쟁이 준비되고있다는것이다. 어머니는 그것이 무척 고맙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했다. 자기도 그 싸움에 함께 나서리라는 결심을 다졌다.

어머니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채련이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며칠뒤의 일요일 아침이였다. 날씨도 파스하고 바람도 없어 어머니는 오랜만에 빨래한 옷가지들 줄에 너는데 채련이가 수수한 지계군에게 트렁크와 보자기를 지워가지고 왔다. 어머니는 전에없이 반기면서 그를 맞았다. 채련은 곧 허드레옷으로 바뀔피고 나오더니 어머

니가 하던 빨래도 빼앗아하고 집안팍을 말끔히 거두었다. 그리고는 점심을 지어 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다.

《이제는 내게도 무슨 일이든지 시켜달라구, 운송부사람들이 그 애를 석방시키자고 들고일어나다지? 그런데 어미된 내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나?》

상을 받아들고앉은 어머니는 밥술을 들기전에 채련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직껏 무던해보이기만 하던 그의 눈에 강의한 의지가 엿보였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꼭 그렇게 결심하시리라 믿었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도 오늘부터 여기서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해요. 그래서 갖고있던 짐이랑도 가져왔는데…》

《? …》

어머니는 무슨 소린지 영문을 몰라 얼없이 그를 마주보기만 했다. 요즈음에 와 훌쩍하게 살이 빠진 그의 두볼이 빨강게 상기되고 눈가장자리도 수태를 머금고 빨갛해졌다. 의아쩍어하는 어머니의 눈길과 마주친 채련은 그전의 당돌하고 어엿함이 없어지고 쫓기우듯 외면해버린다.

《글쎄 떼네 합당한 거처가 없다면야…》

《아니야요. 있을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벌써 아드님과…》

《서로 사랑을 약속했던말인가?》

《…………》

채련은 점점 더 고개만 수그릴뿐 대답을 못한다.

어머니는 그만에야 어안이 병병해졌다. 놈들의 철창에 갇혀있는 아들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5년일지, 10년일지 그보다 더한 중형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제 운송부에서 그들의 석방을 위해 싸움을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아들이 석방되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그런만큼 웬만한 사람이라면 부모들의 승낙을 받아 정식 약혼을 한 사이라 하더라도 파혼소동까지 해올 형편인데 채련은 저희끼리의 언약을 두고 구류장에 갇힌 사람을 기다려 꽃나이를 헛되이 보내겠노라고 찾아왔으니 세상풍파를 겪어본 손수사람으로서 처녀에게 무어라고 일러줘야 하는가?

《애기, 내 말을 새겨들으라구. 이건 애기가 나보다도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애는 이제 중형을 받을 사람 아니야? …》

한참동안이나 정신없이 채련을 지켜보며 생각한 어머니는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이렇게 타일렀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욕심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처녀의 장래를 띄워주고싶어서였다.

《그건 저도 각오하고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거예요.》

채련은 또박또박 짝어말한다. 어머니는 다시 더 아무 말도 안하고 고개를 떨군채로 하회만 기다리는듯한 그를 언제까지나 홀린듯이 지켜보았다. 얼마나 가혹하고 고마운 사람인가?

짐까지 싸가지고 온것을 보면 모든 고초를 각오하고 온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마 그렇게 하자고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인생으로서는 첫자국을 땀 사람인데 늙은것이 공연히 정을 붙이게 하여 남의 귀한 자식을 진창으로 끌고 들어가는듯만싶어서였다.

《어머니, 저를 받아주세요. 결코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진 않겠습니다...》

채련은 맹세까지 다진다. 이 아릿다운 처녀의 소행앞에서 어머니는 눈앞이 흐려진채 언제까지나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은 이윽하여서야 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5

운송부사람들은 마침내 싸움으로 나설것을 결의하였다. 채련은 며칠동안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운송부에서 밤낮없이 붓배기로 준비사업을 했다. 싸움을 하게 된 날 아침이었다. 채련은 분주히 집으로 돌아왔다.

《너는 어디서 끼니라도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

아침을 짓던 어머니는 어린 딸자식이 돌아오기나 한듯 그를 반겨맞았다. 로동복차림을 한 채련은 몸이 뽁뽁 일어있었다. 늦가을 이른아침의 대기는 겨울처럼 차가웠다.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눈에 피발이 서고...》

황급히 채련을 방안으로 끌고들어가 어머니는 그를 아래목에 앉히고 손을 싸쥐여 녹여주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채련은 어머니에게 몸을 맡기고 그의 애무를 흡족하게 받았다.

《내 정신봐라, 네가 얼마나 시장하겠니. 거기 누워 눈을 좀 붙여라. ... 아무리 바빠도 잠이야 자가면서 일을 해야지...》

어머니는 베개를 내린다, 이불을 펼쳐준다 하며 정신없이 서둘러댔다.

《아니야요 어머니, 빨리 아침을 지어먹고 오늘은 어머니도 같이 운송부로 가셔야 해요.》

《사람들이 들고일어난단말이야?》

《그러문요. 운송부는 말할것 없고 기관구도 보선구도 다 와요...》

《그럼 아침을 서둘러야겠구나. 내 정신 봐라. 에그 밥이 타누나.》

어머니는 허를 차며 정신없이 부엌으로 나갔다. 급히 상을 차려가지고 방문을 연 어머니는 상을 든채 그 자리에 못박히고말았다. 채련은 아까 앉은 그 자리에서 벽에 얼굴을 대고 혼곤하니 잠들었기때문이었다. 얼마나 피로가 덮쳤으면 저렇게도 곤히 잠들어버렸을가? 어머니는 뜨거운게 목구멍에 피어올랐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상을 내려놓고도 차마 그를 깨우지 못했다. 그 자리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주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싸움을 한다면야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가야 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머리를 쳤다. 인정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였다.

《아기야! 시간이 늦어진다. 어서 일어나거라.》

어머니는 정이 넘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깨웠다.

《아유, 깜빡 졸았네. 어머니, 어서 한술 뜨고 떠나시지요.》

깜짝 놀라면서 눈을 뜬 채련이도 급히 상앞으로 나갔으며 도리어 채족을 한다.

그들은 부리나게 아침을 먹었다.

《어머니, 옷을 든든히 껴입으세요. 어찌면 싸움이 오래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시위로 해결되지 않으면 룡성까지 하자고들 합니다.》

《오냐 알겠다. 일이란 마음먹기 탓인데 이대론들 얼마든지 견뎌내지 못하리.》 어머니는 이러면서 채련에게 옷을 더 껴입게 했다.

두사람은 분주히 운송부를 향해 떠났다. 채련은 어머니의 팔을 끼듯이 하고 반달음질을 친다. 어머니는 숨이 차고 다리가 휘친거렸으나 조금도 힘든줄을 모르고 걸음을 재우쳤다. 지금 이 시각 어머니의 눈앞에는 철창안에 갇혀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발이며 프랑카드들을 추켜들고 경찰서를 향해 노도와 같이 밀고가는 시위대렬이 떠오르기도 했다.

자기도 이제는 그들과 한대오에서 굴함없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자 흥분을 견잡을수 없었다.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것이 없고 그들에게 밀리어 허둥지둥하는 원썬들의 물결이 눈앞에 보이는것 같았다.

그는 흘러내리는 옷자락을 간신히 추어잡으면서도 채련이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달렸다.

눈부신 아침해빛이 그들의 머리우를 어루쓸며 비쳤다.

전변되는 땅에서

조래호

예로부터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난 70 년대는 참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에서 그 어느 시기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변혁과 찬란한 업적으로 수놓아진 세기적전변의 나날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활짝 꽃핀 70년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선에서 올리신 천리마대진군의 거세찬 진군길을 이어 당중앙에서 검덕과 청산리에 지펴준 3대혁명불은기가 온 나라에 힘차게 나뭇긴 70년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정력적이며 세련된 지도 밑에 이룩된 그 세기적인 변혁우에 주체사상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든 80년대는 또 얼마나 큰 기적과 혁신으로 우리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나갈 것인가!

검덕과 은률, 황철과 안주, 평양의 어느 건설장에 가나, 저 서해안지대의 농장벌 그 어데를 가나, 70년대초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며 어느 용해공, 어느 탄부, 어느 건설자나 농장원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어봐도 10년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며 큰결음으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는것을 보게 되는것은 또 얼마나 기쁜 일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 왔습니다.》

이 땅우에 이룩된 이 모든 전변을 두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은 절로 부풀어오르고 래일에 대한 커다란 희망으로 더 큰 행복을 뿌듯이 느끼게 된다.

나는 얼마전에 은률 은천지구를 다녀온적이 있다.

그 사이에 몇번 다녀온 길이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펼쳐주신 80년대

의 휘황찬란한 전망을 한가슴 가득히 안고 보게 되는 모든것은 새롭기만 하였다.

《...이제 이 장거리벨트콘베아가 저 섬에까지 나가면 5,000정보의 땅이 기름진 논벌로 됩니다. 여기에다 우리 군에서 지난해에 개간한 이 300정보의 간석지와 올해에 할 여기 500정보의 간석지까지 합하면 근 6,000정보의 논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 나라에 또 하나의 새로운 군이 생겨야 할것입니다...》

은률군당 책임일군은 벽에 걸린 군의 지도를 짚어가며 이런 말을 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10년전에만 하여도 그는 바로 이 방에서 군의 지도를 짚어가며 5정보의 삼리간석지개간공사를 두고 흥분하여 말했었다.

《그때 이야기야 더해 뭘하겠습니까. 참 그때는 생각하는 품도 그렇고 모든것이 다 작고 좁았지요.》

그때 나는 작업복차림의 이곳 군당책임일군과 함께 삼리간석지공사현장에 나가본적이 있었다.

애어린 사과밭기슭에 친 천막속에 군지도가 걸려있었는데 나는 우물구불 복잡한 곡선을 이룬 해안선을 한참이나 더듬다가야 5정보의 삼리간석지공사장을 찾았었다.

《이 공사를 우리는 단 보름동안에 해제끼기루 당결정에 박고 나왔지요. 생각해보십시오. 보름동안에 5정보의 새땅을 얻어낸단말입니다...》

전화기까지 설치한 현장에서 군당책임일군은 방금 시작한 동막이 현장을 지도에서 가리키며 가슴을 짝 펴고 흥분하여 말했었다.

한데 10년이 지난 오늘은 5정보가 아니라 300정보, 500정보의 간석지개간공사에 대해 아무런 부대조건도 없이 터밭이나 일구는 일쯤으로 여기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군자체의 힘으로 300정보의 간석지개간공사를 12일이나 걸렸는데 올해에는 500정보의 공사를 단 8일간에 해제끼겠다고 한다.

군당책임일군이 가리키는 지도를 봐도 10년전에 그렇게도 복잡한 곡선을 이루었던 해안선은

찾아볼수 없고 자를 대고 죽죽 그은 직선뿐이었다.

《어떻게 이렇듯 통이 커졌는가구요? 허허… 정말 우리자신도 믿기 어려울만치 놀라운 일이지요. 저 바다를 가르고 뻗어나간 장거리벨트콘베어를 좀 보십시오. 박토를 가지고 저렇게 바다를 내막아 대번에 5,000정보의 땅을 얻어내는 일을 누가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당중앙이 아니고야 저렇게 통이 큰 일을 어떻게 벌리겠습니까.

당중앙은 우리의 좁은 가슴을 활짝 띄워주었습니다.》

진정 감격없이 는 들을수 없는 말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하나의 사업을 설계해도 대담하게, 한결음을 걸어도 통이 크게 큰결음을 내디디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활화산마냥 분출하는 뜨거운 열정을 안겨주었으며 우리 인민을 창조의 거인으로 온 세계앞에 뽐뿌이 내세워주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나의 눈앞에는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세기적인 기념비들이 떠올랐다.

검덕과 백금산 그리고 우리 식의 자동화와 원격조종화가 실현된 황철과 수심리 은물 장거리벨트콘베아… 어찌 그뿐이겠는가! 만수대에술극장과 창광원, 평양산원과 락원거리, 창광거리…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이 땅에 활짝 꽃피워나가는 당중앙의 통이 크고 대담한 령도에 의해 이룩된 주체시대의 자랑높은 세기적기념비들과 함께 사람들의 가슴은 한개의 군, 한 공장, 한 농장이 아니라 온 조국땅과 온 세상을 안을수 있게 넓어졌다. 하기에 그 어떤 사업을 하나 설계해도 주체시대의 일군답게 세기와 세기를 내다보며 열, 백이 아니라 천, 만을 헤아리며 통이 크게 일을 벌려나간다.

은천군에 가방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이렇게 키가 작고 통이 크지 못한 사람이지만 초정리 일군들은 나보다 더했지요. 그곳 관리위원장은 이마가 좁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논두렁 한개를 가지고도 머리를 기웃거리던 그였

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당대회보고를 받들고 농장자체의 힘으로 30정보의 새땅을 찾아내겠다고 제기해왔습니다…》

은천군경영위원회 책임일군은 군에서 전망계획기간에는 지금의 3배의 알곡을 생산해낼수 있다고 하면서 그 과학적근거들을 하나하나 꼽아나갔다. 그것도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5~6년만에 그 높은 고지에 올라선다고 한다.

사실 몇해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1,000만톤의 알곡고지와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전망을 제시했을 때만 하여도 우리는 그 수자들을 두고 얼마나 가슴부풀리며 감격에 겨워했던가!

한데 오늘은 1,500만톤과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이라는 이 놀라운 수자를 두고도 우리 일군들은 자신만만해한다. 넓은 가슴을 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신심에 넘쳐 받아안았다.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초정간석지쪽,

아직은 갈대 설령이는 진펄뿐이다. 우불구불한 쪽, 갈게무리들만이 옥실거리고 감탕물이 출렁이는 해안선은 복잡한 곡선을 이루고있다.

이제 전망계획기간에 이 동쪽은 저 앞 30리밖으로 나가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1,500정보의 논을 가진 새로운 농장이 또 하나 지도우에 생겨날것이다.

이것은 한갓 꿈이나 희망만이 아니다. 바로 당중앙의 향도의 해발을 한가슴 가득히 받아안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린 현실이다.

우리의 지리학자들은 이제 더는 서해안의 복잡한 곡선을 그리노라 땀을 빼지 않을것이다. 연연수천리를 헤아리는 서해안은 평균 30리나 내밀려나가 직선으로 죽죽 편결될것이며 갈대만 설령이는 이 진펄우에는 주체시대의 영광을 노래하며 30만정보의 벼바다가 설레일것이며 1,500만톤의 알곡고지가 높이높이 솟아오를것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안겨준 큰 심장을 가지고 승리의 신심 드높이 전진하는 이 불패의 힘, 이것이 바로 주체시대의 위대한 화폭이 아니겠는가!

주체형의 인간의 참된 삶에 대한 진실한 형상

-장편소설 《령마루》에 대하여-

백경을

장편소설 《령마루》(임단웅작)는 시대적인 요구와 지향을 옳게 구현하여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작품창작을 위한 예술적탐구과정에서 우리 소설문학이 이룩한 자랑스런 결실의 하나이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힘있게 구가한 생동한 예술적화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우리 문학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주성과 창조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인간의 참된 삶의 목적과 가치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주성을 옹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주체의 인간학이다.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도 그것이 인민을 교양하기 위한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옳바른 해답을 주어야 하는것이다.

장편소설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밝혀주는 가장 심각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시대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진실하게 해명하였다.

사회정치적으로 매우 절실하고 의의가 큰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를 체현한 주체형의 인간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은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문학작품에서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는 실체적으로 작품의 기본문제의 설정에서 뚜렷이 제기되며 구체화된다.

장편소설이 우리 시대의 절실한 인간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명을 주고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할수 있는것은 우선 작품의 기본문제를 바로 주체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특징짓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제기하고있는것과 관련되어있다.

장편소설 《령마루》는 우리 당이 지퍼올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어느 한 광산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그리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해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체현한 주체의 인생관문제, 정치적생명문제를 작품의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정면으로 깊이있게 형상화하고있다.

작품이 사상주체적과제로 제기하고있는 주체의 인생관문제 즉 주체형의 인간들은 자기의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하는가, 영생하는 삶은 어떤것이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해답을 기다리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는 언제나 인간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풀어야 한다.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풀어야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할수 있으며 순간을 살아도 영생할수 있는 참다운 삶의 길, 투쟁의 길을 가르쳐줄수 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이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주체의 혁명적인생관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밝혀내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 특히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령마루》는 이렇듯 의의있는 문제를 작품의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비록 육체적생명은 희생할지언정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이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여기에 영생하는 삶의 길이 있으며 한몸의 안락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혁명투쟁에 모든것을 다바쳐가는 여기에 참다운 삶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주체의 인생관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명을 줄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의 가치와 의의가 있으며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할수 있는 근본요인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령마루》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생동하게 특징지을수 있도록 작품의 기본문제를 옳게 제기하였을뿐 아니라 그것을 체현한 긍정적주인공들의 성격을 시대적인 높이에서 훌륭히 전형화함으로써 작품의 기본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명을 주고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이 날고있는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창조에서 새로운 사상예술적정지를 개척하였다.

소설의 주인공 현우림은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오직 그 한길에서 가장 큰 영예와 행복을 느끼며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위하여 한정된 육체적생명을 가장 보람있게 바칠줄 아는

주체의 인생관을 투철하게 체험한 새형의 인간전형이다.

바로 여기에 그의 성격을 특징짓는 근본핵이 있다.

현우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이것은 현우림이 자기의 50평생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간직하게 된 진리이며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현우림의 꿈많은 어린시절은 험준한 랑림산맥의 울창한 수림속에서 흘러갔다.

인간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고산지대의 어느 한 골짜기에서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땅속의 쇠돌을 캐며 살아오다가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마저 여윈 현우림은 15살부터 광차를 밀며 소년광부로 잔뼈가 굵었다.

무지와 몽매, 살인적인 교역과 무권리, 참으로 그것은 너무도 지긋지긋하고 저주로운 세상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이 땅에 광명한 새세상을 마련해주시였을 때 현우림은 그 따사로운 품속에서 이 나라 민주학원의 대학생이 되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대학생이 된 자기 아들을 못보고 돌아간 어머니생각이 나서 그는 그때 울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 그것은 현우림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과 권리를 되찾아준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었고 참다운 삶과 한없는 행복을 안겨주는 이 세상 가장 따사로운 친아버이품이었다.

그 품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으며 큰 광산의 책임일군으로까지 자라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생활과 투쟁의 온갖 목적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의 교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그 하나의 신념, 그 하나의 지향속에 있었다.

소설에서는 그의 이러한 성격적바탕을 통하여 그의 사상정신적지향을 인간적측면을 통하여 주로 그의 다면적인 기질속에서 개성적으로 뚜렷이 부각하였다.

사실 현우림은 안해에게는 자기 건강과 가정생활에 무관심하고 《고집이 세어 안해의 충고쯤은 귀등으로 듣는 도저히 휘여잡을수 없는》 무뚝뚝한 남편이었고 윤혜영에게는 《론리만을 아는 차거운》 사람, 《뜨겁지 못한》 사람이었으며 갱장인 박상만에게는 원칙만 내세우는 《무서운 관료주의자》였다.

그는 생활에 《무관심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현우림에 대한 이들의 이러한 견해가 어떻게 달라지며 인간으로서의 현우림을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우리는 소설의 흐름을 타고나가면서 보게 된다.

그는 오로지 아버지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그밖의 그 어떤 다른 신념, 다른 목적, 다른 생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쇠돌을 더 많이 캐내고 갱내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길에 자기의 모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간직하고있었다.

물론 현우림의 지나온 생활에는 즐거웠던 일, 어려웠던 일도 있었고 다감한 정서와 패일에 대한 동경으로 가슴설레인 그런 나날들도 있었다.

한때는 그도 꿈이 많았다.

참새잡이와 낚시질로 해종일 정신팔고 돌아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에게도 저녁이면 모기불을 피워놓고 명석우에 드러누워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며 머나먼 별세계를 그리면서 끝없는 공상에 잠기곤하던 어린시절이 있었다. 고성기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면 걸을 멈추고 귀기울이곤하던 현우림이였다.

그는 이제와서 이 모든것을 아버지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자기 사업의 숭고한 목적속에서 더욱 확고하게 볼줄 알았다. 여기에 그의 인간적측면의 비할바 없이 높은 세계가 있다.

자기 사업에서의 지칠줄 모르는 투지와 완강성은 그로 하여금 강의한 정신적힘의 소유자로 되게 하였다. 외형상 무뚝뚝하고 뜨겁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나 그만큼 웅심깊은, 그도 다감한 취미와 불보다 뜨거운 심장을 지닌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간이였다.

그의 모든 생활은 막장과 쇠돌, 종합적기계화를 위한 사업과 련결되어있었다.

그는 쇠돌을 떠나서 그 어떤 생활도 알지 못하였다.

그것은 바로 그 쇠돌속에 광부의 땀이 스며있고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광부의 충성심과 애국의 녀이 깃들어있으며 깨끗한 로동계급의 량심과 광부의 자랑이 그리고 당원의 당성이 담겨져 있기때문이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리상, 고귀한 진리, 참다운 영예도 오직 그 쇠돌속에 있다고 그는 인정하였다.

쇠돌, 거기에 그의 모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의 열정, 그의 감정, 그의 사색, 그의 환희가 있었다.

그러고보면 사실 그는 생활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였다. 그는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때에조차 그 남은 생활을 그리도

보람있게 보내려고 얼마나 대범하게 살줄 알았는가.

그처럼 생활을 열렬하게 사랑한 사람은 쉽지 않다.

바로 여기에 현우림의 성격에서 볼수 있는 그의 높은 인간적모습이 있고 주체형의 인간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의 생동한 개성적면모가 있다.

인간의 참다운 삶은 자기 삶의 향유에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다 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에서의 헌신적복무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높은 산, 험한 령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깊은 산골광산에까지 찾아오시여 지하막장과 로동자들의 생활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동무들은 당앞에 생산만 책임진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귀중한 혁명동지들의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 ...

아까 나는 막장에서 백지처럼 하얀 철쭉꽃을 보고 생각이 많았습니다...우리는 하루빨리 갱내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하고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제정된 짧은 로동시간에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여야 합니다.》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배려, 한떨기의 철쭉꽃을 보시고도 그토록 마음을 쓰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얼마나 인간을 귀중히 여기시고 인간의 삶을 빛나게 하여주시려는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아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그 숭고한 길에서야말로 인간의 참다운 삶의 의의와 가치가 있는것이다. 현우림은 자기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바로 여기에 두고있다. 그 길에서는 밤낮이 따로 없는 막장에서의 전투도 그대로 행복이였고 기쁨이었다.

바로 이러한 현우림이었기에 전쟁시기에 입은 치명적인 상처가 도져 시시로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수천명의 광부를 가진 큰 광산의 생산을 이끌어가면서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와 같은 어려운 기술혁명과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

그러나 그는 날이 갈수록 파괴되어가는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는다.

자기 삶의 의의를 자각한 사람만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받아안고 그것을 빛내일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수 있다.

사람이 산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나 아무나 그러한 참다운 행복을 지닐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산다는것이 육체적생명을 유지해나가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

며 사회와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생을 기꺼이 바쳐나가는데 있기때문이다.

소설은 이처럼 현우림의 형상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투쟁속에서만 인간의 행복, 참다운 삶의 보람과 의의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의 성격창조에서 거둔 작품의 성과는 또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 자기 한몸에 닥친 육체적생명의 위협도, 억센 투지와 기백으로 타승해나가는 굴함없는 성격을 잘 형상함으로써 우리 시대 인간들이 체현한 주체의 인생관 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는데 있다.

현대의학은 그의 생명이 이제 겨우 석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준엄한 선고를 내린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게 될 때 그 이후의 하루하루란 사실에 있어서 절망과 비애, 공포와 우울의 나날이기가 쉽다.

그러나 그는 혁명을 하자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략관적으로 싸워이겨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드림없는 생활의 길을 더욱 억세게 걸어나간다.

그가 최종적인 진단을 받은 이후 광산구내를 돌아보며 얼어붙은 강기슭을 지날 때의 심리는 얼마나 생활략관적이고 다감하고 여유작작한가.

봄이 오면 얼었던 강물이 풀리고 기슭에 울긋불긋 진달래가 피어날것이며 개울물에는 산천어들이 떼지어 몰려다니고 물새들이 깃을 적시며 솟아오를것이다...

이것은 삶을 깨끗이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죽음앞에서도 공포를 모르고 략관적으로 살줄 아는 사람만이 간직할수 있는 다감하고 깊은 내면세계이다.

운전사의 안해가 생남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을 때 현우림의 기쁨이 그리도 큰것은 이때문이다.

자기가 없는 그때에 가서도 이 골짜기에서는 생활이 계속될것이며 그때의 생활은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빛날것이라는데 대한 그의 략만적인 감정이 우리의 가슴을 친다.

자기 사업범위도 아니요, 자기 광산사람도 아닌 녀성연구사 윤혜영이 중화제실험에 수입제원료를 쓰려고 할 때 그를 깨우쳐주고 우리 나라 원료에 의한 중화제연구에 성공하도록 끝까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것도 바로 그가 병원에서 최종진단을 받고 나온 이후의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주체시대 인간의 참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삶의 진정한 의의와 보람, 주체의 인생관에 대한 위대한 시가 있지 않는가.

그가 다만 한가지 가슴아픈 생각을 가지고있는 것은 종합적기계화를 끝내고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를 올리자던 그것도 못해보고,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아무것도 크게 한일 없이 한평생을 끝낸다는 생각,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와 신임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그 한가지 생각이었다.

심장속 깊이엔 언제나 이렇듯 맑고 깨끗한 충성의 피만이 세차게 맥박치고있기에 그는 그 어떤 역경도 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것처럼 태연할수 있었고 죽음을 초월할수 있었다.

소설은 현우림의 성격을 형상하면서 그의 불굴의 의지와 생활락관적인 기백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우림의 나이까지 물어주시고 우리 나라에는 앞으로 할일이 많은데 동무처럼 젊은 일군들을 보니 기쁘다고 하시면서 건강에 류의하라고 몇번이고 당부하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사랑은 거대한 정신적힘을 낳는다.

현우림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지어는 생명에 운명적인 선고가 내려진 그 시각에도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보옵던 잊을수 없는 감격의 그날을 생각하였다.

작품은 현우림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참으로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특히 운명의 선고를 받고 병석에 누웠던 현우림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어주시는 전화를 받는 장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에 운명을 의탁하고 그 위대한 사랑속에 사는 혁명전사는 영원히 죽음을 모르고 가장 값있게 살수 있음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한다.

우리는 그 감격적인 장면을 생각하며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내가 어느때가 말하지 않았소? 건강에 주의하라구말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일했소? 왜?...》

이것은 일을 저지른 어린 자식을 꾸짖을 때 하시는 그 자애에 넘치신 친어버이의 말씀그대로이다.

《간부들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는줄 아오? 동무들이 없이 내 혼자 혁명을 어떻게 해? ... 내 속을 왜 그렇게들 태우는가.》

목메인 흐느낌 없이는 그대로 들을수 없는 말씀, 그이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고 어느때이고 그냥 행복에 젖어 감정의 폭발을 터뜨리고만싶은 말씀.

무엇을 위한 삶이고 무엇을 위한 청춘인가. 아이 이상 더 큰 삶의 보람, 더 큰 행복이 어데 있겠는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펼친것도 아니요 특출한 공로자도 아닌 우리 시대의 평범한 한 당원의 운명에 그토록 심려를 기울이시니 그이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은 영원히 행복할것이다.

영원히 그 품속에서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를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 또 갈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빨리 올라와 집중적인 치료를 하자고 하시며 비행기를 보내실 대책까지 세워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그렇다. 그이의 품속에서 사는 혁명전사는 죽지 않는다.

이 세상에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해살이 그 어디에나 골고루 비치고있는한 우리 인민의 삶은 영원한것이다.

현우림은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을 받아안고 이 세상에 두번 다시 태어난 이 나라의 수많은 복받은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현우림에게 기울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을 감동깊게 형상함으로써 그이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행복과 참다운 삶의 보람을 뜻깊게 보여주고있다.

이밖에 작품에서는 녀성연구사 윤혜영, 제대군인출신의 소대장 강희철, 박금옥, 갱장 박상만, 당비서 김성재 등의 형상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윤혜영의 형상은 매우 새롭고 의의있는 형상이다.

소설이 윤혜영의 형상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한 사상미학적의도는 그가 어떤 연구과제를 맡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자체를 보여주는데 있지 않았다.

소설이 윤혜영의 성격에 체현시킨 문제성은 우리 시대 녀성문제와 가정문제이며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윤혜영은 우리 생활의 본질과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시대적전형이다.

소설은 그의 형상을 통해 우리 시대 녀성들의 진정한 행복, 참된 삶에 대한 문제를 밝히려고 하였다.

치녀시절의 그의 포부와 리상은 누구보다 높고 아름다웠다. 대학을 나온 치녀의 가슴은 창공을 향해 나래치는 새와 같았다. 어린 새는 깃을 차고 하늘로 날아오르기도전에 조롱안애 갇히우고말았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그를 움썽달썽 못하게 만들었던것이다.

그는 녀성과 가정이라는 낡은 관습의 온갖 구속을 박차고 사회와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업에 헌신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과학연구사업은 일부 녀성들이 그러하듯이 하던 일도 중도에서 물러서고 다시금 가정의 구속

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립장, 그러한 자세로서는 수행해낼수 없다. 그것은 강의성과 결단성을 요구한다.

그는 녀성이다. 그에게 있어서 강의성, 결단성이란 말자체부터 아름답것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그가 진정한 삶의 령마루에 올라서기까지는 적지 않은 동요와 심리적고충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몹시도 그의 머리를 지배하고 시시로 그를 못건디게 유혹했으나 그는 정신적으로 더 높은곳에서 그를 압도했다.

그는 결코 《귀여운 랑만주의자》로 남아있지 않았으며 《선협자들의 전철》을 밟지도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형상함에 있어서 소설은 그의 성격을 처음부터 완성된 인물로 격식화하지 않았으며 그의 사상적변화과정을 녀성특유의 내면세계와의 통일속에서 잘 형상하였다.

바로 여기에 그의 성격형상이 가지는 매력있으며 예술적인 진실성과 개성적인 생동성의 힘이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오늘 녀성들의 사회적활동범위는 더욱 넓어지고있으며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지위와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우리 혁명의 요구의 견지에서 볼 때 윤혜영의 성격이 가지는 의의는 크며 그것은 앞으로 더욱 커갈것이다.

소설은 광산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새세대들의 전형들로서 강희철, 박금옥의 성격도 개성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소설에서는 이들의 형상을 통해 일시적인 오해와 곡절을 거쳐 이들이 참다운 삶의 리상이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대를 이어 이 광산에 뿌리를 내리고 이 광산에서 한생을 아버지수령님께 충성다해가리라는 그러한 맹세가 이들 청년들의 래일의 생활까지를 굳게 약속할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사랑은 이 광산의 벅찬 생활속에 씨가 뿌려지고 3대혁명을 수행해나가는 막장의 보람찬 로동속에서 싹이 트고 꽃으로 피여난, 우리 시대 청년들의 높은 리상과 숭고한 정신세계의 반영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형상을 통해 소설이 제기한 문제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리상과 애정률리문제이나 그자체에 그치지 않고 주체의 인생관문제에까지 심화되고있다.

여기에 그들 형상이 가지는 사상미학적의의가 있다.

우리는 이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넘치는 정열과 패기, 끝없는 포부와 희망을 통하여

더욱 현대화되고 더욱 웅장하게 변모될 이 광산의 미래를 본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본다. 더욱 아름답게 꽃피날 광산마을의 그날의 들끓는 생활도...

지혜롭고 강의하며 아버지수령님의 교서관철에서 추호의 드림도 모르는 이들 청년들의 큰 집단을 가지고있는 한 광산은 더욱 힘차게 발전할것이다.

소설에서는 광산당비서 김성재의 성격도 우리 시대 당일군의 전형으로 진실하게 형상되었다.

작달막한 키에 뚱뚱한 몸에서는 부닥치면 튀어 오를듯한 탄력이 넘쳐나고 걸음걸음 사색의 불꽃이 튀어오르는 김성재의 형상은 참으로 인상깊게 그려지고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실천적모범으로 가르쳐주시는 당사업의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모습들이 번쩍거린다.

그는 기사장 현우림을 놓고 한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하여 깊이 사색할줄 알며 박상만의 결함을 두고는 것처럼 타협없는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한다.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어 열매가 주렁지게 하듯이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광산의 모든 사업이 그의 빈틈없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결과로 하나하나 해결되어나간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은 등장인물들의 전형적인 성격창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높은 충성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에 대한 문제를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진실하게 해명하였다.

장편소설 《령마루》가 사회주의현실주체작품창작에서 우리 소설문학이 거둔 귀중한 결실의 하나로 되는것은 또한 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정당하게 해결한것과도 관련된다.

무엇보다 사회주의현실의 벅찬 생활속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고 그것을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는데 있다.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생활무대는 많은 경우 창조적로동생활과 결부되지 않을수 없다.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벅찬 현실은 오늘 우리 생활의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다.

우리 문학은 웅당 이러한 보람찬 생활을 반영해야 하며 그것은 어차피 창조적로동과 생산활동속에서 그려지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사명은 로력투쟁이나 생산활동 그자체를 그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속에서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 즉 인

간문제를 새롭게 탐구하고 그것을 시대적인 높이에서 깊이있게 해명하는데 있다.

장편소설 《령마루》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광산로동계급의 생활을 정면으로 그리면서 작품의 많은 부분들에서 최돌생산을 늘이며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생산기술적문제들을 취급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친바와 같이 작가들은 생산활동을 그리는데서도 어디까지나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 로동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문화도덕적 관계를 밝히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작품이 생산기술적문제를 취급하면서도 주인공 공현우림의 운명문제를 놓고 보다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는것은 삶에 대한 그의 신념과 의지, 거기에서 안겨오는 심각한 문제성이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생산문제와 기술적문제에 대한 현우림과 박상만의 서로 다른 사상적립장과 태도를 그들 호상간의 구체적인 인간관계속에서 예리하게 밝힘으로써 생산기술적문제를 인간의 운명개척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전환시킨데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의 가치와 같은 심각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는 여기에 이 작품이 그 사상적내용에서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있다.

장편소설이 거둔 다른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생활묘사의 진실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친바와 같이 창작가들은 큰 사건, 요란한 생활을 가지고 창작에서 한몫 보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실생활을 의의있게 그려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소설에는 큰 사건, 요란한 생활도 없으며 우리나라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광산생활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묘사되어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자들의 인상을 강하게 한다. 아마도 그것은 그 생활속에서 자기들의 생활의 의의와 가치를 찾아보게 되고 신심과 용기를 가지게 하기때문일것이다. 광산로동계급의 보통생활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안겨오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문제는 단순히 작가의 묘사적기교문제가 아니라 그의 사상미학적안목의 높이와 관련되어있는 문제이다.

생활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어떻게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평범한 생활속에 깃든 새로운 깊은 의미를 어느 정도로 밝혀내는가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현실에 대한 긍정적열정을 뜨겁게 안지 못할 때 생활을 미화분식하고 멋없이 과장하는데 매여달리지 않을수 없게 되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그 어떤 다른 생활을 고안해냄으로써 생활을 외곡하게 되는것이다.

장편소설에서 새로운 측면은 또한 생활반영에서 묘사와 주정토로가 유기적으로 잘 통일되어있는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이전 어느 시대의 생활에서도 볼수 없는 가장 빛나는 위훈과 기적으로 수놓아진 보람찬 시대, 벽찬 생활속에 살고있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창작에서 생활이 담고있는 심오한 철학적내용과 시대적본질을 밝혀내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지 않고는 못견딜 충동을 가지게 한다.

이 작품에서는 작가자신이 사건들과 작중인물들의 생활속에 개입하지는 않으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주정토로가 묘사와 배합되면서 적지 않게 좋은 역할을 놓고있다.

《오늘의 부르조아철학자들은 말한다. 사람이 산다는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사람이 죽음을 떠나서는 살수 없듯이 죽음에 대한 고민과 공포를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 ...

죽음에 대한 공포로 신경쇠약증에 걸린 20세기 제국주의의 정신문화는 립종을 앞에 두고 마지막 통곡을 하고있다. 그러나 인민은 죽지 않는다. 위대한 주체의 빛발아래 지구상에는 죽음을 타승하고 영원히 죽음을 모르는 새 인간들이 탄생하고있다. 광명한 미래를 확신하고 아름다운 꿈과 위대한 창조력으로 영원히 죽음을 타승한 새 인간들이 인류력사우에 탄생하고있다 ...》

이 주정토로에는 부르조아반동들의 《인생철학》에 파멸의 선고를 내리고 주체의 인생관의 승리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울리고있다.

주정토로의 영향력은 작품의 정론적기백과 정서적감화력을 강화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해준다.

참으로 장편소설 《령마루》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영원히 변치 않는 충성심에 기초한 주체의 인생관을 그토록 진실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사람이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된다.

공장의 주인

백철수

그 어느 공장에서도나 출근시간의 공장정문은 붐비기 마련이지만 녀성들이 과반수인 방직공장의 정문은 더욱더 다망하고 야단스럽다.

무엇이 그렇게도 즐거운지 명랑한 웃음소리를 날리며 어깨걸고 들어서는 처녀들, 작업장의 인제인수를 정확히 살필 일념으로 총총히 걸음치는 작업반장들과 초급일군들, 방금 탁아소에서 나와 옷매무시를 살피며 들어서는 애기어머니들... 옷차림도 각양각색이다. 분홍색, 푸른색, 자주색 갖가지 옷색갈들이 꽃물결로 어울려 흘러든다.

그런데 그 꽃물결이 공장입구의 게시판에 이르러 마치 큰 소에 물고이듯 흐름을 멈추었다. 그럴 것이 게시판엔 직관원이 특보할 때에만 그리는 목란꽃테두리속에 대서특필한 속보 한장이 나붙은 것이다.

《당대회결정관철의 길위에 피어난 충성의 꽃, 1정방직장 리선심동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의 하나인 천 15억메터고지를 4년동안에 점령할 결의로 매일 자기 계획을 500프로이상 완수해가고 있다...》

방직공들과 함께 출근길에 올랐던 나는 속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500프로라는 기적적인 수자도 희한했지만 1980년대말에 도달할 목표를 6년이나 앞당겨 완수하겠다는 그 불같은 결의가 가슴을 찡뚫었다.

《저 수자는 약과야. 어제 선심언닌 570프로 했단다.》

《그래, 이제 더 오를거야. 선심언닌 결의해놓고 못해본적이 없으니까.》

나의 옆에 선 두 처녀가 주고받는 말이였다.

돌아다보니 한 처녀는 파마머리이고 다른 한 처녀는 단발머리였다. 한데 기대와 선망의 빛이 어린 두 처녀의 얼굴은 해맑고 가름하여 신통히도 쌍둥이처럼 비슷해보였다.

《쳐다보지 못할 나무냐? 우리도 따라 해보자.》

《그래 해보구말구.》

두 처녀는 이렇게 속삭이며 방긋 웃더니 서로 다정히 손을 잡고 자리를 뜬다. 사랑스러운 그들의 모습은 이내 사람들속에 싸여져버렸다. 그리하여 나의 눈엔 속보에 큰 충격을 받아안고 각 직

장으로 흩어져가는 사람들의 군상이 더 큰 꽃물결로 되어 흘러가는것만 같았다.

지금 온 공장이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해 들끓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려 가까운 앞날에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람차고도 휘황한 전망을 눈앞에 보면서 모두가 천 15억메터의 고지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개시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그 앞장에 저런 선구자가 서있으니 혁신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번져나갈것이 아닌가.

이런 가슴부푼 생각이 들자 나는 이곳 구월방직공장에 와서 직포직장에만 관심했던 일이 후회되였다. 이웃공정에서 일어나고있는 큰 성과도 모르고있었으니...

그날 아침 나는 큰것을 놓친것 같은 아쉬운 마음을 삭일수 없어 1정방직장으로 발걸음을 돌려세웠다.

그러나 마련없이 서두르는 일이라 나의 정방직장방문은 사개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아침사업조직으로 분망한 가운데 나를 맞아준 1정방직장장은 나의 방문사연을 듣더니 딱한 표정을 지으면서 리선심은 2교대이므로 오후 낮번에 나오리라느것이였다.

하느수없어 오후에 다시 들리겠다고 하고 돌아서려고 하자 직장장은 나의 팔을 잡고 도로 자리에 앉히며 말했다.

《리선심동무는 공장조업식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정방직장에 들리시여 현지교시를 주신 49 호기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 영광을 지니고 계속 혁신해가고있는데... 정말 우리 직장의 기둥입니다.》

하고 리선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눈가와 입술에선 실없이 미소가 피여났다. 그것은 세상에 큰일을 한 훌륭한 자식을 둔 아버지가 넘쳐나는 자랑과 긍지를 숨길수 없어 저도모르게 짓게 되는 그런 기쁨의 미소였다.

그렇만도 한것이 리선심은 작년계획을 6월말까지 끝냈을뿐아니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서 당중앙의 호소를 받들고 벌린 《100일 전투》 때엔 자기 과제를 400프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100일전투》의 치열한 불길을 직접 목격했던 나는 높아진 《100일전투》 과제를 넘쳐수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뿔어넘치는 충성심을 간직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었던것임을 잘 알고있었다. 그 래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말했더니 직장장은 그 진가를 바로 알아주는것이 반가운듯 머리를 크게 끄덕이며 더욱 신이 나서 말했다.

《어디 그뿐인줄 아십니까? 리선심동무는 혼자서만 혁신하려고 하지 않고 기능이 어린 동무들을 이끌어주는데서도 모범이지요. 그 바쁜 전투 기간에도 기능전습을 중단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방조밑에 벌써 5급공으로 자란 동무도 있지요, 공장에 들어온지 3년밖에 안되는 리영희동무는 선심동무를 따라앞서보겠다고 패기가 여간이 아니랍니다.》

《참 좋은 일이군요.》

《정말 속도전의 기상이 나래치는가봅니다. 요즘은 막 성수가 나지요.》

하고 직장장은 상반신을 흔들며 즐겁게 웃었다.

나는 그와 오후에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나오다가 다시 작업장으로 발걸음을 돌려세웠다. 리선심이 일하는 일터라도 먼저 눈에 익혀두고싶은 충동이 불쑥 머리를 쳐들었던것이다.

높은 온습도가 요구되는 정방직장은 뜨거운 열기속에 들어선들 화끈 달았다. 거기에서는 정방공들의 차림새마저 한여름철이다. 소매 없는 나리옷, 여름철달린옷을 입은 날씬한 몸매의 처녀들이 정방기들사이를 누비며 실을 뽑는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치교시 명판이 붙어있는 49호기대를 찾아갔다.

룩색으로 곱게 색칠하고 청소가 깨끗이 된 그 영광의 기대에서는 연분홍의 나이론수건으로 머리를 가뜰하게 건사한 처녀가 날랜 솜씨로 실을 뽑고있었다. 그 처녀의 얼굴을 눈여겨보는 순간 나는 눈을 습벅거렸다. 공장입구의 게시판앞에서 단발머리처녀와 귀속말을 주고받던 파마머리처녀가 아닌가.

처녀도 나를 알아본듯 방긋 미소를 지어보이고 다시 기대에 눈길을 겨누더니 한결같은 일숨씨로 실을 이어나왔다. 나는 그가 기대를 따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름이 뭔가고 슬며시 귀가에 대고 물어보았다.

《리영희입니다.》

처녀는 기대의 소음을 누르는 쟁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로 리선심을 따라앞설 패기와 열정으로 일한다는 그 리영희가 아닌가.)

방금전 직장장이 흡족해서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오르자 나는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말을 건넸다.

《영희동문 선심동무와 마음속으로 경쟁한다지?》

《아-니!》

어떻게 그런 내속까지, 하는 놀라운 눈매로 나를 쳐다보다가 처녀는 불시에 사무쳐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고개를 수그린채 기대를 보아나갔다.

나는 발길하게 물들어진 그의 얼굴빛을 읽자 공연한 말을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그래서 덤덤히 그의 일숨씨만 지켜보고있었다.

리영희는 기대끝까지 다 나가서 반대편 다른 선으로 돌아가려다가 얼핏 이쪽을 뒤돌아보았다.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그는 대담하게 나를 마주 향하여 다가왔다.

《우리 공장에 나오신 작가동지이지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리영희는 내가 그렇다는 표시도 하기전에 확신에 찬 얼굴로 말을 이었다.

《선심언니에 대해서 꼭 써주십시오. 제가 하는 작업방법은 다 선심언니한테서 배운거예요. 지금은 그 언니한테서 량면순회법을 배우고있는데 좀처럼 익숙되지 않는군요. 하지만 꼭 해내겠어요.》

리영희의 큰 눈은 신심에 넘쳐 반짝였다.

《웁소. 빨리 배워가지고 따라앞서시오.》

《아이- 또 그 말씀이시네.》

리영희는 책 돌아서 달려가다가 기대모퉁이에 이르러 멈칫하고 돌아보더니

《저의 부탁을 들어주셔야 해요.》

하고 쟁쟁한 목소리를 남기고 반대편선으로 돌아가버렸다. 줄줄이 드리운 실가락들과 기계사이로 연분홍의 머리수건이 얼른거려보일뿐이었다.

(얼마나 다감하고도 열정에 넘친 청춘인가!)

나의 가슴은 생신한 감정으로 차는듯싶었다. 그럴수록 아직 만나보지 못한 리선심에 대한 호기심은 더 커지기만 하였다. 그는 어떤 동무이기에 일군들과 동무들로부터 저렇게 사랑을 받고있을가.

나는 발길을 돌려세웠으나 좀처럼 궁금증이 가셔지지 않았다. 그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눈앞에 떠올랐다.

바다의 갈매기처럼 정방기사이를 나래치듯 누비며 다니는 정방공,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청

춘의 활력에 넘친 림름하고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었다.

오후에 나는 교대를 한시간이나 앞두고 다시 정방직장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다.

때마침 직장장이 공장사무실에서 나오다가 나를 보고 반기면서 알려주었다. 리선심이 세시간 전부터 일터에 나와서 앞교대동무들을 방조하고 있다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어서 만나보게 해달라고 청을 드리었다. 그러자 직장장은

《마침 저기 옵니다.》

하고 공장정문쪽을 가리켰다.

(일터에 나와있다더니?)

나는 어리둥절해서 정문쪽을 바라보았다.

미색과 붉은색으로 곱게 색칠한 유모차 한대가 미끄러지듯 정문으로 들어오고있었다. 거기까지 흰하게 트인 구내길우엔 대여섯사람이 보일뿐이었다. 나는 누가 리선심일까 하고 그 한사람한사람을 눈여겨보고있었다.

그러는 사이 유모차가 직장입구앞에 와서 멎고 애기어머니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탁아소의 젖먹이들을 안아보고 돌아온 그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우리앞을 지나가고있었지만 나는 그쪽엔 눈도 팔지 않고 그냥 걸어오고있는 사람들에만 주의를 돌리고있었다.

그럴 때 직장장이 유모차에서 내린 한 여인을 멈춰세우더니 나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작가동무, 저 동무가 리선심입니다.》

《?!》

나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럴것이 소개받은 리선심은 펍 체소해보이는 녀인이었던것이다.

가느스름한 얼굴퉁팍이며 가는 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동실한 눈매며 나의 머리속의 상상을 뒤집어놓은 그의 모습은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하였다.

직장장은 나의 놀란 기색을 알아차린듯

《내가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군요. 리선심동문 아이를 오누이나 둔 어머니랍니다.》

《그런걸 난 처녀일것이라고만 생각했지요.》

나도 웃고 직장장도 크게 따라 웃었다. 그러는 새에 리선심은 동무들속에 휩싸여 직장쪽으로 사라졌다.

잠시후, 나는 그를 만나려고 직장장과 함께 발걸을 정방직장으로 돌렸다.

《가정부인으로서 정말 용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치사하자 직장장은

《옳은 말입니다.》

하고 자량이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직장장동무로서도 자부할만한 일입니다. 속보도 보고 또 일군들과 정방공들이 리선심동무를 두고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처럼 자랑하더군요.》

나는 직장장이 첫인상에 너무 겸손한듯싶어서 이렇게 말하며 리선심에 대하여 몇가지 더 물었다. 그러자 직장장은 얼굴을 약간 수그리며 마치 대답에 공한 녀학생이 앞머리칼을 간중그리듯이 손끝으로 모자를 이마우로 조금 올려밀었다. 그리고는 한참 사색에 잠긴듯 묵묵히 걸다가 슬며시 고개를 들며 말을 했다.

《그는 가정에 들어앉았다가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장에 다시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떼고 차근차근 이어나가는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어느해 9월 어느날이었다. 동사무장이 그를 찾아와서 시당에서 찾는데 가보라고 일러주었다.

(당원도 아닌 나를 무슨 일로 찾을가?)

리선심은 이런 생각을 하며 곧장 시당위원회로 갔다. 시당에서는 얼굴이 너부죽한 한 일군이 그를 반가이 맞아주면서 공장은 왜 그만두었겠는가고 그 말부터 물었다.

선심은 자기의 심정을 알아줄것만 같아서 공장을 떠나서 겪게 된 심리적고충을 솔직하게 터놓았다. 그 일군은 남의 일갈지 않은듯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가 마주섰다.

선심은 공연히 가슴아픈 이야기길 했구나 하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 마음이 한줄만해서 앓아있는데 그 일군이 다가왔다.

《선심동무, 기뻐하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런 심정을 헤아리시고 가정부인들을 공장에 불러주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요?!》

선심은 저도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일군의 너부죽한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리선심동무도 집을 공장가까운데 옮겨잡고 공장에 나오도록 합시다. 가정부인들을 방직공장에 진출시키는것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입니다.》

하고 그 일군은 얼마전에 우리 도를 현지지도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방직공장의 실태를 깊이 료해하시고 가정부인들을 많이 받아들여 공장의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다고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아,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의 심정을 그토록 헤아리시고 다시 공장으로 불러주시다니! ...)

선심은 뜨거운것이 솟아오르고 눈앞이 부엌에
흐려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얼굴을
싸쥐고 흐느꼈다...

구월방직공장이 건설되던 시기에 당의 배려로
평양종합방직공장에 가서 정방실습을 받은 리선
심은 공장이 완공되어 조업을 개시했을 때엔 고
급기능공으로 혁신의 앞장에 섰었다. 그러나 그
는 그때 품었던 아름다운 꿈, 일을 잘하여 당에도
들고 로력영웅도 되리라던 포부를 꽃피우지 못하
고말았다. 일을 잘한다고 소문난 그한테 좋은 대
상자가 나타났던것이다. 잘나고 착실한 제대군인
청년과의 사랑, 결혼, 그뒤에 따른 해산... 그런
생활의 흐름속에서 처녀시절의 꿈은 점점 희미해
져갔다. 우선 공장에 나가는것도 힘겨웁게 느껴
졌다.(시집은 공장에서 10리나 떨어진 교외에 있
었다.)

그가 가정생활에 휘말리어 주춤거리고있는 사
이 함께 출발했던 동무들이 앞으로 멀리 달려나
갔다. 뒤떨어진 자신을 찾아보게 되었을 때 얼마
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그는 안타까이 모태기다
가 종당엔 모든것을 단념하고 아예 가정에 들어
갔고말았던것이다.

얼마동안은 가정살림을 알뜰히 꾸리는데 정신
이 팔려있었다. 그러다가 자기 처지를 돌이켜보
게 되었다. 끼식이나 굶이고 아이시중이나 들고
... 이제 생활의 보람이란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면서 못견디게 공장생활이 그리워졌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의 첫걸음 뗀던 공장이 아닌가.
년간계획을 앞당겨끝냈을 때 견습공들이 달려와
서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축하해주던 일이며 하루
일을 마치고 문화회관으로 달려가 춤추며 노래불
렀던 일이며... 가지가지 일들이 떠오르면서 막
울고싶어졌다. 아니, 몇번 울었는지 몰랐던것이
였다...

직장장도 선심이가 당의 부름을 받고 첫 출근
하던 때의 감격이 되살아오른듯 말을 잊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수그리고있었다.

이윽고 직장장은 담배 한대를 붙여물며 고개를
들었다.

《그가 다시 공장에 나오자 조직에선 집을 교환
하여 공장이 가까운 다충주택으로 이사시켜주었
지요. 공장에선 또 공장대로 떡, 국수공장 등 부
역살림에 편리한 후방공급시설들을 빈틈없이 갖
춰주구요. 어버이수령님께서 가정부인들을 위해
서는 무엇이든 아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버
이수령님께서 가정부인들이 탁아소에 다니는
수고까지 헤아리시고 열대의 유모차도 보내주셨
지요. 그것도 아이들과 애기어머니들한테 휘발유

냄새가 유해롭겠다고 축전지기관을 달게 하시고
색갈도 류달리 곱게 칠해서 보내주도록 하셨으니
... 세상에 이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
리는 그 유모차를 <사랑의 꽃차>라고 부른답니
다. 그런 꽃차를 타고다니며 아이들을 보살피고
부역살림걱정도 모르게 되었으니 어찌 공장일에
성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직장장은 이렇게 말하며 얼굴에 행복에 겨운
미소를 띠었다. 나는 직장장동무의 소박하고도
정겨운 기색에 끌려 함께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선심동무는 년간계획도 앞당겨 끝내
고 <100일전투>에서도 혁신을 일으켰군요.》

직장장은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는듯 기쁨에 넘
쳐 묵묵히 걸다가 잠시후 한결 침착한 어조로 말
을 뱉었다.

《사실 그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받아안은 사
랑을 생각한다면... 그런데도 당에서는 공장에 다
시 나와 일을 잘했다고 <100일전투>를 결속지를
무렵에 그를 조선로동당원으로 입당시켜주었다
입니다. 꿈만 같은 일이지요. 평생소원이 이루어졌
으니 ...

그가 당원증을 수여받고 돌아온 날은 온 집안
이 경사였답니다. 좀해서 말을 하지 않던 남편도
기쁜 빛을 감추지 못하며 말하더랍니다.

<집에 들어앉아 눈물을 짜던 당신한테 이런 영
광이 차례지다니... 나도 앞으론 당신 일을 더 잘
도울테니 공장의 주인구실을 더 잘하오.>

공장의 주인이 된 그는 그 말을 더 깊이 새겼다
지 않겠습니까. 한때 나약한 마음으로 가정에 들
어앉아 어버이수령님께 심려만 끼쳐드린 그가 아
닙니까. 그러던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그 은
정만 해도 이룰데 없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조
선로동당원의 영예까지 안겨주시었으니 그는 그
밤으로 다시 집을 나섰지요. 공장에 나가 일손이
라도 잡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선심동무와 같이 작업장에 나타나자 어떻
게 그 소식을 알았던지 온 직장성원들이 달려와
서 그를 에워싸고 축하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는
동무들을 불안고 자꾸 흐르는 눈물을 건잡지 못
하며 말했습니다.

《전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영원히...
영원히 공장을 지켜가겠어요.》 라고말합니다.》

직장장은 여기서 말을 잠시 맺고 나를 쳐다보
았다.

이러한 리선심이였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조
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받아안았
을 때의 감격과 기쁨은 남다른데가 있었을것이라
는 눈길이었다.

이야기가 거기에 이르자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대회보고를 받아안던 날 선심동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장동무,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천 15억미터를 두고 저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15억미터의 천이 생산되면 한사람한테 80미터씩 차례지게 되리라니... 사람들은 지금도 색깔 고운 천으로 철따라 기호에 맞는 옷을 마음대로 해입고 살지만 그때엔 거리와 마을이 꽃밭처럼 더 화려해지고 온 나라에 웃음꽃이 만발해질거예요. 우리 인민을 더 잘 입히고 더 잘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속다짐했어요. 15억미터의 천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저에게 맡겨진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아버지수령님께 꼭 기쁨을 드리리라요. 그것이 당원의 영예를 지닌 제가 당에 올리는 보고로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말입니다. 그때 그의 눈가에는 충성의 보고를 올릴 그날을 그려보는듯 맑은 이슬이 그윽히 어려있었습니다.》

직장장은 여기서 이야기를 맺었다.

나는 이름 못할 송고한 감정에 싸여 빨리 현장으로 가자고 재촉하였다.

이때 현장안의 은은한 직기소리를 깨뜨리며 전기종소리가 울려왔다.

바로 작업교대시간인것이다.

《직장장동무, 함께 갑시다. 저기 선심동무가 있구만요.》

나는 49호기대쪽을 가리켰다.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싶었던것이다.

작업장에 이르자 리영희가 깨끗이 기대청소까지 해놓고 기다리고있었다.

리선심은 기대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며 한바퀴 쪽 돌고나더니 이내 일손을 잡았다. 그러자 나는 온몸에 저도모를 긴장이 흐르는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것처럼 일손을 잡은 그의 모습은 판사람처럼 되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것이다.

줄지어 늘어선 9대의 정방기, 그사이를 누비며 좌우량권의 기대를 동시에 보고나가는데 고속도의 열풍을 안고 돌아가는 가락들가운데서 공회전하는 가락을 뽑아잡고 실마리를 찾아내는가 하면 어느사이 손길은 번개치듯 달리개를 거쳐 실유도기로 올라가서 실을 붙인다. 그러는동안에 왼손은 벌써 다른 공회전가락을 뽑아드는것이다.

그렇게 빈가락을 메꿔나가는 그의 몸은 탄력에 넘치고 헛눈을 팔지 않는 눈길에선 초긴장의 빛이 영민하게 반짝이고있었다.

하나의 예술과도 같이 세련된 그의 일숨씨를 흘린듯이 지켜보고있는데 리영희가 다가서더니 저으기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저런 숨씨는 누구한테서나 볼수 있는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손길은 불꽃을 날리는듯하는 걸요. 저 숨씨는 480분동안 한결같답니다.》

리영희의이 말은 나의 가슴을 쳤다.

《웁소. 그 가슴속의 뜨거운 마음이 감탄할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러주면서 정방기가락우에 넘나드는 손길이며 탄력에 넘친 걸음걸이며 열정의 화신과도 같은 리선심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자 호기심과 의혹이 강한 새세대, 리영희에게 더 적절하게 일러주지 못한 말들이 뜨거운 생각으로 뭉치며 가슴속에서 굵아졌다.

공장의 주인으로 세워주고 그 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준 위대한 사랑, 그 품에서는 평범한 가정부인도 저렇듯 소생의 열정을 안고 로력혁신자, 위훈자로 끝없는 혁신의 길을 걸게 되는것이 아닌가!

나는 정방기고속도의 열풍으로 달아오른 정방직장에서 오래도록 발길을 돌려세울수 없었다.